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종교학박사학위논문

재림교회의 음식규정과 종교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정결 개념에 근거한 몸의 이해와 실천 양식을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백 승 기

재림교회의 음식규정과 종교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정결 개념에 근거한 몸의 이해와 실천 양식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유 요 한

이 논문을 종교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백 숭 기

백숭기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19세기 미국에서 출현한 그리스도교계열 신종교 재림교회는 독특한 정결과 부정의 음식규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림교회는「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을 갖고 있으면서도「창세기」1장의 채식주의라는 독특한 음식규정을 하나 더 갖고 있다. 이 상이하고 충돌하는 음식규정들은 재림교회 내에 상이한 종교 정체성을 생산하며 동시에 상이한 집단들의 위계와 실천 양식들을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이론적 배경을 요청하고 있다.

첫 번째는 종교사회학에서 운위되는 정결과 부정 개념이다.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자신의 저서『정결과 위험』에서「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을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의 도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부정을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matter out of place)"으로 정의하고, 이런 상태가 공동체에게 '위험(risk)'이라고 규정했다. 사회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규정하는 것에서 공동체의 질서를 확보하며, 이러한 분류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은 '부정(impurity)'으로 정의된다. 이 부정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정화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다만 뒤르케임과 더글라스는 사회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종교집단을 이루는 개개인의 특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유요한은 단일한 종교집단 내에서도 얼마든지 상이한 정결과 부정 개념이 상존하며 역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주도 토착종교를 통해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상이한 코스몰로지, 즉 주신(主神)을 섬기는 서로 다른 신화들에 의해 정결과 부정의 경계가 이동하며, 때로 돼지고기라는 절대적일 것만 같던 정결과 부정의 개념마저 용인되거나 거부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을 통해 본 논문은 재림교회의 상이한 정결과 부정 개념이 비건 집단(vegan groups)과 레위기 집단(levitical groups), 플렉시테리언 집단(flexitarian groups)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의 정체성 개념이다. 카스텔은 그의 저서『정체성의 권력』에서 정당화 정체성과 저항 정체성, 프로젝트 정체성이라는 세 가지 정체성을 제안하며, 그 안에 역동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 중에 기존 사회질서를 지탱하는 정당화 정체성의 카운터파트로 등장하는 저항 정체성은 종종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전(temple)'이며 엘렌 화이트(Ellen White)가 주장한 채식은 '정결한 몸(pure body)'을 만드는 과업이다. 정결한 몸은 '성령의 거처(abode)'가 되면서 '거룩한 몸(holy body)'으로 거듭난다. 거룩한 몸은 하늘에 어울리는 '품성'을 담을 수 있는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며, 고기가 저들 식단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이 그쳐질 것이다."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 관점은 재림교회가 천년왕국운동을 통해 사회질서를 부정하고 탈세속화를 지향하는 종교집단의 저항 정체성을 보여주며, 저항 정체성은 하늘 식탁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보여준다.

하지만 20세기가 되면서 이러한 저항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기다리던 재림은 오지 않았고, 과거 '임박한 종말론'에 누적된 시간의 압력이 채식주의의 종말론적 에토스를 지우고 프로젝트 정체성을 갖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식욕의 불순종을 극복하고 거룩한 몸을 갖는 신도들의 과업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정결한 몸, 즉 무병장수의 몸을 갖는 건강과 장수의 프로젝트로 전락한다. 이때부터 과학적 환원주의로 무장한 채식은 재림교회 건강신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표징이며, 전국에 흩어진 뉴스타트 요양원은 이를 입증하는 실험장이 되었다. 대신 레위기 음식규정은 새로운 종교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본 논문은 1915년부터 1957년 사이 비육식의 경계가 흐려지고 돼지고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과정을 재림교회 내 문헌을 통해 역사적으로 살폈다. 1957년 이후, 돼지혐오증은 재림교회 신자들에게 피아(彼我)의 종교정체성을 확보해주는 새로운 경계선이 된다.

세 번째는 종교사회학에서 운위되는 교회-종파 이론(Church-Sect theory)이다. 본 논문은 재림교회 내에 상이한 정결과 부정 개념이 들어오게 된 원인과 역사적 과정을 함께 들여다봐야 거룩한 몸의 정체성이 그간 어떤 변용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통시적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재림교회 음식규정의 변천사를 훑어보고 채식주의가 갖는 종말론적 에토스가 탈색되는 과정을 따라갔다. 그 다음 비교적 관점에서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

이 보유한 정결과 부정 개념을 재림교회의 그것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성립 종파(Established Sect)가 갖는 특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본 논문이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을 비교대상을 삼은 것은 이들이 모두 19세기 미국에서 발원한 유사한 그리스도교계열의 신종교로 분류되면서 성장곡선과 집단규모에 있어 재림교회의 적절한 카운터파트가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후기성도교회가 종교정체성의 중핵(中核)이었던 일부다처제를 폐기하고 '지혜의 말씀'을 종교정체성으로 대체한 과정과 여호와의증인이 자가수혈을 포함한 완강한 전혈 수혈거부 입장에서 분획수혈과 혈액성분의 사용을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이를 '양심의 문제'로 낮춘 과정이 재림교회가 채식주의에서 레위기 음식규정으로 나아간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화이트의 추정적 계시들을 수집해 놓은 『예언의신』은 과거 재림교회 건강신학이 의지하는 핵심 교재이자 신자들이 인정하는 무흠(無欠)한 기준이었다. 하지만 1915년, 그녀가 죽은 이후, 「레위기」 음식규정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으며, 종파(Sect)에 불과했던 재림교회가 주류 개신교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1957년을 전후하여 새로운 교리로 확립되었다. 본 논문은 채식주의가 「레위기」 음식규정으로 대체되는 이 변곡점을 종교사회학의 유형론의 관점에서 재림교회가 소규모 종파에서 대규모 교단(Denomination)으로 나아가려는 시점으로 해석했다. 또한 이는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로렌스 야나코네(Laurence Iannaccone)의 고비용 종교(High-cost Religion) 이론을 통해 음식규정이 특정 종교집단 내에서 유효한 정체성으로 적절히 기능하며 투자적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교인들을 규정하고 단속하는 희생과 낙인(sacrifice and stigma)의 기능을 갖는다. 여기서 무임승차자(freeriders) 문제는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뿐 아니라 재림교회도 직면한 문제며, 이때 정결과 부정의 음식규정은 타당한 해결책이 된다.

결론적으로 상이한 음식규정은 재림교회 내에 세 가지 종교정체성을 낳았는데, 각각 목회자와 지도자 등 종교 엘리트들로 이루어진 비건 집단은 온전한 채식주의를 '거룩한 몸'의 종교정체성으로 삼으며 '경건의 경계짓기'를 실천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례로 뉴스타트운동과 요양원 문화를 선택하고 채식식당

을 순례지로 삼는다. 반면 교단 내 일반 평신도들이 주류를 이루는 레위기 집단은 돼지고기를 정결과 부정의 기준으로 삼는 돼지혐오주의자들이다. 이들은 '거룩한 몸'이 아닌 '무병장수의 몸'을 희구하며 채식보다 정결한 음식을 종교정체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음식규정으로 자신들의 종교정체성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동료 신자들의 사기를 꺾는 일종의 무임승차자다. 반면 이들은 비건 집단을 '완전주의자'로, 레위기 집단을 '율법주의자'로 규정하며 소위 '몸의 정치(politics of body)'를 감행한다. 본 논문은 재림교회 내의 상이한 종교정체성은 제이콥 밀그롬(Jacob Milgrom)이 주장한 유대교의 종교정체성과 유사한 동심원 구조를 갖으면서도 단순한 분기가 아닌 역동적 갈등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학문적 의미를 둔다.

주요어 : 재림교회, 정결과 부정, 정체성, 음식규정, 채식주의, 레위기, 후기성도교회, 여호와의증인

학 번 : 2004-20047

목 차

1장 서론 ····· 1

1. 연구의 대상 ····· 4

2. 연구 방법론 ····· 13

3. 선행연구 검토 ····· 17

2장 이론적 토대 ····· 27

1. 정체성의 개념 ····· 27

1.1. 저항 정체성과 프로젝트 정체성 ····· 29

1.2. 정결과 부정의 정체성 ····· 32

1.3. 음식규정과 정체성 ····· 35

2.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관계 ····· 39

3. 재림교회의 인간관 ····· 46

4. 재림교회의 건강신학 ····· 51

4.1. 건강신학의 정의 ····· 52

4.2. 채식주의의 범위 ····· 55

4.3. 이중잣대—「레위기」 11장 신학 ····· 60

3장 재림교회 음식규정의 변천 ····· 65

1. 전사(前史)—19세기 건강개혁운동 ····· 67

1.1. 빵의 개혁 ····· 68

1.2. 유토피아 공동체 ····· 72

1.3. 건강개혁과 마스터플랜 ····· 74

2. 출발점—엘렌 화이트의 건강개혁 ····· 77

2.1. 하늘 식탁—정결한 음식의 노스탤지어 ····· 77

2.2. 음식과 정욕의 관계 ····· 79

2.3. 채식—건강개혁의 완성 ····· 81

3. 변곡점—「레위기」 음식규정 ····· 87
3.1. 채식주의 내에서의 돼지고기 문제 ····· 87
3.2. 채식주의 밖에서의 돼지고기 문제 ····· 92

4장 재림교회의 정결한 피와 거룩한 몸 ····· 97
1. 재림교회의 채식과 정결한 피 ····· 99
1.1. 여호와의증인의 수혈금기 ····· 99
1.2. 재림교회의 정결한 피 ····· 106
2. 재림교회의 채식과 구원 ····· 112
2.1. 후기성도교회의 지혜의 말씀 ····· 113
2.2. 재림교회의 채식주의 ····· 122
3. 교리의 변천—사회화와 세속화의 갈림길 ····· 125
3.1. 후기성도교회—커피의 세속화 ····· 125
3.2. 여호와의증인—양심의 문제 ····· 129
3.3. 재림교회—『QOD』 ····· 136
4. 재림교회의 과학적 환원주의 ····· 141

5장 재림교회 내 세 종교정체성 집단의 실천 양식 ····· 146
1. 채식과 육식 사이—두 가지 표준의 등장 ····· 148
1.1. 신학적 설명—유대교와의 선택적 친화력 ····· 148
1.2. 사회학적 설명—성립종파의 특징 ····· 151
1.3. 이념형으로서의 세 집단 ····· 154
2. 비건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양식 ····· 157
2.1. 비건 집단의 정체성 ····· 157
2.2. 비건 집단의 음식 ····· 163
2.3. 성지로서의 채식식당 ····· 165
2.4. 요양원 문화와 뉴스타트운동 ····· 167

3. 레위기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양식 ····· 170
3.1. 레위기 집단의 정체성 ····· 170
3.2. 레위기 집단의 돼지혐오증 ····· 173
3.3. 무병장수의 몸 ····· 178
4.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양식 ····· 181
4.1.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정체성 ····· 181
4.2. 집단의 통계적 구성 ····· 185
4.3. 무임승차자 문제 ····· 188
4.4. 몸의 기술과 몸의 정치 ····· 194

6장 결론 ····· 200

참고문헌 ····· 207
Abstract ····· 225

표 목 차

[표1-1] 제사장 문서의 정결과 부정의 분류법 ····· 18
[표1-2] ISKON 신도들의 음식 위계 ····· 22
[표2-1] 재림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 ····· 32
[표2-2] 종교의 중심부와 주변부 ····· 43
[표2-3]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특징 ····· 44
[표2-4] 재림교회의 인간관이 말하는 거룩한 몸 ····· 49
[표2-5] 재림교회 건강신학의 얼개 ····· 54
[표2-6] 재림교회 채식주의의 범위 ····· 59
[표2-7] 건강신학 내에서 채식주의와「레위기」음식규정 ····· 61
[표3-1] 엘렌 화이트의 애니멀리즘 ····· 89
[표4-1] 정결한 피의 전개 양상 ····· 110
[표4-2]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의 교리 변화 비교 ····· 127
[표4-3] 여호와의증인과 재림교회의 교리 변화 비교 ····· 134
[표4-4] 재림교회, 후기성도교회, 여호와의증인의 교리 비교 ····· 139
[표5-1] 재림교회와 유대교의 신앙적 유사성 ····· 149
[표5-2] 재림교회 내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의 특성 ····· 155
[표5-3] 비건 집단의 정결과 부정 개념 ····· 159
[표5-4] 재림교인이 생각하는 건강기별과 구원의 상관관계 ····· 162
[표5-5] 비건 집단이 이해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 165
[표5-6] 레위기 집단의 세계적 분포 ····· 172
[표5-7] 레위기 집단의 정결과 부정 개념 ····· 173
[표5-8] 레위기 집단이 이해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 176
[표5-9] 대중종교의 스펙트럼: 재림교회 표준의 수용과 거부 ····· 184
[표5-10] 재림교회 내 각 집단별 채식 비율 ····· 186
[표5-11] 채식의 유익성에 대한 재림교인의 인식 ····· 187
[표5-12] 재림교회 내 종교정체성 구조 ····· 199

1장 서론

재림교회[1]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2]는 한 덩어리의 잘 만든 빵 안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종교가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재림교인에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명제다. 19세기 북미에서 발원한 그리스도교계열 신종교(new religion)[3] 재림교회는 채식주의와 더불어 돼지고기를 금하는 독특한 음식규정으로 유명하다. 그 이면에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강기별(health message)'이 놓여 있다. 화이트가 "의료선교 사업은 복음의 오른팔(right hand of the gospel)"이라고 말한 것처럼,[4] 재림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서 음식규정이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건강기별을 준수하는 재림교인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최소한 7~10년 장수한다는 한 인구통계학적 연구가 그 비근한 예다.[5]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문(儀文)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믿는 대부

---

1) 정확한 명칭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Seventh-day Adventists)다. 약칭으로는 'SDA'로 쓰고 통칭으로는 '재림교회(Adventist)'라고 불리지만, 국내에서는 유독 '안식교(安息敎)'라는 세칭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를 '모르몬교(Mormon)'라 부르는 것을 정작 LDS 성도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재림교인들 역시 '안식교'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오랫동안 안식교라는 명칭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던 '이단'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소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재림교회로 부르기로 한다.

2) 국내 재림교회의 각종 문헌에는 '엘렌 화잇,' '화잇 여사,' '화잇 자매' 등으로 번역 소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엘렌 화이트로 명명한다.

3) 김종서는 기존의 '신흥종교'나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같은 용어들이 대부분 기성종교의 관점에서 경멸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종교(new religion)'를 가치판단이 제거된 '그저 새로운 종교'라는 뜻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4), 4. 그럼에도 신종교의 정의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자인하며 엘우드(R. S. Ellwood)가 말한 신종교 특성 15가지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⑴ 무아적(ecstatic) 종교경험을 한 창시자, ⑵ 그 종교경험에 대한 매우 독특한 해석, ⑶ 그런 창시자를 조력하는 비상한(supernormal) 조력자, ⑷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의 사용, ⑸ 정통성(orthodoxy)에 대한 반작용, ⑹ 절충적이고 혼합적인 특성, ⑺ 일원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론, ⑻ 낙관주의, 성공지향성, 진화론적 경향성, ⑼ 치병(healing)의 강조, ⑽ 주술적인 방법의 사용, ⑾ 간단하고 분명한 입교 절차, ⑿ 성스러운 중심(sacred center)의 존재, ⒀ 심리적 힘(psychic powers)의 강조, ⒁ 가족집단보다 개인에 접근하는 경향성, ⒂ 주문 암송이나 명상 등을 통한 무아적 경험에 성원들의 참여도. 위의 책, 10-11.

4) Ellen G. White, *Evangelism*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0[1946]), 515. 화이트의 인용문은 모두 필자가 새로 번역했다.

5) Jim E. Banta et. al., "The Global Influence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 Diet," in *Religions* 9 (2018): 1-25를 참고하라. 재림교회 채식주의와 관련하여 대표적으

분의 개신교단과 달리, 재림교회는 부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이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건강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왔다. 나아가 음식규정은 오늘날 재림교인이 자신을 재림교인으로 규정하게 하는 정체성의 핵심이다.

언뜻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교리로 인식되기 쉽다. '재림'과 '안식일'이라는 핵심 교리 중 그 어디에도 채식주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면밀히 재림교인들의 의례와 신행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음식규정이 갖는 다양한 함의를 간취해내기 어렵다. 음식규정은 지난 160여 년 동안 세계적인 종교단체로 성장한 재림교회의 여타 교리들을 관통하는 독특한 의례로 자리를 잡았다. 덕분에 재림교회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211개의 종합병원과 121개의 요양원, 440개의 클리닉, 22개의 건강식품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6] 그럼에도 지금까지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유대교 코셔의 아류(亞流) 내지는 『구약성서』의 몰이해,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치부되어왔다. 본 논문은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와 음식규정을 포괄하는 건강기별, 혹은 건강신학이 그간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왔으며,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을 지탱하는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았는지 통시적 연구와 함께 다른 종교집단과 비교학적 연구를 통해 밝힐 것이다. 그리고 재림교회 내에서 음식규정을 둘러싼 정결과 부정의 경계에 복잡한 분기(分岐)와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공시적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한다. 요컨대 재림교회는 1900년대 중반 종파(Sect)에서 교단(Denomination)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음식규정을 「레위기」 음식규정으로 덮어쓰는 과정(supersession)을 통해 이중잣대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복수의 종교정체성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다. 재림교회의 이중적인 음식규정이 다양한 정결과 부정 개념을 낳으면서 교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재림교

로 인용되는 저서로는 Jan Hoffman and Chris Rucker, *The Seventh-Day Diet: How the "Healthiest People in America" Live Better, Longer, Slimmer And How You Can Too* (New York: Random House, 1991), Gary E. Fraser, *Diet, Life Expectancy, and Chronic Disease: Studies of Seventh-day Adventists and Other Vegetari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Elvin Adams, *The Healthiest People: The Science behind Seventh-day Adventist Success* (Bloomington, IN: iUniverse, 2019) 등이 있다.

6) 자세한 통계는 재림교회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s://www.adventist.org (접속일: 2022년 5월 10일)

회 내에 등장한 세 개의 종교정체성 집단이 각기 몸(신체)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아가 신행과 의례 같은 그들의 실천 양식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집단이 외부적으로 피아의 경계짓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위계를 통한 경건의 경계짓기를 하는 양상을 종교학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1. 연구의 대상

재림교회는 채식주의를 표방하는 그리스도교계열 신종교로 알려져 있다. 삼육두유에서부터 SDA삼육영어학원에 이르기까지 재림교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두드러진 건 바로 '건강'과 '채식'이다. 서울 회기동에 소재한 삼육서울병원[7]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교회,' '채식을 실천하는 교회,' '금주 금연을 강조하는 교회' 등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국내 개신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재림교회의 부정적인 꼬리표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건강세미나와 채식요리강습, 뉴스타트 프로그램과 5일금연학교는 이런 이미지와 관련된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선교 도구들이다. 안신은 재림교회가 국내 건강담론을 선점하게 된 것이 각종 이단논쟁에 휘말려온 재림교회가 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선교 동력을 확보하는 데 적잖이 기여했다고 평가한다.[8]

하지만 기존 연구는 재림교회가 보유한 종교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재림교회가 보여준 건강기별이 실제 교인들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별개로 재림교인들이 실제 채식과 음식규정을 어떻게 자신의 종교정체성으로 삼고 있는지, 나아가 그 종교정체성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

---

7) 서울삼육병원은 1908년 순안에서 시작되었고, 1932년에는 서울로 이전하여 경성요양의원과 경성요양원을 거쳐 1947년 서울위생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지난 2008년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현 명칭으로 개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생병원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국헌, 「한국 근현대사에서 재림교회 선교병원의 역할과 의의」, 『신학논단』 68 (2012): 121-146을 참고하라.

8) "현재 재림교회는 꾸준히 일반 개신교계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른바 정통 개신교계로의 편입은 재림교회의 선교와 향후 교세 확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실제 지금까지도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신교 일부 보수교단의 태도는 재림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국내 개신교와 재림교회는 군종장교 배출, 기독교방송 설립 등 개신교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기마다 크고 작은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 재림교회 산하 삼육식품의 두유와 삼육어학원의 경쟁력은 재림교회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엔돌핀'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회자시키며 전 국민에게 웰빙(well-being) 붐을 조성했던 이상구 박사 역시 재림교인이다. 따라서 재림교회가 사전에 철저히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서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강담론'을 재림교회가 선점하게 된 것은 '이단논쟁'으로 인해 직접 선교가 위축되어온 재림교회에게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긍정적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신 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음식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연구: 엘렌 화잇의 건강개혁을 통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1 (2014): 9-10.

는지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칫 재림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교리를 변증하는 신학이나 호교론으로 흐를 위험도 안고 있다. 이에 종교학적 관점에서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와 음식규정을 이해하고 정체성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가 요청된다.

무엇보다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정결(purity)'과 '부정(impurity)'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정결과 위험』[9]에서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의 종교사회학적 관점을 발전시켜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음식규정을 정결과 부정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더글라스는 부정을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matter out of place)"으로 정의하고, 이런 상태가 공동체에게 무질서, 즉 '위험(risk)'이라고 규정했다.[10] 그녀는 아프리카의 렐레족이 놀랍도록 복잡한 음식규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연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본성을 갖고 있으며, 주변에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규정하는 것에서 사회를 정의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분류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은 이미 확보된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무질서(disorder)'로 규정된다.[11]

여기서 더글라스가 말하는 분류체계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상이한 분류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분류체계 역시 집단에 따라 전혀 다른 이해관계를 작동시킨다. 더글라

---

9)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2001[1966]). 더글라스의 이 저서는 유제분과 이훈상이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학사, 1997)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번역 소개했다. 단 제목에 등장하는 Purity가 문맥상 '순수(純粹)'가 아닌 '정결(淨潔)'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서의 제목이 원서의 진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결과 위험』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더불어 이하 본 논문 내의 인용도 유제분과 이훈상의 번역이 아닌 원서를 직접 옮겼다. 참고로 일본어판은 『오예와 금기(汚穢と禁忌)』 (筑摩書房, 2009), 중국어판은 『결정과 위험(潔淨與危險)』 (民族出版社, 2008)으로 번역되었다.

10) Douglas, 41.

11) 더글라스는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하며 점성(viscosity)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액체에도 고체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동체는 고체도 액체도 아니다. 더글라스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런 상태는 기존의 분류체계, 즉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에번스-프리차드에 따르면, 아프리카 누어족은 우연히 기형아(monstrous birth)가 태어나면 이를 인간이 아닌 하마로 분류하여 본래의 서식지인 강가에 유기한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서부 아프리카의 일부 종족들은 쌍둥이가 태어나면 동시에 하나의 자궁에서 두 인간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아기 중 하나를 죽인다. 그들에게 쌍둥이를 규정할 사회적 분류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례적인 것을 기피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것이 부정한 것이며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위의 책, 39-40.

스는 이를 설명하면서 신발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것이 식탁 위에 놓여있을 때 더럽다고 말한다. 신발은 신발장에 있어야 한다. 그곳이 신발의 용도와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공간(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발이 신발장이 아닌 식탁 위에 놓여있다면 그건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제아무리 깨끗한 신발이라도 더럽다. 반면 식탁 위에 음식이 담긴 접시가 놓여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동일한 접시를 침실에 갖다놓거나 그릇이 아닌 옷 위에 음식이 묻으면 대번 "더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먼지(dirt)'로 규정한 부정의 개념에서 병인론과 위생학을 제거해버리면, 정결과 부정이라는 사회적 분류체계만 남는다고 더글라스는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더글라스는 『구약성서』「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을 분석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음식규정을 위생학적으로, 우의적으로, 교훈적으로 설명한 기존의 모든 해석을 비판한다. 필로와 아리스테아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열한 미각을 절제하고 폭식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음식규정이 주어진 것이라는 우의적 해석에 치중했고, 마이모니데스는 음식규정에 인간이 모르는 생리학적 이유가 숨어있을 거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퀴나스 역시 우의적, 도덕적 해석을 중심에 두었다.[12] 더글라스는 그리스도교 신학 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러한 해석들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구약성서』에서 하지 말라는 규정(Do-nots)을 조각조각 취하는 방식으로는 그 어떤 해석도 실패할 것이다. 유일하게 건전한 접근은 위생학과 미학, 도덕률과 본능적인 혐오감, 심지어 가나안 족속과 조로아스터교의 동방박사를 다 잊어버리고 [「레위기」 11장이라는] 본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13]

---

12)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따라 어떤 종류의 음식도 부정하지 않으며 본성적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특정 음식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데, 불순종의 발로로 먹거나 절제하겠다는 맹세를 어기고, 혹 과도한 육욕의 욕망으로 먹을 경우, 혹 그 음식들이 식욕을 부추길 경우 그렇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아퀴나스의 이러한 해석은 오랫동안 서구 의학을 지배해온 체액설(humorism)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르면, 특정 짐승은 부정한데, 이는 돼지 같이 부정한 것을 먹거나, 두더지와 쥐 같이 땅 속에 살면서 고약한 냄새를 내거나, 습기나 건조함으로 체내의 부패한 체액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흙이 묻어 더러워졌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은 발굽을 가진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금지한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과도한 건조함을 가진 특정한 맹금류들은 과도한 습기를 지닌 물새들과 함께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뱀장어처럼 특정한 물고기 역시 다른 물고기들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 과도한 습기를 갖고 있다. 반면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너무 습하지 않고 흙이 묻어 더럽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이 허용된다.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I-II, 102, 6, ad1., ad2.

더글라스는「창세기」1장의 코스몰로지를 가져와「레위기」11장을 해석한다. 세계는 하늘과 땅과 물로 나뉘며, 각 영역에는 그에 적합한 존재들로 채워져 있다. 하늘에는 두 날개로 나는 새가 있으며, 땅에는 굽이 갈라진 네 발로 걷는 짐승이 돌아다니고, 물에는 비늘과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다. 이 범주를 넘어서거나 양쪽에 걸쳐있는 것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은 비정상이며 그렇기에 가증한 것이다. 더글라스는 이러한 비정상이 공동체에 위험을 몰고 온다고 주장했다.

음식규정은 일정한 기준으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다시금 공동체의 안정과 결속을 가져오는 기제로 쓰인다. 결국 정결과 부정 개념은 일상에 교훈을 주기 위한 도덕적 지침도, 린네의 체계적 분류체계도 아닌, 집단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경계선, 즉 성(聖)과 속(俗)의 사회구조를 체계화하는 기준점이자 영점(零點)이 된다.[14]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15]는 명령은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한 사물이 뒤섞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함이 완전함으로 구현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거룩함은 서로 다른 사물의 분류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16] 더글라스는「레위기」11장에 등장하는 음식규정이 이와 같은 맥락에서 거룩함의 은유(metaphor of holiness)를 단지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더글라스의 이런 해석은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건강기별로 불리는 독특한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잡한 건강신학을 조립해왔다. 유대교 내에서 정결이 단순한 청결함만을 말하지 않듯, 재림교회 내에서 음식규정 역시 단순히 건강의 유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재림교인에게 정결한

---

13) Douglas, 50.

14) 종교학 내에서 흔히 운위되는 성과 속, 정결과 부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방원일은 성과 속이 종교 문화의 거룩한 측면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정결과 부정은 금기의 위반에서 나타나는 종교 문화의 살벌한 측면을 강조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뒤르켐에 이론적 연원을 두고 엘리아데와 더글라스에 의해 각기 발달된 두 개념쌍은 그동안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어 왔던 것이다. ... 더글라스가 제시한 깨끗함과 부정은 성과 속과 마찬가지로 종교학에서 현상을 서술하는 핵심 용어이자 대체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둘의 관계를 규정하고 명료한 쓰임새를 규정하는 것은 종교학의 중요한 이론적 과제다." 방원일,『메리 더글러스』(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80-81.

15)「레위기」11장 45절.

16) Douglas, 54.

음식을 섭취하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는 것은 성화를 향한 일상의 의례이자 하늘 가는 성품을 만드는 독실한 신앙행위다. 재림교회의 공식 교리집인 『기본교리28』의 22번 「그리스도인의 품행」 항목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문장들로 건강신학이 말하는 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 『성서』는 정결한 동물들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음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일을 계획하시지 않았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진 채식이 최선의 음식이라는 사실—이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계속적으로 증거를 제시한다—때문이다.[17]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문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는 "『성서』는 정결한 동물들을 먹는 일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본래의 음식물에는 육식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문장이다. 두 문장은 사실 이율배반적이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엮인 두 문장을 다 받아들일 때 정결과 부정 개념이 「레위기」 11장의 것인지 「창세기」 1장의 것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재림교인에게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채식은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능력을 부단히 계발시켜야 할 책임을 상기시킨다. 이 책임은 나아가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신자들 사이에서 종교정체성을 확보하는 원동력이 된다. 일상에서 재림교인과 비(非)재림교인을 구분하는 가시적인 경계선이 안식일 준수나 재림신앙보다 음식규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의 종교정체성으로 삼기에 안식일 준수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가능하며, 재림신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적 신념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음식규정은 삶에서 명쾌한 피아(彼我)의 경계선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하루 세끼 음식이 갖는 비중은 그 어떤 신학적 수사(修辭)보다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글라스가 제시한 도식과는 달리, 재림교인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여기에는 엄격한 채식을 통해 외

17)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28』 (서울: 시조사, 2010[1990]), 311.

적 종교정체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내적으로도 존재론적 우위를 경험하는 '채식파' 교인이 있는가 하면,「레위기」11장의 돼지고기 금기를 통해 비재림교인과의 차별성을 노리는 데 안주하는 '육식파' 교인이 공존한다. 본 논문은 '채식파' 교인을 '비건 집단(vegan groups)'으로, '육식파' 교인을 '레위기 집단(levitical groups)'으로 각기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음식규정 자체에 아무런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교단의 음식규정을 어기는 교인도 있다. 이런 제3의 교인은 '플렉시테리언 집단(flexitarian groups)'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들 모두가 넓게 재림교인이라는 종교정체성으로 묶여있지만, 사실 이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종교정체성은 동일하거나 균일하지 않다. 이처럼 동일집단 내에 묶인 신자들 사이에서 정결과 부정 개념의 정의가 서로 다르고 음식규정을 대하는 태도도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더글라스의 도식은 놓치고 있다.[18]

이에 대해 유요한과 제임스 와츠(James W. Watts)는 더글라스의 주장처럼 부정과 오염이 순전히 사회적으로 구성된 범주뿐인지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앤 메이그스(Ann Meigs)는 뉴기니의 후아족이 사회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보다 신체적 분비물로 인한 오염을 더 걱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식탁 위에 신발이 더럽다고 말하는 건 일차적으로 그것이 실제 똥이나 침 같은 오물이 묻었을 가능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화장실에 둔 차 한 잔이 더럽다고 말하는 건 그것이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 때문이 아니

18) 물론 더글라스는 1970년『자연 상징』에서 격자(grid)와 집단(group)이라는 도식을 통해 1966년『정결과 위험』에서 제기했던 이러한 개념적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 책[『정결과 위험』]을 쓸 때만 해도 나는 어떤 사회는 강력한 경계를 지닌 인식 범주들 없이 매우 잘 존속하고 어떤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도 더 쉽게 비정상을 용인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경계 짓는 경험의 소통 기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자연 상징』은 이전의 책의 기획으로부터 나온, 내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이다."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자연 상징: 우주론 탐구』, 방원일 역 (서울: 이학사, 2014[1970]), 8-9. 책에서 더글라스는 집단을 이루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격자로, 개인들이 보여주는 결속력을 집단으로 정의하고 집단의 분류체계를 개인이 수용하는 정도를 세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 변화를 동적인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손에 들고 있다. 우리는 자신을 격하하고 예속의 삶으로 빠뜨리는 분류체계를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압력 아래 놓인 개인을 볼 수 있다." 위의 책, 137. 그녀는 낮은 집단과 낮은 격자 구조에서는 개인주의(individualism)가 등장하며, 높은 집단과 높은 격자 구조에서는 위계적인(hierarchical) 사회가, 높은 집단과 낮은 격자 구조에서 평등적인(egalitarian) 사회 구조가, 낮은 집단과 높은 격자 구조에서 삶에 대해 숙명적인(fatalistic) 관점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비록 더글라스가 후속 연구에서 진전된 고민을 보였지만, 정결과 부정이 사회 내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더글라스의 관점을 확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자칫하면 꿉꿉한 화장실 냄새가 베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장실에 빈 컵을 놔둔다면 찬장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19] 더글라스의 주장처럼 정결과 부정 개념에 장소가 중요성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 개념은 시대가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20]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유요한과 와츠는 더글라스가 사회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단일한 문화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정결과 부정의 관점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평가한다.[21] 일례로, 유요한은 제주도 심방들이 말하는 정결과 부정 개념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성별마다 차이를 보인다고 말한다. 정결과 부정의 정의는 심방이 어떤 신을 모시느냐에 따라, 심방이 여자냐 남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굿을 하기 전에 성교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최근 들어 여자 심방의 숫자와 영향력이 커지면

---

19) Yohan Yoo & James W. Watts,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 3 이하를 보라. 이 부분은 고대 이스라엘 종교학자 제이콥 밀그롬도 지적하고 있다. Jacob Milgrom,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1), 721.

20) "화분의 흙이 식탁 위에 놓여 있으면 테이블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물이나 세제로 그 흙을 닦아낼 수 있다. 흙이 음식을 담은 접시에 떨어지면 음식은 완전히 오염된 것으로 버려지고 접시는 물이나 비누로 닦아진다. 하지만 똑같은 흙이 숲에 버려지면, 그것은 적절한 장소에 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깨끗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부엌을 닦는 데 쓰였던 비누나 세제가 숲에 버려지면 자연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 환경과 '인공' 서식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현대적 세계관이 각 장소에서 어떤 물질이 깨끗하고 어떤 물질이 오염되었는지 적시해준다. 흙과 비누, 세제 같은 물질이 한 장소를 정화하고 다른 장소를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구분은 명확한 사회적 위계나 가치관의 고정된 위계를 암호화하지 않는다. 자연의 영역이든 인간의 영역이든 각 개인과 환경에 따라 더 우월하고 더 유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이다." James W. Watts & Yohan Yoo, "Feeling realms: Cosmology and bodily experiences of purity and pollution," in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 127-128.

21) 같은 맥락에서 유요한은 본풀이 분석을 통해 같은 제주도 내에서도 마을에서 섬기는 신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결과 부정의 패러다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토착종교를 고수하는 제주도민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대략 18,000개나 된다고 말한다. 만신전에 있는 그 18,000개의 모든 신들이 인간의 영역과 구별된 신의 영역에 속하는 신들이지만, 다양한 신의 영역들이 서로 다른 신들의 영역과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가장 큰 규모의 영역 내에는 나름의 정결 법칙이나 기준들을 갖고 있는 종속적인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신의 영역을 또 다른 신의 영역과 분리하는 정결과 부정의 조건들은 본풀이 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풀이 내의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한 신들 사이의 종종 복잡한 관계들을 그리고 있다." Yohan Yoo, "Separating realms: Purity and pollution in the indigenous religion of Jeju-do, Korea," in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 86 이하를 보라.

서 월경혈은 심각한 오염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결과 부정 개념은 동일한 종교공동체 내에서도 지위나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유요한과 와츠의 연구는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근동, 이집트,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 토착종교를 분석하며 신화 내에 등장하는 상이한 코스몰로지가 정결과 부정 개념을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비교방법론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시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결과 부정 개념이 갖는 신화 속 코스몰로지와의 인과관계를 끄집어낸다.

재림교회 내에도 역시 동일한 재림교인으로 묶여있지만 상이한 음식규정을 가진 집단들이 존재한다. 재림교회는 전인적 인간관과 성화론을 바탕으로 독특한 음식규정을 종교정체성으로 보지(保持)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적합한 '하늘가는 성품'의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이들에게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지은 거룩한 '성전(temple)'이며 하나님의 신(성령)이 거하는 실제적 '거처(abode)'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할 책임은 오로지 신자의 몫이다. 이때 정결한 음식은 정결한 몸을 만들고 거룩한 성품을 만드는 첫 단추다. 문제는 제주도 토착종교의 사례처럼 '정결한 음식'에 대한 정의가 재림교회 내에서 변화를 거듭해왔다는 점이다. 160여 년의 기간 동안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에 찍힌 다양한 변곡점과 등고선은 더글라스의 평면적인 도식에 따라 말끔하게 그려질 수 없는 다양하고 역동적인 층위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더글라스의 이론과 함께 유요한과 제임스 와츠의 연구가 갖는 보완적 의미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은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통해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종교사회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유요한이 제주도 토착종교 연구를 통해 더글라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결과 부정이 사회 내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일 것이다. 우선 정결과 부정 개념으로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이 갖는 집단 내 분류체계와 결속력을 확인하고, 이어서 음식규정이 만드는 종교정체성의 역동적인 측면을 조명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계보로 정리하고, 현재 교단 내에 존재하는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들의 특징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 이 집단들은「레위기」11장에 등장하

는 정결과 부정의 구조를 따라 동심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집단마다 채식주의에 대한 이해와 종교정체성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재림교회의 '거룩한 몸'이 갖는 이상적인 지위도 집단마다 다른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는 점이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내용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론

본 논문은 먼저 에밀 뒤르케임과 메리 더글라스의 종교사회학적 개념과 정결과 부정 개념이 단순한 분류체계를 넘어 종교집단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수용한다. 분명 음식규정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재림교인에게는 종교정체성과 함께 집단의 결속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교인은 신앙의 순도(純度)를 의심받으며 공동체 내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되기 쉽다. 나아가 그들은 집단의 안정에 위협적이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낙인찍힌다. 반면 음식규정을 존중하는 교인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며 유의미한 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뒤르케임과 더글라스의 논지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에도 적용 가능하다.

반면 더글라스의 개념만 가지고는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이 갖는 함의를 다 담아낼 수 없다.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은 '통시적 역동성(diachronic dynamicity)'뿐만 아니라 '공시적 다양성(synchronic diversity)'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왔으며, 그에 따른 해석과 적용 역시 달라졌다. 만약 빅토리아 시대를 살았던 엘렌 화이트가 되살아나 오늘날 재림교인들의 음식문화를 본다면 기겁할지 모른다. 비교대상을 확장하고 엄밀한 비교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림교회와 유사한 음식규정을 가진 유대교의 정결과 부정 개념, 나아가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채식주의, 그리고 재림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출현한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커피와 주정음료에 대한 후기성도교회의 절제운동과 비교하여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알아보고, 여호와의증인의 피의 교리와 수혈거부를 비교하여 재림교회의 정결한 피와 채식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신학의 전모와 재림교회의 독특한 정체성을 규명할 것이다.[22)]

---

22) 재림교회에 대해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을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19세기 미국에서 발원한 그리스도교계열의 신종교로 분류되면서 성장곡선과 집단규모에 있어 재림교회의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로널드 라슨(Ronald Lawson)은 각 종교단체의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2017년 기준 재림교회가 전 세계에 20,727,347명의 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기성도교회가 16,118,169명, 여호와의증인이 8,248,992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세계 54개국의 인구통계와 미국의 센서스에서 스스로 밝힌 자기-신원확인(self-identification)

비교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독특한(unique)'이라는 형용사에 주의해야 한다. 이 형용사는 양립 불가능한 가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을 때 엄정한 비교작업을 위해서는 폐기되어야 하는 말이다.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는 역사학자가 독특한 사건을 말할 때, 분류학자가 식물이나 동물종의 분류상 독특한 차이점을 말할 때, 지리학자가 특정 장소의 독특한 형태를 말할 때, 언어학자가 각기 인간 발언을 독특한 것으로 말할 때, 그 작업자는 특별한 지위를 참조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상호교환 개념(reciprocal notion)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지로 그건 분류와 해석 작업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B에 대해 A가 독특하다는 건 B도 마찬가지로 A에 대하여 독특하다는 확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23] 그래서 'x가 y를 닮았다'라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보다는 '...에 대해서 x가 z보다는 y를 더 닮았다.' 또는 '...에 대해서 w가 z를 닮은 것보다 x가 y를 더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미스는 이처럼 비교작업이 의미를 가지려면 비교의 명제가 이원적(dyadic)이 아닌 삼원적(triadic)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비교에는 함축적으로라도 '...보다(more than)'와 동시에 '...에 대하여(with respect to)'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4]

나아가 브루스 링컨(Bruce Lincoln)은 비교방법론을 '강한 비교론(strong comparatism)'과 '약한 비교론(weak comparatism)'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그간 종교학자들에 의해 행해져온 잘못된 비교방법론으로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후자를 제시한다. 그는 바람직한 약한 비교론의 조건으로 되도록 비교 항목을 줄이고, 차이점을 찾는 것만큼 유사점도 함께 보며, 비교대상을 동등하게 다루고, 종교 문헌이 가지는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함께 살피는 것을 꼽았다.[25] 비교방법론을 통해 거대 담론이나 보편 이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비교대

으로 기존 공식 통계를 보정할 때, 도리어 여호와의증인이 후기성도교회보다 교인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슨은 그럼에도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이 로드니 스타크와 야나 코네가 예상한 것과 같은 성장세를 2000년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Ronald Lawson and G. Kenneth Xydias, "Reassessing the Size of Mormons, Adventists and Witnesses: using census data to test the reliability of membership data and accounting for the disparate patterns found,"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62/3 (2020): 413-437.

23) Jonathan Z. Smith,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36-37.

24) 위의 책, 51.

상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연구 대상의 모습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본 논문은 보다 엄밀한 비교방법론을 써서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이 가진 정결과 부정 개념과 재림교회가 가진 음식규정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의 비교는 재림교회가 고수해온 채식주의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비교작업을 통해 처음부터 후기성도교회가 인간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해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와 달리 술과 담배,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기호식품의 절제가 신도들에게 오랫동안 경시되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교인들에게 수용되었는지 이해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준다.

그 다음으로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여호와의증인이 고수해 온 수혈거부 교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쓰였는지 살펴보고, 재림교회의 육식금기와 피의 개념에서도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볼 것이다. 여호와의증인에게 수혈거부가 여호와가 통치하는 지상왕국에서 살아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라면, 재림교회의 채식주의 역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림교회는 여호와의증인처럼 백신접종이나 수혈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결한 피'와 '불결한 피'의 대비를 통해 채식주의만을 저들의 종교정체성으로 삼았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게다가 '일몰에서 일몰까지(sunset-to-sunset)'라는 유대교의 안식일 준수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던 것과 달리, 재림교회가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은 코셔를 추종하지 않고 나름의 변형된 의례를 정착시킨 과정도 들여다볼 것이다. 이를 위해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에 관한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조너선 스미스는 모든 비교작업이란 결국 '연구자가 어떤 차이점들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유비(analogy)와 계보(genealogy) 사이의 선택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26]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의 비교가 유비에 해당한다면, 같은 종교적 근원을 가진 여호와의증인과의

25) Bruce Lincoln, *Apples and Oranges: Explorations in, on, and with comparis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27.
26) Smith, *Drudgery Divine*, 47.

비교는 계보, 즉 상동(homology)에 해당할 것이다.[27)]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와 음식규정은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본 논문은 역사적으로 후기성도교회의 지혜의 말씀이 재발견되는 과정과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약화되는 과정을 함께 비교하고 개별 종교단체의 문헌들을 통해 종교정체성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식종교(official religion)'와 '대중종교(popular religion)'라는 종교사회학 개념을 통해 재림교회의 정체성 내에도 상이한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더불어 재림교회가 채식주의를「레위기」음식규정으로 대체한 과정과 여호와의증인이 전혈 수혈거부에서 1990년대 후반 분획수혈을 수용한 과정을 종교사회학의 교회-종파 이론(Church-Sect theory)과 함께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로렌스 야나코네(Laurence Iannaccone)의 '고비용 종교 이론(High-cost Religion theory)'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재림교회와 여타 종교단체의 교리집과 기관지, 요람, 출판물 등을 살피고 분석하는 작업을 선택했다. 재림교회의 경우,『기본교리28』과 화이트의『예언의신』을 분석하고, 후기성도교회의 경우에는『교리와 성약』을, 여호와의증인은「파수대」와「깨어라!」등의 문헌들을 분석한다. 특히 재림교회의 경우는 음식규정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들과 함께 온라인게시판에 작성한 텍스트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텍스트(phenotext)'를 통해 공식종교의 위치를 가늠하고 대중종교와의 비교작업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문헌만 뒤지는 게 아니라 종교집단을 구성하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신앙과 실천, 종교경험, 의례를 함께 분석하여 교인들의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에 드러난 '생성텍스트(genotext)'도 들여다본다. 실제로 재림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의 경우, 정보제공자들(informants)과의 접촉과 인터뷰를 통해 해당 종교집단의 구체적인 신행과 의례 수행의 경험들을 수집했다.

---

27)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가 제2차 대각성운동(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의 지류에서 나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단순히 주정음료와 커피에 대한 유사한 금기를 공유하고 있을 뿐 서로 상이한 신학적 뿌리를 갖고 있다면, 여호와의증인과 재림교회는 밀러파운동(Millerite Movement)이라는 동일한 신학적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계통발생학적으로 상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뒤에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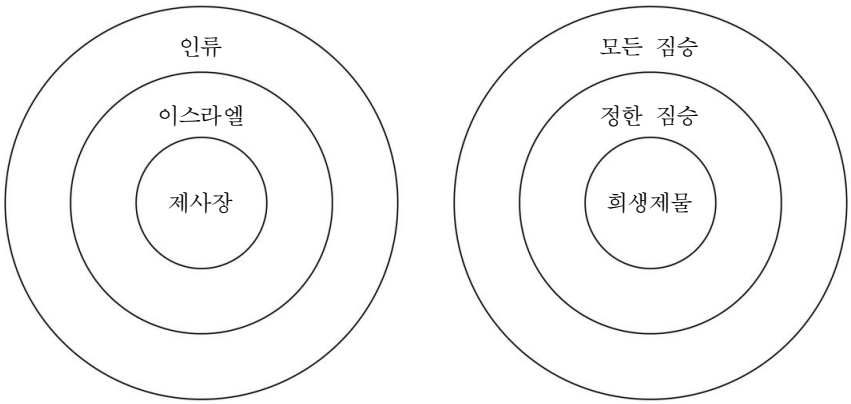
3. 선행연구 검토

본 논문을 전개하는 데 있어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정결과 부정의 논의는 지금까지 신학과 인류학, 사회학, 종교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신학계에서는 고대 이스라엘 종교를 연구한 제이콥 밀그롬(Jacob Milgrom)이 「레위기」를 해석하며 더글라스의 논의를 비롯하여 이제까지 모든 학자들의 이론을 끌어와 방대한 연구물로 종합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더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과 가치체계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각기 정결과 부정의 가치체계를 드러내며, 유대인의 세계관 역시 희생제물과 정한 짐승, 그리고 모든 짐승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밀그롬 역시 유대교의 카슈루트(*Kashrut*)[28]는 P문서[29]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1-1]과 같이 각기 동일한 동심원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제사장 문서에서 동물계의 분류법은 인간 사회와 그 가치관의 분류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인간계와 동물계 사이의 일치는 각기 동심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 개의 동일한 구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더 명확해진다."[30] 본 논문 역시 밀그롬의 이 도식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한다.

---

28) '적합한'이라는 의미의 카슈루트(כשרות)는 유대교의 전반적인 음식규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랍비 유대교를 거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선 안 되는 음식, 조리 방법과 식사 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을 정리한 것이다. 흔히 '코셔'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했다. 구체적인 카슈루트는 유대교 종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토라, 특히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따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허용된 동물이라도 규정(*shehitah*)에 맞게 도축된 것만 먹어야 하며, 피와 비계를 먹어선 안 된다. 또한 허용된 동물이라도 유제품과 함께 먹어선 안 된다. 금지된 동물은 그 고기뿐 아니라 내장이나 알[卵], 젖[乳]도 먹어선 안 된다. 코셔가 아닌 음식(*terayfa*)에 닿은 식기나 도구를 써서도 안 된다.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이 「레위기」 11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카슈루트와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건 이러한 랍비들의 해석 전통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29)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모세오경(Pentateuch)이 여러 개의 자료들로 편집된 문헌이라고 전제한다. 독일 신학자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이 처음으로 제시한 문서설(documentary hypothesis)은 모세오경이 모세의 단독 저작이 아닌 각기 J, E, P, D라는 시대적으로 다른 네 개의 문서로 편집되었다고 말한다. 이중 P문서는 신명(神名)으로 '엘 샤다이(*El Shaddai*)'가 주로 등장하는 자료로 아론의 제사장직, 제사와 정결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제사장 문서(Priestly source)'라고 불린다. 재림교회 신학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모세의 단독 저작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문서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려면, Greg A. K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in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2/1 (2001): 22-30을 참고하라.



[표1-1] 제사장 문서의 정결과 부정의 분류법(Jacob Milgrom)

밀그롬이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단순히 세계관의 반영으로 설명했다면, 크리스틴 헤이스(Christine E. Hayes)는 유대교 내에서 운위되어온 정결과 부정의 수사가 그간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성서』와 랍비 유대교 문헌들을 통해 유대인이 시대적으로 이방인들의 정결과 부정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유대인의 종교정체성 역시 이방인들을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변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의례적(ritual),' '도덕적(moral),' '계보적(genealogical)'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이방인이 이러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도를 '침투성(perme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형식을 '개종(conversion)'과 '통혼(intermarriage)'이라는 개념으로 각기 설명한다.[31] 헤이스는 더글라스가 제시한 정결과 부정 개념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접근과 상이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교의 사례로 보여준 셈이다.

반면 데이비드 크레이머(David Kraemer)는 유대인들이 시대적으로 그들의 음식규정을 통해 어떻게 종교정체성을 직조(織造)했는지 연구했다. 그는 '분리

30) Jacob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102.

31) Christine E. Hayes, *Gentile Impurities and Jewish Identities: Intermarriage and Conversion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2 이하를 보라.

(separating)'라는 한 마디로 유대교의 음식규정을 정의한다. 그는 2차 성전기 시대 등장한 「다니엘서」와 함께 「토빗서」, 「희년서」, 「유딧서」를 분석하며, 이때 '유대인의 음식(Jewish food)'과 '이방인의 음식(gentile food)'이라는 구분이 자아와 타자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선으로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계선은 랍비 유대교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카슈루트의 형태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조리하거나 먹지 않는 규정들이 이 시기에 정착되었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대동소이한 세부조항들을 구성하며 유대교 공동체 내에 음식규정들을 안착시켰다. 이후 아슈케나지 유대인 공동체에서 음식규정의 엄격한 준행에 따라 일반 유대인과 경건한 유대인을 구분하는 전통이 등장한 것 역시 음식이 종교정체성의 중요한 표지이자 상징이라는 명제를 확인시키는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32)]

조던 로젠블룸(Jordan D. Rosenblum)은 초기 랍비 유대교 시대에 유대교의 음식규정이 유대인들의 종교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했다. 그는 카슈루트가, 비록 이전에도 그 맥락과 단초들이 있었으나, 주로 탄나임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이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대인들의 '혐오스런 돼지(abominable pig)' 개념은 기원전 6세기 제3이사야 시대부터 현재까지 뿌리 깊게 내려왔으며, 기원전 2세기 마카비 시대에는 단일 음식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절대적인 경계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는 그들을 억압하는 '요리적 타자(culinary Other)'를 상기시키는 환유적 음식(metonymic food)임을 논증하고 있다.[33)] 앞선 크레이머의 연구는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 논의에 귀중한 안목을 제공해 주었고, 로젠블룸의 연구는 재림교회 내에서 돼지혐오증에 대한 논의를 확인시켜 주었다.

「레위기」 11장을 재림교회 신학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게르하르트 하젤(Gerhard F. Hasel)의 작업이 있다. 하젤은 구약에 두 가지 종류의 정결과 부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는 그 본질과 목적에 있어 영구적이고

---

32) David Kraemer, *Jewish Eating and Identity Through the Ag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7)을 참고하라.

33) Jordan D. Rosenblum, *Food and Identity in Early Rabbinic Juda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50-51.

비(非)의례적인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의례적인 부정이다. 전자의 부정이 영구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의례로 제거할 수 없는 종류의 부정이라면, 후자는 본질적으로 의례에 기초한 부정이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하는 의례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젤은 「레위기」에 이 두 가지 종류의 부정이 섞여 있으며, 이를 제대로 구분해야 비로소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4] 이를 설명하면서 하젤은 부정을 '획득된(acquired)' 부정과 '획득되지 않은(non-acquired)' 부정으로 나누고, 「레위기」 11장의 교차대구법적 구조에 근거해 음식규정이 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젤의 연구는 재림교회의 신학적 입장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언급할 예정이다.

비록 「레위기」 11장을 중점적으로 다룬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이 던진 주제는 종교학과 사회학, 특히 인류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았다.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인류학자 리처드 파든(Richard Fardon)은 더글라스의 정결과 위험이 그간 먼지의 유비를 통해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비정상이며 위험이라고 단정했는데, 도리어 정결, 즉 제 위치에 있으려는 열망이 위험이며 범주를 깨는 모험이 창조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35] 또한 이블린 뒤르(Eveline Dürr)와 고든 윈더(Gordon Winder)는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통해 멕시코시티의 슬럼가를 분석하고 현대적 도시 공간에서 사회적 위계와 불평등에 주목한다. 슬럼가가 더럽고 전염병이 들끓는다는 정치 담론과 의료 담론, 그리고 생태 문제로서의 가난에 대한 담론은 항상 슬럼가를 오염과 위험의 장소로 결부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슬럼가가 역겹고 피해야 하는 장소라는 프레임에 갇힐 때 도리어 사회적 호기심을 촉발하고 사회적 창조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6]

---

34) Gerhard F. Hasel, "The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Animals in Lev 11: Is It still Relevant?," in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2/2 (1991): 93. 이 밖에 「레위기」 11장에 관한 포괄적인 논문은 재림교회 신학자인 모스칼라(Jiří Moskala)에 의해 제시되었다. Jiří Moskala, "The Laws of Clean and Unclean Animals of Leviticus 11: their Nature, Theology, and Rationale" (Ph.D. diss., Andrews University, 1998)을 참고하라.

35) Richard Fardon, "Purity as danger: 'Purity and Danger' revisited at fifty," in Robbie Duschinsky et al. (eds.), *Purity and Danger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23-33.

36) Eveline Dürr and Gordon M. Winder, "Garbage at work: Ethics, subjectivation and resistance in Mexico," in Robbie Duschinsky et al. (eds.), *Purity and Danger*

리스 윌리엄스(Rhys Williams)는 정치적 반대자와 불결 사이의 관계를 이론화한다. 사회를 위협하는 히피족은 '꾀죄죄한(crusty)' 존재, 공산당원은 '더러운(dirty)' 존재처럼 부정과 불결의 언어로 그려진다. 흥미로운 점은 주류 매체에서 그려지는 방식뿐 아니라 이들 스스로 불결의 정체성을 차용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정결한 성스러움(pure sacred)'의 이미지로 사회의 결속을 이끌어내고 '부정한 성스러움(impure sacred)'의 이미지로는 사회의 혼란이 표현되고 있다. 더글라스가 주장한 바대로 의례가 전형적으로 현체제(status quo)를 그대로 강화하고 연장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사회 고발 운동은 반란의례이자 적대적 의례(antagonistic ritual)로 이해될 수 있다.[37] 윌리엄스의 논의는 본 논문 5장에서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의례를 설명하는 데 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재림교회와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다른 종교집단과의 비교작업도 본 논문에 단서를 제공한 선행연구다. 제말 내쓰(Jemál Nath)는 호주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종교단체로 유명한 하레크리슈나계열의 ISKON[38]과 몇몇 불교 종단들, 그리고 재림교회의 사례를 '생명-영성(bio-spirituality)'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교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서로 상이한 개념을 보유하고 있는 세 종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채식주의가 각기 신도들에게 종교정체성을 부여하는 핵심 의례로 자리 잡았다고 말한다. ISKON의 채식주의는 '신이 바로 채식주의자'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ISKON 신도들은 먼저 크리슈나에게 음식을 봉헌하고 나서 그 음식을 받아먹는 의례를 통해 크리슈나와 동일한 음식을 먹는다는 일체감을 갖는다. 신이 먹지 못하는 음식은 인간도 먹어선 안 된다. 모든 종류의 고기는 금지되며 식물 중에서도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음식에 세 가지 위계가 존재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음식은 단연 채식이며 아래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52-68.

37) Rhys Williams, "There's power in the dirt: Impurity, utopianism and radical politics," in Robbie Duschinsky et al. (eds.), *Purity and Danger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69-83.

38) ISKON은 크리슈나의식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Krishna Consciousness)의 약칭으로 1966년 박티베단타 스와미 프라부파다(Bhaktivedanta Swami Prabhupada)에 의해 뉴욕에서 설립되었다. 보통 '하레크리슈나운동'으로 알려진 가우디야 바이슈나바교(Gaudiya Vaishnavism) 중에서 현재 교세가 가장 큰 단체로 『바가바드 기타』와 『바가바드 푸라나』를 주된 경전으로 삼고 있는 힌두교계열의 신종교다. 신도들은 기본적으로 락토-오보 채식을 따르며, 술이나 담배, 차, 커피 같은 물질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도박이나 성적 문란함 같은 부도덕한 행위도 멀리해야 한다.

로 내려갈수록 불결한 음식이다.[39] 이 관점은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이 갖는 위계에 적용되었다.

행동양식	음식 유형/분류	생명-영성 파급력/영향력
선함 (높은 양식)	유제품: 버터, 치즈, 요구르트 설탕, 꿀, 허브, 향신료, 과일, 견과, 곡물, 콩, 대부분의 채소들	영성을 진전시킴: 크리슈나에게 바친 뒤 먹을 수 있는 음식
열정 (낮은 양식)	파채류: 양파, 마늘, 부추, 골파 음료: 커피와 차, 카페인음료	영성을 떨어뜨림: 크리슈나에게 바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무지 (가장 낮은 양식)	균류: 식용버섯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의 고기, 곤충, 수중동물	영성을 낮추고 질병을 일으킴: 크리슈나에게 바치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음식

[표1-2] ISKON 신도들의 음식 위계(Jemál Nath)

제레미 래포트(Jeremy Rapport)는 재림교회와 유니티교회(Unity School of Christianity)[40]의 채식주의를 비교하며 독특한 음식규정이 두 종교집단 모두에게 확고한 종교정체성을 심어주게 된 과정을 연구했다. 유니티교회를 창시한 찰스 필모어(Charles Fillmore)와 그의 아내는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에 적잖은 영향을 받아 1921년 채식을 멤버십의 중요한 조건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채식주의 사상을 메뉴에 반영한 유니티 인(Unity Inn)이라는 채식식당을 열기도 했다. 재림교회와 마찬가지로 유니티교회 역시 구원의 결정

39) Jemál Nath, "'God is a vegetarian': The food, health and bio-spirituality of Hare Krishna, Buddhist and Seventh-Day Adventist devotees," in *Health Sociology Review* 19/3 (2010): 361.

40) 유니티교회는 부동산업자였던 찰스 필모어의 아내 머틀(Myrtle)이 결핵을 믿음으로 극복하자 영적 치료(spiritual healing) 안에서 과학과 종교의 일치(unity)를 주장하며 1889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창시되었다. 초절주의자였던 에머슨, 크리스천사이언스의 창시자 메리 베이커 에디의 영향을 받았으며, 1921년 4월부터는 채식주의를 저들의 공식적인 음식규정으로 채택했다.

적인 증거로 건강한 몸을 강조했으며, 건강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외적 표식이라고 주장했다.[41]

음식의 위계와 관련하여 공만식은 『불교음식학』에서 계율로 존재하는 불교의 복잡한 음식규정을 음식학의 관점에서 다채롭게 보여준다. 『아함경(阿含經)』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정한 육류'인 '삼종정육(三種淨肉)'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도살 과정을 보지 않은 고기[不見]와 자신을 위해 도살했다는 말을 듣지 않은 고기[不聞], 그리고 자신을 위해 도살되었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不疑]를 의미하며, 일정한 경우(질병, 노쇠, 걸식 등)에 한하여 조건적으로 육식이 허용되는 계(戒)를 의미했다. 물론 '십종부정육(十種不淨肉)'이라 하여 인간, 코끼리, 말, 개, 뱀, 사자, 호랑이, 표범, 곰, 하이에나의 고기는 부정한 육류로 먹어선 안 되었다.[42] 흥미로운 부분은 초기불교와 달리 대승불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조건적 육식마저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능가경(楞伽經)』은 "모든 종류의 고기는 부모의 붉고 흰 불청정한 고름과 피가 섞여 만들어진 불청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은 고기가 불청정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만식은 대승불교의 채식주의가 불필요한 육욕의 번뇌를 다스리고 해탈을 돕는 방편으로 쓰였다고 말한다.[43] 이처럼 불교의 육식금기는 종파와 지역, 환경에 따라 정결과 부정 개념이 어떻게 다양해지는지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에밀리 베일리(Emily Jean Bailey)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두 종교집단인 감리교와 재림교회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건강과 보건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1747년 『원시 의학』을 통해 신자들에게 과식의 위험성과 과도한 양념이 들어간 음식(all mixed, all high-seasoned food)이 몸에 끼치는 해악을 경고했다. 웨슬리는 영육 간의 연관성을 통해 주정음료가 신체적 건강과 영적 생활에 끼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신 물을 치료제와 유일

---

41) Jeremy Rapport, ""Join Us! Come, Eat!" Vegetarianism i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Seventh-day Adventists and the Unity School of Christianity," in Benjamin E. Zeller (eds), Religion, Food, and Eating in North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23-41.

42) 경전에 따라 십종정육의 종류는 상이하다. 인간과 코끼리, 말, 개, 뱀은 대체적으로 등장하지만, 호랑이 대신 돼지, 표범 대신 원숭이, 곰 대신 독수리가 등장하기도 한다. 공만식, 『불교음식학: 음식과 욕망』 (서울: 불광출판사, 2018), 316.

43) 공만식, 352 이하를 보라.

한 음료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모라비아교도의 애찬(愛餐)에 영향을 받아 경건한 식탁에서의 교제가 탁월한 종교경험을 준다고 믿었으며, 식탁교제에 여성과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선언했다. 베일리의 연구를 통해 감리교와 재림교회 모두 식단을 영적인 완전(spiritual perfection)과 구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4] 그녀의 연구는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발원한 성화론의 뿌리를 추적하는 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했다.

니르 아비엘리(Nir Avieli)와 프란 마르코비츠(Fran Markowitz)는 미국 동부 시카고에 소재한 아프리카계 히브리 이스라엘 공동체(AHIC)가 채식을 과거 '노예의 식단'에서 '구원의 식단'으로 재해석하는 흥미로운 과정을 연구했다. AHIC는 1960년대 미국의 인권운동의 결과로 사회적, 종교적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지위를 자각하게 된 흑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의 뿌리를 지녔다는 선언과 함께 개신교를 탈퇴하고 새롭게 세운 종교단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초기에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처럼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을 따랐으나, 1970년대 초반 AHIC의 지도자인 벤-암미(Ben-Ammi)가 「창세기」 1장을 새롭게 깨닫고 식단개혁을 주도하며 채식주의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비건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의무이자 야훼(이들은 'Yah'라고 부름)가 태초에 아담과 이브에게 명했던 '에덴의 식단(Edenic diet)'으로 돌아가는 결단이었다.[45] 이들의 연구는 자의식의 확보와 저항으로써 채식이 어떻게 독특한 종교정체성을 낳는지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줄리아 트위그(Julia Twigg)는 채식주의와 정결의 관계를 가지고 서구 문화의 변천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위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녀는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음식의 패턴은 해당 사회의 구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한

---

44) Emily Jean Bailey, "Mother Knows Best: Methodism, Seventh-day Adventism, and Dietary Morality in Victorian America" (Ph.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2015)을 참고하라.

45) 동시에 채식이 과거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먹었던 초라한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을 보증하는 소울 푸드(soul food)로서 변모하게 되었다. 이들의 종교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울 채식식당(Soul Vegetarian restaurant)이 도시에 만들어지면서 채식은 미국의 2류 시민인 흑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성인(saints)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본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작동된다. Nir Avieli and Fran Markowitz, "Slavery food, soul food, salvation food: veganism and identity in the African Hebrew Israelite Community," in *African and Black Diaspora* 11/2 (2018): 205-220.

다. 예로부터 동물을 먹는 행위는 동물의 본성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동물의 피는 불결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금기면서 동시에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이 먹는 고기에는 늘 위계가 존재했는데, 가장 상단에 적색육이 위치하고 그 아래 백색육, 그리고 그 밑에 부산물 등이 놓였다. 반면 음식금기는 도리어 위계와 거꾸로 뒤집어져 피가 많은 적색육이 가장 피해야 하는 음식이 되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한데, 요리는 인간이 금수가 아니라 문명화된 사회적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음식금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46] 그녀의 연구는 구체적인 문화권이나 종교집단의 사례를 추적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피의 금기가 인류의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임을 말해 주는 연구로는 본 논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벤 사바테(Ruben Sánchez Sábaté)와 그의 동료들은 2016년 연구에서 채식주의가 재림교회 선구자들에게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경건과 세속을 가르는 사회학적 의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피에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가져와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신자들에게 가치관과 사상을 전달하는 매개로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개종자에게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단편적인 음식의 이해를 벗어나 새로운 코스몰로지를 선사하는 기제며, 동시에 기존의 재림교인에게는 자신들의 도덕성을 보여주며 경건을 실천하도록 돕는 성화의 도구가 된다.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수용한다는 건 능동적으로 재림교인의 정체성을 갖겠다는 결단이며, 세속적인 몸을 벗고 던지고 재림교인의 몸을 덧입는 리미널리티(liminality)의 관문이다.[47] 이들의 연구는 아비투스라는 사회학적 개념을 통해 재림교인의 음식규정을 들여다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 구도는 본 논문 5장을 전개하는 데 많은 통찰력을 주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종교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종교정체성이 생성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레위기」 11장을 단순히 신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이 갖는 종교사회학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목표를

46) Julia Twigg, "Food for Thought: Purity and Vegetarianism," in *Religion* 9 (1979): 13-35.

47) Ruben Sánchez Sábaté et al., "Feeding Holy Bodies: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s of a vegetarian diet to Seventh-day Adventist church pioneers," in *HTS Theological Studies* 72/3 (2016): 1-8.

두고 있다. 이에 한 종교집단 내에서 채식주의가 종교정체성을 확보하는 경위와 이를 경계로 구축하는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보고난 뒤,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상황을 공시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2장 이론적 토대

1. 정체성의 개념

"정체성(identity)은 사람들이 갖는 의미와 경험의 원천이다."[48] 그 존재가 개인이든 단체든 집단이든 사회든 일정한 정체성을 가질 때 존재 이유를 가지며 나아가 통일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 합의된 정체성을 통해 개개인은 공동체로 통합되며, 그렇게 모인 공동체는 다시 민족주의와 같은 보다 큰 정체성 속에 포함된다. 그것이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거나 어니스트 겔너(Ernest Gellner)가 말한 '자의적인 역사적 발명품(arbitrary historical inventions)'이더라도 정체성은 개인을 정신분열적 환경에서 구원하며 경쟁적 상황에서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킨다.[49] 게다가 그 정체성은 고립되고 고착된 게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모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사물을 분류한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도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한다. 인간은 자아와 타자,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이름이나 언어, 문화 없이는 어떤 사람들도 알 수 없다. 정체성을 잃은 개인이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 여기서 카스텔은 정체성과 전통적으로 사회학자들이 말했던 역할(roles)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나 엄마, 이웃, 야구선수, 교인, 흡연자 등을 일컫는 역할은 사회제도나 조직이 구성한 규범에 의해 정의된다. 사람들의 행위에 역할이 끼치는 상대적인 무게는 개개인과 이러한 제도와 조직 사이에서 이뤄지는 조정과 협상에 달려 있다. 반면 정체성은 행위자 자신에게, 그리고 행위자 스스로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의 원천이다. 간단히 말해서, 정체성이 의미를 조직한다면 역할은 기능을 조직한다.[50]

---

48) 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2010[1997]), 6.
49) Castells, 30.
50) 위의 책, 6-7.

카스텔은 정체성의 형태를 정당화 정체성과 저항 정체성, 프로젝트 정체성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는 이들 정체성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당화 정체성(legitimizing identity)은 사회 행위자에 대해 자신의 지배를 확대하고 합리화하는 지배적 제도로 도입된 정체성이다. 정당화 정체성은 시민 사회, 즉 조직적인 사회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련의 조직과 제도를 발생시킨다. 이따금씩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당화 정체성은 구조적 지배의 원천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로 저항 정체성(resistance identity)은 지배 논리에 의해 폄하되거나 낙인찍힌 사회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진 정체성이다. 이 정체성은 사회제도를 퍼뜨리는 이들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원리에 기반으로 한 저항과 생존의 참호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정체성(project identity)은 사회 행위자가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때 사회구조 전반에 변혁을 이루는 정체성을 말한다. 카스텔은 이 세 가지 정체성에 역학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 자연스럽게 저항으로 출발한 정체성은 프로젝트를 유도하며 또한 역사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사회 제도 속에서 어느덧 지배적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정당화 정체성이 된다. 이러한 순차적 과정을 따라 정체성의 역학(dynamics of identity)은 사회 이론적 관점에서 어느 정체성도 본질이 될 수 없으며 역사적 맥락 바깥에서 **그 자체로**(per se) 진보적이거나 퇴행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르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는 각 정체성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이득이다.[51]

여기서 세 번째 정체성 구축의 과정은 주체들(subjects)을 생산한다. 카스텔은 알렝 투렌(Alain Touraine)을 인용하며 이 주체를 하나의 개인이 되려 하고, 개인적인 역사를 창조하려 하며, 나아가 개인적 삶의 모든 경험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망으로 규정한다. 개인이 주체로 전환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긍정(affirmations)의 조합에서 비롯하는데, 그 중 하나는 공동체에 대비되는 각 개인들의 긍정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 대항하는 개인들의 긍정이다. 여기서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비록 주체가 개인에 의해, 그리고 개인들 속

51) Castells, 8.

에서 만들어지지만, 주체는 집합적인 사회행위자로서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 전체적인 의미에 도달하게 된다.[52)]

카스텔은 프로젝트 정체성이 저항 정체성의 전개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한다. 물론 저항 정체성이 반드시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지만, 저항 정체성이 자본과 권력, 정보의 글로벌한 흐름으로 규정된 지배적 이해관계에 저항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정체성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53)] 이는 정반합의 변증법 구조를 닮았다. 이러한 정체성의 역동적 관계는 본 논문이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을 연구하면서 주목한 부분이다. 세속으로부터의 탈주와 재림을 고대하는 종말론적 천년왕국 운동이 한 종교집단으로 하여금 저항 정체성을 갖게 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이 정체성이 채식이 갖는 위생학적 가치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1. 저항 정체성과 프로젝트 정체성

카스텔은 저항 정체성의 사례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s), 미국의 아메리카민병대(American Militia)와 패트리어트운동(Patriot Movement), 일본의 옴진리교(Aum Shinrikyo), 이슬람 원리주의 알카에다(Al-Qaeda) 그리고 반-세계화 운동(Anti-globalization movement)을 들었다. 사파티스타와 반-세계화운동이 영토적 공동체라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운동은 민족주의, 옴진리교와 알카에다는 종교적 근본주의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특히 옴진리교의 사례는 19세기 미국 종교 지형에서 발원한 재림교회의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좋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스텔의 논지를 여기서 잠깐 다루고자 한다.

교주 아사하라 쇼코(Asahara Shoko)의 사주를 받고 1995년 3월 20일 오전 직장인들이 한창 출근으로 바쁜 도쿄의 한 지하철역에서 맹독성 사린가스를 뿌리는 엽기적인 테러를 자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옴진리교는 세상에 자신들

52) Castells, 10.
53) 위의 책, 422.

의 종교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던 단체였다. 맹인이자 이름 없는 요가 강사였던 아사하라가 끔찍한 사회적 만행을 저지를 만큼 반사회적 종교집단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의 정체성과 일치시켰기 때문이다. 아사하라는 조만간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이 벌어질 것이며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4] 이 과정에서 카스텔은 추종자들이 교주 아사하라의 자기정체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집단의 새로운 종교정체성을 확보했다고 말한다. "옴진리교의 경우, 그들의 정체성 원칙은 좀 더 복잡하다. 비록 자신들의 신체가 구루[아사하라]의 정신 속에서 서로 공유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체 안에서 표현된 사실상 자신들의 개인 정체성이다. 그것은 육체적 개별성과 재구성된 영적 공동체의 결합이다."[55] 이러한 정체성은 1978년 가이아나 존스타운에서 918명의 신도들을 집단 자살로 이끌었던 짐 존스(Jim Jones)의 인민사원(People's Temple)[56]이나 1993년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8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데이비드 코레시(David Koresh)의 다윗가지파(Branch Davidians)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57]

재림교회는 미국 동부 뉴욕 주의 '불타버린 지역(burned-over district)'에서 일어난 제2차 대각성운동의 지류에서 자라났다. 1830년대 천년왕국운동은 19세기 초반 미국 경제의 암울함과 비관적인 현실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이룬 종말론으로 나아갔다.[58] 기성 개신교단과 주류 그리스도교의 현세적 정체성에

---

54) "전쟁은 계속되고 모든 종류의 첨단기술 무기들이 사용될 것이다. 이는 인류의 종말을 낳을 수 있는 몰살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옴진리교의 비전은 왜곡되고 분열된 방식이었지만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며 미국과 잠재적인 갈등을 벌이고 통제되지 않는 신기술의 재앙적 결과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공포를 반영했다." Castells, 107.

55) 위의 책, 161.

56) 조너선 스미스는 짐 존스를 '변태적 색골'이자 '양성애자,' '과대망상증 환자,' '악마'와 같이 폄하하는 명칭들로 도배한 언론과 이상하리만치 무관심한 종교학계에 대해 우리가 기괴한 야만성과 낯선 폭력이 던져주는 공포와 감탄을 느끼는 데에만 도취되어 있다고 일갈한다. 종교학자라면 인민사원을 특이성의 사건이 아닌 흔하고 일상적인 사태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 『종교 상상하기』, 장석만 역 (파주: 청년사, 2013 [1988]), 262-263.

57) 존 홀(John Hall)은 존스타운과 다윗가지파 같은 단체에 붙은 '컬트(cult)'라는 명칭이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에 낙인을 찍는 형태로 활용되었다고 주장한다. John R. Hall, "Public Narratives and the Apocalyptic Sect: From Jonestown to Mt. Carmel," in Stuart A. Wright (ed.), *Armageddon in Waco: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Branch Davidian Conflic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206.

58) Whitney R. Cross, *The Burned-over District: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저항하며 일어난 재림운동(Adventism)은 재림교회에 성서 예언에 기반한 종말론적 정체성을 물려주었다. 이 정체성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세력들에 대한 저항과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천년왕국을 세우려는 탈세속적 동기를 일깨웠다. 데이비드 코레시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부분 재림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59]

반면 채식주의로 대변되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카스텔이 말한 프로젝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카스텔은 프로젝트 정체성의 예로 환경운동을 든다.[60] 재림교회는 당시 만연했던 부절제와 질병, 불결과 음란에 대항해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건강기별을 주장하는 종교정체성을 보여주었다. 20세기 초반, 미국 사회에 금주법이 시행될 때 지지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던 교단이 재림교회였으며, 엘렌 화이트는 공중보건과 위생, 절제와 섭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사명감을 갖고 활약했다.[61] 결국 카스텔의 정의에 따르면, 그간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은 [표2-1]과 같이 저항 정체성과 프로젝트 정체성 두 가지 형태를 띠어왔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3장에서 두 가지 정체성의 선후와 기능, 전개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Enthusiastic Religion in Western New York, 1800-1850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50), 318.

59) 데이비드 코레시(본명은 버논 하웰(Vernon Howell)이다)는 모계로 3대째 안식일교인이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샌안토니오에 땅을 기증해 교회를 세울 정도로 독실한 재림교인이었고 미혼모였던 그의 어머니 역시 재림교인이었다. 다윗가지파와 재림교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Albert A. C. Waite, "From Seventh-day Adventism to David Koresh: the British Connection," in *Andrews University Studies* 38/1 (2000): 107-126를 참고하라.

60) "환경주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환경과 건강, 웰빙을 지키는 데에서 인류의 코스몰로지가 갖는 의미를 전제하고 사회-생물학적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인류와 자연을 통합하는 생태론적 프로젝트로 전환된다. 이러한 정체성 프로젝트들은 시민사회의 제도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적 저항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의 위기, 그리고 저항 정체성의 출현이 전자를 훼손하고 후자를 유도하는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특징들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다." Castells, 423.

61) 조지 R. 나이트(George R. Knight), 『엘렌 화잇의 세계』, 박경숙 편역 (서울: 시조사, 2000[1998]), 116-126.

재림교회	종말론	: 저항 정체성
	채식주의	: 프로젝트 정체성

[표2-1] 재림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백승기)

1.2. 정결과 부정의 정체성

종교집단은 정체성을 가지고 성과 속을 구분하며 선과 악, 정결과 부정을 구분한다. 에밀 뒤르케임은 자신의 저서 『분류의 원시적 형태들』에서 종교집단이 가지는 분류체계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사물들은 무엇보다 먼저 성스러운 것 아니면 속된 것, 순수한 것 아니면 불순한 것, 동료 아니면 적, 호의적인 것 아니면 적대적인 것으로 구별된다. 말하자면 사물들의 가장 근원적인 특질들이란 그 사물들이 사회적 감정들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을 표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사물들이 무리 지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차이점들과 유사점들은 이지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다. 사물들은 사회에 따라 말하자면 그 본성이라는 것이 변하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은 그것들이 집단의 감정들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여겨진 것이, 다른 곳에서는 본질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 각 영역은 나름대로 고유한 정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감정들에 영향을 받아 각 영역은 특별한 종교적 원리와 결부되며, 따라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덕성을 부여받는다.[62]

뒤르케임은 성과 속, 정결과 부정, 피아를 구분하는 기준이 이성적 판단이 아닌 집단의 감정이라고 말한다. 집단감격(collective effervescence)이라는 감

62)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 외 공저, 『분류의 원시적 형태들: 집단표상 연구에의 기여』, 김현자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1963]), 140-141.

정을 통해 종교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도덕적 통일성을 느끼고, 이는 집단 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을 통해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ence)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종교는 사회 통합의 원인(cause)이 아니라 통합된 사회를 표현한 정체성의 결과(effect)가 된다. 특정 종교집단의 집단감정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는 바로 정결과 부정이다. 집단감정은 정결과 부정의 구분을 통해 역동적인 상징이나 의례로 발전하면서 신자들에게 소속감과 함께 고유한 종교정체성을 부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화다. 공통의 신화는 집단의 결속과 함께 합의된 정체성을 생산한다. 제주도 신화 역시 그러한 예에 속한다. 유요한은 제주도의 신화를 분석하며 마을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섬기는 주신(主神)의 성격과 그 신화에 따라 전혀 다른 정결과 부정 개념이 자리 잡는다고 말한다. 그는 상이한 코스몰로지에 따라 돼지고기와 관련된 정결과 부정의 극명한 차이를 기술하는데, 제주도 신화에서 신의 위계가 돼지고기를 먹는지의 여부, 즉 돼지고기를 정한 음식으로 보는지 부정한 음식으로 보는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한다. 제주도민들의 생일이나 축제, 제사 등 절기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돼지고기가 상이한 신화가 갖는 정결과 부정의 경계이자 신의 위계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보통 돼지고기를 먹는 신은 성격상 신경질적이며 감정 기복이 심한 하위 신들로 분류되는 반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들은 고상하고 높은 지위를 갖는다. 이들의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며, 결혼식과 같이 두 신이 함께 할 때에는 심방의 정화의례를 통해 정해진 정결의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성스러운 것과 정결한 것은 종교경험과 믿음의 서로 다른 측면에 속하는 개념이다. 성이 인간 삶의 속된 영역과는 대조적으로 신에게 속하는 신과 장소와 사물의 지위를 묘사하는 범주라면, 부정은 다른 영역의 영향으로 한 영역의 조건이 침해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제주의 신앙은 이런 구분의 명확한 사례를 제공한다. 즉 제주의 모든 토착종교의 신들은 인간과 대조적으로 성스러운 존재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신들이 자신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정결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들의 영역에서는 부정한 존재로 간주된다.[63]

63) Yoo, "*Separating realms,*" 94.

사람들이 믿는 신화에 따라 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축되고 유지된다. 여기서 신화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에 따라 일과 사람, 물건과 행위를 구분하고 결정하는 공통의 코스몰로지를 생산해낸다. 한 영역이 다른 영역과 접촉하여 발생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화의례가 요구된다.[64] 사당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인간의 영역에서 묻은 부정을 제거하려면 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씻어야 한다. 굿에 참여할 사람은 목욕재계나 음식금기, 성교 금지 같은 '몸정성'을 들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부정한 사람이 굿에 참여해야 한다면 삶은 팥을 먹거나 향나무를 우린 물로 씻어야 한다.[65] 이처럼 유요한은 오염이란 어떤 영역이든 바람직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했을 때 발생하며, 영역을 옮길 때마다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뒤바뀐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 영역들이 서로 겹칠 때 종종 발생한다."[66] 구분된 영역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주의 심방들은 흰 종이를 써서 상이한 영역을 나눈다. '경계짓기(demarcation)'의 전략이 여기서 활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더글라스도 부정이 반드시 의례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정상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며, 따라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 비정상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한 체계에서 정결 규례는 개인성과 공공성 사이의 강력한 구분을 설정하며, 그것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체계에서 유기체적인 것이 사회적 영역으로 돌입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의례로 정화되어야 할 것이다.[67]

정결과 부정은 한 집단의 종교정체성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더글라스는 먼지가 본질적으로 무질서라고 말한다. 인간에게 '절대적인 먼지(absolute dirt)'와 같은 건 따로 없다.[68] 먼지는 오로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을 뿐이다(in the eye of the beholder). 언제나 먼지는 사회와의 일정한 관계를 통해

---

64) 정결과 부정 개념에서 정화의례는 세 가지 목적을 갖는데, 우주론 내에 구별된 영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화의례와 다른 영역에 들어갈 때 인간의 요소를 씻어내는 정화의례, 그리고 영역 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태가 손상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화의례가 그것이다. 유요한, 『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서울: 이학사, 2009), 215-216.
65) Yoo, 79.
66) 위의 책, 78.
67) 더글라스, 262. 강조 추가.
68) Douglas, 2.

규정된다. 먼지를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인지적 인식에 작동하여 정결과 부정의 범주를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에 일치시킨다. 따라서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이 지니는 한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출발점을 더글라스의 이론에 두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69] 더글라스의 논지를 따르자면, 재림교회야말로 음식규정이 갖는 정결과 부정 개념을 통해 강력한 종교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음식규정과 정체성

종교집단에서 운위되는 정결과 부정의 정체성 중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대상이 바로 음식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음식(what)을 어떻게(how)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왜(why)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음식규정과 식사법을 갖고 있다. 성문화된 음식규정을 준수하는 신도는 자신이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므로 사회-종교적 관계를 가름하는 경계선을 확보한다. "나는 무슬림이다."라는 말은 "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며, "나는 힌두교도다."라는 고백은 "나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타자를 탄압하는 기제로도 쓰였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는 유대인의 음식규정을 욕보이기 위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난입하여 선지를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였다.[70] 많은

69) 더글라스의『정결과 부정』출판 50주년을 기념하여 일군의 학자들이 개최한 심포지엄의 결과물인 *Purity and Danger Now*에서 로비 두스친스키는 더글라스의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⑴ 그녀가 어떻게 사회가 구조화되어있는가에서 정결과 부정 분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로 너무 쉽게 건너뛰었다는 점, ⑵ 사회 문화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혐오의 기원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설명의 기여를 너무 빠르게 무시했다는 점, ⑶ 제시된 정결과 부정이라는 보편 이론이 항상 모든 문화에서 쉽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 그것이다. Duschinsky, 5-6을 참고하라.

70) 피터 셰퍼(Peter Schäfer)는 에피파네스의 조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유대인의 이방인 혐오법(xenophobic laws)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방법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 즉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살점을 먹는 행위를 벌이는 것이었다. 여기서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는 이방인 혐오법을 단번에 근절하기 위해 유대교의 신앙을 가장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돼지를 먹는 것을 금하는 법은 이방인 혐오법의 구현이며, 일단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자신들의 혐오법을 포기하고 다른 민족과 똑

신실한 유대들은 불결한 살점을 삼키느니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택했다.[71] 이후 대중 속에 숨은 유대인들을 손쉽게 적발해내는 데 돼지고기는 매우 유용한 감별장치로 쓰였다.[72] 중세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한창일 때, 겉으로는 개종한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았지만 숨어서는 유대교 의례를 준수했던 이베리아 반도의 비의적 유대인들(crypto-Jews)을 '돼지'라는 뜻의 '마라노(Marrano)'라고 부른 것도 음식이 한 집단의 종교정체성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흔한 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일례로 8세기, 교황 그레고리 3세(Gregory III)는 말을 먹는 북유럽의 야만적인 반달족과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인과 개종자들에게 말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했다. 말고기는 음식으로 먹기에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8세기 미국에 정착했던 유럽의 아미쉬 집단 중에서 오하이오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 인디애나 주에 터를 잡은 올드올더아미쉬(Old Older Amish)들은 종교정체성과 집단의 순수성을 고수하기 위해 외부인과 겸상하거나 음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를 거부했다. 19세기 존 다비(John Nelson Darby)가 영국에서 세운 플리머스형제단(Plymouth Brethren)의 배타적형제단(Exclusive Brethren) 역시 외부인과는 식사를 가렸다. 이들에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건 동일한 정신을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무엇을 마시기로 선택하느냐도 그들이 먹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종교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한다.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

같아질 것이다." Rosenblum, 53.

71) "그때 뛰어난 율법학자들 중에 엘르아잘(Eleazar)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미 나이도 많았고 풍채도 당당한 사람이었다. 박해자들은 강제로 그의 입을 열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고 하여 자진하여 태형대로 가면서 그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마카베오하」 6장 18-19절)

72) "유대인과 이슬람교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고문이나 사형을 당하던 중세 스페인에서, 종교 당국은 많은 개종자들이 사실은 진심으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었다. 옳은 생각이었다. 따라서 종교재판이 시행된 이유 중에는, 가짜 개종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종교적 공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관습 중 하나가 대부분의 공식 행사와 비공식 행사에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내놓는 것이었다. 운 좋게 스페인에 간 적이 있거나 훌륭한 스페인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페인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 즉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절여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자른 돼지고기를 수십 조각이나 내놓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친절한 관습은 사실 돼지고기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싫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는지 감시해서 이단자를 색출하려 했던 무서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열렬한 그리스도교 광신도의 손에 들린 음식이라면, 맛있는 하몽 이베리코조차도 고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 『신은 위대하지 않다』, 김승욱 역 (서울: 알마, 2011[2007]), 68.

회는 주정음료뿐 아니라 차나 커피, 콜라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금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도는 종교집단 내에 강한 연대감을 얻고 음식규정을 지키는 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73]

미국과 같은 비(非)이슬람권 국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를 구매하는 무슬림은 그렇지 않은 무슬림보다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미국 지역 마트에서 할랄 식품은 대부분 특산품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보통 한 가구가 식재료를 이들로 한정할 경우 높은 비용과 재고 제한 때문에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음식규정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무슬림은 보다 강한 종교정체성을 드러낸다. 제한된 판매량으로 단순히 돼지고기를 제외한 비(非)할랄 가금류와 육류 옵션을 소비해야 한다면, 할랄을 철저히 고집하는 무슬림들은 그들의 음식규정을 보다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할 것이다. 이는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게 뻔하다.

나아가 음식규정은 피아 구분을 넘어 종교 내의 하위집단이나 엘리트집단 간의 위계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는 역사적으로 어떤 음식을 누구와 함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부과해왔다. 고위층 브라만은 '순수한' 음식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 카스트에 속한 사람과 한 장소에서 함께 먹거나 음식을 받을 수 없었다. 자신들의 신분상 고결함을 증명하는 음식은 단연 채식이다. 반면 채식주의가 카스트를 지탱하는 숭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은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는 행위는 카스트의 밑바닥에 위치한 천민들의 열등한 자기정체성을 증명하는 표지다. 따라서 의도적인 육식 행위는 출생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부당하게 받아온 혐오와 굴욕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상위 카스트에 대한 반항과 체제 전복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오늘날 불가촉천민이 자기정체성의 표시로 쇠고기 섭취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카스트에 대해 하나의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가 된다.[74]

---

73) Paul Fieldhouse, *Food, feasts, and faith: an encyclopedia of food culture in world religions*, vol.1 (Santa Barbara, CA: ABC-CLIO, 2017), 217.

74) C. Sathyamala, "Meat-eating in India: Whose food, whose politics, and whose

특정 종교가 규정한 정체성의 위계를 전복시키는 것 역시 음식의 경계를 해체하므로 시작할 수 있다. 시크교의 창시자 구루 나나크(Nanak)는 카스트의 위계,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경계를 모두 지워버리기 위해 신도들에게 동일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지시했다.[75] 빅터 터너는 인도 빤다뿌르로 떠나는 성지순례를 언급하며 순례자 무리가 계급의 구분 없이 모두 음식을 나누는 공식(commensality)에서 카스트가 해체되는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너는 멕시코 찰마로 떠나는 원주민들의 순례길에서 상대방의 빈부와 배경을 무론하고 함께 또띠야를 나누는 모습을 묘사했다.[76] 재림교회의 신앙공동체 역시 채식주의를 통해 강력한 연대와 결속을 경험한다. 채식을 통해 내부 집단(inner circle)과 외부 집단(outer circle), 경건의 무리와 세속의 무리를 가른다. 하지만 동시에 공식을 통해 집단을 가르는 경계를 지우고 자신이 속한 위계를 해체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뒤에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rights," in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7/7 (2019): 878-891을 참고하라.

75) Fieldhouse, 243.

76)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1974]), 201-204.

2.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관계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사회학적 도구가 필요하다. 종교사회학이나 종교유형론에서 흔히 운위되는 이념형 내지 작업가설의 하나로 '공식종교(official religion)'와 '대중종교(popular religion)'라는 개념이 있다.[77] 공식종교가 교단이나 사제집단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신학체계'를 의미한다면, 대중종교는 이러한 공식적인 신학체계와 별도로 교인들이 '실제로 믿는 신앙체계'를 뜻한다. 파리4대학의 종교학자 미셸 메슬린(Michel Meslin)은 대중종교의 세 가지 특성으로 반지성적(anti-intellectual), 감정적(affective), 실용적(pragmatic) 측면을 들었다. 반면 공식종교는 종교의 지성적, 인지적, 교리적 측면을 대표한다고 보았다.[78] 공식종교는 종교조직이 공식적으로 주장한 표준화된 교리들의 집합이다. 공식종교의 텍스트는 경전이다. 반면 대중종교는 공식적인 신학과는 별개로 각기 평신도들이 실제로 믿는 바다. 대중종교는 비록 공식종교처럼 선명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대중들 속에 스며든 관습적인 신념 혹은 간증을 종교 언설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공식종교에는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이 종교는 공식화된 집단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계통이 강조되며 더불어 강력한 기준(도그

---

77)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개념은 그간 종교학 내에서도 다양한 정의와 용례를 지녀왔다. 네덜란드 종교사회학자 피터 프리예호프(Pieter Hendrik Vrijhof)는 공식종교와 대중종교라는 개념이 독일의 종교사학자 구스타프 멘싱(Gustav Mensching)이 처음 제시한 '민속종교(folk religion)'와 '보편종교(universal religion)'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멘싱은 민속종교를 특정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로 이해한 반면, 보편종교를 이러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종교로 정의했다. 멘싱에 따르면, 보편종교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민속종교와 달리 더 넓은 지역, 다양한 민족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후 독일의 종교사학자 쿠르트 골다머(Kurt Goldammer)는 문맹이나 무문자(無文字) 민족의 집단 종교와 구체적인 문명의 일부를 이루고 민족적 하위구분을 갖는 종교를 구분했는데, 전자를 '민속종교(*Volksreligion*)'라 명명했다. 이때 골다머는 민속종교의 의미를 멘싱의 민속종교처럼 보편종교와 상반되는 종교로 이해하면서도 민속종교의 의미를 특정 종교 내에 한 계층으로 제한하고자 했다. 이어 영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타울러(Robert Towler)는 민속종교 대신 '일반종교(common religion)'라는 용어를 제안했는데, 공식종교가 특정 종교기관에 의해 규정되고 성문화되며 사회화된 믿음과 신행을 의미한다면, 일반종교는 그 종교기관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일반인들의 믿음 체계를 묘사하는 용어로 정의했다. Pieter Hendrik Vrijhof et al.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Berlin: De Gruyter, 2019[1979]), 1-2.

78) 공식종교와 대중종교 간의 반명제는 신자와 사제를 구분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위의 책, 219.

마)의 통일과 표준화를 요구한다. 반면 대중종교는 개별적 신앙의 다양성과 상황의 특수성을 용인해야 존재할 수 있다. 비록 공식종교와 겹치지만, 대중종교는 신앙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은 각양각색의 관점을 드러낸다. 결국 공식종교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종교 엘리트들(신학자, 목회자)이 겨누는 지향점이라면, 대중종교는 인간 문화라는 보편성 속에 특수성을 지향하려는 평신도들의 풀뿌리 신앙이라 할 수 있다.[79] 종교사회학자 메러디스 맥과이어(Meredith B. McGuire)는 공식종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대중 또는 민속종교 그리고 비공식적 종교요인과는 다른 전문화된 공식종교의 발전은 제도적 분화라는 역사적 과정의 결과다. 초기 종교는 상대적으로 사회생활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 실천도 그만큼 비전문적이었다. 반면에 현대종교는 제도적 전문화로 특징지어진다. 즉 잘 정리된 교리,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종교적 역할, 교리 및 의례의 일관성을 위한 통제, 공동체 교리의 선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통하여 그 세계관이 표준화된다.[80]

반면 대중종교는 임기응변식 의례(ad-hoc rituals)나 DIY 예전(禮奠) 등 차별화된 신앙체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갖는다.[81] 그래서 개중엔 공식종교의 교리나 의례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규정하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다.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안락사를 반대하지만 신자들 모두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들의 인권운동을 죄로 규정하여 극렬히 반대하는 국내 개신교단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다. 재림교회 역시 음식규정을 비과학적 편견이거나 시대착오적 개념으로

---

79) Vrijhof, 168.

80) M. B. 맥과이어(Meredith B. McGuire), 『종교사회학』, 김기대, 최종렬 공역 (서울: 민족사, 1994), 132. 맥과이어는 종교를 공식종교와 비공식종교(unofficial religion)로 구분하고 있다. “공식종교와 나란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종교적 신앙의 또 다른 유형은 비공식종교다. 비공식종교란 공식 종교집단에 의해서 수용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는 종교적, 그리고 유사 종교적 신앙과 실천이 결합된 것이다. 공식종교가 상대적으로 조직적이고 결속력이 강한 반면에 비공식종교에는 비조직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그리고 이질적이며 가변적인 신앙과 전통이 결합되어 있다. 비공식종교는 ‘일반,’ ‘민속,’ ‘대중’종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종교들이 분리된 조직적 구조 속에서 종교 전문가들에 의해 생겨났다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의 종교기 때문이다.” 맥과이어, 144.

81) Vrijhof, 220.

여기는 신자들이 있다. 그들의 의례가 외견상 공식종교의 형식을 일부 따를지는 몰라도 실제 신념은 대중종교적일 수 있다.

윤이흠은 공식종교와 대중종교라는 개념 대신 통계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경성종교(硬性宗敎)'와 '연성종교(軟性宗敎)'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해당 종교의 멤버십에 대한 자의식과 태도로 종교집단의 의미를 너무 좁혔다는 한계가 있다. 종교집단을 구성하는 성원도 '경성성원'과 '연성성원'이 존재하는데, 경성성원은 종교집단에 속한다는 자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성원이라면, 연성성원은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원이다. "한국의 종교 상황에서 경성 종교집단과 연성 종교집단을 구분한다면, 가톨릭과 유교가 대표적인 경성 및 연성 집단이고, 개신교는 경성집단, 그리고 불교는 경성과 연성을 포함한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불교는 출가 승려 집단인 승가는 엄격한 경성집단이면서 재가 신자 내지 평신도들은 유교와 마찬가지로 연성성원을 이루고 있다."[82]

맥과이어는 공식종교와 대척점에 있는 종교를 '비공식종교'라 명명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녀의 정의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비공식종교 대신 '대중종교'라는 명칭을 쓸 것이다. '비공식'이라는 의미가 공식종교의 반의어로는 손색이 없으나, 공식종교가 갖고 있지 않은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기서 대중종교를 '인기 있는(popular)' 종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에서 대중종교라는 개념은 도리어 '사람들의(people's)' 종교라는 의미에 가깝다.[83] 물론 여기서 '사람들'은 해당 종교의 구성원(교인, 신자)이 되겠다. 이처럼 비록 대중종교라는 명칭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여러 명칭들 중에서 본 논문이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설명하는 작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서 공식종교와 대중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 공식종교와 대중종교 간에는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둘 사이에 일정한 역학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중심부(center)'와 '주변부(periphery)'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는 학자도 있다.[84] 중심부는 권위를 내

82) 자세한 설명은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2권 (서울: 집문당, 1991[1988]), 76-78; 『한국종교연구』 6권 (서울: 집문당, 204), 373을 참고하라.

83) '사람들의 종교(people's religion)'는 하버드대학의 하비 콕스(Harvey Cox)가 썼다. 그는 '사람들의 종교'를 세련되지 않은 형식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민속종교와 형식적 종교 외부에 있는 대중종교를 아우르는 용어로 썼다. Vrijhof,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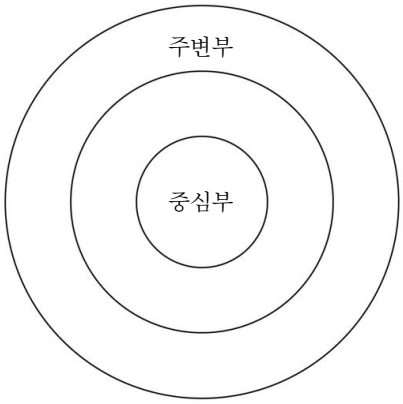
세워 틈만 나면 주변부를 단속하며 관리하려 든다. 주변부와 경계지역에 붙이는 '이설'과 '이단'이라는 호명(appellation)은 규범적 이데올로기와 중심부의 권위를 드러내는 계시(啓示)면서 동시에 관용(官用) 신학의 명징한 선포와 같다. 재림교회의 경우, 한국연합회는 월간지 「교회지남」을 통해 전국의 900여 개 지역 교회에 중심부의 위용을 전시(展示)하고 선교의 방향을 지시(指示)한다.[85] 말 그대로 남북을 가리키는 지남철처럼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 신앙의 표준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부에서 신학적 도전이 불거지면 중심부는 즉각 한국연합회 이단이설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켜 조기 진압에 나선다.[86] 한 종교집단의 중심부와 주변부는 다음 [표2-2]와 같이 동심원의 형태를 띨 것이다.

---

84) Vrijhof, 267.

85) 「교회지남(敎會指南)」은 재림교회의 공식 월간지로 한국연합회장의 권두언과 기획기사, 권면, 지상 설교, 신학 정보, 신앙 및 선교 미담, 교회 동정, 기도력 등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관보(官報) 성격의 잡지다. 특정 주제를 갖고 1년에 4권 발행되는 계간지 「안교교과(安敎敎科)」(흔히 교인들 사이에서 '과정책(課程册)'으로 불린다)와 함께 국내 재림교인들의 신앙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출판물로 꼽힌다. 재림교인들은 매일 오전(새벽)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교회지남」에 실린 기도력(devotional)을 가족들과 함께 읽는다. 「교회지남」은 1916년 7월 통권 1호가 출판된 이래로 지난 2007년 9월 지령 1,000호를 기록했으며, 1941년 4월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되었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12월 복간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7월 이후 다시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51년 12월 발행이 재개되는 등 교단의 부침과 민족의 우여곡절을 나란히 겪었다.

86) 최근 국내에서 이단이설대책위원회가 가동된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11월에 있었다. 과거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도미 후 미주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이어갔던 박영호 목사가 재림교회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조사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다시스로 가는 배: 조사심판을 조사하다』라는 책으로 엮어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배포해왔고, 한국연합회는 당해 11월 20일 즉각 그의 주장을 이설로 규정했다. 참고로 조사심판 교리는 현재까지 재림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및 완전주의 문제와 함께 가장 많은 이설과 논란을 일으킨 신학적 주제기도 하다. 2016년 말, 교단에서 출교된 이상구 박사 역시 『십자가와 조사심판』이라는 책을 통해 조사심판 교리를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1980년, 교단에서 출교를 당한 데스몬드 포드(Desmond Ford) 사건이 유명하다. 신약학자 브루스(F. F. Bruce)의 문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호주 아본데일 삼육대학교와 미국 패시픽유니온대학교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단 내의 저명한 신학자였다. 포드 파동으로 대총회성경연구소(BRI)는 교계 권위 있는 신학자들로 구성된 다니엘계시록위원회(DARCOM)를 조직하여 조사심판과 성소론, 예언서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이후 7권의 보고서를 시리즈로 출간했다.



[표2-2] 종교의 중심부와 주변부(백승기)

이처럼 공식종교와 대중종교,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분석틀을 가지고 재림교회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재림교회 내의 정결과 부정의 수사가 일관된 형식과 내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림교회의 공식종교는 채식주의와 함께「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을 내세운다. 반면 대중종교는 음식규정을 느슨하게 이해한다. 공식종교는 표준이 하락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하는 교인들에게 '성화'라는 칭송을, 표준에서 이탈하는 교인들에게는 '정죄'라는 낙인을 활용한다. 이때 대중종교는 이러한 공식종교의 규범적 지침을 어느 선까지 따를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기로에 서게 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돼지고기를 삼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 파트락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나 조심할 뿐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교인들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뒤에 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정의한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특징들을 일별하면 다음 [표2-3]과 같다.

공식종교	대중종교
공식적인(official) 신학체계	비공식적(unofficial) 신앙체계
문자중심주의: 교리, 설교 중심	체험중심주의: 간증, 고백 중심
조직적, 기관적	비조직적, 탈기관적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	아마추어리즘(amateurism)
중앙화(central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공인되고 표준화된 종교	비공인, 비표준화된 종교
상하관계: 지도력이 중요함	수평관계: 설득력이 중요함
구심력(centripetal): 수렴작용	원심력(centrifugal): 발산작용
정체성 유지에 관심	종교체험에 관심: DIY 영성
엘리트주의: 신학자, 목회자 중심	평신도운동: 평신도 중심

[표2-3]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특징(백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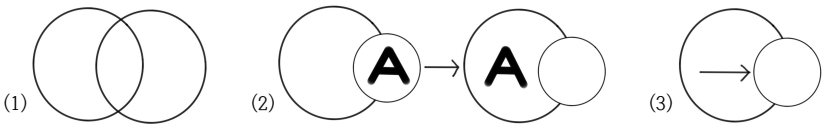
그렇다고 대중종교가 공식종교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인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다. 기도(*salat*)를 매일 드리지 않는 무슬림, 평소 음주를 즐기고 제사도 드리는 개신교인, 코셔를 신경 쓰지 않는 유대인은 단지 공식종교의 주변에 머무는 경계인이 아니라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기존 종교에 변화와 개혁을 주는 새로운 세력이 될 수 있다. 보리티우스(G. J. F. Bouritius)는 18세기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본래 영국성공회라는 공식종교에서 개혁하여 나온 대중종교였다고 주장하며 공식종교와 대중종교 사이의 역동성에 주목했다. 영국성공회는 당시 귀족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형해화한 종교로 남아 서민들의 종교성과 동떨어진 사변적인 신앙과 교리체계를 고수했는데, 웨슬리는 이러한 사제계급의 절대적인 지위와 각종 미사, 번쇄한 성사에서 벗어나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파격적인 신앙의 자립을 설파했다. 흥미로운 것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웨슬리의 종교운동 역시 또 다른 공식종교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보리티우스는 이처럼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관계를 종교 변동이라는 '역동적

인 관계'로 보여야 한다고 말한다.[87]

이러한 공식종교와 대중종교 간의 역동성은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공식적인 도그마와 신학적 입장은 언제나 대중종교의 수용과 저항, 계승과 변주라는 역사적 프레임워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식종교의 건강신학이 대중종교에 의해 수용되고 변용을 겪는 과정을 통해 재림교회의 다층적인 종교정체성이 만들어지며 학문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신행의 층위가 드러난다. 실지로 재림교회 일각에서 평신도 운동과 맞물려 생겨난 대중종교의 영성운동은 국내 뉴스타트 요양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이 영성운동은 재림교회 내에서 유독 음식규정을 통해 생명력을 확보하여왔으며 오늘날에도 공식종교의 선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87) G. J. F. Bouritius, "Popular and Official Religion in Christianity: Three Cases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in Pieter Hendrik Vrijhof et al.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Berlin: De Gruyter, 2019[1979]), 141-147. 보리티우스는 ⑴ 로마가톨릭의 공식종교와 대중종교가 일정한 교집합을 띤 형태로 공식종교가 대중종교를 용인하고 체제 안으로 대중종교의 기능을 포섭하려는 형식을 띤다고 주장했다. 반면 ⑵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영국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온 대중종교가 시간이 지나며 다시 공식종교로 변모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대중종교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⑶ 그 다음 로마가톨릭 내의 성심회(Sacred Heart)는 위의 사례처럼 자생적인 대중종교가 아닌 공식종교에 의해 개정되고 규정된 대중종교로 보았다. 보리티우스는 이러한 다양한 형식들을 통해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개념이 고정된 불변의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dynamic relation)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역사적인 프레임워크(historical framework)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각기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글, 155-156.



재림교회 내에서 음식규정에 관해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관계는 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성상 평신도들이 주도되어 운영되는 일부 요양원들은 ⑵와 유사한 형태를 띠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공식종교를 대표하는 합회나 기관을 '타락한 바벨론'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새로운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앙운동이 그간 대중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볶은 곡식'을 주장하는 홍영선이 있다. 강병국의 견고한 토대(생애의 빛)는 이런 대표적인 국내 분파로 분류되는데,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월간지를 무료로 배포하며 재림교회와 장감리교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해왔다. 2016년, 강병국이 사망한 이후, 리더십의 부재와 후계자 선정의 갈등으로 견고한 토대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분오열 해체 수순을 밟았고, 그 와중에 일군의 무리들이 떨어져 나와 미국과 한국에서 새로운 단체들을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손계문을 중심으로 '열한시교회'라는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3. 재림교회의 인간관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과 채식주의 간의 함수관계를 이해하려면 재림교회 신학이 말하는 인간관, 구체적으로는 몸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재림교회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따라 지어진 존재로 본다. "인간의 창조는 모든 창조 활동의 절정이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지구성(地球星)과 모든 동물의 생명을 맡기셨다."[88] 인간은 하등동물에서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쳐 고등동물로 올라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한 존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령이 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모사한 존재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영감의 말씀이 밝혀 주는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 또는 사족수(四足獸) 계열이 아닌, 위대하신 창조주께 이르게 됩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89]

둘째, 재림교회는 인간을 자유의지(free will)가 있는 존재로 본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90]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보증수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를 선물하지 않는다. 재림교인이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서운 유혹과 욕망의 시험을 통과하여 자기 구원을 완성하는 것뿐이다. 물론 그 핵심에는 식욕을 포함한 육욕의 방종을 극복하는 '자유의지의 제사'가 자리한다. 재림교회는 자유의지를 통해 식욕의 시험을 통과하여 율법에 순종한 전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91]

---

88) 『기본교리28』, 113.

89) 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8[1890]), 46.

90) 위의 책, 332.

91) "그분[예수]은 하나님께 자유의지의 제사로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강요받지 않으셨습니다." Ellen G. White, *Sermons and Talks*, vol.1 (Silver Spring, MD: Ellen G. White Estate, 1990), 108.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문헌들을 통해 재구성한 역사적 예수(historical Jesus)는 재림교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채식주의자가 아니었

셋째, 재림교회는 인간을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닌 하나로 통합된 유기적인 존재로 본다. 재림교회는 이원론과 일원론의 차이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로 이해하며, 영육이원론과 함께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신학을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성경은 인간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을 전체로서 묘사한다."[92]고 밝힌다. 이런 영육일원론(psychosomatic monism)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통합된 인간의 전인성(全人性)을 주장한다.[93] 따라서 채식주의는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협소한 신앙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바꾸어놓는 광범위한 신행이다. 이는 나아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재림교회 사후관과도 연결된다.[94]

넷째, 재림교회는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전'으로 규정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린도전서」 3장 16-17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린도후서」 6장 16절) 음식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짓이다. 재림교인에게 예수의 성전 청소는 온갖 부정한 음식물을 끊는 절제생활을 상징한다.[95] 성령이 거하는 '정결한 몸(pure

---

다는 사실이다.

92) 『기본교리28』, 115.

93) "각 사람은 불가분의 통일체임이 분명하다. 육, 혼, 영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작용하며, 개인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들 사이에 있는 강력한 공감적 관계를 나타내 보인다. 한 분야의 결함은 다른 두 분야에 피해를 준다. 병들고 불결하고 혼란된 정신이나 마음은 개인의 정서 건강과 신체 건강에 손을 끼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신체 조직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정서 및 영적 건강을 손상시킨다. 기능 상호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각 개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들을 최적의 상태에 두도록 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책, 119.

94) "죽음은 완전한 절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의 일시적인 무의식 상태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 상태를 거듭거듭 잠이라고 부른다." 위의 책, 477.

95)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Ellen G. White, *The Desire of Age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0[1898]), 161.

body)'은 '정결한 음식(pure food)'을 통해 얻어진다. 재림교인에게 식욕은 '충족'되어야 할 긍정적 욕구가 아니라 '제어'되어야 할 부정적 욕구다.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집니다."[96] 아담의 불순종은 식욕의 불순종이었다. 태초에 아담은 식욕을 이기고 극복하는 인류 최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97]

>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감각을 흐리게 하거나, 신경체계에 작용하여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도록 하거나, 유용성에 맞지 않도록 만든 음식이나 음료를 자신의 신체 안으로 섭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과 몸의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존되어야만 합니다.[98]

화이트에게 식욕과 정욕은 등가를 갖는다. 식욕이나 정욕 등 신체적 욕구는 하나님이 부여한 이성의 빗장으로 채워두어야 정결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이성이 식욕을 지배하여 식욕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식욕이 정결한 이성에 의하여 조절되고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은 주님께 대하여 정결한(pure) 것입니다."[99] 그런데 그 이성이란 성령에 의해 조종되어야 한다. 성령이 우리 몸에 머물기 위해서는 신체가 정결한 상태여야 한다. 결국 성도들의 정결한 몸은 정결한 음식을 통해 달성되고, 정결한 음식은 정결한 이성이, 정결한 이성은 성령에 의해 확보된다. 이는 순환논리로 보인다. 정결한 음식→정결한 몸→성령의 임재→식욕의 절제→정결한 음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순환논리 속에서 재림교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몸(holy body)'을 완성한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제어된 이성은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식욕의 절제를 통해 '하늘 가는 품성(heavenly character)'을 만든다.[100]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4]와 같다.

---

96) Ellen G.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6[1938]), 44.

97) "아담은 식욕에 방종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위의 책, 167.

98) Ellen G. White, *Temperance*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9), 18.

99) 위의 책, 13.

100)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를 인간에게 명심케 하려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적인 습관을 개혁함으로 자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덕성의 일탈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정결한 음식 (채식)	➔	정결한 몸	➔	성령의 임재	➔	거룩한 몸 (성전)	➔	하늘 가는 품성

[표2-4] 재림교회의 인간관이 말하는 거룩한 몸(백숭기)

재림교인에게 채식주의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채식주의는 안식일과 재림이라는 이들의 핵심 교리와도 직결된다. 식욕을 절제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의 성도들은 식탁에서 모든 종류의 고기를 치워버려야 한다. 캘빈의 예정설이 부(富)를 구원의 증표로 삼은 것처럼,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은 채식을 통한 건강이야말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가르는 경계이자 시금석으로 작동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병원과 의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인들은 건강기별을 피아를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고,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채식주의자와 비(非)채식주의자를 나누고 그런 구분에 각기 구원과 멸망을 할당해왔다. 화이트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식탁에 고기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채식주의를 종말론과 결부시켰다.

>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며, 고기가 저들 식단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이 그쳐질 것입니다.[101]

이로써 재림교회의 인간관에서부터 종말론,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채식이 가장 중요한 교리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정서적으로 볼 때, 교인의 위계 속에서 의료 인력은 목회자 다음으로 높으며, 현실에서 정당하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는 직업군 역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들뿐이다. 직업을 창출하고 경제를 일으키는 기업가나 자영업자, 심지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나 사회 치안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경찰과 소방관,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권에서 배

비뚤어진 식욕의 방종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54.
101) 위의 책, 380.

제된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안식일에 했던 사역은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뿐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인류의 구원자이자 병든 몸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사'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지상에서 봉사하시던 시대와 똑같은 자비하신 의사이십니다."[102] 이러한 재림교회의 인간관은 건강신학의 토대와 근간이 되었다.

102) Ellen G. White, *Counsels for the Church*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1[1957]), 303.

4. 재림교회의 건강신학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는 하루아침에 고기를 끊고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주인공 영혜가 등장한다. 대개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에 입문하는 게 통례라지만, 그녀의 뜬금없는 채식 선언은 그 이유조차 알려지지 않는다. 종교적인, 윤리적인, 행여 위생학적인 목적에서 나온 결단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친정 식구들조차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었던 영혜의 기이한 섭식 행각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타이르고 달래기에 지친 아버지는 급기야 사위 앞에서 딸의 뺨을 후려친다. 채식을 하겠다고 완강히 버티는 딸의 얼토당토않은 선언을 아버지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한다. "처형이 달려들어 장인의 허리를 안았으나, 아내의 입이 벌어진 순간 장인은 탕수육을 쑤셔 넣었다. 처남이 그 서슬에 팔의 힘을 빼자, 으르렁거리며 아내가 탕수육을 뱉어냈다. 짐승 같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터졌다."[103]

영혜의 발악은 흡사 무자비한 침략자들이 토라를 낭송하던 유대교 랍비의 입에 강제로 돼지고기를 쑤셔 넣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영혜는 돼지고기를 삼키느니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다. 모두가 말릴 새도 없이 교자상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손목을 긋는 영혜의 모습에서 종교적 신념마저 보여준다.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이 장면은 일부 재림교회 청년들('재림군인'으로 불린다)이 군대에서 겪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비록 영혜가 종교적 명분 때문에 육식으로부터 절연을 선언한 건 아니지만, 목숨 걸고 고기를 거부하는 모습에서 재림교인의 결단을 읽을 수 있다.

유요한은 채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인공 영혜가 나무가 되려는 욕망을 드러내며 소설이 식물로의 회귀 신화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영혜는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 되고자 한다. 폭압과 강요에서 벗어나 태초로 회귀하여 한 그루 나무가 되려는 영혜는 마치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햇빛 아래에 팔을 벌리고 서 있거나 나무뿌리를 흉내 내어 숲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동작을 반복한다. 나아가 영혜는 채식주의를 넘어 아예 단식으로 넘어간다. "영혜가 고기를 거부하고, 나아가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식물이 되고자 한 것은,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

103) 한강, 『채식주의자』 (파주: 창비, 2007), 51.

시되어 온 무의미한 폭력과 살해를 거부하는 몸부림들이다."[104] 영혜의 채식주의는 일체의 육식을 끊고 이어 모든 곡기를 끊다가 결국 이 땅에서 굶어죽는 것을 최고의 종교적 이상으로 받아들였던 자이나교도의 단식을 닮았다.[105] 나무로 회귀하려는 주인공의 발버둥이 원초적 순수에의 동경을 의미한다면, 재림교인의 채식은 시원(始原)의 세계 에덴으로 돌아가려는 회귀적 열망을 상징한다. 그 열망은 금수의 본능에서 벗어나 태초의 참된 인간(*vere homo*)이 되려는 욕망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그 욕망에는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이 자리하고 있다.

4.1. 건강신학의 정의

본 논문은 재림교회가 교리로, 의례로, 신행으로 교육하고 향유하는 일련의 사상과 문화를 통틀어 '건강신학(health theology)'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건강신학이라는 용어가 재림교회 내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니다. '뉴스타트'나 '건강기별'과 같은 명칭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 논문은 재림교회가 구축해온 음식규정과 관련한 모든 철학과 문화, 의례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건강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여러 개념들이 피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일방적인 신학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이 가진 복합적인 함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은 채식을 비롯한 건강에 관한 『예언의신』의 구절들, 강단에서 목회자에 의해 제시되는 음식규정, 뉴스타트운동이나 요양원에서 활용되는 각종 치료법, 5일금연학교, 건강강의와 채식요리강습을 통해 홍보되는 채식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구조를 갖고 있다. 채식과 음식규정을 식사법(dietary law) 혹은 섭식법(dietetics)의 일종으로 정의한다면, 절제사업과 5일

---

104) 유요한,「다시 태어나 태초로 돌아가기: 소설 채식주의자의 원형적 신화 주제 분석」,『문학과 종교』24/1 (2019): 172-173.

105) 올슨은 자이나교도가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방식의 하나로 선택하는 단식을 통한 죽음을 불살생의 원리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자이나교도의 죽음에는 흔히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⑴ 해탈을 얻을 때까지 음식을 거부하는 수행을 통한 죽음(*bhattapaccakkhana*) ⑵ 움직임 없는 나무를 흉내 내듯 단식을 통한 죽음(*paovagamana*) ⑶ 경내에 은신처를 찾아 움직임을 중단하는 죽음(*inginimarana*)이 그것이다. Carl Olson, *Indian Asceticism: Power, Violence, and Pla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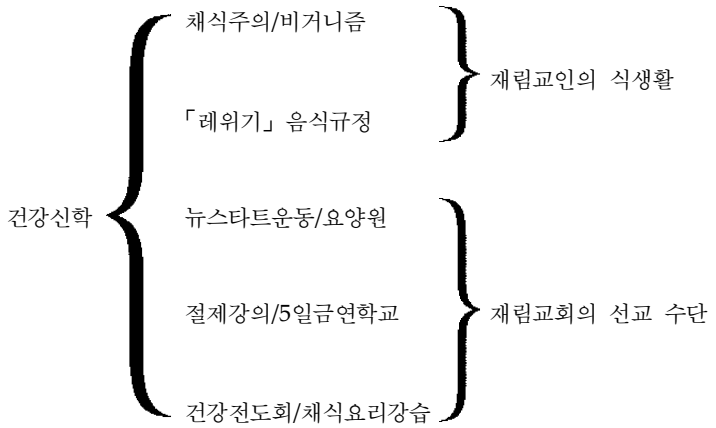
금연학교는 음주와 흡연을 중단하고 생활에서 건강을 해치는 모든 유형의 습관—여기에는 식습관뿐 아니라 신체활동과 정신활동이 모두 포함된다—을 단념하는 절제법(temperance)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자가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을 적시해 주는 의례라면, 후자는 대(對)사회적인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또한 건강강의와 채식요리강습은 단순한 강의나 강습이 아니라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을 소개하는 조리기술(culinary arts)로 보통 지역교회에서 활용하거나 전국의 문서전도인들[106]을 통해 가가호호 전달된다.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은 현대 의학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107] 도리어 일체의 의학은 건강신학의 하녀(*ancilla theologiae*)로 기능한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은 신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해석의 논리가 아닌 의학자와 보건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통계의 논리가 작동한다. 건강신학의 중심에는 이른바 과학적 환원주의(scientific reductionism)가 똬리를 틀고 있다. 화이트는 누구보다 열렬히 의학의 진보를 수용했고 초자연적인 계시로 이를 추

106) 재림교회의 문서전도인(colporteur)은 여호와의증인의 파이오니아(pioneer)와 언뜻 유사해 보이지만 그 성격과 형식에 있어 매우 다르다. 1990년 3월, 협회가 출판물을 무료로 배부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여호와의증인도 출판물을 판매해왔다. 이는 당해 1월 미국 대법원이 종교서적의 판매에 과세를 인정하면서 이루어진 급작스런 조치였다. 심지어 1930년까지는 여호와의증인도 파이오니아를 '문서전도인(colporteur)'으로 불렀다. Zoe Knox, *Jehovah's Witnesses and the Secular World: From the 1870s to the Present*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8), 43. 오늘날 파이오니아가 「깨어라!」나 「파수대」, 기타 전도용 출판물을 '무료로' 나누어준다면, 재림교회의 문서전도인은 『예언의신』이나 「시조」, 「가정과 건강」, 그 밖에 시조사에서 발행한 건강과 교육에 관한 기타 출판물들을 '판매'한다. 파이오니아는 헌신하는 시간에 따라 다시 보조 파이오니아(auxiliary pioneer: 50시간), 정규 파이오니아(regular pioneer: 70시간), 특별 파이오니아(special pioneer: 130시간)로 나뉜다. '특파'는 지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재림교회 연합회 내에는 문서전도인을 양성하는 출판전도부서가 따로 존재하며 전도인은 활동에 따라 별도의 월급을 받는다.

107) 물론 엘렌 화이트 역시 한 때는 의학이나 의사, 약물의 도움을 거부했던 때가 있었다. 당시는 의술이 오늘날과 비교해 보잘 것 없었고, 병원은 부랑자들을 관리하는 집단수용소로, 의사는 무분별한 사혈과 독극물 처방을 일삼는 사기꾼으로 매도되던 시대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이트, 『엘렌 화잇의 세계』, 122-124. 당시는 실제로 위험천만한 의료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기도 했다. 1840년대, 필라델피아의 의사였던 벤자민 러시(Benjamin Rush)에 의해 급진적인 '영웅적 치료(heroic therapy)'가 제기되었는데, 이 치료는 고대 체액설을 기반으로 환자에게서 다량의 피를 뽑는 게 전부였다. 한 사회학자에 따르면, 1850년 이전에 보스턴에 소재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의 3분의 2가 강제로 피를 뽑거나 하제를 통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조야했던 의학이론과 의료수준을 살펴보려면, Rennie B. Schoepflin, "Health and Health Care," in Gary Land (ed.), *The World of Ellen G. White*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7), 143-158을 참고하라.

인(追認)했다. 화이트는 평생 신비주의자로 살았지만, 동시에 이신론에 기초한 성서 해석에 관심이 많았던 과학주의자였다. 오늘날 창조과학회가 논리적 근거로 삼는 '격변설(catastrophism)'과 '젊은 지구론(young earth theory)'에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 역시 이러한 과학주의와 무관하지 않다.[108] 건강신학의 얼개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2-5]와 같다.



[표2-5] 재림교회 건강신학의 얼개(백승기)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식주의와 「레위기」 음식규정은 재림교인의 식생활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채식주의가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이라면, 「레위기」 음식규정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타트운동과 전국에 점조직처럼 흩어져있는 요양원, 5일금연학교와 채식요리강습, 지역교회에서 이

108) 오늘날 근본주의적 창조론을 완성시킨 젊은 지구론은 실제로 주류 개신교의 신학적 산물이 아니라 화이트의 신학적 착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지질학적 지식을 동원해 신(新)격변설을 완성한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George McCready Price)는 본래 재림교회 문서전도인이었다. 그는 화이트의 계시와 지질학이 조화를 이루도록 1902년 『현대 그리스도교와 현대 과학의 개요(*Outlines of Modern Christianity and Modern Science*)』라는 저서를 완성했다. 비록 학위는 없었지만, 그는 이후 재림교회의 여러 대학들에서 창조론을 가르쳤다. 재림교회와 창조론의 관계에 관해서는, Ronald L. Numbers, *The Creationists: From Scientific Creationism to Intelligent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1992])을 참고하라.

뤄지는 건강전도회는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선교 수단이다. 재림교회 목회자라면 지역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절제강의와 금연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강목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뉴스타트운동과 요양원 문화는 19세기 건강개혁운동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4.2. 채식주의의 범위

재림교회 건강신학은 엘렌 화이트[109]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화이트는 부모와 함께 감리교 신앙을 수용하면서 성화와 경건의 에토스를 체득했고, 여기다 어린 시절 끔찍한 사고를 통해 얻은 와병 체험과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110]의 재림운동을 통해 얻은 종말론적 신앙을

109) 화이트는 생전에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재림교회는 그녀의 모든 저작물을 '마지막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인된 하나님의 계시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림교회 대총회 본부 산하에 별도로 엘렌화이트유산관리위원회(The Ellen G. White Estate, Inc.)를 두고 있다. 전 세계 16개 지부가 있으며, 한국 지부는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삼육대학교 신학관에 위치해 있다. 공식 사이트인 www.syu.ac.kr/egw/으로 접속하면 온라인 검색엔진을 통해 화이트의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다.

110)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 목사로 1843년경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그의 재림운동은 '밀러주의(Millerism)'로, 그를 따르는 이들은 '밀러파(Millerites)'로 불렸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재림교회와 여호와의증인 모두 이 밀러파의 천년주의운동에서 파생한 교단들이다.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러에 대한 두 교단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재림교회가 밀러주의를 오늘날 '2300주야' 종말론과 '조사심판' 교리를 이루는 중요한 뼈대로 수용하며 아직까지 그를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는 반면, 여호와의증인은 과거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했고 재림의 해를 1844년이 아닌 1914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밀러주의 신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윌리엄 밀러에 관해서는 David L. Rowe, *God's Strange Work: William Miller and the End of the World* (Grand Rapids, MI: Wm.B.Eerdmans Publishing Co., 2008); George R. Knight, *William Miller and the Rise of Adventism*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0), *Millennial Fever and the End of the World* (Boise,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3); Roland L. Numbers & Jonathan M. Butler (eds.), *The Disappointed: Millerism and Millenarian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를 참고하라. 밀러주의는 종종 광신주의의 사례로 언급되는데,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밀러의 재림운동을 예로 들며 예언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믿음에 대한 열정이 도리어 증가하는 이유와 조건을 다섯 가지로 들었다: ⑴ 매우 깊은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믿고 있어야 하며 그 믿음이 모종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⑵ 그 믿음을 위해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확실하게 투자했어야 한다. ⑶ 그 믿음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현실세계와 충분히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⑷ 그 믿음에 대한 부인

내면화했다. 그런 그녀에게 치병과 구원의 방편으로 채식을 선택한 것은 신앙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당시 밀러의 재림운동에 동참했던 인물들 중에 건강개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111] 그들 중에 조셉 베이츠(Joseph Bates)는 1843년에 이미 실베스터 그레이엄(Sylvester Graham)[112]의 건강 철학에 매료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절제운동을 실천하고 있었다.[113] 또한 화이트의 남편이자 재림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제임스 화이트(James S. White) 역시 건강개혁자들과 교류하며 출판물에 그들의 기사를 싣기도 했다. 역사학자 로널드 넘버스(Ronald L. Numbers)는 화이트 역시 이들을 통해 당시 건강개혁자들의 문헌과 강연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직접 저서에 인용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권고는 다른 건강개혁자들의 권면과 유사한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녀가 받은 이상의 초기 내용을 듣거나 읽었던 사람들 중의 일부는 그녀가 앞선 개혁자들로부터 그 내용들을 차용한 것이라고 의심했다."[114] 그녀는 건강에 관해 전에 없던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을 내놓은 창작자

할 수 없는 명백한 반증이 될 사건이 발생해야 하고 그 믿음을 믿고 투자했던 사람이 이를 인지해야 한다. (5)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어야 한다. 확신에 찬 사람들로 이뤄진 집단의 일원으로 서로 지지하여 믿음이 유지되어야 한다.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 외, 『예언이 끝났을 때』 (고양: 이후, 2020[1956]), 12-13.

111) 당시 건강개혁자(health reformer)로 활동했던 찰스 피치(Charles Fitch)와 에제키엘 헤일(Ezekiel Hale Jr.), 라르킨 콜스(Larkin B. Coles) 등은 유력한 밀러파 인사였다. Ronald L. Numbers, *Prophetess of Health: A Study of Ellen G. White* (Grand Rapids, MI: Wm.B.Eerdmans, 2008[1976]), 127.

112) 실베스터 그레이엄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한 1세대 건강개혁자였다. 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Earl G. Hammond, "Sylvester Graham: America's first food reformer," in *Iowa State Journal of Research* 62/1 (1987): 43-61를 참고하라. 그레이엄과 러셀 트랄(Russell T. Trall), 제임스 잭슨(James Caleb Jackson) 등 화이트 이전의 건강개혁자에 관해서는 Numbers, *Prophetess of Health*, 95-126을 참고하라.

113) Numbers, 위의 책, 128.

114) 로널드 넘버스(Ronald L. Numbers) 외, 「과학과 의학」, 테리 도프 아모트 외 편저, 『미국의 선지자 엘렌 하몬 화이트』, 김성익, 이국헌 역 (서울: 삼인, 2017[2014]), 371. 이에 대해 화이트는 건강기별이 전적인 계시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활동한 미시간과 뉴잉글랜드 그리고 뉴욕 주에서 건강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약품과 육식을 반대하고 물, 신선한 공기, 적절한 식생활을 권장하였을 때, 사람들은 자주 '당신은 트랄 박사와 잭슨 박사 그리고 그 외의 박사들이 저술한 『생명의 법칙』과 기타 서적에서 가르치는 것과 매우 흡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논문과 그러한 서적들을 보았습니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 주장을 충분히 기록할 때까지는 읽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 문제에 관한 빛을 주님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Ellen G. White, *Medical Ministry*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63[1932]), 2.

(creator)라기보다 건강개혁자들에게서 의학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재림교회의 건강신학과 의료체계를 개발하는 데 활용한 편집자(editor)에 가까웠다.

그녀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채식주의는 전미채식협회(American Vegetarian Society)가 1850년 '베지테리언(vegetarian)'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개념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화이트의 채식주의가 갖는 특이점 중 하나는 자신의 식단에 계란과 우유를 추가할지의 여부에 있었다. 영국 채식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채식협회는 채식에 우유와 치즈, 계란과 같은 유제품과 부산물을 포함시켰다. 윤리를 중시했던 그들은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얻는 데 동물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버지니아대학교 창립 교수진이며 한 때 토머스 제퍼슨의 주치의이기도 했던 로블리 덩리슨(Robley Dunglison)은 1851년 '채식주의(vegetarianism)'를 한 의학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간이 식물의 왕국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산물에 의존하면서 [동물의 왕국에서 나오는] 고기와 피는 철저히 금해야 하는 관점을 명시하는 근대적 용어." 여기서 고기와 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육식은 어떠한 형태로든 철저히 금하되 그 부산물인 우유나 치즈, 계란은 용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115] 물론 이러한 관점은 동시대인이었던 화이트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화이트는 극단적인 채식을 실천하다가 건강상 위험에 빠진 한 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며 식단에 계란과 우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116] 물론 우유와 계란에 대한 화이트의 입장이 평생 일관되었던 건 아니다. "우유와 계란과 버터는 육식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117]고 말했다가도 "음란한 습관에 몰두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계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 동물

---

115) Adam D. Shprintzen, *The Vegetarian Crusade: the Rise of an American Reform Movement, 1817-1921*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3), 64.

116) "건강개혁에 대해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개혁에 관해 아주 부주의합니다. 그러나 일부가 뒤떨어져 있다고 그대가 그들의 모본이 되기 위해 극단주의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 그대가 빼버린 것들을 그대의 식단에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입니다. 건강한 닭에서 계란을 얻으십시오. 이 계란을 익히거나 날것으로 드십시오. 그대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비발효 포도즙에 날계란을 깨뜨려 넣으십시오. 이것은 그대의 신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것입니다."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204.

117) 위의 책, 356.

의 질병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우유와 계란의 사용이 점차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118]라며 전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유와 계란은 오늘날 채식을 실천하는 재림교인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쟁점이자 경건과 세속의 경계선이 되고 있다.

화이트는 평생 공식적인 보직을 맡거나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재림교회 내에서 그녀의 자리와 지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베일이 주변에 둘러쳐진 것처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화이트는 재림교회 신학의 매 고비와 위기마다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1915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녀의 글과 편지는 육성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출판한 성경주석과 교리집은 매 챕터 매 꼭지마다 그녀의 발언을 길게 인용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녀가 생전에 남긴 방대한 문헌들은 성서에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녀가 통해 보여준 영감은 과거 성서를 기록한 기자들의 영감과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그녀가 남긴 문헌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19세기 채식주의가 갖는 정의와 이론, 방식 대부분을 차용했다. 현재 채식주의로 묶여 있는 인간의 행동양식에는 크게 여덟 가지가 존재하는데,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일체의 육류와 동물의 부산물을 먹지 않는 비건(vegan)과 여기에 우유를 추가한 락토(lacto), 우유 대신 계란을 추가한 오보(ovo), 우유와 계란을 모두 추가한 락토오보(lacto-ovo)에 넓게 걸쳐 있다. 물론 우유와 계란을 식단에 넣지 않은 비건이 상대적으로 상위에 위치하며 락토나 오보보다 훨씬 극단적인 채식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그 아래 생선과 해물을 추가한 페스코(pesco)와 생선 대신 가금류를 추가한 폴로(pollo), 육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세미-베지테리언(semi-vegetarian) 등은 엄격히 채식을 실천하는 재림교인들에게 적당한 식단으로 대접받지 못한다.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를 범위(scope)로 나타내면 [표2-6]과 같다.[119] 점선으로 구분된

118) 앞의 책, 365.

119) 로비건은 되도록 조리하지 않은(uncooked)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자연 그대로 먹는 비건으로 식물성분이라도 가공식(processed food)이면 피한다. 이들 중에는 과일만 먹는 푸르테리언(fruitarian)도 있다. 비건은 로비건과 달리 익히거나 조리해서 먹는 데에 거리낌이 없으나 계란과 유제품은 먹지 않는다.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락토오보였지만, 가까운 장래에 환경오염과 사회의 부패, 인간의 죄악 등으로 말미암아 계란과 우유조차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올

비건은 유제품과 계란조차 먹지 않는 극단적 채식주의로 건강신학 내에서 다시 구분된다. 이는 그대로 재림교인들의 음식 피라미드이자 건강신학의 위계를 보여준다.

종류		조리	우유	계란	생선	가금류	적색육	
로비건 raw vegan	○	×	×	×	×	×	×	
비건 vegan	○	○	×	×	×	×	×	재림교회 채식주의
락토 lacto-vegetarian	○	○	○	×	×	×	×	재림교회 채식주의
오보 ovo-vegetarian	○	○	×	○	×	×	×	재림교회 채식주의
락토오보 lacto-ovo-vegetarian	○	○	○	○	×	×	×	재림교회 채식주의
페스코 pescetarian	○	○	○	○	○	×	×	
폴로 pollotarian	○	○	○	○	×	○	×	
세미-베지테리언 semi-vegetarian	○	○	○	○	○	○	○	

[표2-6] 재림교회 채식주의의 범위(백승기)

것이라고 믿었다.

4.3. 이중잣대—「레위기」 11장 신학

오랜 기간 동안 재림교회는 건강신학을 체계적으로 발달시켜왔다. 채식은 그런 건강신학의 절정이자 귀결이다. 맛깔스런 채식 식단을 꾸리는 방법과 각종 요리교실, 디톡스 캠프,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조리신학이 오늘날 재림교회의 강단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채식주의와 「레위기」 11장 신학이 혼재되어 있다.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던 예수는 그들처럼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유대교의 음식규정에 따라 생선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120] 사도 바울 역시 채식이 아닌 유대교의 음식규정을 따랐다.[121] 채식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에게 '최선(best)'의 선택이다. 하지만 채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때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선(second-best)'은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뿐이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정하신 음식인 채식은 이상적인 음식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같은 이상적인 식물(食物)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에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122] 이처럼 채식주의가 재림교회 건강신학의 고점(zenith)에 해당한다면, 「레위기」의 음식규정은 저점(nadir)에 해당한다. 「창세기」의 채식주의가 재림을 기다리는

---

120) 『기본교리28』은 미주(尾註)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신학적 변증을 시도하고 있다. "예수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마가복음」 7장 19절)고 선언하셨다는 마가의 진술은 그분께서 정하고 부정한 음식물의 구분을 철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이의 논쟁은 음식물의 종류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음식을 먹는 방법과 관계가 있다. 논쟁은 식사 전에 의식적(儀式的)인 손씻음이 필요하냐 아니냐였다(2-5절). 사실상 예수께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고 말씀하셨다(20-23절).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19절)고 선언하셨다. 여기에 사용된, 음식물을 뜻하는 헬라어 브로마타(*bromata*)는 음식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다. 즉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을 언급한다. 그것은 육식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기본교리28』, 402.

121)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곧 결혼과 식물(食物)에 신자들이 참여하는 일을 금하게 될 미래의 이설(異說)에 대해서 경고하였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음식물["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로마서」 14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창조하신 모든 음식물들이다. 또한 바울이 한 말을 부정한 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디모데전서」 4장 3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위의 책, 402.

122) 위의 책, 392.

성도들에게 주어진 표준의 상한선이라면, 「레위기」의 음식규정은 하한선을 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2-7]과 같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매일 상한선과 하한선을 가르는 점선을 황도(黃道)처럼 오르내리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한다.

「창세기」 채식 : 최선, 표준의 상한선, 이상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

「레위기」 음식규정 : 차선, 표준의 하한선, 임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표2-7] 건강신학 내에서 채식주의와 「레위기」 음식규정(백승기)

재림교회의 「레위기」 11장 신학은 개신교의 그것과 다르다. 「레위기」 11장(또한 「신명기」 14장)에 등장하는 유대교의 음식규정을 두고 더글라스는 '고색창연한 낡은 수수께끼(hoary old puzzle)' 같다고 말했다.[123]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은 단순히 구약학자들뿐만 아니라 종교학자와 인류학자, 민속학자 등 많은 분야의 학자들에게 절망감을 선사하던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현대 분류체계로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들이 열거되어 있을 뿐 그 가운데 논리적 기준이나 합당한 설명을 찾기 어려웠다. 「레위기」를 연구한 세계적인 신학자 밀그롬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간 「레위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상관없고 비위에 거슬리는 책으로 치부해왔다고 말한다.[124] 그는 지금까지 출판된 「레위기」 주석서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약 중에서 가장 인기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본문이 「레위기」 11장이라고 지적한다.

신학자 고든 웬함(Gordon J. Wenham)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내에서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자의적 해석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자체가

123) Douglas, 42.
124) Jacob Milgrom, *Leviticus*, xii.

자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순종의 시금석'으로 그 이유를 알며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는다. 두 번째, 제의적 해석은 부정한 짐승이 이교 예배에 사용된 짐승, 특히 비(非)이스라엘 신들과 관련된 짐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세 번째, 위생적 해석은 부정한 짐승이 실제로 질병을 감염시켜서 인간이 먹기에 부적합한 육류라는 입장을 견지한다.[125] 네 번째, 상징적 해석은 정결한 짐승의 행태와 습관을 비유나 상징으로 보고 그 행위를 상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입장을 갖는다. 하지만 웬함은 네 가지 해석이 각기 지니는 한계를 차례로 설명하며 어떤 해석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126]

재림교회는 이 네 가지 해석 중에서 공식적으로 위생적 해석을 채택해왔다. 이에 대한 교단의 공식적인 해석은 『기본교리28』에서 잘 드러난다.

>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 더욱이 최근에 실시된 연구 결과는, 증가되는 육류 소비가 동맥경화, 암, 신부전, 골다공증, 선모충병을 일으키며 평균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 본질적으로, 부정한 동물들은 최선의 식물이 되지 않는다. 사자와 돼지로부터 독수리와 해저에 서식하는 흡판이 있는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물이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이거나 육식동물들이다. 그들의 습성 때문에, 그것들은 질병의 중개자가 되기에 더 적합하다. 연구 결과 "돼지고기와 조개는 상당량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중독시키는 많은 독소와 오염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127]

이처럼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은 위생학이라는 과학에 기초해 있다. 『성서』는

---

125) "많은 현대 학자들이 이 설명을 채택한다. 돼지고기는 선모충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반과 산토끼는 야토병의 전염자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러므로 위험한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맹금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새도 마찬가지다." 고든 웬함(Gordon J. Wenham), 『NICOT: 레위기』,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1975]), 189.

126) 웬함은 이어서 더글라스의 인류학-사회학적 접근도 소개하고 있다. 참고로 「레위기」 11장의 해석을 위생적 접근과 더글라스의 인류학-사회학적 접근, 윤리적 접근으로 구분한 학자도 있다. Willem A. VanGemeren (ed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4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12), 484를 보라.

127) 『기본교리28』, 391-392.

오늘날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도 틀림없이 믿을만한 진리를 제공한다. 과학(특히 의학)은 『성서』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건강신학에서 병리학(pathology), 좁혀 말하면, 병인론(etiology)이 해석의 기준이며 토대가 된다.[128]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이나 채식에 관한 재림교회의 문헌들을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129]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재림교회 신학자 게르하르트 하젤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부정을 크게 '획득된' 부정과 '획득되지 않은' 부정으로 나눈다. 보통 일상의 부정은 모든 인간과 사물, 그리고 대부분의 짐승에까지 내재적인 것이다. 본래 깨끗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을 접촉하거나 만지면 부정해진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이처럼 획득된 부정은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 문둥병 같은 피부병을 통해 발생한다. 본래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획득된 부정은 본질상 의례로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둥병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세신(洗身)을 포함한 매우 정교한 의례가 존재한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경우에도 옷을 빨고 밤까지 기다려야 했다.

반면 획득되지 않은 부정은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처럼 특정한 동물에 내재된 부정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 이 부정은 선천적이고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의례를 통해 제거할 수도 조리하거나 끓여서 변경할 수도 없으며, 전파되거나 감염되지도 않는다.[130] 특히 하젤은 「레위기」 11장의 교차대구법 구조를 토대로 부정한 생물의 부정은 전염되지 않으며, 사람이나 사물을 만지거나 접촉하여 획득된 부정과는 다른 종류의 부정이라고 말한다. 결국 음식 규정은 획득되지 않은 부정이기 때문에 의식법과 상관없이 구약에서 주어진 보편적인 법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131]

---

128) 더글라스는 이렇게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을 위생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녀는 과학적 추론이 들어간 해석은 기껏해야 '의학 물질주의(medical materialism)'에 불과하며, 의학에 기댄 해석이 위생과 오염에 대한 관념에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말한다. Douglas, 30.

129) 재림교회 재단이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조사(時兆社)는 매달 「시조」와 함께 「가정과 건강」이라는 잡지를 발행한다. 서울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된 「시조」가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 시사와 상식, 문화, 사회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는 잡지라면, 「가정과 건강」은 오로지 재림교회가 굳건히 지지하는 건강기별과 건강신학에 대한 기사들로 채워지는 잡지다.

130) Hasel, 95.

131) 위의 글, 118.

하젤은 밀그롬을 비롯한 현대 신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레위기」 11장을 분해하고 거기서 정결과 부정의 음식규정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의식법이 아니라 인류 보편에게 적용 가능한 영원한 규정으로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젤의 해석에도 해결해야 할 난제와 메워야 할 틈새가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크리스티 헤이즈는 정결과 부정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에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변천이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2차 성전기를 중심으로 P문서가 이방인에 대한 부정의 기준을 강화했던 이유를 오랜 바벨론 유수기를 거친 유대 민족이 통혼과 문화화를 통해 이방종교의 습합으로 정체성의 위기가 왔던 시대적 배경에서 찾는다. 그 예로 헤이즈는 이전까지 오로지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계보적 정결과 족내혼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132] 「레위기」 11장(H문서)이 P문서와 같은 시기에 완성되었다는 역사적 가설이 맞는다면,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 규정을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둘 때 하젤의 결론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창세기」 1장의 채식과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의 식단이라는 이중잣대(double standard) 문제를 안게 되었다. 두 가지 표준은 재림교회 역사상 일정한 시차를 두고 차례로 등장했으며, 교리의 특성 상 후대의 것이 이전의 것을 폐기하거나 무효화하지 않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다. 두 가지 거의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규정이 서로를 매몰시키거나 상쇄하지 않고 상보적(相補的) 관계 안에서 지금의 형태로 잔존하게 된 과정과 이를 통해 재림교회 내에서 상이한 정체성 집단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132) Hayes, 13.

3장 재림교회 음식규정의 변천

더글라스는 『정결과 위험』에서 구별이 없는 곳에는 부정도 없다고 말한다. 머리카락이나 음식 부스러기, 포장지 쪼가리 등 눈에 띄는 물질들은 대번 '먼지'라는 정체성을 갖는다. 일단 빗자루를 들고 쓸어낼 수 있는 건 쓰레기다. 그래서 우리는 집안을 구석구석 돌면서 눈에 보이는 먼지들을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처리한다. 이건 부정에서 정결로 이행되는 가장 일상적인 정화(청소)의 과정이다. 반면 더글라스는 분쇄나 용해, 부패의 과정을 거쳐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된 것들은 먼지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다. 먼지로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쓸어낼 수도 쓸어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체성이 없는 한 쓰레기는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133]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미세먼지가 등장했다. 매스컴에 실시간으로 고지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현대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먼지의 정체성을 알려주었다. KF-94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미세먼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정결한 공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미세플라스틱 역시 이와 비슷한 정체성을 갖는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에 얼마만큼의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는지 불안하다. 결국 세상에 '절대적인 먼지'란 없다는 더글라스의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옳다. 첫째, 먼지라는 대상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며 도리어 먼지를 먼지로 규정하는 분류체계가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둘째, 그 분류체계라는 것 역시 시대와 지역, 사회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은 역사적 관점을 통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여선지자 화이트가 1863년 최초의 건강기별을 깨달았다고 선언한 이후로 160여 년 동안 재림교회는 건강신학에 정교한 논리적 장치들을 개발해왔다. 그러면서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시대적으로 다양한 변주(變奏)를 거쳤고, 단일한 기준으로 묶일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채로운 층위들을 쌓아왔다.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 역시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신학적 궁리를 통해 매번 종교정체성이 새로이 규정되어왔다. 채식은 이 땅에서 하늘 식탁을 경험하는 이상적인 식단이면서 성도들이 하늘 가는 성품을 만드는 보증된 지름길이었다.

133) Douglas, 161.

최후의 종말을 기다리는 '남은무리'[134]의 식탁에는 고기뿐 아니라 계란과 우유도 있어선 안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음식규정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신앙공동체 안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채식과 육식 사이에 가로놓였던 경계선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렇게 남겨진 채식의 경계선에는 다시 새로운 정체성의 향수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미로 같은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에는 단순히 평면적인 조감도로 바라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 중층적 의미의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 의미의 사각지대는 음식규정의 계보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우리의 시야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채식주의와 음식규정의 변곡점에서 재림교회의 '거룩한 몸'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134) '남은무리(remnant)'는 재림교회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일컫는 명칭이다. 남은무리의 역사적 기원은 1844년 10월 대실망(Great Disappointment) 이후 뿔뿔이 흩어진 밀러파(Millerites) 중에서 예언 연대의 유효성을 확신한 적은무리(little flock,「누가복음」12장 32절)에서 찾을 수 있다. 남은무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요한계시록」14장 12절)라는 성경구절에서 정체성을 확인한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에게 remnant는 '적은무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선택받은 참된 증인으로 십사만사천을 뜻한다. 이들은 장차 아마겟돈 전쟁 후에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지상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큰무리(great crowd)'와 대조를 이룬다. 재림교회는 십사만사천을 상징수로 이해하지만, 여호와의증인은 실제수로 해석한다.

1. 전사(前史)—19세기 건강개혁운동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림교회가 태동했던 19세기 미국의 건강개혁운동이라는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건강개혁은 유럽의 채식주의, 보다 범위를 좁히면, 영국의 채식주의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135] 애덤 쉬프린첸(Adam Shprintzen)은 1817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바이블크리스천(Bible Christians)'이라 불리는 일군의 청교도 무리들이 미국의 건강개혁운동의 뿌리라고 말한다. 이런 흐름을 쉬프린첸은 '원시-채식주의(proto-vegetarianism)'로 명명한다.[136] 절제와 평화주의, 그리고 비육(非肉) 식단을 핵심으로 바이블크리스천 교회를 이끌었던 영국의 목회자 윌리엄 카우허드(William Cowherd)는 농업 기반의 시골생활을 통해 『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우허드는 경건한 삶의 증표로 육식을 금하는 절제생활을 강조했다. 이런 그에게 영향을 받은 윌리엄 멧캐프(William Metcalfe)는 1811년 바이블크리스천 교회의 정식 목회자로 안수를 받았고, 6년 뒤,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를 감행했다. 쉬프린첸은 멧캐프의 도미(渡美)가 미국의 건강개혁운동의 씨앗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멧캐프의 영도 하에 181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바이블크리스천 신도들은 채식주의 10개조 원칙을 정하고 본격적인 포교 활동에 들어갔다. 멧캐프는 채식이 에덴동산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의 식단이라고 주장했고, 예수야말로 진정한 채식주의자였으며, 그가 고기를 먹었다는 복음서의 본문은 모두 후대에 잘못 해석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137] 멧캐프는 『성서』가 음식으로

---

135) 구대륙 채식주의의 전개를 보려면, Tristram Stuart, *The Bloodless Revolution: A Cultural History of Vegetarianism from 1600 to Modern Times*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and Company, 2006)을 참고하라.

136) Shprintzen, 10.

137) 위의 책, 13. 19세기 동물권(animal rights)을 주장하는 인사들 중에 역사적 예수가 본래 채식주의자였으며, 생선을 비롯하여 육식을 했다는 『신약성서』의 구절들은 후대에 의도를 갖고 첨가된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었다. 퀘이커교도였던 찰스 바클라비크(Charles P. Vaclavik)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식주의(*The Vegetarianism of Jesus Christ*)』라는 책에서 예수가 당시 채식주의자들이었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채식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튼 유잉(Upton Clary Ewing)도 『에세네 그리스도(*The Essene Christ*)』라는 책에서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는 슈바이처의 역사적 재구성을 기반으로 예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본래

동물의 살점을 먹지 않고 음료로 술에 취하지 않으며, 전쟁과 사형,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금지한다고 굳게 믿었다. 멧캐프는 고기 섭취가 인간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경향을 낳았다고 믿었기에 육식과 저열한 본성을 등가로 여겼다. 심지어 그는 주정음료보다 육식이 영혼에 더 큰 해악을 준다고 믿었다. 육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138] 이러한 관점은 화이트를 통해 그대로 여과 없이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로 정착했다.[139]

1.1. 빵의 개혁

우리에게 '그레이엄 크레커'로 유명한 장로교 목회자 실베스터 그레이엄 역시 바이블크리스천의 철학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그레이엄은 바이블크리스천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다. 1820년대까지 그는 육식의 해악에는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로지 음주 문제만을 설교 주제로 다루었으나, 1830년대 대중에게 절제운동을 가르치는 열정적인 강사로 거듭나면서 멧캐프처럼 육식 문제를 강의 주제에 넣기 시작했다. 바이블크리스천 교회가 벌인 건강개혁운동은 그레이엄이 알코올 문제에서 식습관으로 강의의 중심을 옮겨가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140]

물고기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공회 주교였던 기드온 우슬리(Gideon Jasper Ouseley)도 『거룩한 열두 복음서(*The Gospel of the Holy Twelve*)』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대체하는 계명, 즉 동물의 살생을 금지하는 계명을 포함하여 예수가 '십이계명'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Richard A. Young, *Is God a vegetarian?: Christianity, vegetarianism, and animal rights* (Illinois: Carus Publishing Company, 1999), 4-6.

138) Shprintzen, 15.

139) "우리는 식단에 있어서 따라야 할 어떤 명확한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실과 곡식, 견과가 풍성한 나라에서 고기(flesh food)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화이트]는 고기가 본성을 동물로 만들고(animalize),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느껴야 하는 사랑과 동정을 남녀에게서 빼앗으며, 저열한 정욕으로 존재의 고상한 능력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404. 화이트의 애니멀리즘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40) Shprintzen, 19. 정확히 1831년 봄부터 그레이엄은 음주 문제에서 비육식 생활과 절제로 강의를 확대했다. 강연의 핵심에는 인간의 육체가 깊은 자기인식의 메커니즘을 통해 통제되고 최적화될 수 있다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레이엄의 강연은 개인위생과 공공보건이라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개

그레이엄의 강연은 큰 호응을 얻었다. 그가 제시한 채식주의는 미국의 도시화와 산업 팽창이 가져다 준 여러 공포감과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해 주는 치료제처럼 보였다. 그레이엄의 강연은 생리학에 기반을 둔 채식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했다. 육식동물은 본래 고기를 씹기에 적당한 날카롭고 긴 이빨을 지니고 있는 반면, 인간의 치아는 초식동물처럼 상대적으로 납작하여 곡물이나 야채를 부수고 갈기에 적당하다는 것이다.[141] 고대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 페니키아인들, 유대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자연식단(natural diet)'이 주는 이익을 말했으며, 플루타르크와 오비디우스, 헤시오도스, 피타고라스도 채식을 실천했으니, 근대 공화주의의 횃불을 든 미국인들도 이러한 위인들의 선도적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인간이 금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육식을 멀리해야 한다. 동물적인 욕정을 일으키고 자극시킬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이 음식물이든 주정음료든 성적인 행동이든 간에, 피하는 게 마땅했다.[142] 이처럼 미

인이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건강 개혁의 책임이 사회나 공동체가 아닌 개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141)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치아와 턱뼈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었다. 17세기 철학자 피에르 가상디(Pierre Gassendi)는 인간이 고깃덩어리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부리나 발톱, 지그재그 이빨, 튼튼한 위장, 생기체액(vital fluids)의 온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식동물에 가깝다는 1세기 플루타르크의 주장을 널리 퍼트린 장본인이다. 가상디가 인간과 동물의 치아 형태에 관심을 쏟았다면, 월리스(John Wallis)와 타이슨(Edward Tyson)은 육식동물들의 내장의 형태와 기능에 주목했다. 월리스는 초식동물은 느린 소화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커다란 대장과 맹장이 있는 내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육식동물은 빠른 음식물 소화를 위해 대장이 없거나 맹장이 작은 충수로 쪼그라들어 있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월리스와 타이슨은 인간의 내장이 유인원들처럼 이러한 초식동물의 내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채식이 인간의 적합한 식단이라고 주장했다. Stuart, 141-146. 이런 주장은 재림교회 문헌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우리 인간이 고기류의 식사를 하도록 원래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인간의 선조나 또는 심지어 그의 어금니 때문은 아니라 내장의 구조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육식동물의 내장은 사람보다 대단히 짧다. 그것은 그들이 먹은 고기가 장내에서 부패해서 독특한 독을 발생하기 전에 빨리 소화시켜 처리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보통 내장의 길이는 몸 길이에 관계가 있는데 몸 길이는 코끝에서 뒤 척추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육식동물의 내장의 길이는 자기 몸 길이의 세배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이나 또는 풀을 먹는 동물은 서서히 식물을 소화시켜야 하므로 내장의 길이는 자기 몸 길이의 12배나 길다." 정사영,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서울: 시조사, 1990), 123-124.

142) '과도한 자극(overstimulation)'이라는 개념은 그레이엄이 주창한 비육식 교리의 핵심이었다. 이는 인간이 균형진 체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일단 육식이나 알코올, 자극적인 향신료가 몸에 들어가 과도하게 체온을 올리거나 자극시키면 우리 신체가 여러 육체적, 도덕적 질병에 취약해진다고 보았다. Shprintzen, 22. 이는 육식 및 오신채(五辛菜)를 금하는 한중일 불교문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김미숙, 「동아시아 불교의 음식 특징 비교: 한국-중국-일본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8 (2016): 415-440를

국에 상륙한 원시-채식주의는 동물의 권리보다는 인간의 윤리적 측면에서 육식을 금지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그레이엄의 비육식 식단의 핵심 요소는 미국인들이 매일 먹는 빵에 대한 재평가에 있었다.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대부분의 빵을 집에서 손수 구웠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남녀 모두 산업 현장에 내몰리면서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서 먹기 시작했다. 당연히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빵에는 발색제나 표백제가 쓰이게 되고 밀겨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영양가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레이엄은 이렇듯 개인과 음식 자원과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을 비판하며 미국인들에게 향수적 염원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그레이엄 빵'이라고 알려진 거친 통곡물 식빵이 만들어졌다. 대중에 공개되자마자 그의 빵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1834년, 그레이엄 빵 광고가 지역신문에 등장했고, 1835년에는 신문에 조리법을 공개하기도 했다.[143] 이후 그레이엄 빵은 재림교회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화이트는 그레이엄의 방식을 따라 하루 2끼를 기본으로 빵부터 바꿔나갔다. 본래 육식을 즐겼던 그녀로서는 결코 쉽지 않았던 도전이었으나, 1864년 결국 식욕의 방종에서 승리했음을 스스로 선언했다.[144] 이후 빵에 그녀의 조언은 흡사 그레이엄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동일한 노선을 따랐다. 나아가 그녀는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빵에서부터 건강개혁을 실천하라고 강조했다.[145]

참고하라.

143) 그레이엄 빵을 모두가 반겼던 건 아니다. 대중 언론들은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미국 농부들과 제빵사들의 동기를 경고하면서 당시 산업자본주의의 흥기를 맞고 있던 미국의 시장경제에 날이 선 비판을 가했던 그레이엄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다. 벽돌 같은 그레이엄 빵을 던지면 창문이 깨질 정도로 딱딱하고 소화되기 힘들다는 악평이 주를 이뤘으며, 그레이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빈번하게 행해졌다. 「뉴욕 미러」지는 그레이엄주의자들을 헛소리로 가득한, 곡해와 멍청함이 충만한 이들이라고 비판했으며, 「뉴욕 리뷰」지는 그레이엄 빵을 "식이요법 허풍(dietetic charlatanry)"이라고 칭했다. 그레이엄의 인기는 의료인들에게도 위협적이었다. 한 의료 잡지는 그레이엄이 건강 문제를 논하면서 나사가 빠졌고, 자만과 허영으로 전도되었다고 공격했다. Shprintzen, 25.

144) Numbers, *Prophetess of Health*, 137-138;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483-484.

145) "양질의 빵을 만드는 데는 생각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덩어리의 잘 만든 빵 안에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종교가 깃들어 있습니다."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257; "모든 그리스도인 소녀와 여성들이 채로 치지 않은 밀가루(unbolted wheat flour)로 양질의 달달하고 가벼운 빵을 만드는 법을 당장 배우는 건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위의 책, 316. 그렇다고 화이트가 그레이엄이 주장했던 모든 노선을 따른 건 아니었다. 그녀는 그레이엄이 1830년대 후반부터 보여주었던 사회개혁과 인권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빵은 받아들이고 그의 철학과 사회 비판 의식은 걸러냈다.

이처럼 채식의 이로움을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과 연결시키며 그레이엄은 1830년대 사회개혁의 정신을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1830년대 중반에는 이미 그레이엄의 식단을 추종하는 이들이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레이엄주의자들(Grahamites)'로 알려진 이들은 빵과 함께 그레이엄의 식이요법 원리들을 매일의 식단과 삶에 적용하려고 했다. 노예폐지론자 니콜슨(Asenath Nicholson)은 뉴욕에서 최초의 그레이엄 방식의 기숙사(boardinghouse)를 열었다. 오늘날 요양원과 유사했던 이 기숙사는 그레이엄 빵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식사와 혈액순환과 소화를 위한 냉수 목욕, 딱딱한 매트리스와 사교 행사가 제공되었다.[146] 노예폐지론자들이나 인권운동가 같은 사회개혁가들은 이 기숙사에서 모임을 가졌다. 니콜슨의 기숙사는 그레이엄이 직접 관여하진 않았으나 금세 입소문을 타면서 개혁적 성향의 뉴욕 시민들이 모이는 지식인의 아지트가

1835년, 그레이엄은 『그레이엄 생활 체계의 변호(*A Defence of the Graham System of Living*)』라는 저서를 출판하며 자신의 통일된 식이요법 이론을 발전, 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채식주의자를 넘어 사회개혁가이자 사상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저열한 식단이 미국에 만연해 있으며 유해한 식단이 단지 개인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국가 자체가 우리 건강을 해치고 도덕성을 왜곡하며 지성을 마비시키는 탐닉과 사치로 타락할 위험에 빠졌다. 한때 지성과 미덕, 자유로 유명했던 한 국민의 타락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며, 미국의 비만이 우리가 겪는 질병과 우리가 당하는 기형과 가난, 우리가 가진 노예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악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도시는 불결한 공기로 가득 찬 유해한 환경에서부터 불완전 고용과 같은 노동 문제를 야기했고, 이 모든 사회악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했다.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내 발전하는 대도시들은 도시의 향락들로 가득했는데, 이는 그레이엄이 보기에 육식만큼 위협적인 악이었다. 살롱과 매음굴, 알코올이 동반된 레스토랑, 무분별한 성행위 모두가 그레이엄이 도덕적-신체적 실패를 유발하는 것으로 금기시했던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Shprintzen, 25-26. 그레이엄의 이런 식육의 관점에서 도시 문명을 비판한 논리는 화이트의 전원생활과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46) 니콜슨은 거주자들이 도시생활의 위험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한 "단호한 성질과 지적 명확함"을 갖추기 위해 그레이엄 빵과 신선한 채소, 냉수 목욕을 제공했다. 동물성 고기는 카페인과 알코올 같은 다른 독극물이 그렇듯 기숙사에 반입이 금지되었다. 구운 그레이엄 빵을 물과 끓여 모닝커피 한 잔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아침은 언제나 그레이엄 빵으로 구성되었고, 거기에 사과와 복숭아, 체리, 딸기 같은 다양한 과일들이 곁들여졌다. 흥미로운 것은 계란이 아침 식단에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오후에 제공된 점심은 주로 쌀과 죽, 옥수수죽, 비트, 감자, 당근, 순무, 호박 등 다양한 제철 채소로 차려졌다. 저녁은 더 단순했는데, 그레이엄 빵과 우유, 오트밀, 보리죽, 으깬 콘밀 등으로 가볍게 차려졌다. 식단의 성공 여부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 수치였는데, 그들은 당시 창궐했던 콜레라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독감에도 걸리지 않았다. 30～60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승마 같은 운동이 요구되었고, 매일 스펀지 목욕과 최소한 주중 한 번 전신 목욕이 요구되었다. 푹신한 침대가 생체적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그레이엄의 강연에 따라 깃털 매트리스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모든 기숙사는 식사 시간과 방문객의 규칙과 비용 등이 명시된 내규를 가지고 있었다.

되었다.[147]

1.2. 유토피아 공동체

『작은 아씨들』로 유명한 여류소설가 루이자 앨콧(Louisa May Alcott)의 아버지인 브론슨 앨콧(Bronson Alcott)은 1843년 교외에 유토피아 공동체를 세워 비육식 생활에 대한 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원시-채식주의자들에게 비육식 건강개혁의 가능성을 집단 주거문화로 확대한 것이었다.[148] 그는 교육개혁가인 찰스 레인(Charles Lane)과 함께 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하버드 매사추세츠에 11에이커의 땅을 구매한 뒤, 함께 공동체 실험에 참여할 개혁적 성향을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 잡지에 광고까지 내는 열의를 보였다. 광고 속에서 곧 세워지게 될 공동체는 단순히 농사가 목적이 아닌 동거인들의 몸과 생활의 '정화와 교화(purifying and edifying)'가 목적이라고 떳떳이 밝혔다. 식단은 "과일과 곡물, 콩, 각종 채소, 아마, 그 밖의 다른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앨콧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후르츠랜드(Fruitland)'로 명명하며 자신들의 식단에서 이름을 따온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들 공동체는 미국에서 자생한 유토피아 공동체주의(utopian communalism)의 대표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149]

---

147) Shprintzen, 27-28. 기숙사는 거주자들에게 비육식 식사뿐 아니라 노예제, 참정권, 절제와 같은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레이엄주의자들은 미국의 도덕개혁과 과학개혁자들의 횡단면을 대표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들은 그레이엄주의와 함께 연관된 개혁적 이념에 흥미를 느꼈다. 여기에는 「뉴욕 트리뷴」의 편집장 호레이스 그릴리(Horace Greeley), 평화주의자 헨리 라이트(Henry Clark Wright), 노예제폐지론자 루이스 태펀(Lewis Tappan)과 시어도어 웰드(Theodore Weld), 장차 전미노예반대협회 회장이 될 아서 태펀(Arthur Tappan)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48) 차와 설탕, 당밀은 노예들의 부당한 노동을 통해 생산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그들은 실험이 주는 장점과 식습관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성적 평등과 노동 평등, 인종 평등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급자족적인 농업 기반의 생활방식이라고 결론 내렸다. 세금과 개인토지소유권, 노예가 생산한 제품, 알코올, 화폐, 육류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억압의 기제를 전복시키는데 필요한 두 가지 방침을 정했다. 그 중 하나가 유토피아적 비육류 사회주의 실험인 후르츠랜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앨콧과 레인은 '개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보다 더 큰 사회적, 정치적 악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Shprintzen, 48-49.

149) 미국에서 만개한 유토피아 공동체주의는 사회개혁과 함께 종교적 완전주의로 나아가기도 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한 존 험프리 노이스(John Humphrey Noyes)가 부흥사 찰스 핀리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뒤 뉴욕 근교 오네이다 호수 주변에 250여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세운 오네이다(Oneida)가 있다.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일체의 자원과 재

이러한 유토피아 공동체주의는 이후 화이트와 재림교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화이트에게 도시생활은 죄악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의 교훈을 상기시켰다.[150] "도시를 벗어나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화이트]의 기별입니다. 대도시로부터 여러 마일 떨어진 곳에 거주하라는 부르심은 우리 백성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날의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볼 때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도시를 떠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151] 그녀는 병원과 요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들을 도시에서 벗어난 전원이나 시골에 세울 것을 권면했고, 신도들의 가정 역시 육아와 교육에 최적의 장소로 도시 외곽을 지목했다. 앨콧의 전원생활이 사회개혁의 가능성을 탐색한 전초기지였다면, 화이트의 전원생활은 마지막 시대 종말론과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152] 특히 화이트의 전원생활은 국내에 '시골생활'로 소개되며 전역에 많은 재림교회 신앙공동체를 탄생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 오늘날 유토피아 공동체를 꿈꾸며 시골생활을 이어가는 재림교회 집단들은 강원도 원주와 횡성, 둔내, 충북 보은, 충남 광천, 보령, 경북 봉화, 경남 하동 등 여러 곳에 아직까지 집단 거주지를 이루어 활동하고 있다. 시골생활은 재림교회 채식주의를 논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뉴스타트 요양원으로 확대되었다.

산, 심지어 육아와 부부관계도 공유했던 이들은 '바이블 사회주의(Bible communism)'를 표방했다. 우생학에 기초한 오네이다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는 오네이다를 지상에서 완전한 인간을 생산하려는 거대한 실험장으로 삼았다. 이들은 남성의 사정 억제술을 통해 우연적 임신을 예방하고 집단 내 모든 성교를 계획적 임신의 발판으로 이해했다. 후르츠랜드가 '빵(bread)'으로 달성하려 했던 유토피아를 오네이다는 '출산(breed)'으로 구현하려 했다. 오네이다에 관해서는 Anthony Wonderley, *Oneida Utopia: A Community Searching for Human Happiness and Prosper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7)을 참고하라.

150) "한 민족 안에 불법이 성할 때 롯의 음성이 소돔성에 들렸던 것처럼 경고와 교훈을 주는 어떤 음성이 항상 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롯이 이처럼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가족을 허다한 악에서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 안에서 했던 모든 활동은 도시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살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llen G. White, *Last Day Events* (Boise,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2), 96.

151) 위의 책, 95.

152)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였듯이, 교황의 안식일[일요일]을 시행하라는 법령으로 우리 국가[미국]의 일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도시(large cities)를 떠나 산간의 한적한 곳에서 궁벽한 거처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도시들(smaller ones)마저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5 (Battle Creek, MI: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882), 464.

1.3. 건강개혁의 마스터플랜

화이트는 1863년 6월 미시간 주 오체고에서 건강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고 선언한다. 이 내용들은 이듬해인 1864년 『영적 선물』로 출판된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그녀와 남편 제임스 화이트는 전직 전미채식협회 회원이었던 제임스 잭슨(James Caleb Jackson)이 운영하는 뉴욕 댄스빌의 언덕 위의 우리집(Our Home on the Hillside)이라는 요양원을 3주 동안 둘러보게 된다.[153] 여기서 화이트 부부는 요양원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성에 큰 감명을 받게 된다. 특히 잭슨의 요양원이 운영하는 채식 식단과 수치료뿐만 아니라 천연치료제와 공기, 물, 햇빛, 휴식의 강조는 부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물론 카드게임이나 댄스 같은 일부 세속적인 프로그램이나 잭슨의 신학적 견해 등 화이트 부부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화이트 부부는 그곳에서 3주간 머물렀다. 엘렌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치료 과정의 일부가 자신의 계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순방에서 돌아와 『건강: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글을 쓰고 1865년 초에 이를 출판했다."[154]

1866년 8월, 재림교회는 건강잡지인 「건강개혁자」를 발행했고, 9월 배틀크릭에 서부건강개혁요양원(Western Health Reform Institute)을 설립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이 대부분 건강에 관한 계시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건강에 관한 출판물과 요양원 개소는 대부분 이전 건강개혁자들의 영향 아래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었다. 재림교회는 시조사에서 인쇄기사로 근

---

153) "그녀[화이트]의 글에 강한 흥미를 느낀 제임스는 잭슨 의사의 글을 생각하며 댄스빌에 연락해 수치료 관련 책과 소책자 견본을 신청했다. 엘렌은 그가 그 자료들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잭슨은 그 책을 보내면서 그것과 함께 사역자 할인이 적용된 수치료 초대권, 즉 주당 2.5달러의 요금으로 자신의 수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을 보내 주었다." 제럴드 휠러(Gerald Wheeler), 『제임스 화잇: 혁신가 그리고 승리자』, 이국헌 역 (서울: 시조사, 2013[2003]), 221-222. 견학 수준의 방문이 끝나고 거의 1년 만에 제임스 화이트는 뇌졸중 초기 증세로 쓰러져 실제로 치료 차 잭슨의 요양원에 3개월 입소하게 된다.

154) 휠러, 위의 책, 224. "화이트 여사는 지나친 안정과 종교적 무관심을 강조하는 잭슨 의사의 처방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해 크리스마스 밤에 화이트 여사는 로체스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건강개혁 묵시를 보았다. 이 묵시에서 화이트 여사는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이 단순히 식생활의 개선이나 위생생활의 영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림교회의 종교적 증거와 관련된 것으로서 재림교회는 이제 더 이상 통속적인 의료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재림교회의 독자적인 기별에 기초한 자체 의료기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았다." 오만규, 『재림교회사』 (서울: 시조사, 1993[1980]), 203-204.

무 중이었던 십대 청년 존 하비 켈로그(John Harvey Kellogg)를 1873년 가을 뉴저지 주의 플로렌스 하이츠에 있는 러셀 트랄(Russell Trall)의 위생치료학교(Hygeiotherapeautic College)에 유학을 보낸다.[155] 졸업 후, 켈로그는 보다 전문적인 의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미시간대학교 의대에 진학했다. 자신의 졸업 논문에서 질병은 자연적인 과정이 흐트러졌다고 몸이 보내주는 경고의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며, 고통은 환자가 자연 법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징후라고 주장했다. 고통을 경감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연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운동, 채식의 기본 원칙들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1875년, 그는 24세의 나이로 학위를 마치고 화이트 부부가 세운 서부요양원으로 돌아왔고, 명칭도 배틀크릭 위생병원(Battle Creek Sanitarium)으로 개칭했다.[156] 사람들은 줄여서 그냥 '샌(San)'이라고 불렀다. 이 요양원은 건강개혁의 마스터플랜이었고, 오늘날 재림교회가 보유한 전 세계 위생병원들의 모태가 되었다.

켈로그가 행했던 의술에는 '배틀크릭 체계(Battle Creek System)'라는 게 있었다.[157] 켈로그는 육류는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며 곡물을 통해 우

155)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를 언급할 때 러셀 트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실베스터 그레이엄이 죽을 때 그의 병상을 지켰던 인물로서 채식을 하나의 조직적인 운동(movement)으로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1870년대 트랄의 학교는 의대에 진입하려는 젊은 재림교회 청년들('재림청년'이라 함)을 가르치는 양성소 역할을 했다. 그가 전국적인 규모로 벌였던 채식운동은 비록 와해되었지만 천연치료에 대한 강조와 함께 재림교회와 건강개혁 이념에 있어서는 밀접한 연대를 지속했다. 비록 트랄의 학교에 켈로그가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가 평생 채식주의에 헌신했던 건 트랄의 영향 때문이었다. Shprintzen, 119-120.

156) 당시 흔히 쓰였던 '새니토리움(sanitorium)'이란 용어는 본래 부상당한 영국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전부터 사용되어왔던 요양원(health resort)을 지칭했다. 켈로그는 이 명칭을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교육을 위한 기관이라는 의미로 '새니타리움(sanitarium)'으로 바꾸었다. 위의 책, 121.

157) 배틀크릭 체계의 중심에는 이후 재림교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채식주의가 자리하고 있었다. 채식주의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요소였고 위생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와 손님, 직원, 방문객들마저 철저히 따라야 했다. 요양원의 일과는 켈로그의 건강강의들로 채워져 있었다. 위생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히 환자가 아니라 천연치료를 소개하는 첨병으로 활동하기를 요청받았다. 켈로그는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극도로 드물어졌음을 환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이는 모두 부적절한 식사와 비과학적인 생활, 부절제가 구체적이고 만성적인 질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은 채식주의 식단과 운동, 적합한 의복 등 광범위한 주제들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당시 위생병원의 일상은 1994년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앨런 파커(Alan Parker) 감독의 영화「Road to Wellville」에서 잘 그려졌다. 주인공 켈로그 역은 앤서니 홉킨스(Anthony Hopkins)가 분했다. 채식주의와 수치료, 절제생활 등 배틀크릭 체계는 고스란히 국내 재림교회에도 전해져 전국 요양원에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리가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절대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흔히 먹는 고기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impurities)'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채식이 이상적인 식단이라는 그의 주장은 해부학적 분석과 비교생리학, 실험상의 증거들로 뒷받침되었다. 나아가 그는 채식주의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저널과 각종 기사들, 실험실에서의 결과들을 가감 없이 대중에게 제시했다.[158] 켈로그의 배틀크릭 체계는 오늘날 재림교회 건강신학의 원형이 되었다.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이처럼 19세기 건강개혁운동과 채식주의가 갖는 정의와 이론, 방식 대부분을 차용했다. 실베스터 그레이엄은 재림교회 채식주의에 빵의 유산을 물려주었으며, 19세기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생겨난 그레이엄 기숙사와 유토피아 공동체는 훗날 재림교회의 채식주의 실험장이 되었던 뉴스타트 요양원 문화를 잉태했다. 이후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한 편으로 교회를 선전하는 선교 도구로 응용되었고, 다른 한 편으로는 최근 그리스도교 현대신학, 동물권신학과 생태신학에서 운위되는 윤리적 채식주의에 대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다.[159] 다음 장에서는 화이트가 구체적으로 채식주의를 어떻게 수용했으며, 이를 재림교회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

158) 켈로그는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 채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기는 식물의 왕국에서 발견되지 않는 영양소는 하나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기는 요산, 콜레스테롤, 그 밖의 독소들로 가득한 '유독한 피(venomous blood)'에 절어있다. 고기는 동물이 도살되는 순간 이미 건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로 가득하다. 강연과 저작활동을 통해 켈로그는 도살하기 이전의 동물들이 병들어 있는 상태의 결과로 인해 촌충과 선모충병, 폐병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Shprintzen, 124-125. 이런 켈로그의 견해는 육식에 대한 화이트와 재림교회의 견해와 일치한다.

159) 이국헌은 그리스도교가 역사 초기부터 채식주의를 비롯한 금욕주의적 식생활 관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관된 신앙전통으로 계승시키지 못하고 먹는 행위를 공적 신앙의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비정통적이며 사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제쳐놓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4세기 은수자들과 중세 수도원 문화에서 19세기 건강개혁의 맹아를 찾을 수 있으며, 16세기 종교개혁 전통에서 상당 부분 억압되고 부정되었던 금욕주의와 채식주의를 훗날 그레이엄을 비롯한 건강개혁자들이 계승하거나 되살려낸 것으로 본다. 이국헌, 「기독교 채식주의의 역사와 사회윤리적 담론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60 (2021): 97-127.

2. 출발점—엘렌 화이트의 건강개혁

2.1. 하늘 식탁—정결한 음식의 노스탤지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엘렌 화이트의 건강개혁은 흔히 1863년 6월 5일 미시건 주 '오체고 묵시(默示)'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강개혁의 맹아(萌芽)는 그녀가 보았다고 주장한 1844년 12월 첫 계시에서도 이미 확인할 수 있다.[160] 1844년 12월, 대실망으로 좌절에 빠진 여신도 다섯 명이 함께 모여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제일 연소했던 십대의 화이트(당시는 엘렌 하몬)는 천계(天界)로의 여행을 떠난다.[161]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계시에 싸여 지상에서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으며,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재림신도들의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162] 당시 경험을 기록한 『초기문집』에는 그녀가

---

160) 1914년이 여호와의증인에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해라면, 1844년은 재림교인에게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해다. 1844년은 재림교인에게 종말론의 출발점이면서 선구자들(founding fathers)이 가진 신앙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숫자기 때문이다. 1844는 오늘날 3004와 함께 국내 재림교인들이 자신의 전화번호로 애용하는 숫자로 꼽힌다. 재림교회 신학에서 1844년은 예언의 거시적 시간표인 2300주야의 끝이면서 예수님이 하늘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해이기도 하다. 반면 3004는 '남은무리'로서 재림교회에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으로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을 상징한다. 결국 1844는 재림교회의 출발점을, 3004는 재림교회의 종착점을 상징하는 숫자다.

161) "엘렌 하몬은 일군의 백성(교회)이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통과해야 할 길은 밝게 비춰진 길처럼 세상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그 출발점에는 선명한 빛이 켜져 있었고 그 광선은 둘러싼 흑암을 뚫고 빛나는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까지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놀라운 빛은 모두가 고대하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환희에 벅찼던 [1844년] 가을의 위대한 밤중소리(제칠월운동)로 선언되었다. 그녀[하몬]의 첫 번째 이상이 말하는 기본 메시지는 명확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강력한 밤중소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그들이 계속 밝게 빛나고 있는 빛 속으로 걸어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반대로 끊임없는 빛 속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결국 길에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비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Le Roy Edwin Froom, *Movement of Destin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1), 82. 천계 여행은 종교체험 가운데 매우 흔한 사례다.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밧줄이나 나무, 사다리를 통하여 천계에 오르는 신화는 종교문화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한다. 천계 여행을 모방하기 위해 시베리아나 알래스카의 이누이트, 북아메리카의 샤먼들은 장대를 타고 천계에 기어오른다. 천계 여행은 각종 신화에도 빈번히 등장한다. 『구약성서』의 엘리야는 불의 전차(*Merkabah*)를 타고 하늘을 올랐고, 무함마드도 부라크(*Buraq*)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천계 여행(*Isra Mi'raj*)을 했다.

162) White, *Early Writing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5[1882]), 13.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십사만사천과 함께 맞이하고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여행한 내용이 들어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본 뒤, 화이트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만찬에 초대되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이 '하늘 식탁'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 식탁의 길이가 수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는 눈으로 그 식탁 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아몬드(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게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 이 땅의 과일을 먹은 사람은 지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단다. 그러나 네가 만일 신실하다면 잠시 후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샘솟는 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네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163]

그녀가 하늘 예루살렘 만찬에서 본 건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산해진미가 아니라 지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일들로 꾸려진 소박한 식탁이었다. 주지육림으로 차려진 무슬림의 천국도 아니었다.[164] 주연(酒宴)에 빠질 수 없는 그 흔한 와인 한 잔 없었다. 오로지 생명과와 만나, 그리고 과일들로 채워진 식탁이었다. 이 하늘 식탁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몰두하게 될 채식주의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천계 여행을 마치고 땅으로 하강한 그녀는 이상에서 본 것들을 그리며 마치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고향땅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히브리 노예들처럼(「시편」 137편 1-4절)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화이트]게는 모든 게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어두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 이 세상은 내게 얼마나 어둡게만 보이던지... 나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향수(homesick)를 느끼며 슬피 울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은 내게 이 세상에 관해 흥미를 잃게 했습니다."[165]

화이트에게 하늘 식탁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이상적인 식단

---

163) White, *Early Writings*, 19.
164) 『쿠란』 56장 10-22절
165) White, *Early Writings*, 20.

의 원형(archetype)이면서 동시에 순수와 이상의 세계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상기물(reminder)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가 본질적으로 건강기별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게 된 건 그로부터 거의 20여 년이 지난 1863년이 되어서였다.

2.2. 음식과 정욕의 관계

화이트는 건강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 스스로를 '육식을 즐겼던 사람(great meateater)'으로 소개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는 교회 안에서 돼지고기를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이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시험거리로 삼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는 1850년에 "우리는 『성서』가 복음서에서 돼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가르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고 썼다. 1858년, 스테픈 해스켈(S. N. Haskell)이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다시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화이트는 그에게(원고에는 'A형제'라고 되어 있음) 직접 편지를 보내 돼지고기를 삼가는 일이 교회의 의무라면 하나님이 당신 말고도 두세 명 이상에게 그와 동일한 기별을 주었을 것이라고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전했다.

> 돼지고기에 대한 그대의 견해는 그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별 다른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판단과 의견으로 이 문제를 하나의 시험거리로 만들었고, 그대의 행동은 이 문제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삼가게 하실 거라면, 그분은 그 문제에 대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 만약 돼지고기를 삼가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두세 사람 이상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교회에 마땅한 의무를 가르칠 것입니다.[166]

어쨌든 이 편지로써 적어도 1863년까지 돼지고기에 대한 화이트의 견해는

---

166) 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1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8), 206-207. 이 문제에 대해 훗날 『교회증언』의 편집자는 2판에서 오늘날 글을 읽고 당혹스러워할 독자들을 위해 화이트가 이 글을 쓸 당시는 아직 건강기별을 받기 전이었다고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놓았다.

명확하다. 그때까지 그녀는 돼지고기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즐겨 먹기까지 했다.[167] 사실 당시 화이트에게 건강기별은 음식문제보다는 성(性)적인 문제와 더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부절제한 삶이 건강을 망치며 동물적인 욕정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고 그 핵심에는 자위라는 음습한 악행이 있다고 보았다.[168] 이듬해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호소』라는 64쪽짜리 얇은 책자를 출판했다.[169] 일부 채식의 중요성과 함께 육식이나 양념, 디저트의 해악을 열거하고 있으나, 책의 지면은 대부분 자위에 대한 원색적인 경고들로 채워져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학교를 그만두면서 또래들과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그런 고립이 도리어 자위에 대한 '복된 무지(blissful ignorance)'를 주었노라고 고백했다.[170]

---

167) 해스켈이 1858년에 일으킨 문제제기가 일단락되고 2~3년 뒤, 화이트는 커티스(Curtis) 자매에게 남편이 원한다면 돼지고기를 요리해 주라고 조언했다. 자신들의 입장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듯, 제임스 화이트는 커티스 자매에게 보낸 편지 뒷면에 다음과 같이 적어 넣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면, 우리는 막 200파운드의 돼지고기를 끝냈습니다." 조지 R. 나이트(George R. Knight), 『뚱보 아줌마와 천국: 기관주의와 세속화의 도전에 맞선 재림교회의 선교 사명』, 남주혁 역 (서울: 시조사, 2000[1995]), 147.

168) 자위를 가리켜 화이트는 '은밀한 죄악(solitary vice)'이나 '비밀스런 습관(secret habit)'이라고 썼는데, 이 표현들은 당시 통용되던 자위를 가리키는 고상한 표현이었다. 그녀에게 자위는 끔찍한 죄였다. 자위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생기(vital force)를 소진시켜 각종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자위의 결과는 카타르(감기)와 수종, 두통, 기억력과 시력 감퇴, 등과 허리의 약화, 척추감염, 그리고 종종 머리 안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Ellen G. White, *A Solemn Appeal*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870), 73.

169)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호소』의 편집자는 '순결'에 대한 29쪽 분량의 글을 그 책에 추가했는데, 이는 화이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의학계의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진' 인물들의 글을 인용한 것이었다. 그레이엄, 고브, 잭슨, 콜즈, 골상학자 파울러, 워체스터 주립정신병원의 기관장 사무엘 우드워드 등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다. 이런 인물들의 관점이 엘렌 화이트의 것과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에, 출판인(즉 제임스 화이트)은 그녀가 이상에서 본 것을 글로 옮기기 전에 그들의 저서들을 읽었다는 점을 부인하는 주석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넘버스 외 공저, 「과학과 의학」, 370.

170) "내가 아홉 살 무렵이었을 때 일어난 불행은 내 건강을 망쳤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큰 재앙으로 바라보고 투덜거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 나는 그 문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 때문에 나는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이는 복된 무지 속에서 어린 아이들의 비밀스런 악행[자위]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입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파멸의 행위를 끝낸 몇몇 여성들이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사적인 고백을 해서 그런 악덕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악덕의 정도와 그로 인해 생긴 건강의 상해에 대해 최근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Ellen G. White, *An Appeal to Mothers*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864), 20.

음식과 정욕의 관계는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화이트는 자녀들의 불순종과 무기력함, 나태를 비롯하여 정신적, 신체적 질병들이 대부분 자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쁜 손장난에 습관을 들이기 전에 어머니로서 단호하게 제지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1] 자위를 단념하게 하는 그녀의 첫 번째 조언은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것이었다. 특히 육식은 동물의 비루한 정욕을 받아들이는 관문이며 아이들을 자위에 탐닉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믿었다. 결국 자위 문제에 있어 일차적 책임은 아이들의 식단을 꾸리는 어머니에게 있으며, 책임 있는 어머니라면 정결한 재료를 통해 빵을 만들고 채소와 곡류로 식단을 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욕을 격발시키는 육류와 양념을 식탁에서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화이트는 서명(書名)을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호소』라고 지었던 것이다. 켈로그가 정욕을 가라앉히기 위해 시리얼을 만들고, 발기를 조절하기 위해 특수한 포경수술을 제안한 것 역시 음식과 정욕의 상관관계를 중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탄생했다.

2.3. 채식—건강개혁의 완성

1863년 6월 5일, 화이트가 본 계시에는 그녀와 남편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5월, 단체를 공식적으로 조직하고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난상토론과 일부 진영의 이탈은 제임스 화이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했다.[172] 당시 화이트가 보았다는 계시는 다음 날

171) 화이트의 자위금기는 그레이엄 등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의학자 에이브러햄 야코비(Abraham Jacobi)는 자위와 아동의 히스테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선천적인 조건이 아이에게 신경질환과 삼원 신경통을 일으켰고, 젊은 여성에게는 위황병과 히스테리를 일으켰으며, 갱년기가 지속적인 증상을 부분적으로 끝낼 때까지 나쁜 예후를 보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빈혈과 자위의 결과였고, 어떤 경우는 말라리아나, 급성 질환으로 인한 더딘 회복, 또는 장기간의 장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최악의 초기 사례들은 자위 때문이었습니다." Abraham Jacobi, *On Masturbation and Hysteria in Young Children* (New York: William Wood & Co., 1876), 10.

172) 재림교회가 1860년 공식적으로 합회(conference)를 조직하고 1863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라는 명칭으로 정식 단체를 조직하기까지 안팎으로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다. 본래 선구자들은 교회 조직을 세우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출판사를 비롯한 대규모 기관들을 거느린 종

종이에 기록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영적 선물』4권에 담겨 출판되었다. 이 내용은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육식과 체액의 관계, 더럽고 뜨거운 피, 불결한 음식과 질병의 인과성 등을 담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는 글에서 돼지고기가 문둥병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노동의 절제, 먹고 마시는 것의 절제가 그것입니다. 무절제로 인해 인간들의 가정에는 엄청난 불행이 닥쳤습니다. 돼지고기의 섭취는 연주창, 문둥병, 암을 유발하는 체액(humors)을 만들어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식욕은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들을 갈망합니다. ... 많은 이들이 오로지 육식으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죽지만, 세상은 더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살하기 위해 꽤 먼 거리를 운반되어진 동물들은 빈번히 살해됩니다. 그들의 피는 뜨거워졌습니다. ... 그들의 피는 염증이 가득해서 그 고기를 먹는 이들은 독을 먹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 특히 대도시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육식가들은 자신들이 병든 동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173]

화이트는 1863년에 건강에 대한 일괄적인 계시를 보기 전까지 채식과 식생활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육식을 십대부터 시작된 병마와 선천적으로 나약하고 허약한 체력을 보완하는 데 필수적인 식단으로 여겼다.[174] 1848년, 술과 담배, 커피에 대한 부분적인 절제를 주장했을 때에도,

---

교단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바벨론'으로 규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1863년 직후, 목회자였던 스누크(B. F. Snook)와 브린커호프(W. H. Brinkerhoff)는 제임스 화이트의 리더십에 반발하여 이탈하여 마리온파(Marion Party)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소멸된 대부분의 분파운동과 달리 오늘까지 '하나님의교회(Church of God)'로 남아있다. 재림교회 조직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려면, George R. Knight, *Organizing for Mission and Growth: The Development of Adventist Church Structure*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2006)을 참고하라.

173) Ellen G. White, *Spiritual Gifts*, vol.4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945[1864]), 146-147. 당시 건강개혁자들 중에는 오랫동안 서구의학을 지배해왔던 체액설을 그대로 믿는 이들이 있었다. 화이트 역시 체액(humor)에 대한 유사한 이해를 갖고 있었다. "의학이 변화되었듯이 그녀의 어휘도 마찬가지로 변해갔다. 일례로, 초기 글에서 그녀는 육식이 '암적이고 병적인 체액으로' 피를 채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보여주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나 몇 십 년 안에 루이 파스퇴르와 로버트 코흐와 같은 과학자들이 세상에 '세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고, 이어 따라 그녀는 자신의 용어들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그녀는 건강에 관한 자신의 가장 성숙한 글인『치료봉사』에서 체액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보다 더 과학적이고 최신의 용어인 '결핵과 암적 세균'으로 대체했다." 넘버스 외,「과학과 의학」, 377-378.

그리고 1854년 청결과 절제, 식욕의 통제, 기름진 음식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말했을 때에도 그녀의 육식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1865년 크리스마스에 그녀는 건강에 관한 두 번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건강개혁이 선교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강력한 기별을 담고 있었다. "1865년 12월 25일, 뉴욕 주 로체스터에서 받은 이상에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하여 주신 빛을 실천하는 일에 등한히 해오고 있으며,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하여 택하신 섭리를 따르는 일에 너무도 뒤떨어져 있고, 우리 앞에는 아직도 해야 할 큰 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175] 이는 채식이 재림교인들에게 하나의 '의무'처럼 고수되어야 할 것을 명령한 최초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과 품성, 이 세상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참으로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충분히 각성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별로 없습니다. ... 구주께서 신속히 나타나시기를 바라고 있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이 위대한 [건강]개혁 사업에 있어서 관심의 부족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녀들은 교훈을 받아야 하고,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 문제를 검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도록 강조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지워진 사업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176]

그러나 정작 화이트 본인은 스스로에게 매우 느슨하고 관대한 해석을 적용했다. 그녀가 1870년대 사슴고기와 닭고기를 요리해 먹었고, 80년대 굴과 청어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77] 심지어 그녀가 1894년까지 이따금씩 육식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1894년 1월, 화이트는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돌아선다. 호주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재림교회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던 한 가톨릭 신자가 개인적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자신의 말을 듣고 낙담하는 모습을 본 뒤로 화이트는 고기를 완전히 끊겠다고 다짐한다.

---

174) Theodore Levterov, "Ellen White and Vegetarianism," in Merlin D. Burt (ed.), *Understanding Ellen White: The life and work of the most influential voice in Adventist history*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5), 199.
175)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1, 486.
176) 위의 책, 489.
177) Levterov, 203-204.

변태적인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이기심이 내 발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한 가톨릭 여성에 의해 나에게 드러났을 때, 나는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빛을 통해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축업자를 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식탁 위에 동물의 사체를 올려두지 않을 것입니다."[178]

그녀의 채식주의를 비롯한 『예언의신』에 등장하는 신론과 기독론, 종말론 사상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줄기가 서로 충돌하고 어긋나기도 한다.[179]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의 채식주의를 뒷받침하는 텍스트는 「레위기」 1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이었다는 점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후기성도교회의 개조(開祖)이자 선지자로 추앙받는 조셉 스미스(Joseph Smith Jr.)는 신도들에게 적당한 육식을 허용했다. "그러하도다. 또한 짐승과 공중의 새의 고기도 사람이 감사하면서 사용하도록 나 주가 정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것들은 조금씩

178) Ellen G. White, *Testimony Studies on Diet and Foods* (Loma Linda, CA: College of Medical Evangelists, 1926), 67.

179) 해럴드 블룸(Harold Bloom)은 화이트의 신학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미국의 어떤 종교도, 심지어 여호와의증인조차도, 재림교회만큼 복잡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이것을 무례가 아니라 감탄으로 말한다. 비록 표현력은 제한적이었지만 엘렌 화이트는 1844년 10월 22일 밀러파의 대실망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더라도 놀랍도록 미로 같은 종교적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열일곱 살이었고, 불과 두 달 후 이상을 봄으로써 세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녀 나름의 아쉬움을 달랬다. 그녀의 이상은 세 반세기 동안 매년 평균 약 여섯 건의 비율로 지속되었다. 사도 바울이나 조셉 스미스와는 달리, 엘렌 화이트가 그녀의 이상을 길들이고 심지어 일상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의 이상은 재림교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고, 그들은 그녀의 이상에 증언(Testimonies)의 지위를 부여했다. 『예언의신』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 증언들을 수용하는 일은 여전히 재림교회로 진입하는 유효한 입교 절차로 남아 있다. 후기성도교회가 『모르몬경』이 담고 있는 진실보다는 조셉 스미스의 초기 이상의 진위를 받아들이는 데 동일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Harold Bloom, *The American Religion* (New York: Chu Hartley Publishers: 2006[1992]), 156-157. 반면 올브라이트는 근대 250년의 인류 역사에서 선지자로 간주한 5명의 사람들 중 하나로 엘렌 화이트를 거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메시지가 갖는 도덕적, 종교적 내용이었다. 게다가 선지자들은 항상 확실한 패턴을 따르지는 않았다. 때로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난 250년 간 최소한 이따금씩 고양의 순간에 특정한 인물들을 특징지었던 넓은 인식의 분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공유했다, 하인리히 하이네와 레옹 블루아(Leon Bloy)의 유명한 독일과 프랑스에 관한 미래 예언이나 쥘 베른(Jules Verne)의 미래 기술에 대한 판타지 전망이나 에마뉴엘 스웨덴보리와 엘렌 화이트의 미래를 엿보는 것만 참고하면 된다." William Foxwell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Monotheism and the Historical Process*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Press, 1957[1940]), 19.

사용해야 하느니라."(『교리와성약』 89장 12절) 그에 비해 육식에 대한 화이트의 관점은 거의 저주에 가깝다. 이런 화이트의 관점은 그녀가 일찍이 채식을 종말론과 결부시켰기 때문이다. 육식을 끊지 못하고 결국 건강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이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 받을 무리와 동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180] 특히 그녀가 1860년대까지 갖고 있었던 '은혜의 시기(grace period)'에 대한 신학은 마지막 날 품성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완벽해진 백성(perfected people)'으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식욕의 극복을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꼽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김없이 다음과 같은 정결과 부정의 수사가 동원되었다.

> 우리가 이것[몸이 하나님의 전임]을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바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최선으로 유지해야 할 위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진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그분[예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의 결점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기질의 약점들을 고치시러 오지 않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때[재림] 이전에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입니다. 그들의 몸과 정신을 거룩함(holiness)과 성화와 존귀로 보존한 자들은 그 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filthy) 자들은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 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181]

채식주의가 거룩한 몸과 하늘 가는 성품을 완성하는 불변의 공식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화이트가 생전에 주장했던 채식주의는 1915년까지 재림교회의 유일무이한 음식규정이었다. 그러나 1915년 화이트의 사후부터 이

---

180)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White, *Last Day Events*, 82.

181) Ellen 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2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868), 354-355. 재림교회 종말론에서는 믿음의 시험대를 통과하는 이 마지막 단계를 흔히 '야곱의 환란(Jacob's trouble)'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에 성도들은 평소 성화를 통해 이룩한 '하늘 가는 품성'만을 가지고 중보자 없이 홀로 서야 한다. 이 때 남은무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확인시키는 과업이 주어졌다. 이런 '마지막 세대(last generation)' 신학은 오늘날 재림교회 문헌과 강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에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보자 없이 서는 경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십사만사천인은 하나님의 품성 옹호를 위한 증거물 제1호(Exhibit A)를 우주 앞에 제시한다." 김평안, 『베스트라이프 건강원리』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3), 43.

런 공식에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이 등장한 것이다. 과거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이 채식의 여부였다면, 새로운 음식규정이 들어오면서 이 경계선은 점차 흐려지고 대신에 새로운 경계선이 그어졌다.「레위기」음식규정의 등장은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과 거룩한 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3. 변곡점—「레위기」 음식규정

3.1. 채식주의 내에서의 돼지고기 문제

1872년, 엘렌 화이트의 남편인 제임스 화이트는 「신명기」 14장 8절을 언급하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이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존재하기 전인 홍수 때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채식을 실천하면 당연히 돼지고기는 먹지 않게 된다. 그가 채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를 따로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른바 '채식주의 내에서의 돼지고기 문제'였다. 이어 그는 오물을 뒹구는 돼지의 본성과 더러운 습성을 차례로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이는 재림교회가 돼지고기 혐오에 대해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레토릭이 되었다.

> 돼지 섭취가 인간의 신체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거의 보편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연주창(scrofula)이라는 단어는 군단(軍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의 끝없이 다양한 오염을 나타내는 라틴어 스크로파(*scrof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혐오의 어미인 '씨암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이 단어는 물론이고 이 단어가 뜻하는 끔찍한 질병이 존재했을지 의문입니다.[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의 핵심은 음식물로써 돼지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이지 교회 내에서 정하고 부정한 고기의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자는 게 아니었다.[183] 심지어 그는 돼지의 불결함을 이야기하면서 「레위기」 11장을 언급하

---

182) James White, "Swine's Flesh, Forbidden in the Word of God," in *Health Reformer* 7/1 (1872): 19.

183) 화이트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단시 의식(儀式)적이고 자의적인 규정일 뿐만 아니라 위생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삼손의 사례를 들면서,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이 보인 놀라운 생명력 역시 이러한 음식규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생전에 한 번도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음식규정이 재림교인들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Ron Graybill, "The Development of Adventist Thinking on Clean and Unclean Meats," https://whiteestate.org/legacy/issues-clean-uncl-html/ (접속일: 2022년 4월 1일)

지도 않았다. 1872년까지 「레위기」 11장이 신학적으로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세기 말까지 재림교회 내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신학적 논의는 활기를 띠지 못했으며,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육식을 금했던 채식주의 속에 철저히 묻혀 있었다. 이러한 기조는 당시 재림교회의 출판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94년에 출판된 『우리의 연회』라는 책에는 돼지고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채식만이 인간에게 합당한 식단임을 주장한다. 책에서 찾을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은 식물을 먹으면 양이나 소처럼 온순한 성격을, 동물을 먹으면 육식동물이나 포식자처럼 사나운 성격을 닮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 모든 동물이 그렇듯, 인간도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질과 성격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쓰이는 음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양이나 소처럼, 곡물과 풀, 그리고 채소를 먹고 사는 짐승들은 온화하고 인내심이 많고 비교적 무해한 반면, 다른 동물들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짐승들은 사납고 위험하다. 동일한 일반 원칙이 동물의 왕국 전체에 적용되는데, 그 동물의 왕국에서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유형이다.[184]

동일한 내용이 화이트의 글에 등장한다. 그녀에게 육식은 동물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첩경이다.

> 육식은 사람의 기질을 바꾸며 동물적인 성질(animalism)을 강화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지적 활동이 감소됩니다. 학생들이 고기를 조금도 맛보지 않았다면 저들의 학업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인간의 신체 중에 동물적인 부분(animal part)이 강화되면, 지적인 능력은 그와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만일 고기를 끊는다면, 신앙생활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식은 육욕적인 성향을 극도로 활성화시키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185]

여기서 화이트가 말한 '동물적인 성질(animalism)'은 일차적으로 욕정을 의

---

184) H. A. st. John, *Our Banquet: To Nourish Pure Thought Life* (San Francisco: published by the author, 1894), 473.
185)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389.

미했다. 애니멀리즘은 하나님의 형상과 다투는 인간의 육욕이자 비이성적인 정욕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정이 도사리고 있는 존재며, 육식은 이러한 잠복하고 있는 욕정을 격발시켜 죄를 짓게 만든다. 육식은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 음침하게 숨어있는 동물적인 성향(animal propensities)을 돋아나게 한다.[186] 육식은 피를 불결하게 하고 더러운 욕정을 일으켜 경건하지 못한 행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생애를 살게 이끈다. 채식은 정결한 피를 보장하며 온화한 정신을 배양하고 자기를 극기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든다. 채식은 숭고한 정신과 영적 분별력을 키우지만, 육식은 비루하고 괴랄한 정신을 일으켜 영적 사물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녀는 애니멀리즘을 다음과 같은 구도를 통해 이해했다. 아래 [표3-1]에 적힌 단어들은 그녀가 채식과 육식의 특성에 관해 직접 썼던 표현들이다.

채식	육식
pure blood, good nutrition	impure blood, clogged stomach, disturbed brain
noble, spiritual nature, peaceful mind, self-denial, true godliness, heavenly character, power to think, work of redemption, training body for divine service	animalism, lustful, lower propensity, fleshly lust, diminished spiritual zeal, imprudent, unholy passion, unchristianlike life, health-destroying indulgence

[표3-1] 엘렌 화이트의 애니멀리즘(백숭기)

186) "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고, 식탐이 있는 자들은 고통과 죽음의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에 쌓이는 건강에 나쁜 음식은 영혼을 거스르는 식욕을 강화시켜 저열한 성향을 발달시킵니다. 육식으로 이루어진 식단은 동물적인 성질(animalism)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성질의 발달은 영성을 약화시켜 정신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Ellen G. White, *Counsels on Health*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7[1923]), 575.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이러한 채식주의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03년, 해스켈이 돼지고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이슈화했지만, 여전히 채식주의를 전제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다.[187] 1911년, 한 출판물에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채식이 하나님이 허락한 식단이며 도리어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음식규정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없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본성에 관한 원리는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은 오늘날도 여전히 부정하다는 것이다.[188] 이 문헌은 재림교회 내에서 나온 출판물 중에서 「레위기」의 음식규정이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한 거의 유일한

---

187)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서』는 원칙들을 깔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발휘하도록 맡겨져 있다. 반면 많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확히 해결하신 문제들 중 하나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창조주께서 모든 동물을 만들고 커다란 세계에 제 자리를 지정하고 각각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것보다 그들의 본성을 더 많이 아신다. 자신의 무한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은] 동물의 왕국에서 일부를 청소부(scavengers)로 지정해 두셨다.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사는 동물들을 우리가 알도록 그분은 그것들 위에 인(印), 즉 낙인을 찍어놓았다." S. N. Haskell, *The Bible Training School*, vol.1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03), 186.

188)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하나님은 다른 종류의 육식들 사이에서 바람직한 음식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어떤 것들은 깨끗하다고 정하셨고, 다른 어떤 것들은 더럽고, 혐오스러우며, 먹기에 부적절하다고 정하셨다. 그때[태초]와 같은 조건이라면 지금도 그것들은 부적절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뛰어난 지혜를 통해 알았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그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여한 음식규정을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핸디캡을 주려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식사에 관한 그러한 특별한 유대인의 율법들은 폐지되었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법들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 각기 동물들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사실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옳다. 뿐만 아니라 『성서』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도로 이상적인 식단, 즉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육식으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된 음식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명시한 구절들이 있다.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비육식 식단인 만나를 주셨다. 그분은 '재차' 자신의 손을 펴서 지구의 모든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있다. 이 시대에 동물성 식품은 점점 더 병들고 있다. 동물들의 살을 찌우는 조건들, 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질병의 조건들, 고기가 도살되고 보관되고 저장되는 방식들은 모두 육식에 반대하는 엄청난 주장들을 담고 있다. 반면 비육식 식단을 채택한 사람들은 건강이 양호하고, 두뇌가 더 맑으며, 양심이 더 민감하고, 전반적으로 축복받은 삶을 산다. 곡류와 과일, 채소로 이루어진 표준을 우리는 독자들에게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그들이 비육식에서 축복을 발견할 거라고 확신한다." Milton C. Wilcox, *Questions and Answer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11), 197-198. 강조 추가.

사례로 보인다. 1929년에 나온 다른 출판물에도 채식을 강조하고 있을 뿐「레위기」11장의 언급은 따로 없다. 교리에 관한 Q&A 형식으로 쓰인『우리의 시대와 그들의 의미』라는 책 역시 채식에 관한 화이트의 언급들을 정리하며 육식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189] 이처럼 돼지고기 이슈가 산발적으로 등장했지만 모두 채식주의 내에서 육식의 죄악을 언급하는 과정 중에 하나의 사례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47년에 출판된『영적 선물의 결실』이라는 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새로운 책이다. 루이스 크리스천슨(Lewis Harrison Christianson)이 주제별로 화이트의 영적 선물에 대한 인용과 설명을 곁들인 이 책에서 비로소 다음과 같이 돼지고기의 문제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건강한 삶에 대한 재림교회의 원칙은 처음에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 사람들은 통밀빵, 과일의 사용, 빈번한 식사의 위험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비웃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가 어떤 식으로든 건강에 대한 교훈을 준다는 사상에 코웃음을 쳤다.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려는 것과 성경에서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다.** 우리는 종교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유대교의 가르침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다. 유대인들은 특정한 제한된 율법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건강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살고, 먹고, 입고, 일하고, 놀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물론 이 상황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초기에 화이트 여사가 정한 건강의 원칙이 현재 수용되고 있으며, 세계 모든 문명국가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190]

---

189) "아니다. 식용으로 금지되었던 짐승들은 오늘도 예전처럼 부정하다. 사실, 그 짐승들은 이전보다 더 부정하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사이에서도 질병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육점에서 구입한 고기들이 병들어 있던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오늘날 동물의 살코기를 먹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무시무시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육식을 자제하고 과일과 곡물, 견과류, 채소만을 음식물로 삼아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 주신 원래의 표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단에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더하시며 건강을 주실 것이다." Carlyle B. Haynes, *Our Times and Their Meaning* (Nashville: Southern Publishing Association, 1929), 385.

190) Lewis Harrison Christianson, *The Fruitage of Spiritual Gifts: The Influence and Guidance of Ellen G. White in the Advent Movement*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7), 300. 강조 추가.

육식에 대해 많이 누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여전히 채식이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며 이를 통해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강개혁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식탁에서 고기를 없애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꺼이 투표로 금주법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마땅히 따라야 할 의복개혁뿐만 아니라 성적 문란함과 과도한 성교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해악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191)]

3.2. 채식주의 밖에서의 돼지고기 문제

이러한 기조에는 20세기 중반부터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1957년, 재림교회가 내놓은 『교리에 관한 질문』이라는 책이 대표적인데, 47번 질문, "재림교인들은 바다가재와 게, 돼지고기 등 모세의 율법 하에서 금지된 모든 것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죄의 처벌 하에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믿는가?"라는 항목에서 저자들은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구분하면서, 전자는 영원한 원칙이지만 후자는 "위대한 원형인 예수 우리 주를 가리키는 의식적, 즉 희생적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법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인간관계, 민사적 판단, 건강 문제,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다른 많은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

191) 이어 저자는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채식주의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재림교회의 건강 프로그램은 참된 생리학의 건전한 지혜 위에 기초하고 있다. 주님의 종[화이트]은 국내외 일부 종파나 광신도들처럼 동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죄악이며, 짐승은 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원칙 때문에 불멸을 소유하고 있다는 식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 재림교인들에게 채식주의는 종교가 아니며, 동료애를 시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동물에 대한 친절과 다른 좋은 윤리적 이유들이 그리스도교인들과 특히 부모들이 육식을 포기하도록 이끄는 데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건강사역은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기를 대체할 적절한 대체식을 구할 수 없더라도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많은 건강식품공장과 제품들이 번창하는 이유다." Christianson, 312.

따라서 그분[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삶의 규범이 되었다. 같은 원칙이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음식규정에도 적용된다. 질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가 특정한 항목을 먹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구속적 명령이어서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오래 전 홍수 시대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특정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조언하기 적합했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먹기에 최선의 음식이 아니었음을 아셨다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유대인이나 다른 모든 민족과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러한 음식들이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다.[192]

그러면서 필자들은 "우리가 건강에 관해 가르치는 사항은 종교적 터부(taboo)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것은 식단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그것은 균형 잡힌 건강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데 우리의 몸을 최고의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느낀다."[193]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이 재림교회의 공식 교리로 처음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00쪽이 넘는 교리 변증서에서 채식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음식규정은 부록을 제외하고 10개의 주제에서 맨 마지막 챕터인 '잡다한 질문들(miscellaneous questions)'에 들어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예수의 인성'이나 '조사심판,' '예언 해석,' '화이트의 영감성(靈感性)' 같은 굵직한 신학적 주제들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나, 부정한 짐승에 대한 설명은 고작 세 쪽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혹자는 1915년, 화이트 사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재림교회 내에서 「레위기」 11장이 새로운 신학적 조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류 복음주의 개신교에 편입되기 위해 채식주의가 억압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소위 『QOD』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교리에 관한 질문』은 월터

192) Seventh-day Adventists, *Questions on Doctrine: An Explanation of Certain Major Aspects of Seventh-day Adventist Belief*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7), 623.
193) 위의 책, 624.

마틴(Walter Martin)이라는 컬트연구가와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대화를 나눈 결과물이기 때문이다.[194] 역사적으로 종파적 속성을 띠어왔던 재림교회가 20세기 중반 '이단'의 꼬리표를 떼고 개신교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非)복음적 성격의 '고전적인(classical)' 신앙들을 전정(剪定)하는 과정에서 구원의 보증이자 재림을 기다리는 경성(警醒)의 보루였던 채식주의를 잘라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주류 개신교 입장에서 보기에는 재림교회의 「레위기」 음식신학이 채식주의보다 더 이단적 요소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에서 구약의 정결법은 모세의 율법에 불과하며,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또는 성취)되어 오늘날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믿는다. 게다가 『QOD』의 쟁점은 '예수의 인성'이나 '십자가의 속죄' 같은 신학적 논의에 몰려 있었다. 그렇다고 그간 「레위기」 11장이 채식주의를 압도할 만큼 새로운 신학적 주제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적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언의신』 곳곳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이해는 항상 채식주의라는 우산 아래에서 논의되어왔기 때문이다.

결국 본 논문은 이런 신학적 변주에 종교사회학적 설명 말고는 달리 해석할 문헌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음식규정의 변화는 신학적 발견이나 교리의 의도적 재해석 같은 특정한 계기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통해 유입된 신자들의 느리지만 점진적인 요구와 그들의 신앙이 갖는 에토스의 전환에 의한 것이었다. 주류 개신교단들과 이단 시비를 겪으며 내부로부터 채식주의를 강하게 억압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 재림교회가 20세기 중반 크게 성장하면서 종파의 속성을 벗고 교단으로 나아가려는 추진력을 얻는 가운

194) "보수 복음주의 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한 명의 지도자가 전례 없이 재림교회의 정통성을 선포한 사건은 1955년 봄과 1956년 여름 사이에 [재림교회 인사인] 프룸과 앤더슨, W. E. 리드(BRI의 책임자)와 존더반출판사가 재림교회에 대한 책을 쓰라고 위촉한 미국 컬트연구가인 월터 마틴과 [보수 복음주의 잡지 「이터너티」 편집장인] 반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진 18차례에 걸친 일련의 콘퍼런스가 가져온 결론이었다." George R. Knight, *A Search For Identity: The Development of Seventh-day Adventist Beliefs*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2000), 165. 『QOD』는 이후 근본주의적인 신학에 머무르려는 이들과 보다 복음주의적인 신학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을 양분시킨, 재림교회 신학의 커다란 분기점을 가져왔다. 『QOD』로 인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갈등의 양상을 보려면, Herbert Edgar Douglass, *A Fork in the Road: Questions on Doctrine: The Historic Adventist Divide of 1957* (Chicago: Remnant Publications, 2008)를 보라.

데 신자들의 입교 표준을 낮추었다는 설명이 훨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결국 그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채식보다는 「레위기」의 음식규정이 교인들 입장에서 사회와의 마찰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를 통해 유추 가능하다. 1863년, 교인수 3,500명에 불과하던 종파 수준의 재림교회는 1915년에 136,879명으로 늘어났고, 1950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756,812명까지 불어났다.[195]

물론 채식주의는 「레위기」의 음식규정과 함께 여전히 재림교인들의 신앙 속에서 발견된다. 공식 문헌에 특정 교리나 의례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신앙이 실제 신자들 내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점은 『QOD』의 출간을 전후로 채식주의를 덮어 쓴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이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정결과 부정의 경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채식 대신 「레위기」 11장이 재림교인들의 공식적인 음식규정으로 정착하면서 화이트의 『예언의신』을 제외한 여타 공식적인 재림교회 문헌에서 채식은 생략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의 음식규정은 빠르게 재림교회 내에 정착했다. 채식주의의 우산 아래 있었던 돼지고기 문제가 이제 채식주의와 동등한 수준의 공식 음식규정으로 부상했다. 채식은 더 이상 재림교회에 입교하는 기준도 아니며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할 원리도 아니다.

이는 재림교회 침례시문(浸禮試問)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1964년 침례시문에는 일곱 번째 질문에 음식규정이 들어가 있으며, 1998년 침례시문에는 여덟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있다.[196] 다음의 두 시문을 서로 비교해보라.

---

195) https://www.adventistarchives.org/church-membership (접속일: 2022년 4월 30일)

196) 부정한 음식 섭취를 금하는 조건이 침례시문에 삽입된 것에 대해 재림교회를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 크리스천사이언스와 함께 주류 복음주의 개신교로부터 빗나간 컬트(cult)로 규정한 캘빈신학대학 교수였던 앤서니 회케마는 다음과 같이 구원론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교회가 교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원한다는데 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구든 침례받기 전에 특정 음식을 금하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할 때 이런 금지조항들은 그것들을 단지 건강 조치라는 범주에서 제외되는 종교적 재제가 주어져왔다.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을 교회 성원이 되는 조건으로 삼는 건 『성서』가 우리 앞에 제시한 것들, 즉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산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한 진정한 결심과 같은 기준들에 또 다른 요구조건들을 추가하는 것이다." Anthony A. Hoekema, *The Four Major Cults: Christian Science, Jehovah's Witnesses, Mormonism,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1963]), 134.

1964년:
그대는 자기의 몸이 성령의 전이므로 주정음료와 모든 형태의 담배와 **모든 부정한 식물을 끊고** 자기 몸을 보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여야 할 것을 믿는가?[197]

1998년:
그대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믿고, 성경이 금하는 각종 부도덕한 행위와 술과 담배와 마약과 **각종 부정한 음식물을 삼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198]

보는 바와 같이 1964년 시문에 등장하는 '모든 부정한 식물을 끊고'와 1998년의 '각종 부정한 음식물을 삼가'는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지칭하고 있다.[199] 어디에도 「창세기」 1장의 채식을 암시하는 어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로써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예언의신』의 채식에서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음식규정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겪는다. 이런 추세는 1957년 이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흥미롭게도 채식주의가 희석되고 신학적 시야에서 멀어지면서 19세기 중후반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이 본래 가졌던 종말론적 색채 역시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재림교회가 채식주의를 유기한 건 아니었다. 이때부터 재림교회는 채식주의에서 종말론을 거세하고 건강과 장수라는 현세적 유익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채식주의는 저항 정체성을 벗고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신학적 외연을 갈아입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채식은 이제 선교적 장치로 낙착된다. 이로 인해 재림교회 내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진 건강담론의 전환과 종교정체성의 분열의 양상은 뒤에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197)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목사요람』 (서울: 시조사, 1964), 100. 강조 추가.
198) 제칠일인식일예수재림교, 『목사요람』 (서울: 시조사, 1998[1992]), 244. 강조 추가.
199) '각종 부정한 음식물'에 과연 모든 육류가 포함되는가, 아니면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고기만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소위 '부정한 음식'에 관해 재림교회는 화이트의 문헌을 기초하여 일관되게 채식주의 안에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레위기」 11장에 적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재림교인들은 이 침례시문을 듣고 채식주의를 떠올릴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부정한(unclean)'이라는 표현이 「레위기」 11장을 특정한다고 본다.

4장 재림교회의 정결한 피와 거룩한 몸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사회참여적인 스탠스와 달리, 육욕의 방종에 기인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재림교인들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한 탈속적이며 종말론적인 기제로 작동했다. 하늘 가는 성품은 무분별한 식욕을 제어하는 것에서 얻어진다. 채식은 자기 파멸적인 습관과 무너진 세상의 조류(潮流)를 거스르는 결단이자 마지막 시대를 사는 하늘 백성들이 인내하고 극기하며 얻는 성화의 증거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식탁에서 육식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고, 밤중소리(midnight cry)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났다. 19세기에 시작된 재림의 기다림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체의 신학을 요구했다.[200]

재림교회의 채식주의 역시 그에 발맞춰 변화를 겪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채식주의에서 종말론의 색채가 옅어졌다. 대신 재림교회는 건강상 유익과 장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채식주의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필수 덕목에서 사회에 건강담론을 제시하는 선교 담론으로 변신했다. 교단을 홍보하는 출판물들은 재림교인의 건강과 장수에 방점이 찍힌 연구물들로 채워

200)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재림교회가 주장해온 예언의 시간표에도 새로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844년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예언의 시간표가 고정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다 1880년대에 접어들면서 화이트는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닌 '성도들 편'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기별의 초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실패했단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둘 다 조건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상에서 마쳐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에 순종하므로 자신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그분께서 오실 때 흠 없이 주님의 앞에 서도록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재림신도들이 1844년 대실망 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섭리에 따라 연합하여 나아갔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들의 노력에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며, 사업은 이미 마쳐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White, *Evangelism*, 695. 화이트는 생전에 지체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언급을 남겼으나, 재림교회가 지체의 신학을 종말론의 일부로 수용하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었다. Malcolm Bull & Keith Lockhart, *Seeking a Sanctuary: Seventh-day Adventism and the American Dream*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1989)], 67.

졌고, 재림교회가 보유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통해 채식은 하나의 사회-문화 운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처럼 재림교회의 채식주의가 저항 정체성에서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배경,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종교집단과의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이번 장에서는 재림교회와 함께 19세기 미국에서 발원한 신종교로 간주되는 여호와의증인과 후기성도교회를 끌어와서 재림교회의 정결한 피와 채식주의가 갖는 종교사회학적 의미를 탐사하고자 한다.

재림교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증인은 오늘날 종교학 내에서 그리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아니다. 후기성도교회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에 비해, 재림교회와 여호와의증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201] 따라서 이번 장에서 여호와의증인이 보유한 수혈거부 교리를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와 정결한 피의 관계와 비교하고, 더불어 후기성도교회가 주장하는 지혜의 말씀을 재림교회의 거룩한 몸 개념과 비교하여 재림교회가 엄격한 채식주의에서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으로 후퇴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01) 북미 최대 종교학저널인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에 실린 논문을 검색한 결과, 지금까지 후기성도교회가 223건인 데 비해 여호와의증인은 104건, 재림교회는 고작 56건에 불과하다. https://academic.oup.com/jaar (접속일: 2022년 4월 10일 방문)

1. 재림교회의 채식과 정결한 피

1.1. 여호와의증인의 수혈거부

여호와의증인[202]은 수혈거부 교리를 갖고 있다. 여호와의증인 외에도 수혈에 반대하는 '수혈거부자(transfusion objectors)'들이 존재하지만,[203] 여호와의증인만큼 오랫동안 수혈에 지속적인 반대를 이어오는 집단은 흔치 않다. 오늘날 수혈거부는 이미 여호와의증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지 오래다. 사회에서 재림교회를 안식일이나 재림 신앙보다 '돼지고기를 안 먹는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여호와의증인 역시 신권통치나 파루시아[204]보다 사회에서 '수혈을 거부

---

202) '여호와의증인(Jehovah's Witnesses)'이라는 명칭은 2대 회장인 조셉 러더포드(Joseph F. Rutherford)에 의해 1931년 개명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찰스 러셀(Charles T. Russell)이 자신의 성경연구모임을 지칭했던 '성경연구생(Bible Students)'이 그들의 공식 명칭이었다. 이 연구모임이 이후 국제성서연구생협회(IBSA)로 발전했고 오늘날 여호와의증인의 모태가 되었다. 여호와의증인에 관한 개괄적인 역사를 이해하려면, George D. Chryssides, *Jehovah's Witnesses: Continuity and Change* (London: Routledge, 2016)을 보라.

203) 먼저 세속적인 이유로 수혈을 반대하는 인권운동가들을 꼽을 수 있는데, 서구의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인간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감염에 대한 윤리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로 육식 헌혈자들의 피를 수혈 받기 거부한다. 또한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들, 이전 의료적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나쁜 경험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과 달리 여호와의증인처럼 오로지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을 반대하는 거부자 집단이 존재하는데, 크리스천사이언스(Christian Science)와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s)이 그들이다. 크리스천사이언스는 신앙에 따라 현대 의학의 도움을 거부하며 연명치료나 수혈을 반대해왔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며 크리스천사이언스는 전통의학이나 대체의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며, 여전히 기도와 치료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결정권을 '개인의 양심'이라는 토대 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은 수혈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현대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적극 수용한다. Knox, 151. 라스타파리안은 1930년대 서인도 제도에서 시작된 종교단체로 전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 1세(Haile Selassie I)를 고대 이스라엘 다윗 왕의 직계이자 살아있는 신(Ras Tafari)으로 믿는다. 교인 대부분이 자메이카에 거주하는 라틴계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식을 하지 않고 서구의학마저 거부한다. 그들은 신체를 오염시킬까 봐 일체의 약물 치료를 꺼린다. 흥미롭게도 성찬식에 대마초(ganja)를 사용하고, 머리털을 꼬아서 길게 늘어뜨린 드레드록(dreadlocks)을 고집하며, 레게음악에서 영성을 찾는다. Jennifer Green, *Death with Dignity*, vol.2 (London: Nursing Times, 1993), 14-15.

204) 1844년 대실망 이후 조사심판(investigative judgment)이 재림교회의 종말론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파루시아(parousia)는 여호와의증인의 종말론에서 결코 생략될 수 없는 핵심 뼈대를 이룬다. 다만 재림교회의 재림과 여호화의증인은 파루시아는 신학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1914년, 그들이 주장하던 재림이 이뤄지지 않자, 러셀은 예수의 재림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파루시아'가 가시적인 '재림(advent)'이 아니라 영적 '임재(presence)'라는

하는 집단'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징병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더 큰 이슈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을 뿐,[205]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수혈거부가 제일 두드러진 특징으로 대두된다.

여기서 여호와의증인의 수혈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증인이 죽음을 모의하는 무기 제조나 군복무 및 군사교육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제식훈련과 집체교육을 모방한 보이스카우트, 총기나 무기를 본뜬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전쟁을 미화하는 영화나 소설, 게임 등 군대와 관련된 일체의 문화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평화주의적 관점보다는 정치적 중립, 즉 종교자유 문제와 관련이 있다.[206] 반면 수혈거부는 증인들이 갖고 있는 피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1914년은 단지 일회적 사건으로서 존재할 예수의 재림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의해 예언된 "이방인의 때"(「누가복음」 21장 24절)가 종결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해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 방식이 드러나는데, '본 그대로'는 앞 구절 중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9절)에서 그 뜻이 확인된다. 여호와의증인은 '구름'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했으며 '보이지 않게'는 그 임재가 비가시적(invisible)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한다.

205) 국내 증인들 사이에서는 병역거부를 흔히 '중립을 지킨다'는 표현으로 대체해왔다. 여기서 중립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은 여호와의증인의 역사에서 매우 오래된 원칙에 속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마태복음」 5장 44절)과 함께 제자로서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말씀(「요한복음」 17장 16절)에 근거하여 특정 국가의 군복무를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다.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을 목적으로 징역을 살았던 증인들은 그 인원을 정확히 헤아릴 수 없다. 한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증인은 17,840명에 이른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heejinkwon08/221392271066를 참고하라. (접속일: 2021년 10월 19일) 이런 상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80도 바뀐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제출한 항소심에서 그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국방부는 2018년 11월 14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고, 2019년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증인이 더 이상 징역을 살지 않고도 군복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처음 마련된 셈이다. 이처럼 여호와의증인이 각 나라에서 종교자유와 인권 문제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연구는 그간 많이 행해졌다. 그 중에서 Shawn Francis Peters, "How the Persecution of Jehovah's Witnesses Changed American Law and Religion," in Chris Beneke (eds.), *The Lively Experiment: Religious Toleration in American from Roger Williams to the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5), 241-251을 참고하라.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그간의 형사 처분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해서는, 이상명,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등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6/4 (2019): 65-88을 참고하라.

206) 이 교리를 원용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한 증인 출신 입영대상자들에게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대전(對戰) 게임에 접속 여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병역대체자 판정에 신중을 기

의 교리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에게 피는 신성불가침의 대상이다. 증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창세기」 9장 4절)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워치타워협회[207]가 1961년 발행한 『피와 의학,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얇은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에 의해 대체되어 율법의 언약이 끝났을 때 피의 사용에 대한 금지규정도 또한 사라졌는가? 아니다. 이 법은 유대인의 언약에서 기원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서는 단지 반복되고 강조되었을 뿐이다. 이 맥락에서 벤슨(Benson)의 『주석』 1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주장이 등장한다. '노아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주어졌으며 매우 엄숙한 방식으로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된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은 결코 철회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신약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사도행전」 15장) 영원한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208]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레위기」 17장 11

하고 있다. 실지로 2019년 6월, 병역거부를 신청한 한 증인이 평소 대전 게임을 했던 경력이 드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증인들을 '평화주의자'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제임스 펜톤(James Penton)은 주장한다. 여호와의 신권통치에 의해 벌어지는 군사적 갈등은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은 오늘날 흔히 세속적 평화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사형제도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한 반대[병역거부]는 그들이 생명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사실보다는 도리어 세속정부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반한다는 신앙과 종종 더 결부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평화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으며 차라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점을 더 부각시킨다." M. James Penton, *Apocalypse Delayed: The Story of Jehovah's Witness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5[1985]), 282.

207) 1884년 설립된 워치타워협회(Watchtower Society)는 본래 시온의워치타워성서협회(Zion's Watch Tower Tract Society)였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협회'로 지칭한다. 협회는 「파수대」나 「깨어라!」 같은 주요 여호와의증인 출판물들을 발행한다. 「깨어라!」 국내판은 현재 「깰 때이다」로 잡지명이 바뀌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영문판 제목 'Awake!'의 본래 의미를 고려하여 「깨어라!」로 쓰기로 한다. 주일마다 왕국회관에서 회중이 함께 연구한다는 점에서 「파수대(연구용)」는 재림교회의 「과정책」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208)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Blood, Medicine and The Law of God* (Brooklyn, New York: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1961), 6. 이는 재림교회가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노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입장이다. "신약은 정하고 부정한 육식의 구분을 철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이 「레위기」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단지 의문(儀文)이나 의식에 불과하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별은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오래전인 노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음식물 금기 조항은 건강의 원칙으로서 계속적인 의무를 수반한다." 『기본교리28』, 392-393.

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레위기」 17장 14절)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의증인이 발간한 문헌에 처음으로 수혈거부가 등장한 것은 194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까지 여호와의증인은 수혈금기는커녕 피에 대한 금기, 나아가 육식을 금하는 음식규정도 일체 갖고 있지 않았다. 피의 섭취를 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육식을 금하는 방법임을 감안할 때, 여호와의증인이 재림교회처럼 채식주의를 수용하는 대신 수혈거부를 정립한 점, 즉 음식규정을 별개의 의료행위로 치환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1944년 12월 1일자 「파수대」에는 다음과 같이 지나가는 문장처럼 수혈을 받는 행위가 피를 먹거나 마시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신학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 노아의 후손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피의 거룩함에 관한 영원한 언약을 통합한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이방인은 그것이 **수혈이든 구강이든 간에** 피를 먹거나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다.[209]

이로부터 정확히 6개월이 지난 1945년 6월 1일자 「파수대」에서는 수혈에 관해 자세한 역사를 열거한다. 수혈을 명확히 반대하기보다 수혈이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의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에 치중하고 있다.

> 수혈은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보고된 가장 이른 사례는 1492년 교황 이노센트 8세에게 행해진 것이다. 이 수술을 때문에 세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결국 교황의 목숨은 구하지 못했다. 17세기 중반, 하비(Harvey)가 혈액 순환을 밝혀낸 이후 동물을 대상으로 수혈을 연구하고 실습하는 데 큰 족적이 이루어졌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의 의사들은 이 발견 이후 수혈 연구에 특히 매진했다. 그들은 혈액이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매개이기 때문에 수혈이 몇 번의 변화를 거쳐 혈액으로 변하는 음식물을 먹는 것보다 영양이 부족한 신체에 직접 먹이는(feed) 게 더 빠른 지름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혈은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회춘제로 여겨졌다. 당시 열병과 문둥병, 정신이상, 공수병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양의 피가 인

209) 「파수대」, 1944년 12월 1일자, 362. 강조 추가. 본 논문에 인용된 여호와의증인의 자료들은 모두 필자가 번역한 것이며, 따라서 국내에 소개된 「파수대」나 「깨어라!」와 본문 및 쪽수가 다를 수 있다. 여호와의증인과 관련된 자료들은 https://avoidjw.org/all/publication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에게 수혈하는데 사용되면서 다양한 성공을 거두었다. 신기하게도 파리 의대 교수진은 하비의 발견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고 수혈의 어떠한 기술적 진보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수혈 연구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박해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가 되어서야 출혈이 일어난 이후 외과적 절차의 하나로 수혈을 확립하는 가장 활발한 작업이 일어났다.[210]

여기서 'feed'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 여호와의증인이 수혈을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보는 근거를 바로 이 feed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 feed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다'라는 동사다. 그런데 동사 feed는 용례 상 단지 음식뿐 아니라 전기나 원료, 데이터, 약물 따위를 '보급'하거나 '주입'하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래서 오늘날 온라인매체나 페이스북에 오르는 게시글도 '뉴스피드(newsfeed)'라 부른다. 여호와의증인은 feed가 갖는 이런 중의적 의미를 통해 혈관에 혈액을 주입하는 것이 입에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해석한다. 이런 해석은 1951년 7월 1일자 「파수대」에 보다 명확하게 등장한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입이나 코, 또는 정맥을 통해 음식을 주입(be fed)한다. 혈당 주사를 정맥에 놓을 때 이를 '정맥주입(intravenous feeding)'이라고 부른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쓰는 용어가 정맥을 통해 신체 안으로 영양분을 넣어주는 과정을 주입(feeding)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따라서 혈액을 투여하는 보조자는 정맥을 통해 환자를 먹이고 있는(feeding) 것이며 그것을 받는 환자는 정맥을 통해 피를 먹고 있는 것과 진배없다. 결국 교묘한 궁리와 그럴듯한 이유, 괜한 트집이 모두 끝나면 한 생명체의 엄청난 양의 피가 고의로 다른 생명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명백한 사실만 남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입이든 혈관이든] 방식에 상관없이 금하고 있는 일이다.[211]

협회가 격주로 발행하는 「파수대」와 수혈 문제를 직접 다룬 세 권의 소책자[212]들을 살펴보면, 일관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수혈거부

210) 「파수대」, 1945년 6월 1일자, 200.
211) 「파수대」, 1951년 7월 1일자, 415.
212) 지금까지 협회는 수혈 문제와 관련하여 1961년도에 『피와 의학, 그리고 하나님의 법(*Blood, Medicine and The Law of God*)』, 1977년도에 『여호와의증인과 피의 문제(*Jehovah's Witnesses and the Question of Blood*)』, 1990년도에 『어떻게 피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How Can Blood Save Your Life?*)』 등 총 3권의 소책자를 발간했다.

교리를 설명하는 신학적 해석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 의학적 자료를 열거하는 패턴이 그것이다. 문헌의 종류와 발행 시기를 무론하고 신학적 해석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추이에 따라 매번 다양하게 제시된다. 여기에는 수혈의 위험성과 끔찍한 의료사고, 비인간적인 매혈(賣血), 수혈로 빚어지는 각종 비윤리적 사례, 의사와 의료전문가들의 발언들이 포함된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1980년대 초반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가 발견되면서 절정을 맞는다. 1990년에 발행된 소책자 『어떻게 피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는 수혈거부의 타당한 이유에 대한 의학적, 신학적, 역사적, 법률적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에이즈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혈액에 의해 전염될 수 있다. 현대 전염병인 에이즈는 1981년에 밝혀졌다. 바로 다음 해에, 건강 전문가들은 그 바이러스가 혈액제제에서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213] 이 소책자에서 여호와의증인은 자신들이 35년여 동안 주장해온 수혈거부 교리가 신학뿐만 아니라 의학으로도 검증되었다고 선언했다.[214] 이후 1993년 출판된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에서 협회는 수혈거부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215]

하지만 동시에 수혈이 보편적인 의료행위의 하나로 정착하면서 증인들의 수혈거부 교리와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상이한 두 체계 사이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특히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의 수혈을 반대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반감과 법률적 논쟁을 야기했다. 이는 협회가 발행

---

213)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How Can Blood Save Your Life?* (Ontario: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Canada, 1990), 11.

214) "크누트 룬트-올레센(Knud Lund-Olesen) 박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고위험군의 일부 사람들은 헌혈을 한다고 자원할 때 자동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들이기 꺼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들이 정녕 미래를 내다봤던 걸까요?'" 위의 책, 12.

215) "대중도 수혈에 따르는 위험을 점점 더 의식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증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진지한 열망에 따라 동기부여를 받는다. 1987년, 프랑스의 의학 일간지 「르 코티디앵 뒤 메드생(*Le Quotidien du Médecin*)」은 이렇게 기술하였다. '혈액제재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에 있어 아마 여호와의증인이 옳을지 모른다. 사실상 상당히 많은 병원체가 수혈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Jehovah's Witnesses: Proclaimers of God's Kingdom* (New York: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1993), 186.

한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45년, 수혈거부 교리가 처음 제시된 이후, 50년대 중반까지 이 주제는 협회에서 발행한 출판물 내에서 주변적인 관심만 받았다. 협회의 주제 색인에 따르면, 1946년부터 47년까지 수혈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문헌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48년에서 49년까지만 해도 고작 4편만 이 주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그러다가 1971년이 되면서 이 주제는 16편에서 다뤄졌다. 이는 여호와의증인 내에서도 이 문제가 첨예한 신학적 논쟁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협회는 그간 「파수대」와 「깨어라!」를 통해 수혈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명확하게 해왔다. 오늘날 여호와의증인은 절대금주(teetotalism)를 기조로 삼는 후기성도교회나 재림교회와 달리 주정음료와 차, 커피에 대한 금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절제)을 권장하며, 차와 커피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문헌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다. 통치체는 여호와의증인 로고가 새겨진 커피 머그잔을 나눠주며 도시 선교에 활용하고 있을 정도다. 커피에 온갖 부정적 함의를 덧씌워왔던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가 보면 기겁을 할 대목이다. 흡연을 제외한다면,[216] 알코올과 와인, 각종 주정음료에 대해서도 통치체의 태도는 매우 유연하다.

육식에 대한 여호와의증인이 가진 기준 역시 재림교회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일례로 찰스 러셀(Charles T. Russell)의 뒤를 이어 회장에 오른 조셉 러더포드(Joseph F. Rutherford)는 1939년 「레위기」의 음식규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러더포드]는 누구든지 햄과 베이컨이 부정하다고 주장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217]라 말했다. 1954년 7월 15일자 「파수대」에는 채식주의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으며 여호와가 채식을 인간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사뭇 강한 어조로 주장하는 글이 실렸다.[218]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혈에 관

216) 여호와의증인은 1973년부터 공식적으로 흡연을 금지하며 담배 금기에 있어 재림교회나 후기성도교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성서』 상 권면의 일관성 있는 적용에 있어서 한걸음 더 나아간 조처로서, 1973년부터는 흡연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침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Jehovah's Witnesses: Proclaimers of God's Kingdom*, 181.

217) John R. Spencer, "A Point of Contention: The Scriptural Basis for the Jehovah's Witnesse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in *Christian Bioethics* 8/1 (2002): 69.

218) 「파수대」, 1954년 7월 15일자, 425-427. 이후 여호와의증인은 채식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다. 1997년 6월 22일자 「깨어라!」에서는 건강을 위해 채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8일자 「깨어라!」에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식을 제안하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 Chryssides, 191.

해 그토록 철저한 입장을 고수하는 증인들이 스테이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다는 사실이다.[219] 선홍색을 띠는 스테이크를 두고 피냐 육즙이냐를 두고 증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또한 생선은 먹기 전에 피를 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220]

결론적으로 여호와의증인은 피를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자 종교정체성으로 삼았다. 이는 증인들의 명징한 신학적 선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나님의 백성은 피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거절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워서(unhealthy)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기(unholy) 때문이며, 피가 오염되었기(polluted)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값지기(precious) 때문이다."[221] 오늘날 수혈 문제는 증인들 사이에서 배도와 순종, 입교와 출교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해당 문제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일관되게 1961년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혈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의증인의 회중에서 제명되었다."[222]

1.2. 재림교회의 정결한 피

재림교인들은 '정결한 피(pure blood)'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정결한 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례가 헌혈 행사다. 삼육대학

---

219) 이 부분에는 증인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혼란과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필자가 접촉한 일부 증인들은 피순대(black pudding)나 피소시지(blood sausage)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스테이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증인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고기는 모두 피를 뺀 것들이며 육류가 붉은 색을 띠는 것은 피가 아니라 '육즙(red juice)'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식과 육식, 스테이크에 관한 여호와의증인들의 글은 https://www.jehovahs-witness.com/topic/134916/does-eating-rare-steak-eating-blood를 참고하라. (접속일: 2022년 6월 12일)

220) 1973년, 협회는 육상동물과 가금류만 먹기 전에 피를 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레위기」17장 13절을 인용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먹기에 적합한 생선은 땅에 쏟아 흙으로 덮을 만큼 충분한 양의 피를 갖고 있지 않았다. 명백히 이런 이유로 [모세의] 율법은 생선의 피를 빼는 것에 관해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Spencer, 286.

221) *How Can Blood Save Your Life?*, 25. 아이러니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에이즈의 창궐과 함께 피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둔갑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증인들은 헌혈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을까봐 수혈을 거부한다는 말을 한다. 피가 거룩한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매개로 전락한 것이다.

222) *Jehovah's Witnesses: Proclaimers of God's Kingdom*, 183-184.

교는 매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릴레이' 운동을 펼친다. 삼육대학교가 1993년부터 25년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인 헌혈 행사에 참여한 누적 인원은 무려 15,272명에 달하며 2017년에는 1,004명을 대상으로 헌혈을 실천하는 '1004(천사)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다.[223] 혈액은행과 적십자사를 '사단의 활동'으로 보는 여호와의증인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대학 입장에서 이런 대규모 헌혈 행사는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적십자사라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이 갖는 우수성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림교회 신학에서 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모티프를 갖고 있다. 성소론과 절기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예언 연구와 맞물려 매우 치밀한 종말론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구약성서』의 성소와 제사제도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모형이다. 제사장은 양을 잡아 피를 대접에 받고 이를 성소 휘장에 뿌린다.[224]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다니엘서」 8장 14절) 피는 성소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정결하게 한다. 이처럼 재림교회가 피의 상징적 의미를 궁리하면서 정작 여호와의증인처럼 피에 대한 구체적인 금기를 구현하지 못한 것은 채식이 애초에 피의 섭취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피는 코셔를 실천하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결과 부정의 함의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재림교인들에게는 건강한 육체와 거룩한 몸을 상징하는 증거일 뿐이다.[225]

---

223)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4220 (접속일: 2021년 10월 25일) 헌혈 행사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개별 교회나 행사 때마다 시행되는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의례다. 2021년, 삼육서울병원은 의료선교 11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가졌으며, 2022년 초에는 대총회가 기획한 세계 청년의 날(GYD) 행사 때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 다발로 헌혈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2022년 5월에는 삼육대가 사랑나눔 주간을 통해 대규모 헌혈 행사를 가져 재학생과 교수, 직원 등 220명이 이에 동참했다. 재림교회가 이처럼 정력적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정결한 피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4)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성소는 원형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 원형을 따라 지은 모형입니다. ... 이천삼백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그것은 곧 피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377.

정결한 피를 이해하려면 먼저 화이트의 건강기별을 이해해야 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건강은 정결한 피로 확보된다. 피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신체 안으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음식이 들어와야 한다. 부적절한 음식을 먹고 불순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질병을 유발한다. 정결한 피는 신선한 공기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용이하게 하는 의복개혁을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226] 또한 정결한 피는 야외 활동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도 확보될 수 있다. 방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피는 금세 혼탁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불결한 피를 낳는 주범은 육식이다. 육식을 통해 얻은 불결한 피는 도덕적, 지성적 능력을 마비시키고 숨어있던 저열한 정욕을 격발시켜 죄와 불의를 실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그러한 [동물의] 살점이 인체에 들어오면 혈액이 부패되고 질병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미 불결한 피를 가지고 있다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고기가 그들의 피를 유독하게 만들고 [질병의] 고통을 야기했다고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227]

---

225) "또한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짐승을 식용으로 죽일 때에는 피를 반드시 쏟아야 한다는 특별한 주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기는 온전한 것으로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건강을 보존하도록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죄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피는 생명이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llen G. White, *The Acts of the Apostle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11), 191.

226) "양질의 피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한가득 깊이 들이마셔서 폐를 산소로 가득 채우면 피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Ellen G. White, *The Ministry of Healing*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2[1905]), 272.;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신체기관에 원기가 살아나고 피가 맑아지며 신체의 나쁜 조건들을 극복하는 자체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llen G. White, *Healthful Living* (Battle Creek, MI: Medical Missionary Board, 1897), 187.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화이트가 살았던 때가 여성들에게 코르셋을 강요했던 빅토리아 시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화이트는 여성의 신체를 옥죄는 의류와 각종 장신구, 가발, 모자는 모두 혈액을 불결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당시 여자들의 드레스는 개미허리를 만들어 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고래뼈로 만든 코르셋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꽉 조이는 레이스들이 이 일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런 옷들은 중요한 장기(臟器)들을 문자 그대로 꽉 조여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는 불건강과 수명의 단축이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무거운 치마와 겹겹이나 되는 속치마들이 7kg의 무게로 허리에 매달려 길을 훑고 다녔다. 치마 자락에 쓸려 올라오는 것들은 말똥과 돼지똥, 그리고 세균이 득실거리는 가래침이었다." 나이트, 『엘렌 화잇의 세계』, 44.

227) Ellen G. White, *Christian Temperance and Bible Hygiene* (Battle Creek, MI: Good Health, 1890), 47.

화이트는 종말론에서 피를 상징적 매개로 보았지만, 건강기별에서는 피를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 이해했다. '예수의 보혈'이 더러움(죄)을 씻어내는 상징적인 매개라면, 채식에서 '정결한 피'는 건강한 육체를 보증하는 실제적인 물질이다. 고기는 피의 질을 저하시킨다.[228] 그녀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입으로 삼키는 동물의 살점은 몸에 나쁜 체액을 심어준다.[229] 육식을 한다는 건 독액을 삼키는 것과 같다. 화이트에게 질병에 걸렸다는 건 피가 불결하다는 뜻이며, 피가 불결하다는 건 평소 하나님의 건강법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고스란히 재림교회가 말하는 건강기별의 공리(公理)이자 병인론의 원리다.

나아가 재림교인에게 정결한 피는 예수의 보혈을 상기시킨다. 정결한 피의 원형(archetype)이 성소의 원형과 만난다. 대제사장 예수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림 전 조사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예수는 두 손을 들고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외치고 있다.[230] 인간의 몸은 성소의 그림자다. 이 성소는 날마다 보혈, 즉 정결한 피로 깨끗해져야 한다. 정결한 피를 보장받는 행위의 하나는 채식이다. 채식은 가장 확실하게 정결한 몸을 보장한다. 여호와의증인이 피를 먹거나 혈관 안으로 주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면, 재림교회는 채식을 통해 일체의 육식을 거부한다. 불결한 피를 정결한 피로 바꾸는 책임은 채식을 통해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업이자 성화의 목표다. 이러한 건강기별의 공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4-1]과 같다.

---

228)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 387.

229) "그대가 먹는 살점의 그 동물은 종종 병들어서 그대로 놓아둬도 저절로 죽을 정도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죽여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대는 가장 나쁜 체액(humors)과 독액(poison)을 신체 안으로 직접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White, 위의 책, 385.

230) White, *Early Writings*, 38.

육식 불결한 음식	➔	불결한 피 저열한 정신	➔	부정한 몸 질병과 멸망
채식 정결한 음식	➔	정결한 피 경건한 성품	➔	거룩한 몸 건강과 구원

[표4-1] 정결한 피의 전개 양상(백숭기)

결국 여호와의증인의 수혈거부가 단순히 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률적 논란을 촉발시켜온 대표적인 교리로 오랫동안 증인들의 종교정체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다면, 재림교회가 말하는 정결한 피와 건강기별 역시 성소론에서 출발하여 채식주의로 귀결된 종말론과 건강개혁의 합작품이자 빠르고 손쉬운 구원을 약속하는 넓은 관문이 되어왔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윌슨(Bryan R. Wilson)은 종파(Sect)가 교회(Church)나 교단(Denomination)이 줄 수 없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며, 그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명시적인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종교운동은 오래된 교단보다 더 확실하고, 더 짧고, 더 빠르고, 더 분명한 구원의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231]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등식은 너무 쉽지만 동시에 너무 어려운 숙제로 여겨진다. 반면 수혈거부나 채식을 통해 십사만사천이나 남은무리에 속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증인과 재림교회는 현실적으로 매우 단순하고 신속한 구원의 지름길이 된다. 이를 윌슨은 '근거리 구원(proximate salvation)'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는 캘비니즘이야말로 이전 중세 교회가 궁리해온 온갖 형이상학적인 신학 장치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현세적이고 윤리적인 금욕주의를 통해 근거리 구원을 약속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차이점은 여호와의증인에게 수혈거부가 저항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혈거부뿐 아니라 국기에 대한 경례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교리 역시 기존 사회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는 저항 정체성을 주로 드

231) Bryan R. Wilson, *The Social Dimensions of Sectarianism: Sect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90), 205.

러낸다. 여전히 여호와의증인은 세속정부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뜻을 대리하는 꼭두각시며 종교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연대와 통합이 여호와의 신권통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 반면 재림교회의 채식주의와 건강기별은 과거 종말론의 색채를 버리면서 프로젝트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쪽으로 나아갔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뉴스타트나 디톡스 프로그램, 5일금연학교, 채식요리강습 등은 기존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사회참여에 나서는 데 중요한 도약대가 되었다. 동시에 과거 세대 저항 정체성을 가졌던 안식일 준수와 집총거부 역시 주 5일제 정착과 교리적 선회를 통해 더 이상 사회와 갈등을 유발시키는 진앙지에서 멀어졌다.

2. 재림교회의 채식과 구원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은 화이트의 채식주의에서 출발한다. 화이트는 1848년 술과 담배, 커피에 관한 계시를 시작으로 이후 수십 년 동안 기름진 음식과 육식의 해악, 성적 방종과 자위의 위험, 건전한 의복과 절제의 삶의 축복에 대한 다양한 계시를 주장했다. 이성교제나 배우자와의 성관계에서부터 가정, 자녀교육, 극장과 도박, 카드게임, 격렬한 스포츠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권면은 그렇게 모두 건강개혁이라는 우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유산관리위원회는 주제와 관련된 그녀의 글들을 따로 정리하여 『가정과 건강』, 『교육』, 『성적 행실과 간음과 이혼에 관한 권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의료봉사』, 『절제생활』, 『치료봉사』 등을 출간했다. 이 문헌들은 재림교인 가정이라면 서재에 한두 권씩 반드시 꽂혀있는 필독서들이다. 이러한 책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그들에게 육식을 멈추고 차와 커피를 포기하라고 합니다.[232]

화이트의 이 문장에서 '육식'만 빼면 재림교회보다 35년 먼저 태동하여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단체로 성장한 후기성도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233] 후기성도교회 역시 술과 담배뿐 아니라 커피와 차, 콜라와 같은 카페인음료, 성적 방종, 극장과 유흥, 카드게임 등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증인이 교인들에게 수혈거부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병역거부 등 사교적 관계의 단절을 요구하면서 그 대신 흡연을 제외하고 절제와 식사, 기호에 관해서는 매우 유연하고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따라서 재림교

232) White, *Medical Ministry*, 288.

233) "재림교회 신자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률이 낮고, 사망에 이르는 심혈관 질환을 경험하는 남성의 비율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평균적인 미국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림교회 신자가 고기를 삼가기 때문에 채식주의 진영에서는 이 통계 수치를 곧잘 인용한다. ... 그들이 건강한 것이 채식주의 덕분이라고 주장하려면 비교집단이 필요하다. 고기 섭취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비슷한 집단 말이다. 그런데 그런 집단이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후기성도교회 신자다. 후기성도교회 신자 또한 술, 커피, 담배와 각종 불량식품을 피한다. 그러나 그들은 고기는 먹는다. 이 두 집단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살까?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정답을 추측했을 것이다. 후기성도교회 신자다." 리어키스(Lierre Keith), 『채식의 배신』, 김희정 역 (서울: 부키, 2013[2009]), 384.

회의 채식주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나타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교단체와의 비교가 필요한데, 그 단체가 후기성도교회다. 이 장에서는 재림교회의 건강신학과 후기성도교회의 지혜의 말씀을 비교하여 세계적인 두 종교단체의 음식규정과 종교정체성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1. 후기성도교회의 지혜의 말씀

1833년 2월 27일, 조셉 스미스는 이후 후기성도교회 역사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킬 운명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계시는 교회가 경전으로 인정하는 『교리와성약』 8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는 만큼, 보라, 이는 좋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만 너희가 함께 모여 그 앞에 너희 성찬을 바칠 때에만 사용할지니라. 그리고 보라, 이것은 포도주, 참으로 너희가 손수 만든 포도나무 열매의 순수한 포도주라야 하느니라. 그리고 거듭, 독한 음료는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몸을 씻기 위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담배는 몸을 위한 것도 위장을 위한 것도 아닌즉, 사람에게 좋지 아니하되, 타박상이나 모든 병든 가축을 위한 약초이니,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 뜨거운 음료(hot drinks)는 몸이나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234]

234) 후기성도교회가 인정하는 경전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성서』와 함께 조셉 스미스가 쿠모라 산에서 캐낸 금판을 영어로 번역한 『모르몬경(*The Book of Mormon*)』, 조셉 스미스의 계시와 행적을 기록한 『교리와성약(*The Doctrine and Covenants*)』과 『값진진주(*The Pearl of Great Price*)』가 그것들이다. 『모르몬경』은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니파이와 모사이야, 예이롬, 모로나이 등 23명의 저자가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주로 조셉 스미스의 행적과 계시를 담고 있는 『교리와성약』은 138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명의 저자가 기록했고, 『값진진주』는 4권으로 되어 있고 3명의 저자가 썼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후기성도교회가 발간한 한국어판을 참고했다. 필요에 의해 저자가 번역을 추가하거나 고친 부분은 그때마다 따로 언급했다. 논문 전체의 일관성과 가독성을 위해 본문의 구두점과 맞춤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고쳤다. 후기성도교회의 경전에 대해서는 W. D. Davies, "Reflections on the Mormon Canon" in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79/1 (1986): 44-66을 참고하라. 현재 후기성도교회의 세 가지 경전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후기성도교회의 공식사이트인 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scriptures에서 볼 수 있다. (접속일: 2022년 4월 16일)

지혜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뜨거운 음료(hot drinks)'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1842년, 하이럼 스미스(Hyrum Smith)[235]는 뜨거운 음료가 무슨 뜻인지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한다고 밝혔다. 1901년 조셉 F. 스미스(Joseph F. Smith)[236]는 많은 성도들이 커피와 차를 정당화하기 위해 뜨거운 음료를 후추나 생강이라고 둘러댄다고 했다.[237] hot이란 단어를 '맵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커피와 차뿐 아니라 끓인 우유도 선지자가 금한 뜨거운 음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238] 초창기 후기성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뜨거운 음료의 의미를 두고 벌인 신학 논쟁이 '뜨거운 감자(hot potato)'가 된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신도들이

235) 하이럼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의 형으로 1844년 6월 27일 카르티지 교도소(Carthage Jail)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도중 난입한 무장 폭도들에게 살해당했다. 이후 시체는 수습되었고 데스마스크를 제작한 다음 1만 명이 참석한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지역신문인 「나부 네이버(Nauvoo Neighbor)」와 「타임스 앤드 시즌스(Times and Seasons)」는 조셉과 하이럼의 사망을 발표하며 추도문을 발행했는데, 이는 훗날 『교리와성약』에 수록되었다. 오늘날 두 사람은 후기성도교회에서 순교자로 인정받고 있다.

236) 조셉 필딩 스미스 경(Joseph Fielding Smith Sr.)은 하이럼 스미스와 그의 둘째 부인인 메리 필딩(Mary Fielding) 사이에서 태어나 훗날 1901년 후기성도교회 6대 회장에까지 올랐다. 조셉 스미스 Jr.에게는 조카인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이후로 조셉 스미스를 '스미스', 조셉 F. 스미스를 '스미스 경'으로 표기한다.

237) Melvin L. Bashore, "Quitting Coffee and Tea: Marketing Alternatives Hot Drinks to Mormons," in *Journal of Mormon History* 42/1 (2016): 73-74.

238) 지혜의 말씀의 기원에 관하여 폴 피터슨(Paul H. Peterson)은 적어도 두 가지 학파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그 선언이 현대 경험의 산물 또는 논리적인 결과며 특히 금주운동의 결과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두 번째 학파는 지혜의 말씀이 계시에서 비롯했다는 입장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시 교회 내의 특정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첫 번째보다는 교리를 대변하는 호교론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입장은 대표적으로 1929년 딘 맥브라이언(Dean McBrien)이 쓴 논문 「변경(邊境)이 조셉 스미스에게 미친 영향」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금주운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던 시기에 신생 종교집단이었던 후기성도교회 성도들이 건강과 절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직접 금주운동에 나서기도 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맥브라이언은 당시 절제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명단을 뒤져 그들 중에 초창기 후기성도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다수 찾아냈고, 이를 통해 금주운동과 지혜의 말씀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을 확보했다. "계시[지혜의 말씀]가 나왔을 때 커틀랜드의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는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준다. 절제운동의 물결이 한동안 서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 1830년 10월 6일, 커틀랜드 절제회가 239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었다. 회원들 명단 중에서는 조지 스미스(George Smith)와 여러 명의 몰리(Morley), 웰스(Wells), 코(Coe)와 리만(Lyman)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이름들은 모두 후기성도교회의 역사에 깊이 연관된 이들의 것이며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록 그들 자신이 후기성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절제회 일꾼들의 상당수가 성도들을 친인척으로 두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Paul H. Peterson,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Word of Wisdom" (M.A. diss., Brigham Young University, 1972), 18.

커피와 차를 보편적으로 음용하고 있었고 종교공동체 내에서 커피와 차 금기에 대해 적잖은 저항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방증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술과 커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술에 대한 계시는 미국 사회에서 일었던 금주 및 절제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 후기성도교회가 태동하던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폭음은 미국 사회를 위협하던 악습이었다. 1792년, 미국 내 독주 소비는 1인당 연간 2.5갤런이었던 것이 1810년에는 4.5갤런, 1823년에는 무려 7.5갤런까지 치솟았다.[239] 이 상황에서 1826년, 전미절제협회(American Temperance Society)의 설립은 미국 내 조직적인 금주운동의 시작을 의미했다.[240] 이런 시대적 배경 위에서 1833년 2월 2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Kirtland)에 있는 선지자학교에서 스미스는 지혜의 말씀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241] 재림교회 내에서 화이트의 육식 습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전에 스미스의 음주 습관 역시 후기성도교회 내에서 상반된 진술들이 존재한다.[242] 여러 사료들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할 때, 스미스는 적당한 음주와 절제를 염두에 두었던 게 분명하다. 지혜의

---

239) Peterson, 6.

240) 1830년 10월 6일, 당시 후기성도교회 본부가 자리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도 금주협회 지부가 조직되었다. 본래 커틀랜드는 주류 소비가 활발하던 지역이었는데, 1819년 이래 영업 중이던 커틀랜드 양조장이 스미스가 계시를 받기 대략 4주 전인 1833년 2월 1일에 폐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금주운동의 광풍이 스미스와 초창기 후기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비록 스미스가 금주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역 내에서 일고 있던 절제운동의 정서를 자신만 인식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위의 글, 12-13.

241) 현재까지 계시를 받아 적은 필사본 중에 네 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두 1833년 혹은 183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 편의 '공식적인' 사본은 『계시집(*Revelation Book*)』 1권과 2권으로 불리는 스미스의 원고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은 그 계시를 구전으로 전하거나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전달했고, 계시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1835년 『교리와성약』으로 묶여 인쇄되기에 이른다. Samuel Alonzo Dodge, "A Forced Abstinence: Negotiating Orthodoxy and the Emergence of Mormon Teetotalism," in *Journal of Mormon History* 44/1 (2008): 22.

242) 스미스의 음주 습관을 두고 역사가들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한편에서는 스미스가 때로 뱃사람처럼 술을 마셨다는 주지사의 진술도 있고, 그가 나부에서 직접 양조장을 운영했으며 평소에도 만취된 상태에 있는 걸 자주 목격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1842년 스미스가 술이나 담배를 일절 입에도 대지 않았다는, 그의 개인 비서였던 윌리엄 클레이튼(William Clayton)의 상반된 진술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844년 스미스가 재판을 받기 위해 그의 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재소자와 간수 여러 명과 술을 나누어 마셨다는 점이다. 일부는 당시 그가 마셨던 포도주가 성례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대지만, 피터슨은 이런 주장이 전후 상황으로 볼 때 역사적 왜곡에 가깝다고 말한다. Peterson, 36-38.

말씀을 두고 신도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는 술을 즐기는 자신의 행동이 계시를 어기는 게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계시를 온건하게 이해하는 이들의 행동도 아니라고 답했다.[243]

반면 커피에 대한 계시는 앞서 언급했던 실베스터 그레이엄을 위시한 건강개혁자들의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 19세기 초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파와 신념을 초월하여 노예제 폐지와 사회개혁, 절제 및 금주운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종교적 열망으로 한데 어우러진 시기였다.[244] 많은 이들이 안식일 회복운동이나 노예제 폐지운동을 바라보는 것처럼 건강개혁도 진지한 관점에서 이해했는데, 찰스 피니(Charles Finney)가 1833년 오하이오에 장래의 목회자와 사모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오벌린대학(Oberlin College)도 그러한 관점의 결과물이었다. 오벌린대학은 당시 유행했던 건강개혁의 원리를 수용하여 재학생들에게 식단개혁을 장려했고, 주정음료뿐 아니라 차와 커피, 양념을 많이 한 고기와 기름진 패스트리, 그 밖에 건강에 나쁘고 비싼 음식을 금했다. 1835년, 로렌조 스노우(Lorenzo Snow)라는 무명의 학생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오벌린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는 훗날 후기성도교회로 개종하여 십이사도정원회에 들고 이어 5대 회장직에 오를 정도로 핵심 인물이었다. 스노우가 후기성도교회에 입교하기 전 오벌린대학을 다녔다는 사실은 건강개혁자들로부터 금주와 커피 금기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충분한 암시를 준다.[245]

---

243) Dodge, 42.

244) 다니엘 호위는 제2차 대각성운동 이후 남북전쟁 이전 미국(antebellum America) 사회에서 초교파적 개신교단들에 의해 결성된 복음연합전선(Evangelical United Front)이 도덕적 사회개혁의 일환으로 벌인 절제 및 금주운동이 회복주의와 함께 조셉 스미스의 지혜의 말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Daniel Walker Howe, "Emergent Mormonism in Context," in Terryl L. Givens and Philip L. Barsow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rm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26-27.

245) Kyle T. Bulthuis, "Food for Thought, Food for Action: An Historical Analysis of Latter-day Saint and Seventh-day Adventist Dietary Laws" (M.A. diss., Utah State University, 2000), 16-17. 호교론적 역사가들은 지혜의 말씀과 19세기 건강개혁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지혜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음식신학은 '불타버린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세기 [건강] 개혁운동과 명백한 평행관계를 담고 있다. 그러나 후기성도들과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의 음식신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따라서 신앙인을 속된 세계와 분리시켜주는 대단한 것이라고 믿었다. 유사점과 차이점 사이의 이러한 내부적인 긴장감은 적대적인 주변 문화와 공통점이 있는 어떤 특성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후기성도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지혜의 말씀이 성도들 사이에서 당장 준수되었던 건 아니었다. 역사가 폴 피터슨(Paul H. Peterson)은 1840년 후기성도교회가 일리노이 주 나부(Nauvoo)로 본부를 이전할 때까지도 교회 내에서 지혜의 말씀에 대한 통일된 교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246] 이는 스미스와 초창기 지도자들의 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와 교회 지도자들이 종종 포도주를 마셨고 커피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47] 적당한 음주는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 수용되었고,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완전금주(teetotalism)가 아닌 적당한 절제를 요구했던 게 분명하다. 1844년, 스미스가 폭도들에게 살해당하며 후기성도교회 정통 교리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 지혜의 말씀이 정착되지 못한 채 미결로 남게 된다. 역사에 '만약'은 없으나, 스미스가 재림교회의 화이트처럼 장수를 누렸더라면 지혜의 말씀은 후기성도교회의 교리로 지금보다 훨씬 빨리 수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스미스를 이어 후기성도교회의 수장이 된 브리검 영(Brigham Young)[248]은 1846년 집단의 생존을 판가름 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로키 산맥에 은신처를 찾아 대륙을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대이동을 계획한다. 당시 목적지로 선택한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Salt Lake City)는 아직 멕시코 영토였다. 그때 나부 지역신문은 후기성도교회 신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챙긴 생필품 목록을 남겼는데, 해당 목록에는 밀가루와 설탕, 소금, 말린 사과, 육포, 로프, 농기구, 낚싯

더 강하게 남아있었다. 반면 재림교인들은 그들이 쉽게 수용한 윤리, 즉 식생활 개혁의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자신들이 완성하고 있는 거라고 여겼다." 위의 글, 9-10.

246)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계시를 받았던 스미스부터 지혜의 말씀을 두고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결혼식장이나 여러 다른 행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종종 목격되었다. 커틀랜드에 있을 때, 그는 종종 음주에 빠졌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 명백히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들을 일삼았다. 그가 자신의 집 지하실에 호텔 바(hotel bar)와 같은 공간을 차려 놓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의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스미스는 1842년 나부맨션(Navoo Mansion)에서 아예 술집(bar)을 차려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아내의 강한 반대에 막혀 실제 주류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은 선지자에게나 교회에게나 잘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Dodge, 41-44. 역사가들에 의하면, 1842년 초 일리노이 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빴으며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고 한다. 나부 지역 경제 역시 곤두박질쳤으며 스미스도 1842년 4월 파산 신고를 제출했다. Peterson, 33.

247) Peterson, 25.

248) 스미스 사후, 공석이 된 회장 자리는 십이사도정원회를 대표하여 브리검 영이 대행했으며, 공동체를 이끌고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터전을 마련한 이후 1847년 12월 27일 2대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1대와 2대 회장직 사이에 대략 3년 반의 공백이 존재하는 셈인데, 이 공백기 동안 후기성도교회 내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다.

바늘, 소총, 총탄, 화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목록에 1파운드의 차와 5파운드의 커피, 1갤런의 알코올도 들어있었다는 점이다.[249] 물론 교인들이 짊어지고 간 커피나 술을 나중에 밀가루나 음식으로 교환했을 거라는 주장도 가능한데, 지도자 중 하나였던 윌포드 우드러프(Wilford Woodruff)[250]의 일기를 토대로 보면, 후기성도들이 이주하면서 커피를 마신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251]

그러던 것이 1862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뀐다. 브리검 영은 자신이 이전까지 담배에 절어 있었으나 결국 악습에서 벗어났노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그는 위스키와 차, 커피를 마시는 습관도 끊었으며, 이로 인해 몸이 가뿐해짐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레오나드 애링턴(Leonard J. Arrington)은 이런 기조의 변화가 당시 후기성도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성도들에게 엄격한 절제를 강조하는 설교가 무엇보다 그 시점의 경제 위기라는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52] 애링턴은 대륙을 횡단

249) Dodge, 45.

250) 존 테일러(John Taylor)에 이어 4대 회장으로 9년 간 후기성도교회를 이끈 인물이다.

251) 1860년대 후반 유타 주 프로보(Provo)의 선지자학교(브리검영대학의 전신) 교장을 지냈던 애이브러햄 스무트(Abraham O. Smoot)는 당시 선구자들의 캠프파이어 습관 중에는 함께 차와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나눠 피웠던 일과가 포함되었다고 회상했다. Peterson, 43. 일부 후기성도교회 역사가들은 1851년을 지혜의 말씀이 당위적 권고가 아닌 의무적 계명으로 정립된 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터슨은 1850년대와 1860년대 많은 인사들의 설교들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한다. 분명한 건 지혜의 말씀은 이 시기에도 후기성도에게 계명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로 피터슨은 브리검 영 스스로 1860년대 초반까지 지혜의 말씀대로 엄격하지 살지 않았다고 꼬집는다. 또한 1861년에도 그는 지혜의 말씀의 준수 여부를 교회 입교 테스트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위의 글, 52.

252) "미국으로부터 1,500마일 이상의 나무가 없는 평야지대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폭민선동가들(mobocrats)'을 증오해왔기 때문에, 후기성도들이 로키 산맥의 은신처에서 자급자족의 경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과제는 필수적이었다. 경제적 독립은 집단의 필수 목표였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바로 그 목적에 맞춰져 있었다. 여기서 경제적 독립이란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계와 장비의 구매하기 위해 적절한 교회의 지도하에 공동체의 모든 농업과 광업, 산업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수입 소비재에 유동자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었다. ... 수입된 불더럼(Bull Durham)과 배틀-액스플러그(Battle-Axe plug—둘 다 담배 브랜드의 일종), 차와 커피, 그리고 이와 유사한 '쓰레기'(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품들을 구입하는 데 현금을 쓴 성도들은 지역의 경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브리검 영은 성도가 수입한 차와 커피, 담배에 돈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게 되었다. 만약 담배가 현지에서 재배되었더라면 그가 담배를 씹는 것에 반대하지 말았어야 했던 사실은 그 당시 경제 상황과 일치했다. 수입품을 대신할 현지에서 생산된 '모르몬' 차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야 했던 사실도 일치했다. 성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제한된 자금에 비추어 볼 때, 차와 커피, 담배보다 더 영

하는 철도의 등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를 안겨다 주었는데, 국가의 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 경제 속에 흡수되는 것을 피하려는 바람으로 생산적인 수입재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와 차 같은 비생산적인 소비재들을 최소한도로 줄일 필요성을 주었다고 주장한다.[253]

브리검 영에 이어 3대 회장직에 오른 존 테일러는 1882년 10월 13일 개인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계명으로 선포하라는 계시를 받았노라고 선언한다. 이처럼 1883년과 1884년에 걸친 지혜의 말씀 개혁운동이 이전의 운동보다 더 성공적이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십이사도정원회가 스스로 계시를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점에 있다.[254] 4대 회장직에 오른 우드러프는 1883년 이후 절제의 굳건한 옹호자가 되어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1894년에는 지도자와 기관장들이 이러한 표준을 따르는 데 부족하다면 교회 직임을 내놓고 사임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255]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파고 들어가기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후기성도교회가 지혜의 말씀에 대한 오늘날 완성된 형태의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는 20세기 초반 금주법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미 전역으로 금주법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이웃 개신교단들과 나란히 나아가려는 욕망으로 후기성도교회 성도들이 지혜의 말씀을 완전금주로 해석하는 이해를 수용하는 데 더 용이해졌다. 이는 왜 절주가 후기성도교회의 개혁 노력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잘 설명해 준다.[256] 메인 주와 캔자스 주, 노스다코타 주는 1900년 이전에 일찌감치 금주법을 수용했고, 조지아 주와 오클라호마 주는 1907년 법을 통과시켰다. 다른 33개 주들은 카운티나 도시, 마을에서 주정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지역옵션규정(local option laws)을 갖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정부의 지역 단위들이 지역 내에서 주정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이런 규정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유타는 지역옵션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금주법이 통과되기까지 아이러니하게도 9년이나 더 걸렸다.[257] 1917년 2월 8일, 유타 주 주지사는 금주법에 서명하며 유타 주

구적이고 생산적인 무언가가 왕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했다." Peterson, 55-56.

253) 위의 글, 56.

254) 위의 글, 70-71.

255) 위의 글, 80-81.

256) Dodge, 49.

를 금주법이 발효된 스물네 번째 주로 공식 승인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지혜의 말씀은 단연 후기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종교정체성이 되었다. 지혜의 말씀이 교도에게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종교학자 토머스 오데아(Thomas F. O'Dea)는 이렇게 말한다.

> "흡연 금지규정과 커피와 차, 주정음료를 금하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후기성도들에게는 성전 입장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결혼식과 인봉식(sealing),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같은 의례들에 참여 허가가 거부된다. 게다가 이 계명은 후기성도들에게 교회의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증표가 되었다. ... 지혜의 말씀에서 금지된 행습을 멀리하는 것은 최근 이방인 공동체로 적응하고 통합되는 시대에 회중의 표식이었던 시온의 배지(badge)로써 일부다처제를 대체해온 셈이다. 종종 신체적 건강과 위생의 개념으로 합리화되었던 지혜의 말씀은 현세의 사물들에 관한 후기성도교회의 관심사의 상징이다."[258]

오랫동안 후기성도교회를 연구했던 오데아는 이들의 술과 담배, 커피에 대한 금기가 단순히 건강을 향상시키고 장수를 부르는 기능적인 목적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혜의 말씀이 후기성도들의 종교정체성을 확보해주는 중요한 증표가 된다는 것이다.

후기성도교회가 20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지혜의 말씀이 중요한 정체성의 증표로 자리 잡게 된 이유에 관해 크리스티 데이비스(Christie Davies)는 일부다처제[259]의 폐지와 관련하여 그 답을 찾는다. 스미스 때부터 시작되었던 일부다

---

257) Brent G. Thompson, "Standing between Two Fires: Mormons and Prohibition, 1908-1917," in *Journal of Mormon History* 10 (1983): 36.

258) Christie Davies, "Coffee, tea and the ultra-Protestant and Jewish nature of the boundaries of Mormonism," in Douglas J. Davies (ed.), *Mormon Identities in Trans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36에서 재인용.

259) 후기성도교회의 결혼제도는 단순히 지상에서 그치는 세속적인 결합이 아니라 인봉(sealing)을 통해 천상의 결혼(celestial marriage)을 완성하는 영적 과정이다. 결혼에 관한 새로운 빛을 받은 조셉 스미스는 이미 엠마(Emma)와 결혼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여성과 복수결혼을 실천했고, 브리검 영과 존 테일러를 비롯하여 역대 회장들도 개인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 1852년, 십이사도정원회였던 올슨 프랫(Olson Pratt)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들어 후기성도교회가 일부다처제를 시행해왔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는 후기성도교회가 사회-종교적으로 박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했으며 이후 대부분 스테이크 회장과 지도자들이 습격을 받거나 감옥에 수감되었다. 결국 1890년, 윌포드 우드러프가 공식성명서(Official Declaration)를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면서 박해는 잦아들었다. Kathryn M. Daynes, "Celestial Marriage (Eternal and Plural)," in Terryl L. Givens and Philip L. Barsow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rmonism* (New York:

처제 교리는 후기성도교회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경계선이자 정체성이었다는 것이다. 초기 후기성도교회 지도자들은 신권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구약시대의 부조(父祖)들처럼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를 드러내는 데 도덕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문제는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보는 세속법, 즉 사회윤리와의 충돌이었다. 선지자 스미스를 잃었던 결정적인 원인, 나아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엄혹한 로키 산맥 속에 숨어들었던 이유 역시 미국 헌법이 부정하는 일부다처제 때문이었다. 결국 1890년 9월 25일, 회장이었던 우드러프는 "국가의 법률이 금지하는 어떤 중혼도 종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일부다처제의 행습을 금지한다.[260] 이렇게 공식종교의 수정이 일어났다. 교단 입장에서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교리를 폐기하는 것[261]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롭고 확실한 교리가 필요했다.

> 따라서 20세기가 시작될 때에는 후기성도교회가 유타에서 한동안 누려왔던 신권적 권력과 일부다처제라는 가장 특이하고 눈에 띄는 그들의 제도 모두를 잃어버린 뒤였다. 그들은 미국 사회의 일반 정치-사회 제도에 강제적으로 통합되어 버렸다. 바로 이 시기에 후기성도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개별 구성원들이 지혜의 말씀에 있는 규정들을 준수하는 일을 대단히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낯선 땅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후기성도와 이방인들 사이의 강력한 경계선, 그러나 이방인들이 박해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지 않을 경계선을 세울 대안적 방법이 필요했다. 알코올과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339-34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후기성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일부다처제의 전통이 근절될 수 없었고, 이에 스미스 경은 1904년 두 번째 성명서를 낭독해야 했다. "그 두 번째 성명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새로 행하는 복수결혼은 하나님과 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교회 회원들에게 통고된 것이었다. 이 두 번째 성명서는 첫 번째 성명서의 유효 범위와 목적을 상술한 것이었다."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manifesto?lang=kor을 참고하라. (접속일: 2022년 6월 13일)

260) 일부다처제 금지령에 불복하고 떨어져 나간 후기성도교회 분파들은 6~7개 정도 된다. 이 중에서 2000년대 초반 미국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워렌 제프스(Warren Steed Jeffs)의 FLDS도 있다. 그는 2006년 2건의 아동 성착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근 넷플릭스에서는 제프스의 일화를 주제로 「Keep Sweet: Pray and Obey」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261) 켄달 화이트는 후기성도교회가 일부다처제의 실행(practice)을 중단했을 뿐 그 교리의 타당성과 의미는 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O. Kendall White, Jr. & Daryl White, "Polygamy and Mormon Identity," in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8/2 (2005): 65-77을 참고하라.

담배뿐만 아니라 커피와 차를 금하는 행위가 이제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마치 유대인들의 코셔처럼 이 규정은 교인들을 이방인 세계로부터 분리시켰지만, 또한 개신교가 지배한 미국의 다른 도덕적 십자군운동 중에 하나인 금주법의 고결한 확장으로 재현될 수 있었다."[262]

이러한 해석은 후기성도교회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890년 이후로 복수결혼이 줄어들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강조는 후기성도를 구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되었다. 1900년대 초, 성도들은 성찬에서 사용하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었다. 1919년에 후기성도들은 알코올음료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 개정을 인류의 위대한 승리로 반겼다."[263] 결국 권면(advisory)으로 시작된 지혜의 말씀은 20세기 금주법을 전후로 의무사항(mandatory)이 되었다.[264] 후기성도가 자신의 스테이크(stake)에 있는 성전에 출입하려면 운전면허 크기의 '성전추천서(temple recommend)'가 주어지는데, 오늘날 이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 지혜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므로 스스로 '성전에 합당한 모르몬교인(temple-worthy Mormon)'임을 입증해야 한다.[265]

2.2. 재림교회의 채식주의

데이비스는 재림교회의 음식규정과 후기성도교회의 지혜의 말씀이 모두 신도들에게 종교정체성을 심어 주고 나아가 집단을 결속하고 신원(身元)의 경계를 만드는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경계는 내부로는 강력한 멤버십을 구축하고 외부로는 명확한 신앙적 표지를 드러내준다. 첫 번째, 그들은 성공회나 천주교 친구들과 흡연과 음주를 나누는 건 둘째 치고 침례교나 감리교, 장로교 이웃들의 커피 모임이나 다도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완벽한 경계선

---

262) Davies, 40.

263) 후기성도교회 역시 공식적으로 지혜의 말씀이 일부다처제를 대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word-of-wisdom-dc-89?lang=kor을 참고하라. (접속일: 2022년 6월 13일)

264) Howe, 27.

265) Andrew Jackson, *Mormonism Explained: What Latter-day Saints Teach and Practice*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8), 149-150.

인 셈이다.[266] 두 번째로 중독성이 있는 물질(알코올)과 인구의 절대 다수가 무해하다고 간주하는 물질(카페인)을 끊을 의무가 자신들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 즉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분리된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 줄 것이다. 다른 교리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종교정체성이다.

재림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바빌로니아 유수기 때 형성된 「레위기」는 음식규정을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했다. 또 다른 기제는 안식일이었다. 데이비스는 재림교회가 유대인과 같은 방식으로 일몰부터 일몰까지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주류 그리스도교에서부터 벗어나 유대교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안식일과 음식규정은 분리된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이었고, 여전히 지금도 핵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림교회가 코셔를 그대로 채택했더라면 그들은 유대화된 그리스도교 종파로 머물렀을지 모른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전선(戰線)을 형성했고 음식규정에 변화를 꾀하므로 유대교와 차별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했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채식주의가 유대교와 재림교회를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으로 작동하면서 건강에 유익하다는 대중적 합리성까지 획득했다고 말한다.

> 재림교회는 채식주의를 선호함으로써 광범위하게 그 문제[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무는 문제]를 피해갔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사규정은 주로 고기와 관련되어 있었고, 동물들이 특정한 방식, 즉 동물의 생명인 피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고기와 유제품은 함께 먹어선 안 되고 오로지 정결한 짐승과 새, 물고기만을 먹어야 한다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그러한 규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교인들과 잠재적인 구도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과 최소한 합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윤리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267]

---

266) "재림교인과 마찬가지로 후기성도에게 커피와 차의 금지는 집단의 멤버십과 외부인 사이에 두 단계로 작동하는 중요한 경계선으로 작용한다. 첫 번째로는 규칙이 교인들로 하여금 알코올과 담배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비교적 제한적인 개신교 교단들에 속한 이들과도 사회적 행사를 나누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은 함께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어렵게 만들고 후기성도와 재림교인이 그들 자신의 집단의 구성원들로 제한된 사회성의 패턴과 그들 자신의 규칙을 따르는 패턴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Davies, 37-38.

267) 위의 글, 39.

반면 후기성도교회는 재림교회가 단순히「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을 수용하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더 근본적인 구약의 전통, 즉 복수의 아내를 취하던 일부다처제를 채택했다. 데이비스는 이로 인해 후기성도교회가 차와 커피를 절제하는 재림교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개신교 개혁교회나 회복교회보다 유대교 방향으로 훨씬 더 나아간 '울트라-개신교(ultra-Protestants)'가 되었다고 말한다.[268] 재림교회가 토요일 안식일 준수 강조와「레위기」에 대한 강박적 관심을 갖는 것과 19세기 한동안 후기성도교회가 일부다처제에 대한 신념을 가졌던 것은 모두 유대교에 그 기원과 영감을 둔 것이지만, 전자는 유대교와의 연결고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후자는 포기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후기성도교회가 일부다처제를 포기하고 대신 지혜의 말씀으로 종교정체성을 확보한 것은 교단의 규모가 종파에서 교단으로 커지면서 저항 정체성을 단념하고 프로젝트 정체성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림교회 역시 음식규정을 천년왕국운동의 메시지를 갖고 종말론적 에토스를 실천하는 데 함몰되어있던 19세기 신앙에서 벗어나는 데 활용했다. 지체의 신학이 가동되면서 '임박한 재림'은 점차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먼 미래의 어딘가로 밀려났고, 채식은 거룩한 몸을 통해 하늘 가는 성품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습관이 되었다. 하늘을 바라보던 시야는 지상으로 내려왔고 채식주의의 향배도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거룩한 몸(영적 존재)보다 정결한 몸(육적 존재)을 강조하는 쪽으로 신앙의 방점도 옮겨가게 되었다.

268) Davies, 41.

3. 교리의 변천—사회화와 세속화의 갈림길

3.1. 후기성도교회—커피와 세속화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가 공통적으로 음식규정과 절제생활이 교인들의 건강과 장수에 중요 원인이자 변수임을 의학적인 통계로 제시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동시에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는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장신구 금지와 도박, 극장, 세속적 매체, 심지어 포르노 산업[269]을 정죄하는 청교도적인 문화 코드들을 보여주고 있다. 브리검영대학(BYU)은 구내에서 커피는 물론 탄산이 들어간 콜라를 최근까지 팔지 않았으며,[270] 국내 삼육대학 역시 구내매점에서 커피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규정(policy)을 비신자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

재림교회가 채식주의를 통해 종교정체성을 구축하는 방식과 이를 선교 현장에 활용하는 전략은 후기성도교회와의 비교해보면 그 전모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후기성도교회가 음식규정에 각성해가는 일련의 과정에는 역사적으로 금주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앞에서 밝혔다. 1900년대 초반, 유타 주의 후기성도가 금주법 통과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지도부는 과거 선지자의 계시를 다시금 상기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합리적 예상이 가능하다. 때마침 교단은 일부다처제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면서 새로운 종교정체성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정치적 명분을 찾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망각된 교리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셈이다.

반면 화이트는 당시 그 누구보다 열렬한 금주론자(prohibitionist)였다. 그녀는 생전에 여러 사회적 주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권고를 남가지 않았으나, 유독

---

269) 특히 포르노 산업의 폐해는 전통적인 가정 회복과 이성애 문제에 집중해온 후기성도교회가 각별한 관심을 갖는 주제다. 후기성도교회의 반-포르노 활동(anti-porn activism)에 관해서는, J. Edward Sumerau et al., "'Don't push your immorals on me': Encouraging anti-porn advocacy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Sexualities* 18/1 (2015): 57-79을 참고하라.

270) 2017년, 대학은 구내매점에서 콜라를 비롯한 소프트드링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절제, 특히 금주법에 관해서는 전투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녀는 술이 미국 사회를 망치고 있으며 이 편만한 사회악을 막아야 할 사명이 재림교인들에게 있다고 느꼈다. 나아가 그녀는 개인의 건강이 사회의 자유와 정의 수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교인들을 독려했다.

> 절제를 옹호한다는 이들은 교훈과 본보기로, 목소리와 글과 투표로(by voice and pen and vote) 금주법과 완전금주에 찬성하므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개혁[금주법]을 일으키는 데 기적을 행사할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로 하여금 노력할 필요가 없게 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하며, 우리의 모토는 타협은 없으며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271]

화이트는 만에 하나 투표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 날을 어겨서라도 투표장에 나가라고 권면할 정도였다.[272] 안식일 성수보다 절제를 더 상위에 두었다는 뜻이다.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 모두 이미 갖고 있던 금기를 금주법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거치며 보다 내부로 심화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 모두 금주(dry)를 지지했지만, 이를 신체화시키는 과정은 달랐다.[273] 후기성도교회가 '음료'에 집중했다면, 재림교회는 '육류'에 집중했다. 얼마 안 가서 대부분의 주(州)에서 금주법은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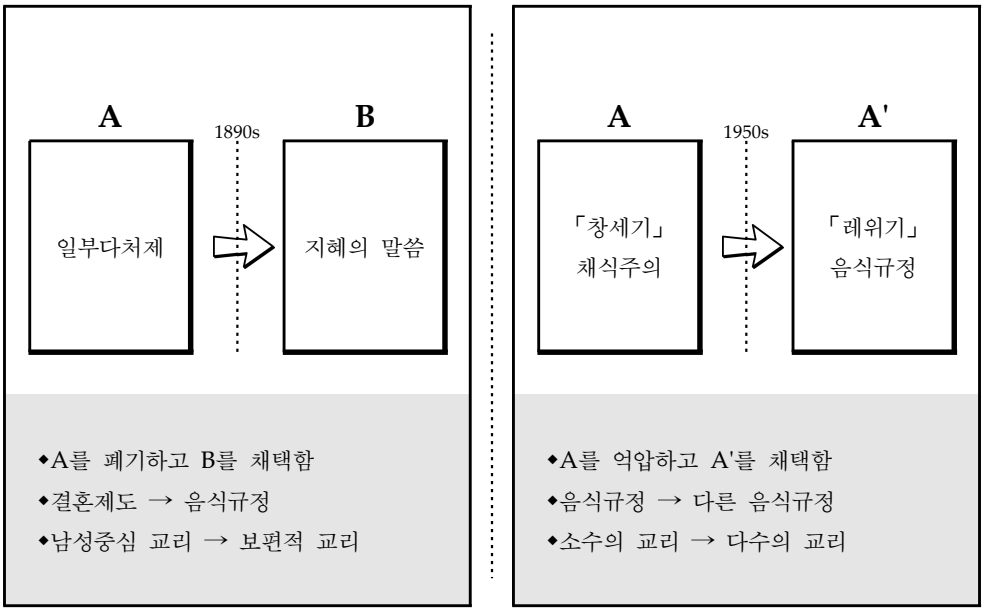
271) Ellen G. White, "Temperance and the License Law,"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81.

272)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음주 문화의 퇴치를 위해 결성된 여성그리스도교금주조합(WCTU)과 반살롱동맹(Anti-Saloon League)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화이트는 1880년대와 1890년대 이 단체들이 일요일에 술집(살롱)을 닫도록 일요일법안(Sunday law) 단체들과 연합전선을 이루자 차라리 안식일의 원칙들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금주법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Morgan, 62. 1893년 오하이오 주에서 사교모임으로 시작된 반살롱동맹은 곧 그 영향력이 커지며 1895년 전국 조직으로 발전했다. 복음주의 개신교단들의 지원을 받았으며 주류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로비 활동을 벌였다. 1919년 제정된 수정 헌법 제18조(금주법)의 엄격한 시행을 요구했지만,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된 뒤에는 미국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다. 반살롱동맹과 여성그리스도교금주조합에 대해서는, 마크 포사이스(Mark Forsyth), 『술에 취한 세계사』, 서정아 역 (서울: 미래의 창, 2019)를 참고하라.

273) 도리어 후기성도교회는 재림교회와 달리 채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 "누구든지 사람이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리라 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라." 『교리와성약』 49장 18-21절을 보라.

지만, 그들의 교리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교리 변천의 과정도 달랐다. 먼저 후기성도교회는—물론 두 교리 사이에 시차는 있었지만—일부다처제라는 결혼제도에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음식규정으로 옮겨갔다. 완전히 이질적인 변화, 즉 A에서 B로의 치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치환이라는 것도 앞서 지배적이었던 A라는 교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이 공백을 B라는 새로운 교리로 대체하는 식이었다. 반면 재림교회는 채식주의라는 음식규정에서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이라는 또 다른 음식규정으로 옮겨갔다. 같은 종류의 교리의 외연이 넓어지는 변화, 즉 A에서 A'로의 확장이 일어났다. 게다가 그 확장이라는 것도 앞서 지배적이었던 A라는 교리를 폐기하지 않은 채 이를 A'라는 교리로 덮어쓰는 식이었다. 재림교회가 A를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재림교인들에게 경전에 준하는 문헌으로 받아들여지는 화이트의 『예언의신』이 A'가 아닌 A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4-2]과 같다.



[표4-2]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의 교리 변화 비교(백숭기)

공식종교 내의 일부 교리가 바뀌어도 이를 대중종교가 수용하는 과정은 매

우 더디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후기성도교회 지도부가 일부다처제를 폐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두 차례나 냈지만, 일부 신도들은 이러한 조치에 극렬히 반대하고 일부다처제의 전통을 고수했다. 개중에는 분파로 떨어져 나간 이들도 있었다. 또한 주정음료와 커피의 금지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수용되었다. 공식종교의 입장과 대중종교의 신행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후기성도들의 62.2%가 6개월 동안 콜라를 마신 적이 있으며, 응답자의 35.2%는 커피를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도들 중에서 24.7%는 홍차를 마신 적이 있고, 알코올을 마셨다는 이들도 24.9%나 되었다. 흡연이나 씹는담배를 한 이들 역시 17%나 되었으며, 마리화나는 9.7%, 향정신성물질은 3.2%,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도 5.1%가 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흔히 커피 대체 상품으로 간주되는 디카페인 커피(13.9%)나 포스텀(3.6%)[274]을 이용하는 이들보다 일반 커피를 마신 이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275]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할 수치는 커피 음용의 비율이 음주 비율보다 10% 이상 높다는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다. 오늘날 커피가 갖는 사회적-사교적 기능은 종교적인 헌신의 문제나 혹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21세기 카페 문화는 커피를 음용하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과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사회학적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276] 이러한 문화로부터 고립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

---

274) 존 켈로그의 위생병원에서 요양했던 찰스 포스트(Charles W. Post)는 카페인이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했던 켈로그의 주장에 따라 1894년 커피 대체음료(coffee substitute) 개발에 나섰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바로 포스텀(Postum)이었다. 로스팅한 밀겨와 당밀을 섞어 만든 포스텀은 애초에 카페인이 없었기 때문에 후기성도교회 지도부가 커피 대용으로 음용을 허용했다. 이후 포스트는 켈로그의 시리얼을 모방하여 '그레이프 넛츠(Grape Nuts)'라는 제품을 자체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으며, 오늘날 켈로그와 함께 포스트라는 브랜드가 시리얼 시장을 양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했던 '정결한 음식(pure food)'을 모방한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Lisa Mullikin Parcell et al., "Not "merely an advertisement": Purity, trust, and flour, 1880–1930," in *American Journalism* 29/4 (2012): 102을 보라.

275) J. E. Ferguson III et al., "The Word of Wisdom in Contemporary American Mormonism: Perceptions and Practice," in *Dialogue: A Journal of Mormon Thought* 51/1 (2018): 50.

276)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커피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인간이 일상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말한다. Gaye Gökalp Yilmaz, "From a Commodity to an Instrument of Social

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당장 인간관계의 취약성을 자처하거나 사회 활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커피를 음용하는 행위가 3분의 1의 후기성도들에게는 사회화(socialization)를, 나머지 3분의 2의 후기성도들에게는 세속화(secularization)를 의미할 것이다.[277]

3.2. 여호와의증인—양심의 문제

여호와의증인은 과거 신자들에게 전혈(全血), 즉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불리는 일체의 혈액성분의 수혈을 금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혈에서 분획된 네 개의 주요성분도 수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50년대를 지나면서 협회는 증인들에게 피의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부과했다. 사고나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소 자신의 혈액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수혈하는 자가수혈(autotransfusion)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278] 1960년대 초반에 이르면, 협회는 동물의 피로 만들어진 제품을 반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신실한 증인이면 빵집이나 당과점에서 제품에 쓰인 레시틴(lecithin) 성분이 식물에서 온 건지 동물에서 온 건지 물어야 했다. 이후 1977년, 수혈거부 문제만 따로 정리해서 발간한 『여호와의증인과 피의 문제』라

Interaction: The Sociology of Coffee in the United States," in Carl Boon et al. (eds.), *Food in American Culture and Literature: Places at the Table*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20), 30-31.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후죽순 등장한 커피하우스(Coffeehouse)가 미국 사회에 집과 직장 다음의 '제3의 장소(third place)'가 되었으며,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한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론의 장(public place)로서 기능해왔다고 주장한다. 위의 책, 35.

277) 이는 재림교회도 마찬가지다. 1986년 한 논문에 따르면, 재림교회 내 청소년의 41.7%가 카페인음료를 마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수면을 줄이고 학습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들이 카페인음료를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과는 다른 범주의 물질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커피를 마시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4.5%인데 반해,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응답자는 각기 1.3%와 0.6%에 불과하다는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Patricia B. Mutch, "Caffeine: A Drug of Educational Concern," in *The Journal of Adventist Education* 48/2 (1985-1986): 19-36. 최근 3선에 성공한 현직 재림교회 대총회장 테드 윌슨(Ted Wilson)은 존스홉킨스대학의 연구를 인용하며 느슨한 커피 음용이 장차 알코올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https://www.pastortedwilson.org/questions-answers/is-it-proper-to-drink-coffee/ (접속일: 2022년 6월 19일)

278) Singelenberg, 284.

는 소책자에서 협회는 수혈거부가 숭고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며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다.

> 우리가 고려한 모든 것을 비추어볼 때, 의사도 여호와의증인이 모든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자살적(suicidal)' 종교 광신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계속 살아남기를 원하는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명과 건강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질의 의학적 케어를 추구한다. 하지만 의사라면 여호와의증인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자신과 가족이 피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의료 종사자라면 이를 그저 무시할 수 있는 정서적 변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반드시 존중되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하는 중요한 종교적 확신이다.[279]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 시기 전후 협회가 출판한 각종 문헌들 가운데서 확인된다. 2000년 6월에 발행된 「파수대」에는 혈액성분이나 혈액제제를 어디까지 거부해야 할지, 또한 분획된 성분들은 수혈이 가능한지 묻는 독자의 글이 실렸다.[280] 이는 단순히 수혈거부를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처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후부터 신장이식을 비롯한 장기이식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부의 혼란을 의식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전까지 협회는 1967년부터 수혈과 장기이식을 동일한 이유로 금지해왔기 때문에 수혈도 혈액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라면 장기를 '이식'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문이 일부 공동체에서 제기되었다. 이런 의문에 협회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 피는 매우 복잡하다. 90%가 물인 혈장만 해도 수십 가지 호르몬과 무기염류, 효소, 그리고 미네랄과 당을 비롯한 영양소가 들어 있다. 혈장에는 또한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 응고인자, 질병과 싸우는 항체가 들어 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

279)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Jehovah's Witnesses and the Question of Blood* (New York: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1977), 59.

280) 「파수대」는 수혈뿐만 아니라 신학적, 교리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 정식 논단이나 아티클을 통해 분명한 주장을 내보내지 않고 항상 '독자란'과 같은 Q&A를 통해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권면을 주는 전략을 쓴다.

혈장 단백질을 분리해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응고인자VIII는 쉽게 출혈을 하는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다. 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병에 노출되면, 의사는 이미 면역을 가진 사람의 혈장에서 추출한 감마글로불린을 주사하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장 단백질들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들은 어떻게 일차 혈액 성분(혈장)이 정제되어 분획물질을 얻어 낼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혈장이 다양한 분획물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일차 성분(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서도 정제를 거쳐 더 작은 성분들을 분리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혈구는 몇몇 바이러스성 전염병과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론과 인터류킨의 원천이 된다. 혈소판은 정제되어 상처 치료 성분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초기에 불과하지만) 혈액 성분에서 추출한 물질이 포함된 다른 약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그러한 치료법은 일차 성분을 수혈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은 거기에서 추출한 성분이나 분획물질이 쓰인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료에 이러한 분획물질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성서』는 자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양심적 결정**(conscientious decision)**을 내려야 한다.**[281]

협회는 분획물질의 사용을 '양심'의 문제에 맡기면서 과거 엄격한 무수혈 수술 입장에서 수혈과 피의 의학적 사용에 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에이즈가 연일 TV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던 시대에 더 강력한 수혈거부 입장을 취해도 모자를 판에 협회는 왜 정반대의 행보를 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다.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당시 무수혈 수술을 고집하던 여호와의증인 부모가 주 정부로부터 치명적인 소송을 당하면서 협회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1986년 Public Health Trust v. Wons 사례는 미 전역에 여러 사회적 이견과 논란을 촉발했으며, 관련된 연구와 소설,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282] 물론 한편으로는 여호와의증인 때문에 무수혈 시술의

281) 「파수대」, 2000년 6월 15일자. 강조 추가.

282) 1986년 4월, 두 아이의 엄마였던 노르마 원스(Norma Wons)는 자궁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종교적 신념으로 일체의 수혈을 거부했으나, 미 Public Health Trust는 그녀에 대한 강제 수혈을 플로리다 법원에 청원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청원은 받아들여졌고, 그녀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강제 수혈이 시행되었다. 2014년 8월에 출간된 이언 매큐언의 장편소설 『칠드런 액트(*The Children Act*)』는 당시 부모의 무수혈 수술 요구와 아동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법리 공방이 가열되던 시기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소설은 2017년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소설 중에는 판사(피오나)가 백혈병으로 죽음을 앞둔 아들(애덤)의 수혈거부를 옹호하는 아버지(헨리)의 변론에 다음과 같이 응답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물론 그랬겠지요, 헨리 씨. 하지만 정확히 그 시점에서 수혈에 대한 견해에 의문의 제기하는 여호와의증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도 혈액제제를, 혹은 일부 특정한 혈액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애덤에게도 다른 대안이 열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증인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의료적 실험이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수혈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중적 경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동시에 증인의 수혈거부 때문에 정부나 의료진이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강제로 자녀에게 수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이 일어났고, 인권과 종교자유에 관한 법률적 이해와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는 긍정적 유산도 남겼다. 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협회는 수혈거부를 양심의 문제로 돌리며 무수혈 수술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야 했다.

두 번째, 협회는 시대적 상황과 신앙적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 시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여호와의증인 장로들[283] 중 43%가 응급상황이 닥치면 비밀리에 수혈을 받겠다고 응답했다. 공개적으로 수혈을 받겠다는 장로들은 11%였으며, 전혈수혈은 거부하겠지만, 분획수혈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장로들은 32%였다. 어떤 형태의 수혈이든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응답한 장로는 고작 3%에 불과했다.[284] 또한 여호와의증인 내에서 수혈거부 교리에 대한 실질적 개정을 공개 요구하는 소위 '리버럴 엘더(Liberal Elder)'의 등장도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통치체가 감안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다. 게다가 예언 실패로 1990년대 이후는 통치체에 대한 신뢰도 반감된 상태였다.[285] 이러한 분위기에서 여호와의증인은 신앙적 드라이브를 마냥 강하게 걸 수만은 없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재림교회 역시 여호와의증인처럼 두 가지 '신학적 후퇴'를 단행한다. 하나는 집총거부로 수렴되는 평화주의 및 비무장전투원의 원칙[286]이며, 다른 하나는 엄격한 채식주의의 완화다. 후자는「창세기」1장의 채

이 그런 대안을 받아들이도록 아들을 설득해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언 맥큐언(Ian McEwan),『칠드런 액트』, 민은영 역 (서울: 한겨레출판, 2015[2014]), 110.

283) 여호와의증인은 공식적인 목회자(full-time paid pastor)를 두고 있지 않으며, 통치체에 의해 선임된 장로(elder)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왕국회관에서 장로의 지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284) Chryssides, 266-267.

285) 1914년 때보다 1975년의 예언 실패는 통치체의 권위와 신뢰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개종자의 숫자가 1975년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다. Lawson et al.,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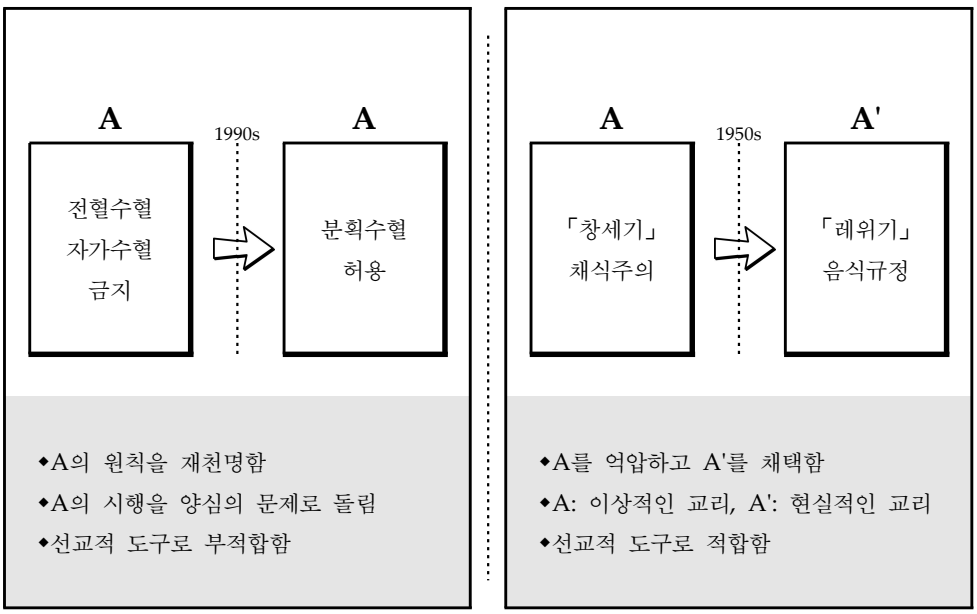
286) 역사적으로 재림교회는 집총거부와 비무장전투원(non-combatant)의 소신을 갖고 있었으나,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이 문제를 '개인의 양심'의 차원으로 돌렸다. 재림교회의 비무장전투원과 여호와의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그 방식과 철학에 있어 다르다. 여호와의증인이 종교자유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반면, 재림교회는 평화주의에 입각해 있다. 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과 달리 재림교인은 종군(從軍)

식주의를「레위기」11장의 정결과 부정 개념으로 치환하거나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화이트 사후 1915년부터 1950년대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은 전혈 수혈거부에서 분획수혈을 '양심의 문제'로 돌리는 여호와의증인의 신학적 후퇴와 비교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 여호와의증인이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현실적으로 남성들만 구현할 수 있는 배타적(exclusive) 종교정체성과 수혈거부라는, 남녀 모두 가능하나 위급상황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적(situational) 종교정체성과 달리, 재림교회는 돼지고기 금기라는, 일상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반적 종교정체성에 더 명징한 의미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 국내 여성 증인들은 병역거부를 통해 종교정체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 여성 재림교인들은 당장 식탁에서 종교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여호와의증인과 재림교회의 교리 변화에는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엄밀히 말해서, 여호와의증인은 후기성도교회처럼 일부다처제를 폐지하지도, 재림교회처럼 새로운 음식규정을 도입하지도 않았다. 여호와의증인은 기존의 수혈거부 교리가 갖는 표준을 한 단계 낮춘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여전히 기존의 교리는 유효하며 증인들 사이에서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다. 분획수혈의 수용 여부는 오로지 개인의 양심에 달렸다. 이렇게 교리를 상황윤리로 정의하며 여호와의증인은 대외적으로 법적 문제를 피해가면서 동시에 집단 내 교리적 갈등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내놓게 되었다. 교리를 수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저항 정체성은 손상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된다.

간호사나 위생병, 비무장전투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 2016년 영화「핵소고지」의 실제 주인공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75명의 전우들을 구한 데스몬드 도스(Desmond Doss)가 대표적인 사례다. 비무장전투원에 관해서는, 오만규,『네 검을 내려놓으라: 재림교회와 비폭력』(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4); 김용성 외,「멜 깁슨의「핵소고지」에 나타난 종교적 가치: 신념 있는 시민교양」,『종교와 문화』33 (2017): 147-175를 참고하라. "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단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비무장전투원 신분을 유지해왔으며 우리나라는 비로소 1950년 6・25사변 이후 징집법이 생겼고 신앙 청년들이 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자, 재림군인의 위상이 드러나게 되어 군문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에서는 비무장전투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대 훈련을 실시하여 의무병과에서 소임을 다하도록 재림청년들을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 과정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신앙 양심의 표현이 잘못 인정되어 항명이란 무서운 죄목으로 옥고를 치러야만 했던 85명이 언도공판을 93회 겪었으며, 받은 언도형을 누계하면 143년 4개월이란 실로 긴 연한이 됩니다. 어떤 형제는 훈련소를 네 번 반복해야 했으며 7년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한상우,『총 없는 병사』(서울: 시조사, 1996), 6-7.

반면 재림교회의 구조는 조금 복잡하다. 일견 재림교회는 여호와의증인처럼 교리의 표준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식에서 일부 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에는 일리가 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무엇보다 이 문제를 여호와의증인처럼 양심의 문제로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결과 부정의 음식규정을 표준으로 제시했다. 둘째, 재림교회는 채식을 종말론적 선결과제로부터 건강과 장수라는 선교적 목적으로 돌렸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은 수혈거부를 통해 선교를 벌이지 않는다. 채식을 통한 건강과 장수는 재림교회라는 종교집단 밖에서 볼 때에도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한다. 그와 반대로 여호와의증인의 수혈거부는 종교집단 밖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위험이 있다. 쉽게 말해, 수혈거부 교리를 통해 여호와의증인에 입교하는 사례는 채식주의를 통해 재림교회에 입교하는 사례보다 현저하게 적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3]과 같다.



[표4-3] 여호와의증인과 재림교회의 교리 변화 비교(백승기)

이에 대해 유광석은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가 사회와의 긴장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교리를 수정했으나, 여호와의증인은 사회와 지속적인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교회-종파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 그럼에도 종교사회학적으로 여호와의증인들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사회적 태도의 변화가 후기성도교회나 재림교회와 매우 대조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후기성도교회는 1890년 공식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포기하고 1896년 연방정부와 타협하여 유타 주의 신정정치체제를 포기함으로써 주류 사회로 편입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여호와의증인들과 함께 밀러주의 운동에서 탄생한 재림교회는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집총거부를 포기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후기성도교회가 미국 내 존재하는 400여 개의 주요 교단들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주류 교단이 되었고,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약 1,600만 명의 신자수를 보고하고 있는 세계적 교단으로 성장했다. 대체적으로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의 성장 과정은 종교사회학적 유형론의 전통적 설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신자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계급, 가족적 배경 및 종교적 성향의 범위가 넓어지자 주변 사회와의 긴장관계를 낮추는 방법으로 교리의 해석이 느슨해진다.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의 이런 성장 패턴이 전통적으로 종파에서 교회 또는 교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호와의증인들은 그들의 교리적 순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 사회와의 긴장관계를 높은 수준에서 고수하는 길을 채택했다. 이런 면에서 전통적인 교회-종파 유형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성장 과정과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287]

여호와의증인이 오늘날까지 사회와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는 몇몇 교리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유광석의 해석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수혈거부 교리를 공식화하기 이전에 백신접종(vaccination)에 대해 신학적 후퇴를 결정했다. 1920년대부터 여러 출판물들을 통해 백신이 동물의 더러운 피와 오물, 고름, 병균에서 추출한 것이며, 주사를 통해 사람의 몸에 들어갈 때 인간과 동물이 교접하는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다고 주장해왔다.[288] 반면 후기

---

287) 유광석, 『종교시장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2014), 118-119.

288) "생각 깊은 사람들은 종두를 맞는 것보다는 천연두에 걸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두는 매독, 암, 발진, 단독, 선병, 결핵에서 문둥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꺼려야 할 각종 병을 옮겨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신접종 행위는 범죄이며, 부도덕하며, 망상이다." 「황금시대」, 1929년 1월 5일자. 하지만 백신접종은 1950년대 이후, 교리적 논의가 대부분의 출판물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문제[백신접종]에 관해 고심한 끝에, 「창세기」 9장 4절에서 정한 노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레위기」 17장 10-1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건 그것을 합리적으로 또는 성서적으로 주장할 수

성도교회는 일부다처제를 포기함으로 과거 사회 주류의 관습과 윤리적 가치관에 저항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혜의 말씀을 계시적 명령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긍정적 이미지를 소개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재림교회 역시 채식주의가 갖는 건강상 유익을 적극 선교에 적용하면서 프로젝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3.3. 재림교회—『QOD』

돼지고기를 비롯한 「레위기」 11장 음식규정은 재림교회가 외부와 교리적 논쟁을 통해 주류 개신교의 일부로 포섭되려고 노력하던 과정에서 더욱 불거졌다. 1950년대 중반, 재림교회는 월터 마틴과 「이터너티」의 편집장이었던 도널드 반하우스(Donald Grey Barnhouse)와의 신학적 대화를 이어갔고, 그 결과 재림교회는 1957년 앞서 언급된 『QOD』를 발표했다. 이 책은 재림교회가 그간의 독특한 교리를 벗고 보다 주류 개신교의 교리를 닮아가는 변곡점이 되었다.[289] 그런데 이 책에는 이미 채식을 대신하여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이 재림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말콤 불(Malcolm Bull)과 키스 록하트(Keith Lockhart)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없으며, 백신을 받았다고 접종을 받은 사람이 피를 먹거나 마시거나 음식으로 섭취하거나 수혈을 받았다고 증명할 수 없다. 「창세기」 6장 1-4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백신접종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한 것과 어떠한 관계나 유사성도 없다. 「레위기」 18장 23-2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간과 동물의 교접을 금하는 것과 같은 부류로 분류할 수도 없다. 그것은 성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파수대」, 1952년 12월 15일자. 1961년 「파수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백신접종이 수용할만한(acceptable) 의료행위로 제시했고, 1965년 「깨어라!」에서는 접종(inoculation)의 긍정적인 장점을 열거했다. Chryssides, 187-189.

289) 마틴 역시 『QOD』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1959년 『재림교회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재림교회를 처음으로 "주류 개신교의 같은 형제"로 인정한 외부 출판물이다. "재림교회는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인 생애에의 성장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그리스도교 교리에 있어 그들의 동료인 그리스도인들과 근본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들 역시 하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의 소망이 불러내며, 동일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의 지체의 일부이며, 동일한 믿음의 참여자요, 하나의 침례를 받은 자요,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Walter R. Martin et al.,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14.

> 20세기 재림교회의 건강개혁에 보다 성서적 기초를 주었던 또 다른 개념은 「레위기」에 따라 정한 고기와 부정한 고기에 관한 개념이었다. 이 개념은 재림교회 내에서 1903년 스테픈 해스켈이 처음 명확하게 말했던 것이다. 이후로 그들이 육식주의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재림교인들은 돼지고기와 같은 '부정한' 고기를 삼가도록 격려되었다. 여기서 다시 이 믿음이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의 일부가 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 1931년 진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51년 처음으로 교단의 침례시문에 등장했지만, 1980년 신앙 진술이 개정되고 나서야 부정한 고기를 삼가는 것이 교회 교리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290]

위에서 언급한 '1931년 진술'은 알론조 워너(Alonzo J. Wearner)가 출판한 『성서 교리의 기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교단의 공식 교리집은 아니지만, 당시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에 관한 신학적 풍토를 엿볼 수 있는 문헌으로 이때까지 「레위기」 11장에 대한 교리적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291] 이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교단을 이끌었다. 1950년대 이후, 재림교회는 교인들 사이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음식규정이 혼재하는 난맥상에 빠진다. 재림교회 내의 건강기별은 현재 채식과 유대교의 음식규정이 함께 뭉쳐진 불안한 형태를 갖고 있다. 자연스럽게 피아를 구분하던 잣대는 신앙공동체 내부로 돌려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재림교인들의 음식체계에 위계(hierarchy)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높은 곳에 채식이 놓이고 그보다 하위에 「레위기」 11장의 정결한 육류가 배치되었다. 그보다 아래에는 주정음료와 담배, 커피 같은 기호식품이 놓였다. 돼지와 같은 부정한 육류는 위계 상 단연 맨 아래에 놓였다. 이런 위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도식으로 표현한다면, 채식을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도식이 그려질 것이다. 역시 가운데에는 채식, 그 바깥으로 정결한 육류와 술,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 중심에서 가장 멀리 놓이게 된다. 그리고 경계 바깥에는 돼지와 같은 부정한 육류가 놓인다. 후기성도교회가 내

290) Bull & Lockhart, 178.

291) 워너는 육식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앤더슨(H. S. Anderson)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동물성 음식이 [육적] 열정에 불을 붙이고 인간과 동물 모두가 육식을 할 때 신랄하고 잔인한 모든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종교집단을 세운 창시자들과 성자들, 선지자들, 모든 시대의 개혁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인정해왔다." Alonzo J. Wearner, *Fundamentals of Bible Doctrine* (Takoma Park: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5[1931]), 403.

부적으로 주정음료를 중심으로 매우 단순한 그래프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이제 재림교회는 채식-육식-기호식품이라는 매우 복합적인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고 치밀한 신학적 논의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뒤에 5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은 수혈거부로 인한 지속적인 법리적 다툼에 교단이 가진 부정적인 대(對)사회적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교리적 입장을 누그러뜨리는(downplay) 전략을 쓰면서 재림교회와 유사한 노선을 취했다. 분획수혈을 인정하는 듯한 통치체의 입장과 전혈수혈은 물론이고 자신의 피를 미리 뽑아두는 자가수혈까지 철저히 반대하는 현장의 입장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의증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에는 '양심적 결정에 따라'라는 언급이 반복되면서 각 왕국회관의 장로가 취하는 입장과 공식적인 병원교섭위원회(HLC)[292]가 내놓는 입장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한다. 증인들은 오늘날까지 심각한 부상이나 출혈로 자신이나 배우자, 가족 및 지인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동시에 공동체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수혈을 목숨 걸고 거부해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놓인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든 증인들이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몸에 지니고 다니는 '수혈거부카드(No Blood Transfusion Card)'다. 카드를 펼치면 유사시 자신은 무수혈 수술을 원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혈을 받지 않겠다는 자필서명이 들어 있다.[293]

---

292) The Hospital Liaison Committee의 약자인 병원교섭위원회(HLC)는 전 세계에서 무수혈 수술을 원하는 증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공식 단체다. 이들은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 지역 병원이나 의사들의 목록을 갖고 있으며 유사시 소통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다. 위원회 회원들은 담당 의사를 만나 환자의 권익을 위해 의료적 제안과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그 결과 또한 상부에 보고서로 올린다. 수혈 없이 출혈과 빈혈을 관리하기 위한 임상 전략과 시술/수술에 대한 여호와의증인의 종교적, 윤리적 입장을 대변한다. 물론 환자에게 위원회와 상관없이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치료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위원회가 치료 조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병원교섭위원회와 관련한 자료는 www.jw.org/ko/medical-library/strategies-downloads/에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조직으로 재림교회에는 종교자유부(군봉사부)가 있다. 특히 교인이 군대에서 비무장전투원의 소신이나 안식일 준수를 원할 때 각 합회의 군봉사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자들은 모두 목회자들이며 해당 부대를 방문하여 군종이나 중대장을 만나 재림군인이 영내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293) 2번 문항과 5번 문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2번: "나는 비록 생명이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전혈이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혹은 혈장 등 어떠한 수혈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행하지 말기를 명하는 바이다. 나는 비(非)혈액 확

그럼에도 여호와의증인이 가진 수혈거부 교리는 증인과 비(非)증인의 경계를 가르는 종교정체성으로만 쓰일 뿐 선교적 목적으로 쓰이거나 대사회적 이미지를 제고(提高)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는 각기 절제 교리들을 건강과 보건에 관한 사회적 메시지로 승화시고 있다.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논의한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 여호와의증인의 각종 금기와 교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재림교회	후기성도교회	여호와의증인
육식	채식/레11장 규정	허용(절제)	허용(절제)
술/와인	완전금주	금주	허용(절제)
담배	금연	금연	금연
차와 커피	금지	금지	허용
장신구	금지	금지	허용
수혈	허용	허용	금지→부분 허용
백신접종	허용	허용	금지→허용
국기에 대한 경례	허용	허용	금지
투표/공직	허용	허용	금지
병역	집총거부→허용	허용	금지

[표4-4] 재림교회, 후기성도교회, 여호와의증인의 교리 비교(백숭기)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 여호와의증인 모두 일정한 금기(taboo)를 신앙의 표지이자 종교정체성의 기제로 적극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후기성도교회는 신도들에게 커피와 차, 주정음료,

장제와 출혈을 제어하고 혈액세포의 생산을 자극하는 비혈액 약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비혈액 조치는 수용한다." 5번: "내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의료 절차들에 관하여, 나는 나중에 투입하기 위해 내 혈액을 미리 빼놓거나 저장해 두는 것을 거절한다. 나는 혈액검사와 같은 진단 절차들은 수용한다." 이 밖에 분획수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수혈 받을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적는 공란이 있다.

흡연 등을 금지시키며 신앙의 표준을 확보하고 있다. 재림교회 역시 후기성도교회와 동일하게 절대금주를 실천하며 커피를 비롯한 각종 카페인음료, 흡연을 단념하도록 교인들을 가르친다. 재림교회는 여기에다 채식과 독특한 음식규정으로 신앙의 표준을 추가한다.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는 모두 건강과 절제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금기를 긍정의 사회적 이미지로 포장하고 선교에 활용한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이 가진 금기는 대부분 반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긍정보다는 부정의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수혈금기와 정치참여 금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은 선교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종교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여호와의증인이 1990년대 수혈거부 입장을 일부 완화하며 사회와의 긴장을 줄이려고 한 부분에서 재림교회가 1950년대 채식주의에서 「레위기」의 음식규정이라는 완충지대를 삽입한 시도의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4. 재림교회의 과학적 환원주의

재림교회의 프로젝트 정체성이 갖는 성격과 선교전략으로 다시 태어난 음식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재림교회의 과학적 환원주의를 살펴봐야 한다.[294] 여기서 환원주의는 신앙과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종교적 설명을 과학적인 언어나 설명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하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신앙적 주장들을 '유사과학적(quasi-scientific)' 설명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교리의 타당한 근거를 최근의 과학적 성과로 뒷받침하는 작업이다. 과학적 환원주의는 재림교회의 출판물과 방송,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기별을 교리의 하나로 설명하기보다 문화로 포장한다. 이번 장에서 두 가지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월간지 「가정과 건강」은 이러한 문화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잡지는 재림교회가 강조하는 두 가지 가치인 가정과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교제, 섹스, 결혼, 육아, 교육, 건강, 행복 등 재림교회의 주요 신앙을 대부분 과학의 언어로 조명한다. 재림마을[295]이나 호프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콘텐츠들, 요양원과 뉴스타트 프로그램 역시 복음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재림교인들에게 건강기별이 옳은 이유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일찍이 과학을 '상식'이라고 불렀으며,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건강개혁에는 참된 상식(common sense)이 있습니다."[296] 이 상식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녀는 평소 하늘의 교훈을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기

---

294) 종교학 내에서 '환원주의'라는 개념은 본래 사회과학적 종교연구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간 종교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반환원주의(anti-reductionism)를 지향하는 관점과 종교학의 방법론으로 환원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 충돌하여왔다. 반면 본 논문에서 쓰인 과학적 환원주의는 이런 종교학적 방법론의 개념보다는 비과학적이며 비실재적인 신앙 언설을 과학적이며 실재적인 언어로 치환한다는 의미의 일반 용례로 쓰였다.

295) 재림마을(adventist.or.kr)은 국내 재림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이 밖에 미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스다(kasda.com)와 진보적 재림교인들(progressive Adventists)이 애용하는 민초스다(minchoquest.org) 같은 온라인 사이트들도 있다.

296) White, *Counsels on Health*, 154.

를 즐겼다. 그녀는 복음도 '구속(救贖)의 과학'으로 불렀다.[297] 과학은 오로지 신앙적 견지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과학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과학의 으뜸은 『성서』다. 건강신학은 절대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이는 모든 주부들이 배워야 할 최고의 과학이다. 프라이팬을 잡은 어머니의 손끝에 자녀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mean science)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모든 여성들이 배워야 할 과학이며, 더 가난한 계층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져야 합니다. ... 가정의 머리에 위치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요리법의 기술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의 건강에 필수적인 것을 배울 결심을 해야 합니다.[298]

재림교회는 과학이 신학을 보증해 주는 사녀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주장한다. 건강기별이야말로 종교적 기별과 과학혁명이 남긴 유산의 간격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과학주의는 세속화될 수 있으며, 과학이 없는 신앙주의는 맹신으로 빠질 수 있다. 과학은 신학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신학을 뒷받침한다.[299] 종교와 과학이 서로 충돌한다면 그건 종교가 사이비거나 과학이 미신으로 전락할 때뿐이다. 재림교회가 19세기와 20세기 자유주의신학의 파고(波高)와 과학주의의 도전을 넘을 수 있었던 것 역시 과학을 종교와 나란히 놓았기 때문이라고 한 학자는 주장한다.[300] 이런 확신은 재림교회

---

297) "구속의 과학(science of redemption)은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Ellen G. White, *Education*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2[1903]), 126.

298) White, *The Ministry of Healing*, 302-303.

299) 화이트는 『성서』의 올바른 가르침과 바르게 이해된 과학은 인간의 이성 안에서 조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천연계의 책과 계시의 책[성서]은 동일한 주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둘의 이야기에는 조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과 다른 언어로 둘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과학이 새로운 기적들을 발견해내고 있지만, 과학적 연구를 통해 나오는 어떤 것도 바르게 이해된다면 하나님의 계시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White, *Education*, 128.

300) "재림교회의 [건강] 프로그램은 고대적이거나 중세적이지 않았다. 과학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타당한 것으로 수용하여 종교적 가르침과 나란히 놓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19세기와 20세기 재림교인들이 동시대의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치명상을 입한 신학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의 고통을 빗겨갈 만큼 유연했다." George W. Reid, *A Sound of Trumpets: Americans, Adventists, and Health Reform* (Washington D.C.: Review and

의 건강신학을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었으며, 강단에서 '유전자'나 '면역성' 같은 전문 의학 용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되도록 용인해 주었다.

이는 오늘날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국내 뉴스타트운동은 1990년대 초반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 생겨난 요양원들이 활동을 주도하며 1세대 호황기를 맞다가, 이후 요양병원들이 세워지면서 종교경험과 치병사역에 집중했던 초기 운동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학문적 승인을 추구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2세대 뉴스타트운동이 건강신학에 과학적 설명을 덧붙이는 데 골몰하면서 1990년대 중반 등장한 문헌들은 한결같이 '성서의학' 또는 '성서과학'과 같은 표제어(부제)들을 달고 출판되었다. 일례로 조병일[301]은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의학책 중에 의학책은 성경이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도 성경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얼마 전부터 성경에 나타난 건강에 관계되는 성경절들을 뽑아서 그것을 현대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귀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의 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 그것은 21세기 천연의학(天然義學)이다. ..... 하나님은 생리학자도 되시고 의사도 되시고 유전공학자도 되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302]

조병일은 의학으로 설명된 복음을 '천연의학(天然義學)'으로 부른다. 하나님은 생리학자요 유전공학자며, 예수는 만병을 다스리는 명의로, 모세는 예방의학의 아버지로 제시한다. 제대로 이뤄진 과학 연구는 도리어 복음을 증거한다. 1990년대 후반이 되면, 국내 뉴스타트운동은 단지 건강에 그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구절을 하나하나 과학적 재진술로 덧입히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전도서」 1장 6절의 "마음 가운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2), 22.

301) 재림교회 목회자로 보건교육학 박사와 치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삼육보건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 주부대학을 창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내 이상업은 삼육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있었으며 국제아동복지기구 한국 이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종종 공동저술을 해왔는데, 『21세기 명의를 찾아라』 외에도 『창조와 재창조의 유전자 이야기: 영존이냐 영멸이냐』 (서울: 태원디앤피, 2019)를 출간했다.

302) 조병일 외, 『21세기 명의를 찾아라』 (서울: 월봉, 1997), 5.

데 이르기를"이라는 표현은 "정보가 대뇌피질에 입력되는 과정"으로, 「전도서」 10장 2절의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느니라"는 표현은 "대뇌피질의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기능을 표현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식이다.[303] 이런 과학적 각주달기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구절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풀어내면서 거의 극치에 도달하게 된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혈장 클리어랜스 수치가 상승하므로(60㎖/min/100 ℓ 이상) 콩팥에서 노폐물이 잘 빠진다.[304]

세포핵은 지성소를, 원형질은 성소를, DNA는 하나님을, m-RNA는 그리스도를, 리보솜은 성령을 표상한다는 설명[305]은 하나의 유희적 비유라고 하더라도, 흙에서 발견되는 질소와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따위의 성분이 모두 인간의 체내에서 그대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명제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 환원주의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순환논리다. 삼육대 재활치료학과 교수였던 김평안이나 경남 하동에서 벧엘수양원을 운영했던 최차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과학적 환원주의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이적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복될 것이다. 창조의 원리와 치료의 원리는 동일한 질서 속에 있다."[306] 재림교회가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 일어난 개신교의 신유(divine healing) 사역을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치유의 원리, 또는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근본적으로 과학에서 찾았기 때문이다.[307]

---

303) 조병일 외, 11.
304) 위의 책, 29.
305) 위의 책, 64.
306) 최차순, 『최후의 전쟁과 우리의 준비』 (파주: 에버라스팅가스펠출판협회, 2006), 110. 벧엘수양원에서 직장암이 나았던 전직 의사는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다. "그때 내가 받은 치료의학은 히포크라테스 이래의 세포의학, 신농과 복희, 황제 이래 기(氣)의 의학, 그리고 이제마의 혼(魂)의 의학인 사상체질 의학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의학이었는데, 그것은 곧 성서의학, 즉 생명의학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운명과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을 개조시키는 혁명의학이었습니다." 최차순, 『성서의학』 (하동: 벧엘수양원, 2006[2005]), 9.
307) 이후천은 환상과 축사, 안찰 혹은 안수 등 다양한 신유양태의 치병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1인 인도자에 의해 이뤄지는 국내 개신교의 신유 사역이 무속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늘 '신유→성장→이단시비'라는 일련의 발전단계를 밟았다고 말한다. 이후천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처럼 재림교회의 과학적 환원주의는 건강신학을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사회에 소개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다. 이는 재림교회만의 무기가 아니다. 후기성도교회 역시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환원주의를 활용하고 있으며, 여호와의증인 역시 백신접종과 수혈거부, 장기이식 거부 등 달갑지 않은 신학적 주제들을 언급할 때 항상 권위 있는 의학자의 언급이나 과학적 사례들로 뒷받침한다. 후기성도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도들에게 '건강한 몸'을 선사하는 "건강도우미(health promoters)"다.[308] 여호와의증인 역시 수혈 부작용에 대한 의료사고와 무수혈 수술의 성공사례를 선전하며 출판물들의 지면을 각종 의료 정보들로 채운다. 특히 병원교섭위원회는 실제로 무수혈 수술 관련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과학적 환원주의가 음식규정을 종교정체성으로 드러낼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조용기 목사의 신유론과 성락침례교회 김기동 목사의 축귀(逐鬼), 할렐루야기도원 김계화 원장의 안찰(按擦)이 모두 원초적 영성의 하나로 무속에 기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국내 개신교회의 성장이 이뤄졌다고 비판한다. 이후천, 「신유·성장·이단: 한국 개신교 신유 양태에 대한 선교학적 반성」, 『선교신학』 5 (2002): 1-22.

308) Bárbara Badanta et al., "A Temple of Go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Spiritual/Religious Belief and Health Among Mormons," i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 (2020): 1580-1595.

5장 재림교회 내 세 종교정체성 집단의 실천 양식

더글라스는 『정결과 위험』에서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경계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사회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강력한 이미지를 띠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외적 경계와 주변부, 그리고 내부 구조가 있다.[309]

외적 경계(external boundaries)는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시켜주는 기준이 된다. 외적 경계는 동조하는 이에게 보상을 주고 침입하거나 공격하는 이에게 반격으로 되받아치는 출발선이 된다. 외적 경계는 대외적 종교정체성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두 번째 정결과 부정의 경계는 주변부(margins)다. 더글라스는 정결과 부정 개념에서 우리 몸에 난 구멍들이 이러한 주변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침이나 피, 땀, 소변, 대변, 눈물 등 온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질들은 가장 명백한 종류의 주변부 물질이다. 그건 체내에 있는 것도, 그렇다고 체외에 있는 것도 아닌 몸의 경계를 넘나드는 물질이다.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 손톱,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다. 물론 여기서 신체는 사회를 상징한다. 신체적으로든 관념적으로든 각 문화는 저마다 각기 다른 주변부를 갖는다.[310]

세 번째는 내부 구조(internal structure)다. 내부 구조는 당연히 내적 경계선(internal lines)의 역할을 한다. 더글라스는 내적 경계선이 해당 사회의 윤리와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허용된 일과 남에게 허용된 일 사이에서 우리는 이런 경계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원칙의 문제로 자신이 허용한 것과 그 원칙과는 반대로 지금 당장 열렬히 원하는 것의 차이, 장기적으로 허용한 것과 단기적으로 허용한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에는 늘 불일치의 영역이 존재한다.[311]

요약하면, 더글라스는 사회적 오염이 네 가지 형태로 닥칠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외적 경계에서 일어나는 위험, 두 번째는 내적 구조, 즉 내적 경계에서 일어나는 위험, 세 번째는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위험, 그리고 마지막은

309) Douglas, *Purity and Danger*, 115.
310) 위의 책, 122.
311) 위의 책, 131.

일부 원리가 다른 기본 원리에 의해 부정되는 내적 모순을 통해 일어나는 위험이다.[312] 이런 경우, 정결과 부정의 분류체계는 일종의 내적 갈등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번 장에서는 공시적 관점에서 재림교회의 음식규정과 종교정체성이 내적 갈등에 빠졌을 때에 기존의 정결과 부정 개념에 균열이 일어나며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재림교회 내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들은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수용하고 이를 정결과 부정의 경계선으로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비건 집단은 성령의 거함으로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몸'을, 레위기 집단은 '무병장수의 몸(정결한 몸)'을,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이러한 몸의 아비투스에 저항하는 몸의 정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들여다볼 것이다.

312) 위의 책, 123.

1. 채식과 육식 사이—두 가지 표준의 등장

1.1. 신학적 설명—유대교와의 선택적 친화력

앞서 3장에서 언급했듯이, 재림교회는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사회개혁운동과 여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종교체험을 바탕으로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채식주의를 구성하여왔다. 재림교회의 채식주의는 당시 전미채식협회를 중심으로 사회개혁과 인권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함께 끌어안았던 미국의 채식주의와 달리, 종말론적 구원을 앞에 두고 위생학적 보신(補身)과 종교적 보신(保身)을 목적으로 충당했다. 재림교인들에게 절제는 순종의 첫 단추면서 경건의 끝 단추다. 건강은 단지 육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진정한 건강이 영과 육의 전인적인 조화에서 달성되며 거룩한 몸을 통한 품성을 이루는 데에서 종결된다고 믿는다. 식욕의 방종을 극복하고 위장과 혀의 노예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삶이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다. 재림교인들에게 채식은 하나님의 전인 몸을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는 보증된 구원의 길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흐름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이 신학적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으면서 교회의 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베버의 용어를 빌자면, 안식일 준수와 성소론 같은 유대교 신학에 대해 재림교회 신학이 '선택적 친화력(elective affinity)'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313] 실지로 재림교회의 안식일신학은 용어에서부터 전개 방식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유대교의 그것과

313) 원래 화학 분야에서 두 물질이 강력히 끌어당기는 성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이던 '선택적 친화력'은 1809년 괴테의 소설인 『선택적 친화력(*Wahlverwandtschaften*)』에서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 소설에는 에두아르트(Eduard)와 샬롯테(Charlotte)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 에두아르트의 친구인 선장과 샬롯테의 조카인 오틸리에(Ottilie)가 부부의 일상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에두아르트는 오틸리에를, 샬롯테는 선장을 강렬히 흠모하게 된다. 이를 끌어와 베버는 일정한 형태의 종교적 신앙과 직업윤리 사이에 작용하는 화학반응을 설명하고자 필연적 관계는 아니지만 특정한 조건에서 두 변수 사이에서 발생한 인과관계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세속적 금욕주의'로 대변되는 프로테스탄스 윤리가 개신교를 받아들인 서구 유럽에 자본주의 정신을 낳았다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적 정의를 갖고 있으며, 교인들의 신행 역시 유대교의 안식일 준수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314] 재림교회는 음식규정도 받아들였다. 유대인이자 재림교회 신학자인 자크 두칸(Jacques B. Doukhan)은 이에 대해 재림교회 신학이 유대교 신학과 어떠한 선택적 친화력이 있는지에 대해 열 가지 항목으로 압축했는데, 그 중 하나로 음식규정을 꼽고 있다.[315]

1. 안식일신학: 금요일의 일몰부터 토요일의 일몰까지 안식일을 준수
2. 창조신학: *contemptus mundi*를 거부하고 창조를 동일하게 강조
3. 영육일원론: 플라톤주의(이원론)를 반대하고 인간의 총체성을 강조
4. 구약신학: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에 대체되지 않았다고 믿음
5. 율법주의: 모세의 율법이 은총으로 대체되었다는 율법폐기론을 반대
6. 음식규정: 「레위기」의 음식규정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음
7. 정의관: 『성서』에 나오는 사회정의와 윤리의 중요성을 신뢰
8. 심판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자신의 삶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믿음
9. 부활관: 부활은 추상적/영적 경험이 아닌 역사적/실제적 사건이라고 믿음
10. 메시아신앙: 예언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

[표5-1] 재림교회와 유대교의 신앙적 유사성(Doukhan)

둘째로는 공식종교가 대중종교와의 격차를 줄이고 많은 개종자를 양산하기

314) 금요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불린다. 유대인들이 회당(시나고그)에 모이듯이 재림교인들은 저녁 7시~8시 사이에 안식일 예배로 교회에 모인다.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안식일학교(Sabbath school)가 시작되며, 대예배는 11시에 시작된다. 안식일학교는 줄여서 '안교'라고 하며, 흔히 교인들 사이에서 '영혼의 목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안교는 1년에 4번의 회기(回期)를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각 반(소그룹)으로 나누어 교과공부를 하기 전에 30분 정도 안교순서를 갖는다. 순서는 안교장의 인사와 사업장려, 선교지 소식, 간증, 특순 등으로 이어지며,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교과공부를 진행한다. 이후 11시부터 12시까지 안식일 대예배가 이어진다. 안식일 대예배는 등단, 송영, 찬양(재림교회는 찬양 대신에 '찬미(讚美)'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기도, 헌금, 설교 등의 순서를 갖는다.

315) Jacques B. Doukhan, "Judaism and Advent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HABBAT SHALOM* 51/5 (2004): 17-21.

위해 자체적으로 표준을 한 단계 하향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대인들이 도시생활을 하면서 채식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식단을 공유하지 않은 채 일반인들과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체적인 특성과 유전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애초에 비건이 위험한 이들도 있으며, 문화적, 지리적 특성 때문에 채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때 「레위기」 11장에 등장하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음식규정은 기존의 최선책(best)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인들에게 차선책(second best)을 선택할 수 있게 용인하는 매우 매력적인 '출구전략'임에 틀림없다. 이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의증인이 본래 각종 소송에 휘말렸던 엄격한 전혈 수혈거부 입장에서 선회하여 분획성분에 한해서는 일부 수혈을 용인하는 제스처를 취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후기성도교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다처제를 탈각(脫却)하고 대신 '뜨거운 음료'에 대한 금기를 다시 발굴했던 것과도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316)]

셋째, 여기에는 세 종교집단이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19세기 종파의 지위를 벗어나 20세기 들어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교단에 버금가는 단체로 발전해온 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성원들을 단속하는 데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았던 이들이 이후 세계 선교를 통해 몸집을 불리면서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는 종교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게 분명하다. 주지하다시피,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 여호와의증인은 세계 선교의 열의가 대단한 신종교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초창기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낮은 계층에 머물러 있었던 교인들의 구성 비율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316) '잊혀버린 전통의 발견'이라는 모티프는 후기성도교회만의 독창적 발명품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전통 내에서 대부분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체계의 '발명'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의 '재발견'으로 촉발되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요시야 왕의 명을 받아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두루마리를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스미스 역시 쿠모라 산에 묻혀있던 금판들을 모로나이의 인도로 직접 '발견'했다. 지혜의 말씀 역시 100여 년 동안 집단 망각에 묻혀있던 계시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게다가 지혜의 말씀은 일찍이 스미스의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교리적 역사성과 함께 종교정체성의 노스탤지어를 선사하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재림교회 역시 교황권에 의해 훼파되었던 안식일을 재발견하고 수보(修補)할 책임을 강조한다. 개신교 전통 중에서 이러한 회복주의(restorationism)는 기존 그리스도교가 배도와 이교적 습합으로 타락했으며 선지자의 계시나 말씀 연구를 통해 본래 예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학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한 '회복'은 궁극적으로 '발견'이라는 모티프로 표현된다. 후기성도교회의 『모르몬경』과 재림교회의 안식일이 종종 강단에서 이러한 모티프를 덧입고 등장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양한 직업과 계층, 신분과 지위를 가진 이들이 대거 유입되며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을 것이다.[317] 교인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각 영역들로 진출하면서 사회참여와 세속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스탠스를 조정하고 자체 설득적 구조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는 일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1.2. 사회학적 설명—성립종파의 특징

재림교회뿐 아니라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 모두 겪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종교사회학에서는 흔히 종파(Sect)에서 교단(Denomination), 혹은 성립종파(Established Sect)로의 전이(轉移)로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재림교회를 성립종파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만 학자마다 종파와 성립종파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본 논문이 규정한 정의와의 일정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신학자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일찍이 종파가 사회와 외부 세계의 표준에 순응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면서 1세대 이후 자신들의 교리와 신념, 가치체계의 표준을 낮추어 살아남게 되는데, 2세대 이후의 이런 종교집단을 '교단'이라고 명명했다.[318]

종파는 생존을 위해 1세대 이후 사회화의 압력에 굴복하는 운명을 거부할 수 없다. 2세대까지 살아남은 종파는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회원 자격이나 신념, 규율에 대해 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종파는 교단으로 변모해가는 운명을 띤다.[319] 그렇지 않은 종파는 역사의 뒤안

---

317) 인구학적 통계에 따르면, 재림교회 남성들이 안식일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개인 사업이나 전문직을 택하는 비율이 동일한 조건의 비교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산층(middle-class)의 사회-경제적 열망을 그간 재림교회의 신앙적 에토스가 잘 반영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스란히 종말론과 윤리의식 등 재림교회의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Michael Pearson, *Millennial Dream and Moral Dilemmas: Seventh-day Adventism and contemporary eth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1990]), 88-89.

318) H. Richard Niebuhr,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1987[1929]), 19.

319) 종교사회학자 데이비드 마틴(David Martin)은 교단이 교회나 종파와 구분되는 점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들었다. "교단이 제도적으로 구원을 독점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용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교단이 갖는 조직상의 원칙은 교회보다 더 유동

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막스 베버가 종교집단의 유형을 단순히 교회와 종파로 구분하는 데 집중했다면, 니버는 종파가 교단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궤적에 주목했다. 이러한 니버의 관점은 다수의 종교집단들의 사례를 통해 매우 강력한 통찰력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320]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니버의 유형론에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제시되었고, 학자들은 니버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보다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 가능한 범주들로 세분화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밀턴 잉거(J. Milton Yinger)였다. 그는 모든 종파가 교단으로 진화하는 건 아니며, 특정 종교집단들은 종파적 특성에 머물면서도 교단과 같이 대규모 조직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사회와의 일정한 긴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리나 조직에 있어 교단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한 종교집단을 일컬어 '성립종파'라고 명명했다.[321] 그가 성립종파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온 이유는 재림교회가 종파처럼 비세속적인 이탈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단처럼 상대적으로 크고 건실한 종교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후기성도교회와 재림교회는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에서 교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반론이 가능하다. 각기 지난 미 대선 공화당 후보로 미트 롬니(Mitt Romney)[322]와

적(fluid)이고 실용적(pragmatic)이며, 그 분리된 사역은 신적 기관이라기보다는 편의성의 문제로 간주된다. ... 현존하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태도에 있어 교단은 교회처럼 보수적이지도 그렇다고 종파처럼 혁명적이거나 무관심하지도 않고 개혁적이다." Nuri Tinaz, "A social Analysis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e Cases of Church, Sect, Denomination, Cult and New Religious Movements (NRMs) and Their Typologies," in *ISAM* (2005): 79.

320) Benton Johnson, "Church and Sect Revisited,"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0/2 (1971): 128.

321) J. Milton Yinger, *Religion, society and the individual: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7), 150-151. 잉거는 성립종파 외에도 기존의 종파를 세분화했는데, 주로 중산층이 주류를 이루며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 용인 종파(Acceptance Sect)와 주로 하층이 주류를 이루며 사회를 개혁이 필요할 만큼 악한 곳으로 보는 공격 종파(Aggression Sect), 그리고 사회를 용인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으며 절제적 경향을 지닌 도피 종파(Avoidance Sect)로 나누었다. 물론 잉거의 주장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벤튼 존슨은 종교단체의 규모가 세속사회에 대한 태도와 반비례한다는 잉거의 이러한 전제는 성공회가 미국 감리교보다 주류 미국 문화를 덜 받아들이며 오순절운동이 퀘이커교도보다 더 적은 교인을 가져야 한다는 매우 이상한 논리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Nuri Tinaz, 75.

322) 미트 롬니의 종교와 정치적 이념과 매체 분석에 대해서는 Sherry Baker & Joel Campbell, "Mitt Romney's Religion: A five factor model for analysis of media representation of Mormon identity," in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9/2 (2010):

벤 카슨(Ben Carson)을 낸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이들에 비해 여호와의증인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적인 기념일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참여를 비롯한 일체의 사회활동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아직 종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로널드 라슨은 원칙적으로 같은 교단이라도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의 맥락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재림교회 역시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323] 특히 그는 미국에 건너온 많은 보수적인 이민자들이 종파에서 교단으로의 이동을 막는 저항세력으로 자라났으며, 그러한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의 하나로 재미 한인들을 꼽았다.[324] 한국에서 건너간 재림교인들이 미국에서도 매우 근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글로벌한 선교적 확장으로 제3세계에서 재림교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제3세계 국가와 개발도상국에 속한 재림교인들의 특성은 미국의 상황과 달리 여전히 종파적 성향에 머물러 있으며, 이러한 국가 간 격차와 신앙적 간극은 재림교회의 선교 행정에 적잖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안수 문제다. 지난 회기 때까지 재림교회는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안수는 국내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 외에도 한국의 상황에서 재림교회는 사회와의 긴장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활동이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미국 상황처럼 활발하지 못하다. 물론 회사와 학교가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뀌면서 안식일 준수나 직업 선택에 있어 일정한 사회적 갈등과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국내 재림교인들의 관점은 성립종파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325]

99-121을 참고하라.

323) Ronald Lawson, "Broadening the Boundaries of Church-Sect Theory: Insights from the Evolution of the Nonschismatic Mission Churches of Seventh-Day Adventism,"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1998): 652-672를 참고하라.

324) Ronald Lawson, "When Immigrants Take Over: The Impact of Immigrant Growth on American Seventh-Day Adventism's Trajectory from Sect to Denomination,"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8/1 (1999): 83-102를 참고하라.

325) 강돈구는 국내 재림교회의 선교 미래를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재림교회가 향후 종파에서 교단으로 점차 이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이 여전히 비폭력, 비무장의 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반면, 재림교회는 적어도 이 문제로부터는 이제 자유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후기성도교회나 여호와의증인과 달리 토요일을

1.3. 이념형으로서의 세 집단

결론적으로 재림교회 내에 두 가지 상이한 기준이 공존하게 된 데에는 신학적 이유(유대교와의 선택적 친화력)와 사회학적 이유(종파에서 교단으로의 이행)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설명이 유대교와 재림교회의 교리 간 유사성을 통해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에서 신학적 자리 이동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거라면, 두 번째 설명은 재림교회의 성장이 사회와의 긴장도를 낮추고 세속사회로 교인들의 문화화(enculturation)를 견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쨌든 과거 채식 일변도의 재림교회 공동체 내에 두 가지 표준이 공존하게 되면서 당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났다. 뜻하지 않게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상호 경쟁적이고 상이한 정체성들이 돋아났다.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교회 조직을 갖춘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내 교인들의 느슨한 연대도 이런 상이한 집단들이 생기게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재림교회 내에 채식주의에 관한 태도로 보아 적어도 세 개 이상의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이 생겨났다. 여기서 각 집단을 가르는 경계는 물리적인(physical) 것이라기보다 심리적인(psychological) 것이며, 규범적인(prescriptive) 것이라기보다 기술적인(descriptive) 것이다. 이 경계는 각 집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끌고 들어온 학문적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단들 간의 관계 역시 매우 유기적이고 가변적이다. 세 집단들 역시 재림교회의 다층적 종교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끌고 들어온 하나의 '이념형(ideal types)'이다.[326] 본 논문에서 정리한 세 집단의

안식일로 지키는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들이 일하는 토요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기독교인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요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재림교인에게 큰 곤욕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관공서, 금융기관 등 토요일을 휴무로 정한 곳이 많이 있고 토요 휴무제가 확산될 전망이어서 이 문제도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제는 토요일을 경건하게 보내고 일요일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재림교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일반적인 섹트와 달리 주변 사회와 각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의 재림교회는 나름의 교리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또 한편으로 섹트에서 디노미네이션으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돈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와 역사」, 『한국 종교교단 연구』 4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43.

326)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쓰면서 해석적이고 경험적인 '이해(*verstehen*)'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사회현상이나 인간 행동의 특징들을 추출하여 재구성해낸 '이념형(*Idealtypus*)'을 제시했다. 베버가 그의 방법론을 개진했던 당시는 연구방법에 대해 두

특징은 다음의 도표와 같다.

비건 집단 vegan groups	레위기 집단 levitical groups	플렉시테리언 집단 flexitarian groups
엄격한 채식주의 고수 「창세기」1장 29절 antediluvian viewpoint	구약 정결법 규정 추종 「레위기」11장 postdiluvian viewpoint	탄력적인 음식규정 유지 「마태복음」15장 11절 pauline viewpoint
소수 집단 conservative group 집단 외 정체성 有 집단 내 우월성 有	다수 집단 conformist group 집단 외 정체성 有 집단 내 우월성 無	소수 집단 secularized group 집단 외 정체성 無 집단 내 우월성 無

[표5-2] 재림교회 내 상이한 종교정체성 집단의 특성(백승기)

각 집단의 특성은 어떤 이념형으로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건과 레위기,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평소 육식의 유무나 빈도보다는 이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기정체성의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비육식이라는 점에서 특히

가지 극단주의 대립이 있었다. 하나는 사회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를 일체 배제할 것을 주장한 극단적 객관주의(자연과학적 법칙론자)와 감정이입을 통한 직관적 이해만이 가능하다는 극단적 주관주의(직관론자) 간의 대립이고, 또 하나는 추상적 일반적 법칙의 정립만이 과학이라는 극단적 이론주의(자연과학적 법칙론자)와 개성적 현실의 사실적 기술만이 가능하다는 극단적 사실주의(역사학파) 간의 대립이다. 베버는 이념형을 통해 이 두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가 생각한 이념형이란 연구자가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요소들을 선별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배열한 개념으로 엄정한 연구의 결과물로서가 아닌 연구의 출발선에서 확보한 '이상적인' 형태기 때문에 현실세계에서 그대로 찾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홍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막스 베버의 이념형적 방법론」, 『한국행정학보』 42/3 (2008): 395-421.

비건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확연한 차이를 이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지만, 레위기 집단과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모두 육식을 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구분이 불가능하다. 레위기 집단이 채식을 삶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이해한다면,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채식이나 음식규정을 문맥적 의례로 이해한다. 혹자는 재림교회 내에 존재하는 세 집단이 더글라스가 말한 내적 경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내적 경계 사이에서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집단들은 그 이상이다. 여기에는 역동적인 내적 갈등이 존재한다.[327]

둘째, 비건과 레위기,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각기 '보수적,' '순응적,' '세속적'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의 성원 내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인 성격의 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성원 중에서도 비건 집단의 성원 못지않게 보수적인 교인들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집단의 정의는 연구목적에 따라 선별되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각기 집단 내에서도 이질적인 성원들이 발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건과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비율은 뒤에서 제시한 여러 통계들을 이용하여 잡은 것에 불과하며,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비율은 비건과 레위기 집단의 비율에 비해 실제와 차이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여기에 부기해둔다.

327) 밀그롬도 밝힌 것처럼, 재림교회의 내부 집단들과 유사한 형태는 유대교 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유대교의 세계관은 동심원의 형태로 사제 집단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주변 이방인 집단으로 구성된다. 유대교의 세계관 내에서 동물계도 제사에 바쳐지는 짐승과 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밀그롬 역시 「레위기」를 연구하며 각 집단의 종교정체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는 소홀했다.

2. 비건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양식

2.1. 비건 집단의 정체성

첫 번째 집단은 채식을 정결과 부정의 기준으로 삼는 재림교인들이다. 이들은 채식이야말로 정결한 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음식규정이라고 굳게 믿는다. 목회자나 기관장, 요양원 관계자, 지도자 같은 종교적 엘리트들이 여기에 속한다.[328] 이들은 『예언의신』을 읽고 건강기별을 되뇌는, 이른바 '의미적 기억(semantic memory)'으로 채식주의를 작동시킨다.[329] 이들에게는 「레위기」 11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를 생성시키지 못한다. 정한 짐승을 포함한 일체의 육식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비건 집단은 「창세기」 1장을 저들의 텍스트로 삼는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세기」 1장 29절) 땅(아다마)에서 나온 인간(아담)이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건 당연하다. 신토불이(身土不二)는 식탁에서 구현된다. 인간에게 허락된 최선의 식탁은 타락 이전(prelapsarian)에 완비되었고 홍수 이전(antediluvian)까지 이어졌다.

비건 집단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락된 육식과 인류의 열등함, 그리고 수명 단축이 부인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세기」

---

328) 국내 재림교회 목회자들의 채식 비율을 조사한 1997년 강대영의 연구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열에 아홉은 자신이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라고 답했다.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서 목회 중인 223명의 재림교회 동중한합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37%가 비건, 54%는 락토오보라고 밝혔다. 총 91%의 목회자가 비건 집단에 속해 있는 셈이다. 나머지 9% 중에서 8%는 레위기 집단에 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로지 1%만이 자신이 육식주의자라고 응답했으나, 응답자가 고작 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강대영, 「한국 재림교회 목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1997), 54.

329) 의미적 기억은 장기기억의 한 범주로서 보통 일반적 지식으로 간주되는 아이디어나 개념, 사실들로 구성된 기억을 지칭한다. 사칙연산이나 문법 지식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반복에 의해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 개인적인 경험의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과는 다르다.

9장 3절) 결국 식탁에 고기가 올라오게 되면서 인간의 신체에는 급격한 퇴보가 일어났다.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죽은 동물의 고기는 인간 본래의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식물이 멸절되었으므로 홍수 후에 사람에게 먹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지구, 그리고 모든 생물에게 선포된 저주는 이상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홍수 이후 사람은 그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체적, 심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330]

흥미로운 건 이들이 육식 허용이 「창세기」의 채식주의를 결코 무효로 돌리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비건 집단은 자신들이 채식으로 그릇된 식욕을 극복하여 완전한 하늘 식탁을 회복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비건 집단은 출애굽 사건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이상적인 음식의 상징이며, 고기를 탐닉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메추라기가 부정한 음식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331] 이 집단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교리의 타락에 저항하고 일련의 자료를 통해 교인들을 단속하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공식종교와 가장 가까운 태도를 갖는다. 비건 집단의 관념 속에 정결과 부정의 구도는 다음 [표5-3]과 같다.

---

330) 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3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0[1958]), 289.

331) 광야에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던 이들에게 메추라기가 주어졌으나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민수기」 11장 33절) 그들이 다 죽었으며 만나를 먹었던 이들은 살았다.

정결	부정
「창세기」 1장	「창세기」 9장
채식→정결한 몸: 복낙원	육식→부정한 몸: 실낙원
타락 이전(prelapsarian),	타락 이후(postlapsarian),
홍수 이전(antediluvian)의 식단	홍수 이후(postdiluvian)의 식단
하늘 식탁→원(原)음식/만나	지상 식탁→고기/메추라기

[표5-3] 비건 집단의 정결과 부정 개념(백숭기)

비건 집단의 채식주의는 종교정체성에 있어 두 가지 종류와 기능을 갖는다. 첫째는 '피아의 경계짓기'다. 비건 집단은 채식주의를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을 가르는 외적 경계로 활용한다. 외적 경계는 대번에 '우리(we)'와 '그들(they)'이라는 선악의 레토릭을 선사한다. 채식을 실천하는 이들은 '우리'라는 연대감을 확보하며 '양(sheep),' '구원 받을 무리,' '오른편에 선 자들'을 대변한다. 반면 육식을 즐기는 이들은 '그들'로 규정되며 '염소(goat),' '멸망 받을 무리,' '왼편에 선 자들'을 대표한다. 모든 병은 타락한 욕망, 즉 방종한 식욕과 육욕으로 일어난다. 절제는 구원과 멸망을 가름하는 인내와 극기의 시험대다.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식탁에서 고기는 사라져야 한다. 한때 재림교회 비건 집단의 전위대였던 이상구[332]는 『말세신앙과 건강복음』이라는 책에서 질병과 치료의 관계를 더럽혀진 성전과 출애굽의 관계로 이해한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는

332)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알러지 전문의로 활동하던 의사 이상구는 화이트의 저술을 읽고 재림교회로 개종한다. "성경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내[이상구]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 어떤 분[정사영]이 내게 엘렌 G. 화이트가 저술한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란 이름의 책을 주었다. 내가 이 작은 책자에서 읽은 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다! 드디어 나는 치유를 실제적인 일상생활—먹는 음식과 행하는 생활양식 속에 적용시킨 한 저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지구 각 대륙마다, 또한 미국 각 주마다 이러한 건강신학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버논 W. 포스터(Vernon W Foster), 『뉴스타트』, 윤보현, 박춘식 공역 (서울: 빛과소리, 1994[1989]), 315-316.

진영에서 내쫓아야 한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신앙에는 '영과 육과 혼의 전인적인 건강'이 요구된다. 이상구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채식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님 재림 때 승천하는 성도들은 심령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혼이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알아 지식이 새롭게 된 자들, **건강개혁으로 육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된 자들**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333]

국내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양일권[334]은 최초의 인류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 실패했던 테스트, 즉 에덴의 음식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비건 집단은 실낙원과 복낙원 모두를 음식으로 귀결시킨다. 양일권은 오늘날 에덴의 음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종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모든 죄와 질병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류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넘어진 곳을 짚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에덴에서 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음식 먹는 것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에덴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관해서 많은 영감적인 기록을 남긴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에덴에 들어간 사람들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335]

둘째는 '경건의 경계짓기'다. 비건 집단은 채식을 신실한 재림교인과 불성실한 재림교인을 가르는 내적 경계로도 활용한다. 내적 경계는 경건의 레토릭을

---

333) 이상구, 『말세신앙과 건강복음』 (서울: 건강복음선교회, 1986), 121. 강조 추가.

334) 보건학 박사이자 한의사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강 사역자다. 원래 재림교회 목회자로 에덴요양병원과 여수요양병원에 있다가 자립하여 미국(LA)과 한국에서 '백투에덴(Back to Eden)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 2세대 건강 강사인 그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뉴스타트운동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디톡스나 효소 등을 강조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국제백투에덴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s://backtoeden.kr를 참고하라. (접속일: 2022년 4월 1일)

335) 양일권, 이미숙, 『백투에덴, 202 채식요리』 (서울: 시조사, 1999), 6-7. 강조 추가.

선사한다. 비건 집단은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종종 완전주의를 지향한다. 무엇을 먹느냐가 '실제로' 완전을 결정한다. 이들에게 채식은 그저 '이생의 자랑'으로 치부될 업적이 아니다. 채식은 비건 집단에 이르러 교리의 의식화를 거쳐 신체화를 이룬 경건의 기념비이자 질병과 죽음을 이기고 쟁취한 구원의 트로피다.

비건 집단 중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원들이 많다.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까지 삼육교육을 받은 투철한 신앙인이며, 상당수는 공식종교의 정체성을 선전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며, 건강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교인들은 '믿음이 부족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분량이 적은' 자들이다. 비건 집단의 눈에는 고기를 끊지 못한 교인들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더 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비건 집단에게 건강기별은 구원의 증표로 작동한다. 2018년, 재림교회 대총회의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 이상이 건강기별이 구원을 보증해준다고 믿었다. 제1세계인 북아메리카지회(4.3%)나 트랜스유럽지회(10.7%), 중앙유럽지회(18.2%)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지만, 일반적으로 제3세계가 몰려있는 서중앙아프리카지회(58.9%)나 서아프리카-인도양지회(59.3%), 서아시아-태평양지회(58.3%)는 절반 이상이 건강기별을 개인적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했다. 동중앙아프리카지회(73.9%)와 서아시아지회(80.0%)는 그렇게 이해한 신자들이 무려 열 명 중 여덟 명에 달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으로 갈수록 신자들이 다른 것보다 음식규정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래 [표5-4]에서 '맞다'는 설문에서 '동의한다'와 '강하게 동의한다'를 합한 값이고, '틀리다'는 '동의하지 않는다'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를 합한 값이다. '맞다'에서 '틀리다'를 뺀 값을 '격차'로 표현했고, '모르겠다'는 표에 반영하지 않았다.[336]

336) Duane C. McBride, et al., "Health Beliefs, Behavior, Spiritual Growth, and Salvation in a Global Population of Seventh-day Adventists," i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63 (2021): 547.

	건강기별이 구원을 보증해준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		
	맞다	틀리다	격차	맞다	틀리다	격차	맞다	틀리다	격차
전체 N=55,822	47.1%	38.2%	+8.9	95.4%	2.1%	+93.3	90.0%	4.6%	+85.4
서중앙아프리카지회 N=2,211	58.9%	25.4%	+33.5	96.1%	2.2%	+93.9	93.2%	3.6%	+89.6
동중앙아프리카지회 N=7,023	73.9%	17.2%	+56.7	97.2%	2.1%	+95.1	93.7%	4.1%	+89.6
서아프리카-인도양지회 N=4,874	59.3%	24.6%	+34.7	96.0%	2.6%	+93.4	90.6%	4.6%	+86.0
남미지회 N=13,379	38.9%	45.6%	-6.7	95.2%	2.5%	+92.7	93.0%	3.5%	+89.5
중미지회 N=4,313	34.4%	50.1%	-15.7	96.5%	2.3%	+94.2	91.4%	4.8%	+86.6
북미지회 N=1,689	4.3%	92.5%	-88.2	97.1%	1.5%	+95.7	89.6%	5.1%	+84.5
트랜스유럽지회 N=1,172	10.7%	80.7%	-70.0	98.3%	1.0%	+97.3	90.9%	4.7%	+86.2
중앙유럽지회 N=3,594	18.2%	70.4%	-52.2	98.4%	1.2%	+97.2	93.4%	3.2%	+90.2
유로아시아지회 N=2,025	31.9%	49.2%	-17.3	88.8%	0.8%	+88.0	91.5%	4.4%	+87.1
북아시아-태평양지회 N=2,743	28.2%	50.7%	-22.5	96.8%	1.7%	+95.1	78.9%	12.1%	+66.8
서아시아-태평양지회 N=6,874	58.3%	19.9%	+38.4	88.7%	3.1%	+85.6	86.7%	3.2%	+83.5
서아시아지회 N=2,869	80.0%	7.4%	+72.6	92.0%	2.9%	+89.1	75.2%	9.5%	+65.7
남태평양지회 N=3,056	58.4%	30.2%	+28.2	97.5%	0.8%	+96.7	94.2%	2.3%	+91.9

[표5-4] 재림교인이 생각하는 건강기별과 구원의 상관관계(McBride)

물론 위 도표가 전적으로 비건 집단의 분포를 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 통계만큼 재림교인에게 음식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말해 주는 자료는 따로 없다.[337] 따라서 비건 집단은 음식과 구원을 가장 가깝게 이해하는 이들로 봐야 한다. 이들이 매일 일상에서 먹는 음식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는 디딤돌이며, 그런 점에서 이들의 신앙은 매우 고전적(classical)이다.

2.2. 비건 집단의 음식

비건 집단은 본래의 고결한 음식, 천상의 만나, 하늘 식탁으로의 회귀를 희구한다. 19세기 낭만주의 비교언어학자들이 히브리어에서 인류의 원래언어(*Ursprache*)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재림교회의 비건 집단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먹을거리 중에서 가장 순결한 원래음식(*Urgerecht*)을 찾고자 한다.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에덴의 음식이며 동시에 하늘 식탁의 그림자다. 비건 집단은 하늘 식탁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모방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자의 사명이라고 믿는다. 막스 베버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종교적 거장(religious virtuosi)'에 해당한다.

이는 비건 집단의 식단에서 드러난다. 무엇보다 비건 집단은 모든 종류의 적색육(red meat: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과 백색육(white meat: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공육(processed meat: 햄, 소시지, 육포, 등)을 거부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선과 해산물도 식단에서 제외된다. 개중에는 계란과 유제품(우유, 치즈, 버터 등)마저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이들은 커피와 녹차는 물론이고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도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 술과

337) [표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림교인들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건강기별이 구원을 보증해준다.'는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동시에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 역시 양립 가능하다. 그 이유는 많은 재림교인들이 자신의 음식규정 준수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는 재림교회 문헌에서 흔히 등장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재림교회의 음식규례는 모세의 「레위기」 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 없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한심한 율법주의적 규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며, 성령의 전인 몸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이상적인 음식을 취하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김상래, 『백년의 선한 이웃: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해명한다』 (파주: 에버라스팅가스펠출판사, 2011), 134. 강조 추가.

담배는 물론 와인과 칵테일, 샴페인도 마시지 않는다. 개중에는 콩고기나 밀고기 같은 대체육(meat substitute)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재림교회가 삼육식품을 통해 대체육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비건 집단은 교단이 판매하는 베지버거나 베지미트, 콩단백 소시지, 콩단백 햄 등 유사육(fake meat)도 거부한다.[338]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는 게 이들의 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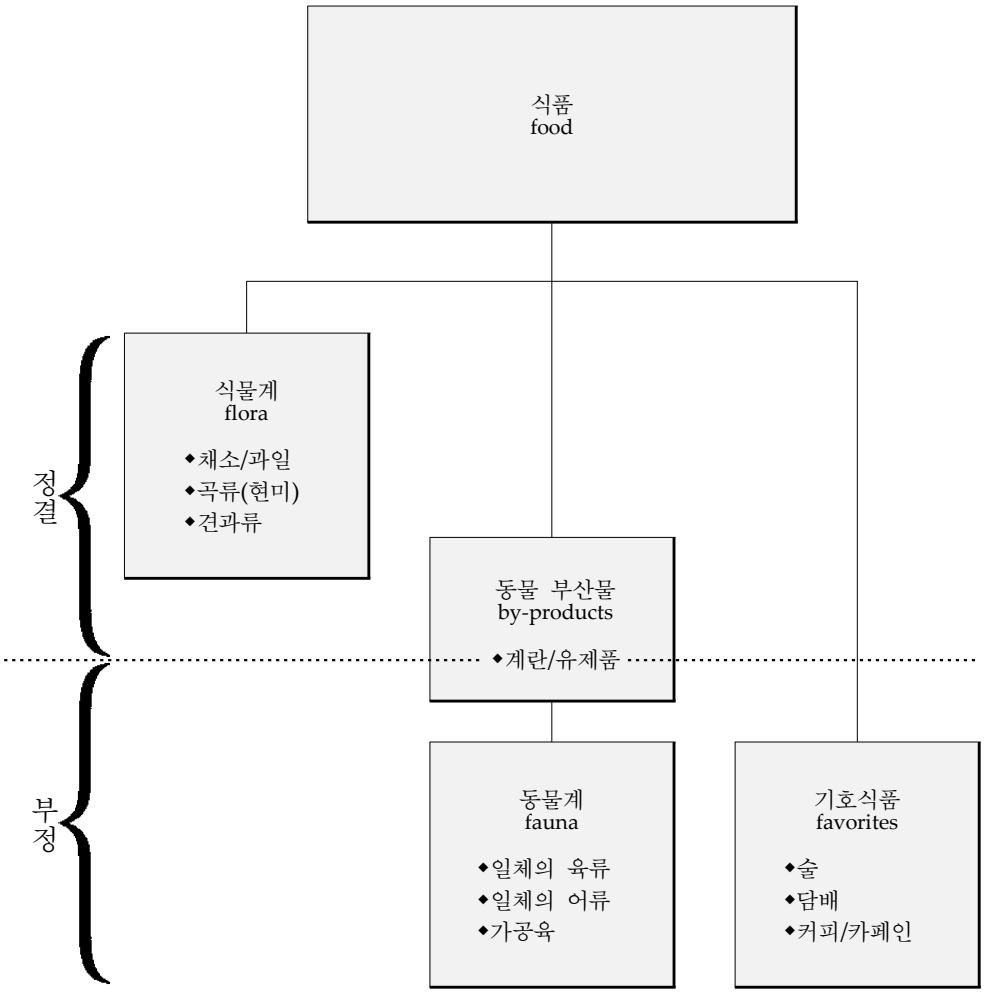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비건 집단이 식물(食物)로 삼는 먹을거리는 채소와 과일, 곡물, 견과류 등으로 한정된다. 곡물도 완전 도정을 거친 백미(白米)가 아닌 현미(玄米), 정제된 백밀이 아닌 통밀을 지향한다. 경건을 두고 집단 간 혹 집단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비건 집단 성원들 사이에서 현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339] 구원을 두고 벌이는 선악의 대쟁투라는 장엄한 무대 위 곡예에서 현미는 비건들의 숭고한 절제 정신을 드러내는 미장센이 된다. 물론 팔분도보다는 칠분도, 칠분도보다는 오분도가 더 좋다. 여기에 각종 콩과 보리, 옥수수, 조조 등 잡곡이 추가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채소와 과일 역시 무농약보다는 친환경, 친환경보다는 유기농이 더 정결하다.[340] 더 이상 이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완성된 하늘 식탁은 정결과 부정이라는 비건 집단의 정체성을 적확하게 정의하는 범용(汎用)의 트레이드마크다. 비건 집단의 음식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338)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주)삼육식품은 비건 집단을 위한 다양한 대체육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유제품을 대신하여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 개발된 수십 종의 삼육두유부터 밀에서 추출한 글루텐으로 만들어진 베지미트와 소고기 패티를 모방한 베지버거, 콩을 원료로 한 식물성 콩단백 소시지와 햄이 판매 중이다. https://36mall.co.kr (접속일: 2022년 4월 10일) (주)삼육식품은 국내 개신교 언론과 단체들로부터 '이단 및 사이비집단의 제품'으로 낙인찍히면서 통일교가 운영하는 (주)일화, 신앙촌이 운영하는 생명물식품(주)와 함께 대표적인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어왔다. 이에 대해 이유나는 국내 개신교가 벌이는 이단 제품 불매운동이 교인 단속과 내부 결속을 위해 종종 활용해온 '타자 만들기'나 '이단 낙인찍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나, 「현대 한국 그리스도교의 정통-이단 담론 연구」, 『종교와 문화』 26 (2014): 1-22를 참고하라.

339) 특히 국내 재림교회 비건 집단 사이에서 바이블로 꼽히는 정사영 박사의 저서들은 이들이 얼마나 현미에 집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정사영, 『기적을 낳는 현미』 (서울: 시조사, 1988)를 보라.

340) 매년 개최되는 도농한마당이나 재림농민회 행사는 대표적인 재림교회 관변 행사다.



[표5-5] 비건 집단이 이해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백숭기)

2.3. 성지로서의 채식식당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건 집단이 일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보다 원리주의적인 성원들은 자극적인 양념이나 첨가물, 심지어 식초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양념은 본질적으로 신체에 해롭다. 이들에게 합당한 양념은 소금뿐이다.[341] 고춧가루도 먹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나오는 김

치도 먹지 않는다. 비건 집단이 용인한 김치는 백김치뿐이다.[342] 결국 비건 집단의 외식은 철저히 채식식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채식식당까지 걸리는 여러 시간의 여정은 이들에게 성지(聖地)를 찾는 순례(巡禮)로 인식되며, 정기적으로 하늘 식탁에서 경험하는 동질감은 고향에서 느끼는 무수(撫綏)의 안정과 노스탤지어를 자아낸다. 무슬림이라면 평생 한 번은 메카로 성지 순례(*Hajj*)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비건 집단에게 채식식당은 비건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성지이자 참된 재림교인임을 공인받는 고향(*Urheimat*)이다.

오늘날 교회가 직영하거나 교인이 운영하는 채식식당은 국내에만 대략 10여 군데가 있다. 재림교회의 채식식당은 보통 뷔페 형식을 띠고 있으며, 주로 점심에만 운영되고 있다.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은 당연히 영업을 하지 않는다. 주로 교인들이 생산하는 각종 유기농 채소와 건강식품들을 당일 받아 주 5일간 운영한다. 현미밥과 국을 기본으로 콩고기, 나물, 고구마, 버섯탕수육, 마파두부 등 다양한 반찬이 제공된다. 식물성 생크림과 수제 견과케익, 바나나 퀘사디아, 두유 요거트, 스트로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견과잼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메뉴들도 적지 않다. 화학적 양념과 자극적인 재료와 계란이나 유제품도 쓰지 않는다. 채식식당 한쪽에는 재림교회 신앙 책자와 설교 CD 등

---

341) 비건 집단의 텍스트는 화이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다. "오늘날과 같이 조급한 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양념은 본질적으로 해롭습니다. 겨자와 고추, 조미료, 피클, 기타 이러한 특질의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합니다."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345. 특히 식초는 화이트에게 끝까지 극복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나[화이트]는 식초에 대한 갈망에 방종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심하고 이 식욕을 극복하였습니다. ... 여러 주일 동안 나는 대단히 아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주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모두 다 아신다고 계속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이 욕망에 양보하지 않겠다.'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 나는 식초에 대한 욕망을 계속 제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러한 유의 어떤 것이라도 맛보고 싶은 의향이 없습니다. 이 경험은 여러 모로 나에게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의 책, 485. 이 부분 역시 양념에 대한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

342) 비건 집단을 위해 (주)삼육식품은 '식물성 시즈닝'을 판매하고 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MSG보다 가격은 두세 배 비싸지만 이들이 기꺼이 이를 구매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동물성 원물에서 추출된 자극적인 양념이 성도들의 경건과 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내 이민자 무슬림들이 일반 식재료보다 서너 배 비싼 할랄푸드를 구하기 위해 수십 ㎞를 운전해 인증된 전문 식자재마트를 찾아다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이슬람권에 살면서 규정에 맞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무슬림들이 종교정체성 역시 확고하다는 연구도 있다. Alhassan G. Mumuni et al., "Religious identity, community and religious minorities' search efforts for religiously sanctioned food,"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2/6 (2018): 586-598을 참고하라.

을 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비건 집단의 또 다른 특징은 채식주의를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지역교회가 종종 시도하고 있는 선교 프로그램 중에 채식요리 강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러한 이유다. 교회는 주기적으로 전단지를 만들고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며 강사를 초청해 무료로 요리강습회를 갖는다. 그렇게 확보된 명단은 고스란히 교회의 구도자가 된다. 요리강습회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인은 단연 비건 집단의 성원들이다. 여기에서 이들은 선교정책의 일환으로 채식요리를 선보인다는 명분과 함께 스스로 경건한 교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다. 채식은 이렇게 비건 집단을 만나며 비로소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거듭난다.

2.4. 요양원 문화와 뉴스타트운동

비건 집단의 또 다른 문화는 요양원[343]으로 대변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재림교회의 요양원은 19세기 그레이엄의 기숙사나 유토피아 공동체에서 영향받은 것이다. 오늘날 전국의 뉴스타트를 실천하는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도시가 아닌 시골, 그것도 산속이나 숲속처럼 매우 궁벽한 곳에 들어서있다. 채식을 실천하는 비건 집단은 대체로 도시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시골(전원)은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을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천혜의 무대를 제공한다. 육식을 끊고 채식을 선택하는 이들은 시골에서 텃밭과 농장을 가꾸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화이트는 영적 성장을 이유로 시골생활을 강조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 도시에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주님은 경고의 외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을 집에 모으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이들, 악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서 자녀들이 벗어나도록 모으라.' '가능한 한 빨리 도시에서 나오라.'

---

343) 재림교회의 요양원(療養院)은 국내 개신교가 운영하는 기도원이나 단식원 등과 일부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성격의 공간이다. 재림교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은 뉴스타트 요양원은 기도나 피정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오로지 몸의 쾌유와 건강을 위해 '입소'하는 곳이다. 국내 재림교인들에게 개신교의 기도원 문화는 도리어 낯설다.

> 부모들은 시골에(in the country) 경작할 토지와 함께 작은 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과수원을 할 수 있으며, 혈관을 타고 순환하는 생명의 피를 부패시키는 육식을 대체할 채소와 작은 과실들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녀들은 도시생활(city life)이 주는 부패한 감화에 둘러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도시 밖에서 그러한 집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344]

이러한 시골생활에서 파생한 곳이 바로 요양원이다. 요양원은 시골생활에 들어간 비건 집단이 자조(自助)와 자립을 모색하기 위해 고른 첫 번째 선택지다. 도시생활을 벗어나 시골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다시금 도시인들을 불러내는 명분이기도 하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요양원의 대표적 슬로건이자 비건 집단의 캐치프레이즈다. 재림교회의 건강신학이 이들의 종교적 이론(*theoria*)이라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들의 종교적 실제(*praxis*)다. 여기서 뉴스타트는 영양(Nutrition), 운동(Exercise), 물(Water), 햇빛(Sun), 절제(Temperance), 공기(Air), 휴식(Rest), 신뢰(Trust in God)라는 여덟 가지 건강원리들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두문자어다.[345] 여기서 충분한 영양 공급과 규칙적인 운동이 원리의 기반이라면, 깨끗한 물과 햇빛, 맑은 공기는 건강에 필수적인 환경이다. 또한 절제와 휴식이 건강을 이끄는 삶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아우르는 철학인 셈이다. 비건 집단에게 신뢰는 나머지 원리들을 두르고 있는 성스런 천개(sacred canopy)와 같다.[346] 뉴스타트는 일개 개인이 인간의 이론들을 짜깁기해서 만들어낸 조야한 시스템이 아니다. 뉴스타트는 정결의 궁극을 구현하는 에덴의 원리며 하늘 식탁을 재현하는 원초적 의례다.

---

344) White, *Medical Ministry*, 310.

345) "1978년 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위마(Weimar)대학에서 생활양식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환자 중 한 사람이 위의 여덟 가지 천연 치료제의 두문자어로 NEWSTART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뉴스타트란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서 뉴스타트 원리를 따라 생활 개선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연수원들이 개최되고 있다." 김평안, 『건강원리』(서울: 정문사, 1995), 6-7. 비건 집단은 뉴스타트 원리가 화이트의 다음의 글에서 찾아진다고 믿는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abstemiousness), 휴식, 운동, 바른 식단, 물의 사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이런 것들은 참된 치료제들입니다." White, *The Ministry of Healing*, 127.

346)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종교학적 의미를 살펴보려면, 백승기, 「죽음과 재생의 안식일 의례에 관한 종교학적 고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을 참고하라.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18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에덴이라고 불리는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세기」에 의하면 에덴은 인간 생명이 시작된 곳이며, 우리의 첫 부모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곳이다."[347]

단식(fasting)은 요양원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강조하는 핵심 의례다. 예수의 40일 금식과 다니엘의 금식은 비건 집단에게 최고의 모본이며, 이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자복(自服)의 의례다. 사실 이들에게 단식은 채식과 닮았다. 단식처럼 채식 역시 일정한 음식을 자발적으로 '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식(共食)만큼이나 금식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막교부들에게 사순절 단식은 아담의 원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음식이 없는 척박한 사막에 머물면서 단식을 실천하는 것은 태초에 아담이 겪었던 유혹을 되돌리고 이를 극복하는 고행의 의례였다.[348] 이슬람교의 라마단이나, 그리스도교의 사순절, 유대교의 욤키푸르에서 보듯, 단체로 특정 음식을 삼가거나 일체의 식사를 중단하는 행위는 공동체에 강력한 연대감을 준다.[349] 그래서 이슬람교의 오주(五柱)에는 아예 금식(*Sawm*)에 대한 계율이 들어있을 정도다. 후기성도교회의 단식주일(Fast Sunday)도 이와 유사하다.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은 단식주일로 두 끼를 굶고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용을 교회에 헌금으로 드려야 한다. 금식헌금(fast offering)이라 불리는 이 헌금은 주로 빈자와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해 쓰인다. 이후 자발적인 간증 모임이 이어지는데 신자들 사이에서 이 순서는 단식주일의 백미로 꼽힌다.

요양원과 뉴스타트운동은 비건 집단이 양생(養生)과 수양(修養)을 통해 거룩한 몸을 만드는 과정이자 대외적으로 재림교회를 알리는 선교의 장이다. 동시에 레위기 집단과의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건을 입증하는 시험대다. 비건 집단은 레위기 집단과의 차별화를 통해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는 안도감을 확보한다. 극기와 절제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들에게 채식과 단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347) 포스터, 29.

348) Peter Robert Lamont Brown, *The Body and Society: Men, Women, and Sexual Renunciation in Early Christianity* (Bost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220-221.

349) R. 켄지 티어니(R. Kenji Tierney) 외 공저, 「음식의 인류학」, 제프리 M. 필처 편저, 『옥스퍼드 음식의 역사』, 김병순 역 (서울: 도서출판따비, 2020[2012]), 248.

3. 레위기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양식

재림교회 내에는 비건 집단 말고도 음식에 관해 상이한 정체성을 갖은 이들이 있다. 두 번째 집단은「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을 따르는 재림교인들로 다양한 이유로 과거 시도했던 채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입교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채식주의까지 실천하지 못하는 이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앙과 음식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식단이 구원의 유일한 증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표준이 한층 누그러진 현재 재림교회의 교리 안에 안착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소고기나 닭고기, 고등어, 계란 등은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지정하신 식물(食物)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레위기」11장의 규정에 따라 정한 짐승에 한해 제한된 육식을 시도하는 이들을 본 논문은 '레위기 집단'으로 명명한다.

3.1. 레위기 집단의 정체성

비건 집단이「창세기」1장을 저들의 텍스트로 삼는다면, 레위기 집단은「레위기」11장을 핵심 텍스트로 간주한다.「레위기」11장에 언급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식단을 정한다. 돼지고기는 이들에게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대표적인 경계선이다. 그렇다고 해서「레위기」집단이 비건 집단에 비해 신앙이 부족하다거나 불완전한 건 아니다.「레위기」집단 성원들은 언제든지 채식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를 잠깐 유예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동시에「레위기」집단은 아무거나 먹는 비신자들과 엄연히 다른 차별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음식규정을 통해 스스로 재림교인이라는 대외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비건 집단이 누리는 경건의 지위는 얻지 못한다. 비건 집단이 하듯 신앙공동체 내에서 채식을 통한 비교우위를 내세우지 못한다.

물론 레위기 집단 성원들이 일부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도 육식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부담 없는 선택지인 건 아니다.

안식일 오전, 대부분의 재림교회에서는 대예배를 마치고 교인과 손님들에게 식사를 내놓는데, 안식일에 차려지는 식사는 재림교회 음식규정의 탁월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대개 현미와 채소를 중심으로 식탁이 꾸려진다.[350] 교회에서 레위기 집단과 비건 집단을 가르는 외적 경계선은 불분명하다. 레위기 집단 역시 겉으로는 비건 집단과 유사한 식습관을 흉내 내거나 가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정확히 관찰하려면 일상에서 어떤 음식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장소를 제외한 식탁은 매우 개인적인 장소기 때문에 여호와의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나 수혈거부를 통해 안팎으로 명쾌한 경건의 표지를 확보하는 것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어렵다.

레위기 집단은 재림교회 내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집단이며 별 다른 관점의 변화나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뒤이어 설명할 세 번째 집단으로 빠져 나가는 성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 통계로도 입증된다.[351] 다음 [표5-6]에서 레위기 집단은 비건과 베지테리언을 제외한 항목(점선 우측)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페스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단순히 주중 육식의 빈도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육류를 섭취하는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레위기 집단의 음식규정을 따르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재림교회의 공식 통계자료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교회가 말하는 소고기와 닭고기 같은 정한 짐승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국 비건과 베지테리언을 제외한 응답자들은 대체로 레위기 집단에 속한다고 봐도 좋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고기를 먹는다고 답한 이들은 육식의 빈도에 차이가 있을 뿐 음식규정에 있어 비건 집단과 매우 다른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다.

---

350) 메뉴는 개별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양하지만, 현미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현미는 『예언의신』에 언급되지 않은 식단이다. 화이트는 '채로 치지 않은 밀가루'로 식단을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고운[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은 채로 치지 않은 밀빵(unbolted-wheat bread)에서 발견되는 영양분을 신체에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고운 밀가루의 흔한 사용은 신체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236. 이를 쌀이 주식인 국내 신자들이 한국의 식습관에 맞춰 통밀 대신 현미를 착안해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재림교회는 현미를 통해 '입맛의 토착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351) McBride, 546.

	비건	베지테리언	페스코	주중 육식 1회 미만	주중 육식 여러 번	주중 대부분 육식
서중앙아프리카지회 N=2,280	5.3%	13.9%	11.1%	23.7%	29.1%	22.0%
동중앙아프리카지회 N=6,927	11.4%	30.3%	15.7%	24.8%	14.4%	33.4%
서아프리카-인도양지회 N=4,845	4.7%	10.8%	12.1%	34.0%	26.0%	12.4%
남미지회 N=14,239	1.8%	7.3%	6.7%	24.0%	31.6%	28.5%
중미지회 N=4,346	2.6%	11.0%	9.4%	41.5%	25.1%	10.4%
북미지회 N=1,696	15.7%	35.1%	8.8%	20.6%	13.6%	10.4%
트랜스유럽지회 N=1,184	6.2%	19.0%	11.7%	33.0%	23.7%	6.3%
중앙유럽지회 N=3,735	3.7%	17.4%	6.6%	41.5%	25.0%	5.7%
유로아시아지회 N=2,095	2.2%	13.2%	8.1%	45.4%	24.4%	6.6%
북아시아-태평양지회 N=2,770	5.8%	15.6%	22.0%	32.3%	13.9%	10.4%
서아시아-태평양지회 N=6,258	4.9%	10.9%	16.2%	43.2%	18.4%	6.3%
서아시아지회 N=2,822	6.5%	11.4%	4.0%	40.6%	29.8%	7.7%
남태평양지회 N=3,118	4.2%	11.3%	14.7%	32.7%	26.2%	10.9%

[표5-6] 레위기 집단의 세계적 분포(McBride)

앞서 [표5-6]을 보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바다를 끼고 생활하는 지역인 북아시아-태평양지회와 서아시아-태평양지회는 페스코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북미지회는 다른 지역보다 비건과 베지테리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구통계학상 레위기 집단이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 집단 중에서 가장 너른 분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레위기 집단의 정결과 부정의 구도는 다음과 같다.

정결	부정
정결한 짐승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고등어 등 「레위기」의 비준 노아와 유대인의 식단→건강/구원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 오징어, 어패류 등 불순종의 식단 이방인의 식단→질병/멸망

[표5-7] 레위기 집단의 정결과 부정 개념(백승기)

3.2. 레위기 집단의 돼지혐오증

레위기 집단은 무엇보다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는 집단이다. 사실 돼지혐오증(swinophobia)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돼지혐오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로 꼽힌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돼지혐오를 비용 편익이라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352]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발원한 근동 지역에서 당시 소나 양을 키우는

352) "언뜻 보면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은 쇠고기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비합리적인 것 같다.

것보다 돼지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353] 반면 우리나라의 식문화는 돼지혐오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돼지머리는 개업식이나 잔치 등 각종 기복의례에 단골로 등장하는 친숙한 제물(祭物)이며, 삼겹살은 회식이나 외식을 통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육류로 꼽힌다.[354] 동시에 제주도 토착종교 의례에서는 돼지고기가 금기시된다. "특히 제주도 돗제 등에서 요구되는 돼지고기 금기 및 허용의 엄격한 제한들은 돼지고기가 단순히 풍요나 부 등의 경제적 가치와 연관된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355]

반면 레위기 집단의 돼지혐오는 언뜻 유대교의 그것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재림교인들이 내재적으로 의식화한 돼지혐오는 유대교에서 운위되는 것과 내용과 정도에 있어 사뭇 다르다. 「레위기」 11장 7절의 언급("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레위기 집단은 돼지에 각종 혐오를 덧씌우는 데 익숙하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는 쓰레기와 오물을 먹는 동물이다," "돼지는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이다," "돼지고기는 문둥병과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돼지고기는 혈액을 더럽게 만든다."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인 수사들을 동원한다.[356] 또한 레위기 집단은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모든 부정한 짐승 중에서 돼지를 가장 더러운(dirtiest) 것, 즉 가장 나쁜(worst) 것으로 간주한다. 레위기 집단은 돼지고기 금기를 신앙의 최전선이자 부정의 상한선으로 삼는다. 그들은 돼지고기가 단순히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타락을 조장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레위기 집단이 돼지혐오 주장의 말미에는 종종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문헌들을 줄줄이 각주화(annotation)하는

돼지에게는 모든 포유류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식물을 고기로 전환하는 능력이 있다."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서진영 역 (서울: 한길사, 2009[1985]), 109.

353) "그러므로 중동지역에서 돼지를 기르는 것은 반추동물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돼지에게는 인공 그늘을 만들어줘야 하고, 돼지가 뒹굴 수 있도록 따로 물을 준비해줘야 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물이나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여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돼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도 반추동물보다 적다. 돼지는 쟁기를 끌지도 못하고, 그 털로 옷감을 만들기에도 적당하지 않고, 젖을 짜기에도 적당치 않다." 위의 책, 119.

354) 국내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27kg 이상이며, 그중 80%가 삼겹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위의 돼지고기 시장(6.1%)을 보유하고 있다.

355) 이혜정, 「돼지고기 금기 및 식성갈등의 근원 연구: 제주도 및 동아시아 의례와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39 (2019): 94.

356)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392.

것이다.[357] 과거 '돼지독감'으로 불렸던 신종플루(H1N1)의 병원체가 돼지에서 발원했다는 역학 발표가 났을 때도 유독 돼지혐오를 가진 레위기 집단은 민감한 종교적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358] 같은 맥락에서 2019년 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동물시장에서 발원했으며 박쥐가 그 원인이라는 뉴스는 「레위기」 11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준 것이라고 여긴다.

돼지혐오증은 레위기 집단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당장 커피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 적잖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후기성도처럼, 직장인들 회식으로 대부분 삼겹살을 선택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술은 고사하더라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못한다는 사실은 레위기 집단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마트에서 구매하는 모든 식재료의 원료나 성분 표시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국내 인스턴트라면은 스프에 돈골분(豚骨粉)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민한 교인이라면 선뜻 손이 가지 않을 것이다. 경구용 알약의 캡슐을 만드는데 돼지껍질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하는 이들도 있다.[359] 비건 집단은 채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러한 골치 아픈 논쟁에서 쉽게 면제되지만, 레위기 집단의 성원이라면 일단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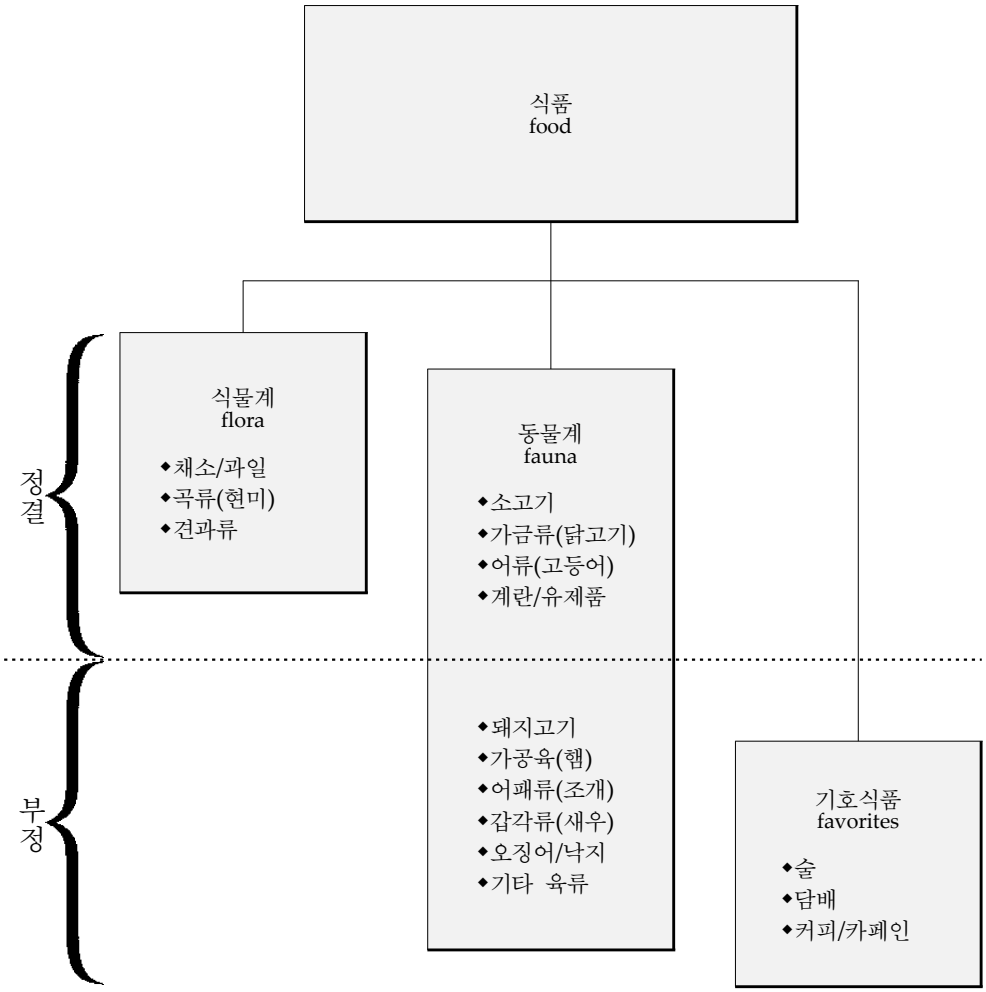
---

357) 문제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위생학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더 나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줄만한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설명이 희박하다는 데에 있다. 도리어 최근 돼지는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실험실에서 없어선 안 될 필수 개체가 되었다. 실험실에서 배양된 무균돼지가 인간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장기를 비롯한 중요한 기저물질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장류 실험을 거쳐 최근에는 돼지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도 이뤄졌다. 이처럼 각종 실험에 돼지가 이용되는 이유는 생산과 양육이 쉽고, 돼지의 심장과 췌장 등 장기의 크기는 물론 생리학적으로도 인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돼지 태반에서 화장품을 만들고, 돼지 오줌과 젖에서 혈전치료제를 뽑아낸다.

358) 전염병을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짐승과 연관시키는 글은 재림교회 여러 게시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놀랍게도 최근에 일어난 네 가지 전염병, 즉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감염매개체를 보면, 사스는 박쥐와 사향고양이, 신종플루는 돼지,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 코로나는 박쥐와 사향고양이와 천산갑으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adventist.or.kr/ (접속일: 2022년 5월 13일)

359) 돼지고기를 금하는 규정이 재료와 원료 중 어느 부분까지 지켜져야 하는지 저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때로 레위기 집단 사이에서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돼지껍질을 가공하여 제조하는 동물성 연질 캡슐부터 식용젤리,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콜라겐 제품에 대한 전면 사용 금지를 주장하는 이들과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하는 것이지 실제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들이 서로 갑론을박한다. 레위기 집단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대단히 복잡한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음식을 놓고 벌이는 내부 갈등의 압력이 훨씬 높다. 아래 [표5-8]은 이러한 레위기 집단의 복잡한 음식규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5-8] 레위기 집단이 이해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백숭기)

돼지 말고도 해물은 레위기 집단이 일상에서 만나는 또 다른 큰 장벽이다. 일부 등푸른생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산물은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준은 「레위기」 11장 9절에 등장하는 비늘과 지느러미의 유무(有無)기 때문에 레위기

집단은 비늘이 있는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나눈 저마다의 개인 목록을 갖고 있다. 레위기 집단이 섭취가 가능한 해물에는 고등어나 조기, 대구(동태, 명태, 황태, 북어, 노가리), 참치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 오징어, 한치, 낙지, 문어, 장어, 미꾸라지, 갑각류(게, 새우, 바다가재, 킹크랩) 어패류(조개, 굴, 홍합) 등은 먹을 수 없는 해물로 분류된다. 교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어류에는 비늘과 지느러미에 대한 정의를 놓고 해부학적 지식이 동원된다.[360] 여기에 레위기 집단은 해산물의 습성과 식생, 환경적 요인 등 과학적 설명을 줄줄이 추가한다.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해산물들은 대부분 강바닥이나 바다 밑에서 서식하며 강이나 바다 밑에 가라앉은 사체(死體)와 오니(汚泥), 각종 쓰레기들을 먹고 산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건져 올리면 조개와 새우들이 닥지닥지 붙어있다.' '장어는 사실상 바다에 사는 뱀이며 새우나 가재는 생물학적으로 바퀴벌레 사촌이다.' 이처럼 레위기 집단의 레토릭은 대부분 부정한 해물에 대해 즉물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레위기 집단은 식재료에서 돼지고기를 뺀 '삼육식(三育式/三育食)'을 실천한다. 삼육대학교 주변이나 재림교인 밀집 거주 지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삼육식은 레위기 집단 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요소로 여겨진다. 대학 주변, 별내, 청학리, 삼육서울병원, 회기동을 중심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삼육식은 이들에게 단순한 '채식 옵션'이 아닌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돼지고기가 빠진 짜장면, 햄이 빠진 김밥, 느타리버섯으로 만든 탕수육, 콩고기로 만든 돈까스가 식탁에 올라온다. 처음부터 채식메뉴를 내놓은 채식식당과 달리, 삼육식 식당은 메뉴에도 없는 별도의 레시피로 완성된다. 비건 집단보다는 레위기 집단이 현실에서 세속 음식을 흉내 내면서도 중요한 식재료를 「레위기」의 기준에 맞게 대체한 대안식(代案食)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다. 재림교인들 사이에서 삼육식은 채식식당과 일반 식당을 섞은 혼종이며, 비건과 레위기 집단의 교집합을 공략하는 하이브리드 레스토랑(hybrid restaurant)인 셈이다. 이 역시 돼지혐오증으로 생겨난 레위기 집단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360) 한성보, 『구약개요』 (서울: 삼육대학, 1989), 29.

3.3. 무병장수의 몸

초기 재림교회는 몸의 안팎을 모두 정결함을 이루는 데 중요한 준거로 보았다.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즉, 음식이나 주정음료, 담배, 차, 커피—을 구별하는 규정에는 언제나 몸 밖에 걸치는 것—즉, 장신구나 패물, 모자, 가발, 속되거나 사치스런 옷—을 삼가는 금기가 따라 나왔다. 심지어 화이트에게 채식에 대한 기별보다 술이나 담배 같은 기호식품이나 장신구에 대한 기별이 시기상 더 앞선다. 한 마디로 재림교회의 건강기별은 삶의 총체적인 개혁이었지 섭식을 통해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20세기 접어들면서 점차 수정되기에 이른다. 채식에 대한 강조가 가장 중심적이고 중차대한 가치로 떠오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재림교인 사이에서 음식규정은 알코올이나 담배, 지나친 양념 같은 규정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재림교회 공동체의 종교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그 결과 음식규정에 대한 후기성도교회의 의례와 재림교회의 의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오늘날 후기성도가 강조하는 것은 건강보다는 '다이어트'가 되었다. 미국 사회에서 다이어트의 사회-종교적 의미를 논의한 마리 그리피스(Marie Ruth Griffith)는 자신의 저서 『거듭난 육체』에서 후기성도교회가 캠페인의 하나로 도입한 '예수님을 위해 날씬해지자(Slim for Him)' 운동에 주목한다. 후기성도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날씬해지는 것이다. 뚱뚱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한 결과다.[361] 특히 탄산음료는 비만의 적이다. 과체중은 게으름과 나태함, 식욕의 방종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다.[362]

---

361) Marie R. Griffith, *Born Again Bodies: Flesh and Spirit in American Christian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193.

362) 이시게 나오미치(石毛直道)는 체형론의 관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술과 미식의 향락을 절제하라고 권고할 때 성인병(생활습관병) 위험을 설득하는 의학이 있다. 건강 유지는 평소에 마음 쓰기 어려운 일이다. 방심하거나 쾌락에 빠지면 징벌로 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금욕을 지키고 청아한 생활을 하는 신자에게는 내세의 행복을 약속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신의 징벌이 있다는 종교적 논리와 같은 구조다. 체형론으로 설명하자면, 식욕을 방치하는 하는 것은 악이고, 그 결과 뚱뚱한 체형이 되는 것 또한 악이다. 현대 사회는 금욕과 연관된 다이어트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시게 나오미치(石毛直道), 『음식의 문화를 말하다』, 한복진 역 (파주: 컬처그라퍼, 2017[2009]), 332.

하지만 무엇보다 재림교인에게 가장 큰 위협은 질병이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공동체나 신자들 사이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다. 신체적 질병은 육욕과 식욕을 제어하지 못한 방종의 결과기 때문이다. 화이트는 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건강을 유지하도록,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병은 건강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병은 천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입니다."[363] 병에 걸린 육체, 즉 더러운 몸(dirty body)은 거룩한 몸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뚱뚱한 후기성도가 부덕의 대상이라면, 병에 걸린 재림교인은 수치의 대상이다. 질병이 걸렸다는 건 평소 건강개혁이 미진했거나 불충분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이 죄스러운 방종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질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364] 현세적 금욕주의를 낳았던 루터의 소명 의식과 캘빈의 예정설이 이 땅에서의 부와 재산을 구원의 징표로 삼았듯이, 재림교인들에게 이 땅에서 '무병장수(無病長壽)의 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식욕을 극기하는 데 성공하므로 현세에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삶의 기념비다. 반대로 질병이 엄습한 몸은 구원에서 멀어진 운명을 예시하는 전조이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인생을 벌하기 위해 주어진 천형이다. 이처럼 현세의 몸은 장차 내세에 얻게 될 구원과 멸망의 그림자와 같다.

거룩한 몸과 무병장수의 몸이 일견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둘 사이에는 간과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채식을 통해 기계적으로 정결한 몸을 만들 수는 있지만, 거룩한 몸은 '성령의 거하심'으로 그 정결한 몸이 이상화된 신체화(idealized embodiment)를 겪은 결과다. 거룩한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룩한 몸은 하늘 가는 성품을 보증한다. 반면 레위기 집단이 이상으로 삼는 무병장수의 몸에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무병장수의 몸은 정결한 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결한 몸이 거룩한 몸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셈이다. 비건 집단에게 무병장수의 몸은 채식이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일 뿐 그들의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무병장수의 몸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레위기 집단이 병인론의 범주를 식습관으로 줄이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과도하게 차단했다는 점이다.

363) White, *Counsels on Diet and Foods*, 21.
364) 위의 책, 61.

우리가 알다시피, 질병의 요인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선천적,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주변적인 것들이 호르몬의 불균형과 신진대사의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나아가 질병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범위를 넓히면, 어떤 면에서 질병은 빈곤이나 사회구조가 원인일 수도 있다. 결국 질병의 원인을 오로지 건강개혁의 실패 내지는 부절제한 생활로 단정하는 패러다임은 20세기 들어 꽤 성공적인 선교정책으로 꼽혔던 뉴스타트운동이 뜻밖에 재림교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단 내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자생과 무관하지 않다.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이 활용하는 과학적 환원주의의 한계를 재인식하면서 이들의 레토릭을 파훼(破毁)하려는 시도가 플렉시테리언 집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4.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정체성과 실천 양식

4.1.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정체성

재림교회 공동체 내의 세 번째 종교정체성 집단은 음식규정에 그다지 얽매이지 않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다른 교인들 앞에서는 음식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평소에는 대체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본 논문은 이들을 '플렉시테리언 집단'으로 부르기로 한다. 원래 플렉시테리언은 유연하다는 의미의 'flexible'과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vegetarian'을 합친 용어로 보통 채식을 기초로 하여 식단을 꾸리지만 이따금씩 여러 가지 이유로 육류를 챙겨 먹는 이들을 총칭한다. 보통 세미-베지테리언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레위기 집단과 달리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을 따르지 않는 성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안정해서 쓰고자 한다. 즉 상황에 따라 음식규정을 지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별 다른 구별 없이 자유롭게 음식을 섭취하는, 음식규정에 '유연성'을 보이는 신자들이 플렉시테리언 집단이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보통 자신이 레위기 집단보다 세속화되었다고 느낀다. 대개는 페스코나 폴로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점차 자유로운 육식주의자로 넘어간다. 고기를 일부러 찾아 먹지 않았다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육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이들이 채식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건 아니다. 이들은 소위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을 통해 채식주의에 대한 회상과 환기를 경험한다. 보통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자신을 묶어줄 종교정체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끝없는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를 겪는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주의에 감성적으로 반응할 뿐 실천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이들 집단 성원들에게는 TPO가 중요하다. 이들에게 음식규정은 동료 교인들에 보여주는 하나의 일상화된 의례(routinized ritual)에 속한다. 이 의례는 재림교회 내에서 수용된 정체성을 보증하며, 피에르 부르디외의 말로 표현하자면, 재림교인으로서의 '교양'이자 '취향'이며 '아비투스'를 보여준다.

플렉시테리언 집단 중에는 「레위기」 11장의 정결과 부정 개념에서 아무런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에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중요한 하나의 신앙 기준이 된다면, 이들에게는 영양소와 에너지를 얻는 지극히 기초적인 대사(代謝) 행위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음식규정이 '아디아포라(*adiaphora*)'에 불과하며, 그보다는 영적 체험과 개인적 종교경험이 더 중요하다. 레위기 집단은 비건 집단을 흠모할 수 있지만, 이 집단은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 모두를 경멸한다. 극단적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구원과 채식을 등가로 놓는 비건 집단을 '완전주의자(perfectionist)'로 규정하며, 「레위기」 11장에 집착하는 레위기 집단을 '율법주의자(legalist)'로 낙인찍는다.

비건 집단이나 레위기 집단이 종종 내세우는 과학적 타당성의 근거들 역시 플렉시테리언 성원들에게는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레위기」의 건강과학을 유사과학으로 폄하한다. 플렉시테리언 집단 성원들은 평소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한다는 비건 집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늘 가는 성품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느냐로 결정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음식과 성품의 상관관계를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비건 집단의 과학적 환원주의에 설득되지 않는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채식은 물론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도 가뿐히 건너뛰기 때문이다. 스스로 안식일교인이라고 밝히지 않는다면 그들의 평소 식습관으로는 신앙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다.

돼지고기는 물론 커피나 차, 카페인음료도 가볍게 용인된다. 커피는 최근 플렉시테리언 집단 뿐 아니라 레위기 집단에서도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하는 데 필수적인 음료로 간주된다.[365] 이들에게 커피는 기호를 넘어 자유의 상징이다. 이들이 커피에 금단(禁斷)과 억압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커피의 건강 상 유익을 최근 의학 기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첨단의학을

365) 이에 두려움을 느낀 한국연합회는 2015년 4월 「교회지남」에 한국연합회 목회부의 이름으로 '커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제목의 권두언을 내보내기도 했다. "지금 커피가 들어오는 문을 막지 않으면 조만간 포도주가 들어오는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필진은 커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로 현대 의학이 말하는 커피의 해독을 본문에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게시판에서는 "간첩 침투를 막으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커피 침투를 막으라는 말은 처음이다."는 조롱조의 댓글과 함께 "하버드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블랙커피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67%까지 낮춰준다고 한다."와 같은 커피의 유익을 말하는 의학 기사를 첨부했다. 커피에 대한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입장과 정서를 잘 대변해 주는 댓글이다. www.minchoquest.org (접속일: 2022년 5월 13일)

비롯한 21세기 인류의 과학적 진보를 통해 과거 교단이 주장했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음식물과 관련한 많은 주제들을 현실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별도의 신학적 논리나 교리를 개발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적 환원주의에 의지한 채 과학적 진술을 바탕으로 커피의 유해성을 주장해 왔던 재림교회가 동일한 방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반론에 신학적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최근 북미지회에서는 커피를 즐기는 플렉시테리언 집단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예 커피머신을 현관 로비에 갖다 놓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실험한 사례도 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재림교회 대학인 라시에라대학교의 교목 스티브 데일리(Steve Daily)는 교내 재림교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데일리는 단순히 음식규정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 장신구 착용, 음악, 댄스, 과격하고 경쟁적인 스포츠 참여, TV 시청 등 재림교회 표준에 관한 포괄적인 설문을 실시했다.[366] 그 결과 흡연이나 음주는 각기 88%와 83%가 교회가 제시하는 표준을 따라가고 있었다. 돼지고기나 햄, 어패류 같은 부정한 육류 금지도 67%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5-9]를 보면, 노출이 심하거나 부적절한 옷을 착용하는 문제까지는 교단의 표준을 따르는 비율이 그렇지 못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점선 아래 부분, 즉 장신구 착용이나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음료를 음용하는 문제부터는 교단의 지침보다는 개인의 판단과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결정을 내렸다. 경쟁적인 스포츠 참여나 영화관, TV 시청은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표준이 무색할 정도다. 이 통계가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존재와 전모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커피와 관련한 음식규정에 관해 신자들이 갖는 정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

366) Steve Daily, *Adventism for a New Generation* (Portland: Better Living Publishers, 1994[1992]), 12.

	동의한다	모르겠다	동의 안 한다
마약을 하지 않는다	89%	4%	7%
담배를 피지 않는다	88%	4%	8%
맥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83%	6%	11%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다	83%	10%	7%
매일 운동한다	81%	9%	10%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69%	11%	20%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	67%	13%	20%
혼외정사를 하지 않는다	64%	15%	21%
부적절한 옷을 입는다	61%	17%	22%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35%	19%	46%
카페인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29%	18%	53%
록음악을 듣지 않는다	25%	18%	57%
댄스를 추지 않는다	22%	18%	60%
극장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다	18%	16%	66%
결혼반지를 끼지 않는다	14%	21%	65%
경쟁적인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는다	11%	12%	77%
TV나 비디오를 보지 않는다	8%	9%	83%

[표5-9] 대중종교의 스펙트럼: 재림교회 표준의 수용과 거부(Steve Daily)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비건 집단이나 레위기 집단처럼 건강이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위생학적으로 보나 영양학적으로 보나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정결하고 더 건강에 유익한 고기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육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나치면 모두 건강에 안 좋다. 돼지고기가 가져온다는 연주창도 조리할 때 잘 익히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늘날 정한 짐승이라는 소고기 역시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광우병)이나 구제역[367] 등 각종 질병에서

367) 구제역(口蹄疫)은 특히 소나 양, 돼지 같은 발굽이 갈라진 우제목 가축에게서 일어나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갈라진 발굽'이 정결과 부정을 가르는 기준의 하나인 점을 고

자유롭지 않다. 레위기 집단이 용인하는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대부분의 가금류 역시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으로 집단 폐사와 살처분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이 음식의 종류를 가릴 줄만 알았지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식에 가까운 식습관으로 도리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4.2. 집단의 통계적 구성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의례들을 갖고 있다. 채식과 단식을 통해 거룩한 몸을 만드는 것이 비건 집단의 의례라면, 정한 음식을 통해 무병장수의 몸을 만드는 것이 레위기 집단의 의례다. 하지만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의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의 존재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통계로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2002년, 국내에서 이뤄진 이규봉의 연구는 목회자와 지도자 및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총 473명의 표본을 가지고 재림교회 내 신자들의 채식 여부를 조사했다. 다음 [표5-10]은 '채식'과 '비채식'이라는 단순한 구분이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신자들의 계층에 따른 음식규정의 종교정체성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통계다.[368]

려하면 음식규정을 오로지 위생학적으로 해석했던 레위기 집단이 신학적으로 궁색해지는 대목이다.

368) 이규봉,「재림교인의 채식에 대한 의식도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2002), 37. 도표 형식을 본문에 맞게 약간 수정함. 해당 조사에서 스스로를 채식주의자라고 응답한 이들 중 여성(33.0%)이 남성(31.9%)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왔다. 연령대는 10～20대가 26%, 40～50대가 35.8%, 60대 이상이 44.9%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채식의 비율 역시 높았다.

항목	채식	비채식	계
직분별			
지도자	47명(44.8%)	58명(55.2%)	105명(100%)
집사	80명(31.3%)	176명(68.8%)	256명(100%)
평신도	33명(29.5%)	79명(70.5%)	112명(100%)
신앙 기간별			
1～10년	18명(24.0%)	57명(76.0%)	75명(100%)
11～20년	44명(33.1%)	89명(66.9%)	133명(100%)
21～30년	37명(32.5%)	77명(67.5%)	113명(100%)
31～40년	29명(35.4%)	53명(64.6%)	82명(100%)
41년 이상	27명(46.6%)	31명(53.4%)	58명(100%)

[표5-10] 재림교회 내 각 집단별 채식 비율(N=473)(이규봉)

위 [표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를 지도자와 집사, 평신도로 세분했을 때, 목회자와 장로를 포함한 지도자의 채식 비율이 44.8%, 집사는 31.3%, 평신도는 29.5%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교회 내 지위가 높을수록 채식의 비율이 더 높았다. 만약 지도자의 범위를 목회자로 한정했다면 이 비율은 앞선 1997년 강대영의 연구처럼 훨씬 올라갔을 것이다. 또한 교회에 입교한 기간으로 볼 때, 신앙 기간이 1～10년인 응답자의 채식 비율이 24.0%, 11～20년인 응답자는 33.1%, 31～40년인 응답자는 35.4%, 41년 이상인 응답자는 46.6%로 조사되었다. 통계적으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체적으로 신앙 기간이 긴 교인이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보다 채식 비율이 높았다.

조사는 또한 '채식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문항은 재림교인들이 생각하는 채식의 목적일 수 있겠다. 무응답을 제외하고 2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을 때, 다음 [표5-11]과 같은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369)]

항목	남(N=216)	여(N=255)	계(N=271)
건강에 자신감이 생긴다	154명(71.3%)	197명(77.3%)	351명(74.5%)
품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	155명(71.8%)	180명(70.6%)	335명(71.1%)
신앙에 자신감이 생긴다	65명(30.1%)	69명(27.1%)	134명(28.5%)
똑똑해진다	10명(4.6%)	20명(7.8%)	30명(6.4%)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8명(3.7%)	14명(5.5%)	22명(4.7%)
유익이 없다	8명(3.7%)	11명(4.3%)	19명(4.0%)

[표5-11] 채식의 유익성에 대한 재림교인의 인식(이규봉)

총 응답자 중 '건강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응답한 이들이 351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성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335명(71.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앙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응답한 이들도 65명(30.1%)이나 되었다. 이를 통해 재림교인들은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정결한 몸)과 함께 하늘 가는 품성(거룩한 몸)을 만들기 위해 채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채식이 주는 유익이 없다고 느낀 이들은 고작 19명(4%)에 불과했다.

이전 항목과 종합해 볼 때, 평신도보다는 지도자가 채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 재림교회 안에서 신앙을 오래할수록 채식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사실, 그리고 채식의 목적은 다른 것보다도 건강과 품성 형성에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370] 이 조사에서 플렉시테리언 집단을 과연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분명치 않다. 최소한 비건 집단은 목회자나 지도자 중심이며, 신앙 기간이 길며, 순수 비건을 지향하며, 건강과 품성 형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동시에 목회자나 지도자 중에 페스코나 약간의 육류를 하는

369) 이규봉, 46. 도표 형식을 본문에 맞게 약간 수정함.
370) 채식의 유익성을 묻는 문항을 보면, 윤리적 이유로의 채식이나 환경적 이유로의 채식은 아예 선택지에서 빠져 있다. 재림교회 배경을 가진 연구자의 한계로 보인다.

레위기 집단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반면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존재는 '비채식'이라 응답한 인원과 채식의 유익이 없다고 응답한 인원 사이에 존재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

교단 입장에서는 이러한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존재가 달가울 리가 없다. 이때 중심부가 주변부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서 내부로 끌어들이거나 아예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존재는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이 종교공동체를 끌어가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이들은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집단의 공공재(公共財)를 축낸다. 이들을 단속하는 데 교단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소위 무임승차자 문제다. 재림교회가 가진 음식규정을 토대로 이러한 플렉시테리언 집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벌이는 '몸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4.3. 무임승차자 문제

종교사회학자 야나코네는 오늘날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종교가 과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시장상황(market situation)'[371]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종교는 진입하기 수월하고, 고도로 경쟁적이며, 실지로 지적재산권 같은 것은 없는 산업이다. 천여 개 이상의 신앙이 현재 미국인들의 관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372] 결국 각 종교들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종교가 시장상황에 놓여 있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개종이 일어난다. 공급자(교단)는 소비자(구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매력적인 상품(종

371) "모든 다원주의적 상황의 주요한 특징은, 그것들의 세부적인 역사적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탈(脫)독점적인 종교적 기업들이 고객 집단의 충성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충성은 자원적(自願的)인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의상 확실한 것이 못 된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는 권위 있게 부과될 수 있었던 종교적 전통을 이제는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더 이상 '구매'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고객들에게 '판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원주의적 상황은 무엇보다도 시장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종교 제도가 매매기관이 되며 종교적 전통은 소비자 상품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많은 종교 활동이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된다." 피터 버거(Peter L. Berger), 『종교와 사회』, 이양구 역 (서울: 종로서적, 1993[1981]), 156.

372) Laurence R.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Reducing Free-riding in Cults, Communes, and Other Collectives," i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1992): 272.

교)을 시장에 내놓아야 경쟁자를 이길 수 있다. 소비자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구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자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다.[373]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동일한 이상적인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지, 또 그 교단에 들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밀도 있게 신앙생활에 참여할지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서 어떤 교단도 고객의 충성도를 확신할 수 없다. 완전한 자의성에 기반한 종교 선택은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며,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374]

그런데 후기성도교회의 커피금기, 재림교회의 채식주의, 여호와의증인의 수혈거부는 대번 무한 경쟁이라는 시장상황에서 명백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합리적인 종교 소비자라면 굳이 후기성도교회를 구매하여 그동안 잘 마시던 커피와 작별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림교회나 여호와의증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림교회 구매는 대번 사회생활에 상당한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채식주의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일체의 세속적 인간관계를 절연하겠다는 결심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여호와의증인을 선택한 구매자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양심적 병역거부, 정치 및 사회참여 거부, 수혈거부 등의 행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을 자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교단체는 21세기 전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종교의 범주에 든다.[375]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구매의 걸림돌

---

373) 야나코네는 이런 관점이 다름 아닌 애덤 스미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국부론』에서 종종 무시되는 챕터에서 스미스는 확립된 종교가 다른 국가가 운영하는 독점체제를 괴롭히는 인센티브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교적 방임주의(laissez-faire)를 종교 기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종교적 갈등을 줄이며 모든 불합리와 사기, 광신주의의 혼합에서 자유로운 순수하고 합리적인 종교를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Laurence R. Iannaccone, "Progress in the Economics of Religion," in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50/4 (1994): 740.

374) "이런 환경에서 특정한 종교 '회사'가 최소한 경쟁사만큼 매력적인 '재화'를 제공하는 한 번영할 수 있다."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273.

375) 야나코네는 주류 개신교의 사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를 앞세우며 교인들에게 특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표준을 요구하는 종파들이 교인들에게 거의 아무런 표준도 제시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인 그리스도교단들(이를테면, 성공회나 회중교회, 장로교)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유대교도 마찬가지다. 정통파 유대교가 여러모로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개혁파 유대교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 훨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라고 여겨지던 그들의 독특한 교리와 의례체계들이 종교 선택에 있어 별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야나코네는 이처럼 기존의 세속화 이론이나 수요-측면 이론(demand-side theory)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세 종교단체의 부흥을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여호와의증인은 수혈을 거부하고, 후기성도교회는 카페인과 담배를 금하며, 재림교회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에 참여해야 하고, 정통파 유대교는 꼰 옆머리를 양 갈래로 기르고 머리에 야물커(yarmulke)를 쓰며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을 하지 않고 잡다한 음식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승려들은 독신과 궁핍, 묵언의 서약을 한다. 이런 [종교적] 실천들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유는 그것들이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서일 뿐만 아니라 종교상 아무런 이득이 없어(counterproductive) 보이기 때문이다. 쾌락이 희생되고, 기회들은 사라지며, 사회적 낙인이 찍힐 위험마저 발생한다.[376]

야나코네는 설명의 모델로 소위 클럽 이론(club theory)을 끌어들인다. 그는 기본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보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불합리한 상품(신종교)을 소비자들은 이성적이고 자발적인 선택권을 활용하여 구매(개종)한다. 그들의 개종은 흔히 종교심리학자나 매스컴이 말하는 '강요'나 '세뇌'의 결과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은 합리적으로 고비용(high-cost)을 지불하고 매력적인 클럽(동아리)에 입회하는 최상의 구매력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저비용 클럽은 멤버십의 구분이 희미하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제때 회비도 내지 않고 무늬만 회원인 어중이떠중이들도 있다. '활동적인 회원(active members)' 입장에서는 이들 때문에 클럽의 결속력과 정체성이 떨어지고 사기가 꺾인다고 불평한다. 클럽 내에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클럽 공동의 자원을 축내기 때문이다.[377] 클럽이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빨리 조직 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비용의 클럽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클럽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무임승차자들을 감시하거나 걸러내는 비용을 따로 들이지 못하

---

376)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273.

377) '무임승차자(free-riders)'라는 개념은 야나코네가 종교 행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일환으로 공급-측면에서 제기한 용어로 가치개방적(value-free) 함의를 갖는다.

기 때문이다.

반면 고비용 클럽은 이 경우 이질적인 회원들 내에서 엄격한 금지규정을 제시하여 명확한 멤버십을 확립시킨다. '희생과 낙인(sacrifice and stigma)'이라는 규정은 겉으로 회원인 척 하면서 조직의 자원을 갉아먹는 무임승차자들을 '걸러주는(screening)' 기능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를 해왔던 이들의 형식성(externality)은 대번 낙인의 표적이 되며, 클럽의 원칙과 규정에 헌신하던 회원들에게는 희생을 끌어내어 참여와 효용성의 평균 수준을 더 올릴 수 있다. 클럽을 운영하는 공급-측면(supply-side)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이다. 회원에게 대안적 행위에 대한 비용을 올리므로 여타 금지규정들은 행위에 대한 대체물을 찾게 되고 집단 내 평균 효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378] 결국 완벽하게 이성적인 개인들이 낙인과 자기희생 그리고 기괴한 행동 표준을 요구하는 소위 '종파'와 '컬트'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시에 다른 교인들, 특별히 보다 높은 시장기회를 가진 이들은 주류 교회들처럼 교인들에게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379]

> 분명히 엄격한 식사규정, 고통스런 입회식, 옷차림 규정들과 같은 비생산적인 비용은 집단적 행위와 함께 엮인 무임승차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비용은 그렇지 않았다면 참여가 미미했을 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반면, 동시에 남아있는 교인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걸러내고 참여를 높이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행동을 규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게 된다. 결국 집단의 순효용성은 증가한다. 비용은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집단의 참여를 보조하는 대신, 대안적 행위에 세금을 매긴다. 헌신하지 않는 이들을 단순히 배제하는 대신, 모든 입회자들을 벌한다. 하지만 이상적인 해결책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도 충분하다. 따라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이들이 모인 집단이 낙인과 자기희생, 그리고 기괴한 행동표준들을 끌어안을지도 모른다.[380]

참여는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경제적으로 세금은 반드시 내야하는 돈, 간

---

378)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275.
379) Iannaccone, "Progress in the Economics of Religion," 740.
380)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289.

접적으로 부과되는 비용, 하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벌금이다. 납세자(tax-payers)는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공동체를 부양하고 유지, 지탱하는 데 일조한다. 동시에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가 혐오하는 대상은 무임승차자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격이 없는 자들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381] 종교집단에서 비례하지 않은 헌신도를 보여주는 교인들이 정당한 희생을 치른 자신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문제다. 야나코네는 결국 무임승차자의 형식주의 문제는 차선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참여를 보조하는(subsidize) 대신, 교회는 교인들 공동의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대안적 행동들을 금지하거나 벌할 수 있다. 집단이 내세우는 행위에 교인들이 참여하는지 감시할 수 없는 집단은 교인들이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경쟁적인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벌을 주는 것이 자신들 집단의 참여 수준을 관찰하는 일보다 훨씬 수월하다. 그 대안으로 참여를 금지하거나 대안적 맥락에서 생산성을 줄이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보다 두드러지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비정상적인 규정들은 종교집단이 직면한 형식주의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독특한 식사법, 의복, 옷차림, 사회적 관습들은 교인들을 제약하고 종종 낙인을 찍으며 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대안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이끈다. 잠재적 구도자들은 완전히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할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는다. 역설적으로 남은 이들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복지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완벽히 합리적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전통적이지 않은 집단에 이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결론은 정신분석학자들과 임상심리학자들, 그리고 미디어 내에서 만연한 관점, 즉 비정상적인 종파와 컬트로 개종하는 행위가 심리학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강제적인 '세뇌'의 결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병리학적이라는 관점과 첨예하게 대조를 이룬다.[382]

---

381) 야나코네는 자신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정립하는 데 경제학자 멘슈어 올슨(Mançur L. Olson)의 짧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저서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를 끌어왔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avid Lehmann, "Rational Choice and the Sociology of Religion," in Bryan S. Turner (ed.), *The New Blackwell Compan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Blackwell Publishing, 2010), 189-190을 참고하라.

382) Iannaccone, "Sacrifice and Stigma," 276.

야나코네는 이처럼 고비용 종파와 느긋한(easy-going) 교회라는 도식의 클럽 이론이 한 세기가 넘도록 종교사회학자들을 매료시켜왔던 방대한 양의 경험적 결과물들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통합시키는 데 좋은 모델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의 역동성은 종파가 시간이 가면서 자신들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순화하여 스스로 주류 교단으로 변모하는 경향성을 잘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재림교회 같은 종교집단들이 주류 교단으로 변모하는 대신 성립종파로 나아가는 과정도 매끄럽게 설명해준다. 교단의 생장력(viability)을 위협하는 이들의 형식성에 낙인을 찍어 집단에서 낙오되도록 하는 기제를 후기성도교회는 스미스의 계시, 즉 지혜의 말씀에서 찾았고 재림교회는 화이트의 계시, 즉 채식주의에서 찾았다.

같은 맥락에서 로드니 스타크는 희생과 낙인이야말로 그리스도교 발흥의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희생과 낙인 덕분에 교회는 어떤 일도 불사하려는 지극히 헌신적인 구성원이 대거 포진한 강고한 조직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교가 단연코 최고의 종교적 '거래(bargain)'였기 때문이다."[383] "종교적 보상장치는 독특한 이익과 불이익의 결합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획득 불가한 어마어마한 보상의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종교적 보상장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정해야만 영생과 먼저 별세한 자와의 재회, 완전케 된 영혼, 무한한 축복 등을 약속할 수 있다."[384]

재림교회 내의 플렉시테리언 집단을 무임승차자로 정의한다면, 공식종교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다.[385] 스타크는 재림교회처럼 특정 종파에 가입할 때 드는 '고비용'이 해당 종교가 성원들에게 가하는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비용이라고 가정한다. 고(高)긴장 종교집단에 가입하는 선택은 비록 사회적으로 값비싼 희생을 초래하지만 그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한다. 그들에게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은 희생할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종

383)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1996]), 249.

384) 위의 책, 252.

385) 플렉시테리언 집단을 모두 무임승차자로 규정할 근거는 없다. 성원 내에도 음식규정을 이해하는 정도와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 재림교회에 대한 태도 등에서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플렉시테리언 집단을 매우 유동적인 성원들의 집합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사회학적 연구의 출발점에서 그들의 이념형으로 무임승차자를 정의하고자 했다.

교집단이 성장하면 회중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회중이 커질수록 그룹 내의 사회관계망의 밀도는 떨어진다. "집단 내 관계망의 밀도가 떨어질수록 구속을 위해 제공되는 강제의 평균적 수준은 낮아진다."[386] 관계의 밀도가 낮아지면 성원들의 행위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올라가고 효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회중이 클수록 무임승차자의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회중의 규모가 커질수록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결국 여호와의증인처럼 셔닝(shunning)[387] 정책이 아니라면,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재림교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없다.

4.4. 몸의 기술과 몸의 정치

플렉시테리언 집단이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 집단들 내에서 건재할 수 있는 방식은 이들과 종교적 공공재를 함께 공유하면서도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비건 집단은 거룩한 몸이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건의 레토릭을 활용한다고 했다. 레위기 집단 역시 음식규정을 통해 무병장수의 몸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정체성을 확인한다. 반면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음식규정을 통해 확보한 종교정체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별개의 원천에서 정체성을

386) 스타크, 252. "한 집단의 구속력의 대가를 측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신자들이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되는 행위 목록의 길이다. 율법의 엄격한 준수로서 정통 유대교인은 개혁 유대교인보다 훨씬 더 높은 종교비용을 지불한다. 예를 들어, 정결하지 않은 가정의 식사초대를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는 매우 제한된다. 비슷한 모양으로 후기성도로 사는 것은 하나의 긴 금지행위 목록을 지키는 것이고, 의무행위 목록은 십일조 의무를 포함한다. 종교적 비용을 계산할 때 우리는 '컬트주의자들' '이단들' 그리고 '광신자들' 같은 단어들에서 반영되듯이 외부인들에 의해 고긴장(high-tension) 집단 신자들에 부여되는 많은 심리적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위의 책, 231.

387) 개혁메노나이트교회와 아미쉬, 여호와의증인 등은 모두 일정한 형식의 셔닝을 시행한다. 아미쉬는 그들의 종교적 질서에서 벗어난 집단의 구성원을 사회적으로 추방하기(ostracize) 위해 셔닝을 활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여호와의증인은 집단의 종교적 원칙들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멤버나 전(前) 멤버와 어떠한 접촉도 금지하는 관행을 쓴다. 심지어 미국의 보다 주류 종교집단들도 역사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의 셔닝을 시행해왔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 때로 공동체에서 이탈한 개인들에게 회중은 금지 조치를 부과한다. 셔닝은 종교집단이 규율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무임승차자를 제거하는 데 매우 강력한 무기다. 셔닝은 주류 사회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을 장려하는 주변적인(marginal) 종교집단 내 멤버들 사이에서 특히 만연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셔닝은 종교집단의 멤버나 비(非)멤버 사이의 구분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적(pedagogic) 목적의 장치로 작동한다.

발굴해야 한다. 앞서 이규봉의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채식이 하늘 가는 품성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는 신자들의 비율이 71%를 넘고, 채식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믿는 신자는 4%에 불과하다면,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소수가 다수가 믿고 있는 경건의 레토릭을 따르는 척하며 무임승차자로서의 정체를 들키지 않는 것뿐이다. 본 논문은 이런 전략을 '몸의 정치(politics of body)'라고 명명한다.[388]

플렉시테리언 집단이 벌이는 정치는 음식규정의 무효화가 아니다. 이들은 재림교회라는 종교집단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흡수하는 게 목표다. 첫째, 종교적 혜택이란, 스타크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당연히 재림교회가 약속하고 있는 구원(혹은 천국이나 영생)일 것이다. 구원이 비건 집단의 말처럼 거룩한 몸을 통해 획득된다면 당연히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그 혜택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즉 음식규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도—종교적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직 은혜'라는 교리가 요청된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채식주의와 구원의 문제를 별개로 놓는 레토릭을 활용한다. 이 레토릭은 믿음(faith)과 행함(work)이라는 매우 미묘한 신학적 줄타기를 감행한다. 이들은 안식일 준수가 구원과 상관없듯이, 채식 역시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개인의 공로나 행함이 아닌 오로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만 구원은 달성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들의 구원론은 더 주류 개신교와 가까워진다.

둘째, 플렉시테리언 집단이 탈취하는 사회적 혜택은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이룩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 확보된다. 적당히 음주도 하고 커피도 마시지만, 그렇다고 재림교회를 박차고 나갈 마음은 없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재림교회 내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림교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모든 사회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에 하나 가족이나 친척이 함께 교

388) '몸의 정치'는 본래 가스통 바슐라르가 개념화한 용어다. 정혜진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예수의 치병 사역이 기존 유대인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전복시키는 몸의 정치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녀는 하혈을 통해 불결해진 여인이 대놓고 만질 수 있는 예수의 몸, 그리고 쉴 새 없이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가는 여인'과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예수'가 모두 '구멍 나고 새는 피조물(porous, leaky creatures)'이라는 몸의 평등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성전 체계에 전복을 노리는 예수의 몸의 정치를 보여준다. 정혜진, 「몸의 정치학으로 본 마가복음의 정결 이데올로기 비판: 하혈하는 여인 치유 본문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8/3 (2021): 591.

인이라면 자신의 출교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 플렉시테리언 집단이 할 수 있는 몸의 정치는 생활 패턴을 교회와 사회로 엄격히 나누는 것이다.[389] 음식규정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례의 하나로 이해하면서,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또 다른 페르소나를 쓰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비건 집단보다 사회에 안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주류 개신교와 차별성을 강조하는 레위기 집단보다도 더 주류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셋째, 경제적 혜택 역시 사회적 혜택을 통해 플렉시테리언 집단이 얻는 이해관계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재림교회 내에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무임승차자는 쓸데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신앙을 주변에 드러내면서 표적이 될 필요가 없다. 이를 종교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사회와의 긴장도를 낮추며 안착하는 집단은 느슨한 연대로 엮인(loose-knit) 종교집단인 경우가 많고, 반대로 괴리가 작을수록 컬트나 종파처럼 매우 촘촘하게 엮인(tight-knit) 종교집단인 경우가 많다. 느슨한 종교집단이 성원의 입회와 탈퇴가 자유로운 '문턱 낮은 멤버십'을 갖고 있다면, 촘촘한 종교집단은 한 번 입회하는 것도 어렵지만 탈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문턱 높은 멤버십'을 갖고 있다. 또한 중앙집중화된(centralized) 종교집단일수록 강력한 '낙인의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종교집단일수록 영성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spirituality)를 표방하기 쉽다. 재림교회의 경우, 특성상 중앙집중화되면서 느슨한 연대로 엮인 종교집단이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는 집단 내의 관계 속에서 보다 용이하게 숨을 수 있다.

이들이 벌이는 몸의 정치에는 커피와 술이 대표적인 무기로 활용된다. 재림교회 신학자인 사무엘레 바키오키(Samuele R. Bacchiocchi)는 음주 문제에 관해 적어도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밝혔는데, 적당론자(moderationist)와 자제

389) 물론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종교정체성 집단들은 저마다 몸의 정치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도 예외가 아니다. 비건 집단은 채식을 실천하므로 거룩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공동체 내에 드러내는 몸의 정치를 하고 있으며, 레위기 집단 역시 무병장수의 몸을 통해 몸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들에게 몸의 정치는 실제 몸의 기술, 즉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아비투스를 일상에서 정확히 실천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교양과 의례로 작동한다. 반면 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 병을 숨기는 전략도 일종의 몸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건강신학이 이상화한 아비투스를 공개적으로 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이 은닉의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론자(abstentionist), 절대금주론자(prohibitionist)가 바로 그것이다.[390] 첫째, 적당론자는 『성서』에 나오는 포도주는 모두 발효된 포도주였다고 주장하며, 독주를 피한다면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입장을 갖는다. 둘째, 자제론자는 비록 『성서』가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을 승인했으나, 알코올과 연관된 심각한 사회적, 보건적 문제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삼가는 게 낫다는 견해를 갖는다. 셋째, 절대금주론자는 『성서』가 술을 비롯한 주정음료 일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참고로 술과 주정음료에 대한 재림교회의 공식입장은 세 번째에 속한다.[391]

반면 플렉시테리언 집단에 속한 일부 세속적 성원들은 커피와 술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모든 집단 내의 헤게모니는 교육적 관계(pedagogical relationship)라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처럼, 이들은 음식규정과 금주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오랫동안 재림교회 내에서 학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교인들과 논쟁이 붙거나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가릴지에 대한 결정은 문화적으로 습득된 아비투스, 즉 몸의 기술(body technique)로 확보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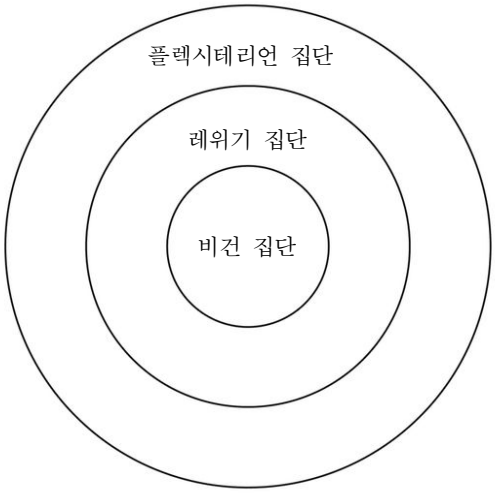
390) 사무엘레 바키오키(Samuele R. Bacchiocchi), 『크리스챤과 술』, 안교신 역 (서울: 빛과소리, 1993[1989]), 18.

391) 화이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등장하는 음료가 '발효된 포도주'가 아닌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위하여 준비한 포도주와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의 상징으로 준 포도주는 **순수한 포도즙**(pure juice of the grape)이었습니다. ...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훈과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하객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unfermented wine)는 건강에 좋고 신선한 음료였습니다. 그 맛은 건전한 식욕에 일치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White, *The Desire of Ages*, 149. 강조 추가.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오늘날 재림교회는 성찬식에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을 쓰고 있다. 이와 달리 후기성도교회는 예수뿐만 아니라 유월절 만찬에 참가한 제자들 모두 발효된 포도주를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찬식에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한다. 여호와의증인은 유월절에 예수가 마신 것이 발효된 포도주였다고 인정하며, 기름부음 받은 소수만이 기념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한편 『기본교리28』 미주에는 『성서』에서 포도주를 의미하는 '오이노스'라는 헬라어가 발효된 포도주(fermented wine)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unfermented wine)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말한다. "구약에서 포도주에 사용된 일반적인 용어는 야윈(*yayin*)이다. 이 용어는 비록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충분히 묵힌 포도주를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될지라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효된 상태로 전이되는 그 모든 단계에서의 포도즙을 가리킨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말은 티로쉬(*tirosh*)이다. 그것은 자주 '새 포도주'로 번역되는데, 신선하게 짜낸 포도즙이다. 구약의 헬라어 칠십인역(LXX)에서 두 용어는 오이노스(*oinos*)로 번역된다. 오이노스는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포도주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발효된 포도주나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둘 다 언급한다." 『기본교리28』, 400.

다고 주장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스스로 음식을 고르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위고, 반대로 음식을 끊거나 토하는 것은 사회적 반란의 행위라고 말한다. 여기서 식사의 형태는 근친적 정치의 영역에서도 조망될 수 있는데, 자발적 섭식의 예증으로 자신에게 부과한 식단(self-imposed diet)이 있고, 아이가 세대를 거치며 내려온 권력의 하나로 습득하는 몸의 기술이 존재한다.[392] 그런 의미에서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재림교회가 세대를 거치며 부과한 음식규정, 즉「레위기」11장이라는 몸의 기술을 거부하고 그 자기장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는 모험을 감행하는 이들이다.

결론적으로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비건 집단의 거룩한 몸이나 레위기 집단의 무병장수의 몸과 다른 정치적 몸을 가지며, 이 몸은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 집단들 중 가장 외곽에 있으면서 더글라스가 말한 주변부를 이룬다. 이 집단은 비건 집단이나 레위기 집단이 보기에는 무임승차자지만 바깥에서는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재림교회라는 종교집단을 완충시키는 교량이자 동시에 안에서 바깥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이 집단은 채식주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지만, 반대로 주류 개신교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점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재림교회 내의 세 종교정체성 집단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5-12]와 같다.

392) Bryan S. Turner, *Body and Society: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08[1984]), 152. 나아가 터너는 식단이 개인의 몸을 규제하는 것 또는 몸의 정치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양생법(regimen)이라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의학적 용어로 쓰일 때 '지배하다(*regere*)'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것으로 치료체계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치(regime)라는 단어에서처럼 통치의 체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단과 양생법은 모두 몸을 지배한다는 의미와 시민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책, 142.



[표5-12] 재림교회 내 종교정체성 구조(백숭기)

6장 결론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을 통해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음식규정의 의미와 기능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더글라스는『정결과 위험』에서「레위기」11장에 등장하는 복잡한 분류체계는 사회의 관습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서 벗어나는 사례는 체제의 위험이라고 보았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회의 분류체계, 즉 '제자리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비정상은 부정한(더러운) 것이며 정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더글라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녀의 주장에는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이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유요한의 제주도 토착종교 연구를 소환했다. 유요한은 돼지고기 금기에 대한 상이한 코스몰로지가 다른 정결과 부정의 의례를 잉태한다고 주장했으며, 단일한 종교집단 내에서도 얼마든지 상이한 정결과 부정 개념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역사적 계보뿐 아니라 상이한 종교집단과의 비교작업을 통해 재림교회가 갖는 정결과 부정의 정체성을 다각도로 추적했다.

먼저 본 논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 종교학 내에서 정결과 부정, 음식과 종교정체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피고 나름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했다. 본격적인 본론의 도입부인 2장에서는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확인했다. 먼저 카스텔의 정체성 이론을 끌어와 재림교회가 정결과 부정의 음식규정을 통해 갖는 종교정체성이 무엇인지 밝혔다. 카스텔은 종교집단이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버성기는 '저항 정체성'으로 출발하다가 사회에 적응하고 진출하는 단계에 이르러 '프로젝트 정체성'을 띠게 되고 나아가 사회에 안착하고 주류가 되면서 '정당화 정체성'을 갖는 과정, 다시 말해 정체성이 일련의 '역학'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재림교회가 종말론이라는 저항 정체성이 퇴색되면서 이를 채식주의라는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통시적 접근 함께 비교종교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종교와 대중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재림교회가 보유한 교리와 신앙의 다층적 측면을 살폈다. 또한 재림

교회의 음식규정을 통해 확보하는 정체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재림교회의 인간관과 건강신학의 얼개도 간단히 추렸다.

3장은 통시적 접근으로 재림교회가 19세기 건강개혁자들의 채식주의를 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신적 권위를 통해 수용하는 과정과 이를 자체적인 건강신학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대표적인 건강개혁자 실베스터 그레이엄은 재림교회에 '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사회개혁이라는 기치로 미국 동부에 우후죽순 돋아난 유토피아 공동체들은 재림교회에 '요양원'을 유산으로 남겼다. 화이트가 계시를 통해 얻은 선명한 종교경험과 존 켈로그가 온축(蘊蓄)시킨 의료시스템은 재림교회가 종말론과 의학을 접붙인 특이한 형태의 건강신학을 탄생시키는 데 촉매가 되었다. 화이트의 건강기별은 단순히 몸의 건강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채식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늘 가는 품성'을 만드는 통로이자 지상에서 인내와 극기를 시험하는 성화의 정점(頂點)으로 제시했다. 육식은 피를 불결하게 만들어 각종 질병에 노출시키며 인간을 금수로 만들어 지성과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하지만 이런 구도에 미묘한 균열이 발생한다. 화이트 사후에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채식주의는 재림교회의 공식 음식규정이자 유일한 음식정체성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재림교회가 미국 주류 개신교에 편입되는 과정의 전후로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물론 돼지금기와 혐오에 대한 목소리는 19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건강기별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던 「레위기」 11장 신학이 채식주의를 기치로 한 건강신학을 위협하게 된 건 그보다 후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본 논문은 그 기점이 화이트 사후 1915년부터 『QOD』가 출간된 1957년 사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물론 그보다 이전에 「레위기」 11장 신학이 재림교회 내에 들어왔다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를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음식규정을 추인한 해를 본 논문은 『QOD』를 출판한 1957년으로 잡은 것이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재림교회 문헌들에 등장한 채식주의에 관한 미묘한 입장 변화와 돼지고기에 관한 평가들을 정리하는 계보(genealogy)가 필요했다. 이 역사적 과정은 본 논문 3장 후반부에서 정리했다.

4장에서는 오늘날 채식주의와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이 공존하는 과정

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재림교회와 유사한 시기에 미국에서 등장한 그리스도계열의 신종교인 후기성도교회와 여호와의증인을 함께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후기성도교회는 19세기 후반 세속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부다처제 교리를 폐기하고 그 대신 주정음료와 커피 등을 금지하는 소위 '지혜의 말씀'을 발견(회복)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데, 본 논문은 이 과정이 재림교회 내에 돼지금기가 들어오게 된 경위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돼지고기가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소고기를 용인하겠다는 제스처이자 모든 육식을 금했던 과거의 지계표(地界標)를 옮기는 일이다. 이는 재림교회와 후기성도교회 둘 다 종파(Sect)로 출발해 교단(Denomination)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교인과 교단의 규모가 커지자 사회와의 긴장도(tension)를 줄이는 새로운 정체성이 요구되었던 상황과 일치한다. 둘 다 종파라는 색채를 벗고 금주법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사회 속에 안착하려는 열망을 표출했다.

여호와의증인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주장했던 엄격한 수혈거부의 입장을 일부 완화하여 1990년대부터는 백신접종처럼 분획수혈을 개인적 양심의 문제로 돌리는 신학적 후퇴를 시도했다. 이때까지 여호와의증인에게 피는 정결한 것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에이즈가 본격적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불결한 것이 되었다. 후기성도교회는 '정체성의 배지(badge)'로서 선지자가 남긴 지혜의 말씀을 새로운 종교정체성으로 삼으면서 일부다처제라는 저항 정체성을 폐기하고 절제를 통해 '건강과 가족'이라는 프로젝트 정체성을 확보했다. 재림교회 역시 20세기에 들어서며 임박한 종말론의 색채를 중화시키고 선지자의 건강기별을 장수와 건강, 가정과 행복이라는 프로젝트 정체성으로 확장시켜 세계적인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이룩했다. 반면 여호와의증인은, 비록 종교자유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법률 체계 및 무수혈 수술에 관한 의료적 진보 같은 일부 긍정적인 결과도 낳았으나, 수혈거부와 중립 문제를 고수하면서 사회적 긴장도를 낮추는 새로운 종교정체성을 발굴하는 데 실패했다.

사실 재림교인의 종교정체성은 건강기별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외피를 싸고 있다. 본 논문은 5장에서 무두장이가 가축의 피륙을 벗기는 것처럼 그 외피를 조심스럽게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공시적 접근으로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 플렉시테리언 집단이 공존한다는 가정을 국내외 통계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 세 집단은 사회학적 연구를 위한 이념형으로 소환되었다. 가장 중앙에는 비건 집단이 있다. 이들은 공식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선전하는 종교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목회자나 교단의 기관장, 전국 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 뉴스타트 강사들이 이 집단의 성원들이다. 비건 집단의 성원은「창세기」1장이 말하는 채식을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으로 이해한다. 이들은 화이트가 천계 여행에서 보았던 만나와 과일들이 놓인 하늘 식탁에서 실낙원의 노스탤지어를 느낀다. 복락원은 식탁 개혁에서 출발한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식탁에 올라가고 대신 모든 짐승의 사체는 식탁에서 치워져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식탁에서 고기는 사라져야 한다.

비건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양날의 검으로 사용한다. 채식은 교인과 비교인,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를 가름하는 외적 경계선으로 활용되지만, 동시에 품성을 완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내적 경계선으로도 쓰인다. 이들은 규범적인 관점에서「레위기」11장의 음식규정을 세속화, 즉 교리의 타락으로 규정한다. 비건 집단은 레위기 집단을 건강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이들, 위장과 혀에 굴복한 이들, 하늘 가는 품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로 정죄한다. 비건 집단은 경건의 레토릭을 통해 레위기 집단과의 차별성을 노리며 자신들의 건강신학으로 수직적 위계를 만들어 나간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의 부패한 향락에서 벗어나 중세의 은수자처럼 산속에서 시골생활을 지향한다. 시골은 재림을 기다리는 천혜의 공간이다. 채식식당을 저들의 품성을 드러내줄 성지로 인식하며 이따금씩 식도락의 순례를 떠난다. 동시에 뉴스타트 요양원을 통해 건강신학의 양생(養生)을 실천한다.

반면 레위기 집단은 이름처럼「레위기」11장에 근거한 음식규정을 따른다. 이들 역시 공식종교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일부 지도자로부터 장로와 집사, 일반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단의 공식적인 교리를 따르는 데에 만족한다. 우리는 이들이 통계적으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집단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세 번째 집단으로 빠져 나가는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들의 기억에는 채식의 아련한 추억이 저장되어 있다. 교회 예배나 모임에서 채식을 흉내 내기도 하지만, 자신의 식단에 별 다른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돼지혐오가 발달했다. 돼지고기는 레위기 집단의 첫

번째이자 거의 유일한 전선(戰線)이다. '최소한 돼지고기에서 내 위장을 지켜냈다.'라는 안도감에서 신앙의 위안을 얻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 어쩌면 레위기 집단은 세속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간 기착지, 즉 건강개혁의 림보와 같다. 반면 비건 집단에게 돼지고기는 그다지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비건 집단은 육식 그 자체를 혐오한다.

레위기 집단은 재림교인으로서 대외적 정체성을 정의할 때에도 돼지고기 금기를 활용한다. 상대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일단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들은 비건 집단처럼 채식을 통한 비교우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음식규정을 의식화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채식을 신체화하지 못했음/안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가끔씩 '삼육식'을 실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음식 목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묵이나 맛살을 먹을 수 있는지, 갈치나 오리를 먹을 수 있는지 저마다 기준과 정의가 제각각이다. 레위기 집단은 특히 무병장수의 몸을 이상적인 신체로 여긴다. 이들에게 아프다는 건 죄악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집단은 플렉시테리언 집단으로 음식규정 자체에 아무런 종교적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에서 벗어나 재림교회의 경계선에서 살아간다. 일부 플렉시테리언 집단은 채식은 물론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돼지고기나 햄, 각종 어패류와 해물을 자유롭게 먹는다. 이들에게 채식은 일화적 기억에 불과하다. 이들은 평소 아무런 고기나 먹을 수 있지만 교회나 예배 모임에서 채식을 모방하거나 연기하는 의례에 익숙하다. 이들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재림교인으로서 매우 취약한 종교적 정체성을 갖지만, 반대로 비건 집단보다 다른 것에서 더 강력한 종교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이들의 종교정체성은 국내 주료 개신교의 복음주의와 더 가깝다. 이들은 음식과 영성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비건 집단과 레위기 집단의 보수성을 각기 완전주의와 율법주의로 규정한다.

본 논문은 이 집단이 '신체화된 의례,' 부르디외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아비투스'에 저항하며 이를 통해 '몸의 정치'를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이들은 교회가 가르쳐준 '몸의 기술'을 거부하고 스스로 식단 선택의 자율성을 확

보하려 한다. 플렉시테리언 집단의 성원들은 비건 집단처럼 채식의 정당성을 설명한다고 과학적 환원주의에 빠지지도 않으며 음식이 거룩한 몸이나 무병장수의 몸을 가져다준다고 믿지 않는다. 신앙은 신앙이고 음식은 음식이다. 고기를 먹는다고 짐승과 같은 저열한 욕정이 살아난다거나 성품이 포악해지고 사납게 변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사실 이들에게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믿는다. 이들은 공식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무임승차자'에 가깝다.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타크와 야나코네의 종교사회학적 이론을 동원하여 이러한 재림교회의 종교정체성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여타 교단과 마찬가지로 선반 위에 놓여 종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장상황에 놓여 있다. 스타크와 야나코네는 이 과정에서 종교적 인간 역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정의한다. 공급-측면에서 후기성도교회는 커피와 차를 비롯하여 음주의 흡연을 금지하며 교인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재림교회 역시 금주뿐 아니라 채식주의와 음식규정을 통해 긴장도를 높이며 교인들에게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정체성을 안겨준다. 수혈거부를 중요한 정체성으로 가진 여호와의증인 역시 이런 점에서 마찬가지다. 이러한 정체성은 '희생과 낙인'이라는 기제를 통해 겉으로 성원인 척 하면서 조직의 자원을 갉아먹는 무임승차자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갖는다. 반면 종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고비용 종교'에 입교하는 건 탁월한 구매 전략이다. 번거로운 식습관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보다 명확한 종교정체성과 소속감을 얻을 수 있으며 장차 내세에 근거리 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림교회의 정결과 부정 개념은 이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고 시대마다 상이한 의미를 지녀왔으며 오늘날 집단 내에서도 복수의 종교정체성 집단들이 혼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더글라스의 해석처럼, 재림교회는 정결과 부정으로 대별되는 음식규정을 통해 강력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자기장 안에서 교인들이 결속하고 다양한 상징과 의미체계를 운위하고 있다. 피의 상징은 저들의 성소론과 종말론이 되었고, 몸의 상징은 저들의 인간

론과 선교학이 되었다. 본 논문은 재림교회 공동체가 음식과 관련한 정결과 부정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신자들을 단속하는지 보여주므로 교리가 공동체의 '집단적 결속'뿐만 아니라 때로 집단 내에서 '차별성의 기제'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결국 재림교회가 현재 세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곳곳마다 건강식품공장을 세우며 보건 위생과 관련된 폭넓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건강기별이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건강신학을 발전시켜온 덕분이다.

본 논문의 의의는 재림교회 내에 다양한 종교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지 않다. 도리어 재림교회의 사례를 통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종교집단 내의 유사한 구조들을 재확인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더글라스의 정결과 부정 개념이 일견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또 논리의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여타 종교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규정은 종교경제학적 관점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깨끗함과 더러움을 넘어 오늘날 종교 선택이라는 시장상황에서 일정한 정체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개역한글판 성경』.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몰몬경』. 2005.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교리와성약』. 2005.
『기본교리 28』. 서울: 시조사, 2012 (1990).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파수대」.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깨어라!」.
『목사요람』. 서울: 시조사, 1964; 1998 (1992).

Blood, Medicine and The Law of God. Brooklyn, New York: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1961.
How Can Blood Save Your Life? Ontario: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Canada, 1990.
Jehovah's Witnesses: Proclaimers of God's Kingdom. New York: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Inc., 1993.
Jehovah's Witnesses and the Question of Blood. New York: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1977.
Questions on Doctrine: An Explanation of Certain Major Aspects of Seventh-day Adventist Belief.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7.
Summa Theologiae.

강대영. 「한국 재림교회 목회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1997.
강돈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교리와 역사」. 『한국 종교교단 연구』 4.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김미숙. 「동아시아 불교의 음식 특징 비교: 한국-중국-일본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28 (2016): 415-440.

김상래. 『백년의 선한 이웃: 재림교회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해명한다』. 파주: 에버라스팅가스펠출판사, 2011.

김용성 외. 「멜 깁슨의 「핵소고지」에 나타난 종교적 가치: 신념 있는 시민교양」. 『종교와 문화』 33 (2017): 147-175.

김종서 외. 『현대 신종교의 이해』.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94.

김평안. 『건강원리』. 서울: 정문사, 1995.

_____. 『베스트라이프 건강원리』.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3.

나오미치, 이시게(石毛直道). 『음식의 문화를 말하다』, 한복진 역. 파주: 컬처그라퍼, 2017 (2009).

나이트, 조지 R.(George R. Knight). 『뚱보 아줌마와 천국: 기관주의와 세속화의 도전에 맞선 재림교회의 선교 사명』, 남주혁 역. 서울: 시조사, 2000 (1995).

_____. 『엘렌 화잇의 세계』, 박경숙 편역. 서울: 시조사, 2000 (1998).

넘버스, 로널드(Ronald L. Numbers) 외 공저. 「과학과 의학」. 테리 도프 아모트 외 편저. 『미국의 선지자 엘렌 하몬 화이트』, 김성익, 이국헌 역. 서울: 삼인, 2017 (2014).

더글라스, 메리(Mary Douglas). 『자연 상징: 우주론 탐구』, 방원일 역. 서울: 이학사, 2014 (1970).

뒤르케임, 에밀(Émile Durkheim) 외 공저. 『분류의 원시적 형태들: 집단표상 연구에의 기여』, 김현자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963).

맥과이어, M. B.(Meredith B. McGuire). 『종교사회학』, 김기대, 최종렬 공역. 서울: 민족사, 1994.

맥큐언, 이언(Ian McEwan). 『칠드런 액트』, 민은영 역. 서울: 한겨레출판, 2015 (2014).

바키오키, 사무엘레(Samuele R. Bacchiocchi). 『크리스챤과 술』, 안교신 역. 서울: 빛과소리, 1993 (1989).

방원일.『메리 더글러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백승기.「죽음과 재생의 안식일 의례에 관한 종교학적 고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2.
버거, 피터(Peter L. Berger).『종교와 사회』, 이양구 역. 서울: 종로서적, 1993 (1981).
스미스, 조너선(Jonathan Z. Smith).『종교 상상하기』, 장석만 역. 파주: 청년사, 2013 (1988).
스타크, 로드니(Rodney Stark).『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1996).
안신 외.「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서 음식의 종교적 의미에 대한 연구: 엘렌 화잇의 건강개혁을 통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신종교연구』 31 (2014): 1-24.
양일권 외.『백투에덴, 202 채식요리』. 서울: 시조사, 1999.
오만규.『네 검을 내려놓으라: 재림교회와 비폭력』.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4.
_____.『재림교회사』. 서울: 시조사, 1993 (1980).
웬함, 고든(Gordon J. Wenham).『NICOT: 레위기』, 김귀탁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1975).
우홍준.「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나타난 막스 베버의 이념형적 방법론」.『한국행정학보』 42/3 (2008): 395-421.
유광석.『종교시장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2014.
유요한.「다시 태어나 태초로 돌아가기: 소설 채식주의자의 원형적 신화 주제 분석」.『문학과 종교』 24/1 (2019): 157-177.
_____.『종교적 인간, 상징적 인간』. 서울: 이학사, 2009.
윤이흠.『한국종교연구』 2권. 서울: 집문당, 1991 (1988).
_____.『한국종교연구』 6권. 서울: 집문당, 2004.
이국헌.「기독교 채식주의의 역사와 사회윤리적 담론 이해」.『한국교회사학회지』 60 (2021): 97-127.
_____.「한국 근현대사에서 재림교회 선교병원의 역할과 의의」.『신학논단』 68

(2012): 121-146.
이규봉.「재림교인의 채식에 대한 의식도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2002.
이상구.『말세신앙과 건강복음』. 서울: 건강복음선교회, 1986.
이유나.「현대 한국 그리스도교의 정통-이단 담론 연구」.『종교와 문화』 26 (2014): 1-22.
이혜정.「돼지고기 금기 및 식성갈등의 근원 연구: 제주도 및 동아시아 의례와 신화를 중심으로」.『한국무속학』 39 (2019): 93-132.
이후천.「신유·성장·이단: 한국 개신교 신유 양태에 대한 선교학적 반성」.『선교신학』 5 (2002): 1-22.
정사영.『기적을 낳는 현미』. 서울: 시조사, 1988.
_____.『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서울: 시조사, 1990.
정혜진.「몸의 정치학으로 본 마가복음의 정결 이데올로기 비판: 하혈하는 여인 치유 본문을 중심으로」.『신약논단』 28/3 (2021): 571-599.
조병일 외.『21세기 명의를 찾아라』. 서울: 월봉, 1997.
최차순.『성서의학』. 하동: 벧엘수양원, 2006 (2005).
_____.『최후의 전쟁과 우리의 준비』. 파주: 에버라스팅가스펠출판협회, 2006.
키스, 리어(Lierre Keith).『채식의 배신』, 김희정 역. 서울: 부키, 2013 (2009).
티어니, R. 켄지(R. Kenji Tierney) 외 공저.「음식의 인류학」. 제프리 M. 필처 편저.『옥스퍼드 음식의 역사』, 김병순 역. 서울: 도서출판따비, 2020 (2012).
페스팅거, 레온(Leon Festinger) 외.『예언이 끝났을 때』. 고양: 이후, 2020 (1956).
포사이스, 마크(Mark Forsyth).『술에 취한 세계사(A Short History of Drunkenness)』, 서정아 역. 서울: 미래의창, 2019.
포스터, 버논 W.(Vernon W Foster).『뉴스타트』, 윤보현, 박춘식 공역. 서울: 빛과소리, 1994 (1989).
한강.『채식주의자』. 파주: 창비, 2007.
한상우.『총 없는 병사』. 서울: 시조사, 1996.

한성보.『구약개요』. 서울: 삼육대학, 1989.

해리스, 마빈(Marvin Harris).『음식문화의 수수께끼』, 서진영 역. 서울: 한길사, 2009 (1985).

휠러, 제럴드(Gerald Wheeler).『제임스 화잇: 혁신가 그리고 승리자』, 이국헌 역. 서울: 시조사, 2013 (2003).

히친스, 크리스토퍼(Christopher Hitchens).『신은 위대하지 않다』, 김승욱 역. 서울: 알마, 2011 (2007).

Adams, Elvin. *The Healthiest People: The Science behind Seventh-day Adventist Success*. Bloomington, IN: iUniverse, 2019.

Albright, William Foxwell.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Monotheism and the Historical Process*.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Press, 1957 (1940).

Avieli, Nir and Fran Markowitz. "Slavery food, soul food, salvation food: veganism and identity in the African Hebrew Israelite Community." In *African and Black Diaspora* 11/2 (2018): 205-220.

Badanta, Bárbara et al.. "A Temple of Go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nection Between Spiritual/Religious Belief and Health Among Mormons." In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59 (2020): 1580-1595.

Bailey, Emily Jean. "Mother Knows Best: Methodism, Seventh-day Adventism, and Dietary Morality in Victorian America." Ph.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2015.

Baker, Sherry & Joel Campbell. "Mitt Romney's Religion: A five factor model for analysis of media representation of Mormon identity." In *Journal of Media and Religion* 9/2 (2010): 99-121.

Banta, Jim E. et. al.. "The Global Influence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on Diet." In *Religions* 9 (2018): 1-25.

Bashore, Melvin L.. "Quitting Coffee and Tea: Marketing Alternatives Hot Drinks to Mormons." In *Journal of Mormon History* 42/1 (2016): 73-104.

Bloom, Harold. *The American Religion*. New York: Chu Hartley Publishers: 2006 (1992).

Bouritius, G. J. F.. "Popular and Official Religion in Christianity: Three Cases in Nineteenth Century Europe." In Pieter Hendrik Vrijhof et al.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Berlin: De Gruyter, 2019 (1979).

Brooks, J. P.. "Management of acutely bleeding patients who refuse blood transfus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7 (2012): 29-33.

Brown, Peter Robert Lamont. *The Body and Society: Men, Women, and Sexual Renunciation in Early Christianity*. Bost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Bull, Malcolm & Keith Lockhart. *Seeking a Sanctuary: Seventh-day Adventism and the American Dream*.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1989).

Bulthuis, Kyle T.. "Food for Thought, Food for Action: An Historical Analysis of Latter-day Saint and Seventh-day Adventist Dietary Laws." M.A. diss., Utah State University, 2000.

Castells, Manuel. *The Power of Identit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2010 (1997).

Christianson, Lewis Harrison. *The Fruitage of Spiritual Gifts: The Influence and Guidance of Ellen G. White in the Advent Movement*.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7.

Chryssides, George D.. *Jehovah's Witnesses: Continuity and Change*. London: Routledge, 2016.

Cross, Whitney R.. *The Burned-over District: The Soci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Enthusiastic Religion in Western New York, 1800-1850*.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50.

Daily, Steve. *Adventism for a New Generation*. Portland: Better Living Publishers, 1994 (1992).

Davies, Christie. "Coffee, tea and the ultra-Protestant and Jewish nature of the boundaries of Mormonism." In Douglas J. Davies (ed.), *Mormon Identities in Transition*.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6.

Davies, W. D.. "Reflections on the Mormon Canon." In *The Harvard Theological Review* 79/1 (1986): 44-66.

Daynes, Kathryn M.. "Celestial Marriage (Eternal and Plural)," In Terryl L. Givens and Philip L. Barsow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rm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Dodge, Samuel Alonzo. "A Forced Abstinence: Negotiating Orthodoxy and the Emergence of Mormon Teetotalism." In *Journal of Mormon History* 44/1 (2018): 20-49.

Douglas, Mary.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New York: Routledge, 2001 (1966).

Douglass, Herbert Edgar. *A Fork in the Road: Questions on Doctrine: The Historic Adventist Divide of 1957*. Chicago: Remnant Publications, 2008.

Doukhan, Jacques B.. "Judaism and Advent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HABBAT SHALOM* 51/5 (2004): 17-21.

Dürr, Eveline and Gordon M. Winder. "Garbage at work: Ethics, subjectivation and resistance in Mexico." In Robbie Duschinsky et al. (eds.), *Purity and Danger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Fardon, Richard. "Purity as danger: 'Purity and Danger' revisited at fifty." In Robbie Duschinsky et al. (eds.), *Purity and Danger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23-33.

Ferguson III, J. E. et al.. "The Word of Wisdom in Contemporary American Mormonism: Perceptions and Practice." In *Dialogue: A Journal of Mormon Thought* 51/1 (2018): 39-78.

Fieldhouse, Paul. *Food, feasts, and faith: an encyclopedia of food culture in world religions*. vol.1. Santa Barbara, CA: ABC-CLIO, 2017.

Fraser, Gary E.. *Diet, Life Expectancy, and Chronic Disease: Studies of Seventh-day Adventists and Other Vegetari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Froom, Le Roy Edwin. *Movement of Destin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1.

Graybill, Ron. "The Development of Adventist Thinking on Clean and Unclean Meats." https://whiteestate.org/legacy/issues-clean-uncl-html/

Green, Jennifer. *Death with Dignity*, vol.2. London: Nursing Times, 1993.

Griffith, Marie R.. *Born Again Bodies: Flesh and Spirit in American Christianit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Hall, John R.. "Public Narratives and the Apocalyptic Sect: From Jonestown to Mt. Carmel." In Stuart A. Wright (ed.). *Armageddon in Waco: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Branch Davidian Conflic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Hammond, Earl G.. "Sylvester Graham: America's first food reformer." In *Iowa State Journal of Research* 62/1 (1987): 43-61.

Hasel, Gerhard F.. "The Distinction between Clean and Unclean Animals in Lev 11: Is It still Relevant?" In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2/2 (1991): 91-125.

Haskell, S. N.. *The Bible Training School*, vol.1.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03.

Hayes, Christine E.. *Gentile Impurities and Jewish Identities: Intermarriage and Conversion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Haynes, Carlyle B.. *Our Times and Their Meaning*. Nashville: Southern Publishing Association, 1929.

Hoekema, Anthony A.. *The Four Major Cults: Christian Science, Jehovah's Witnesses, Mormonism,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6 (1963).

Hoffman, Jan and Chris Rucker. *The Seventh-Day Diet: How the "Healthiest People in America" Live Better, Longer, Slimmer And How You Can Too*. New York: Random House, 1991.

Howe, Daniel Walker. "Emergent Mormonism in Context." In Terryl L. Givens and Philip L. Barsow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rm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Iannaccone, Laurence R.. "Progress in the Economics of Religion." In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50/4 (1994): 737-744.

_____. "Sacrifice and Stigma: Reducing Free-riding in Cults, Communes, and Other Collectives." I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2 (1992): 271-291.

Jackson, Andrew. *Mormonism Explained: What Latter-day Saints Teach and Practice*. Wheaton, IL: Crossway Books, 2008.

Jacobi, Abraham. *On Masturbation and Hysteria in Young Children*. New

York: William Wood & Co., 1876.

Johnson, Benton. "Church and Sect Revisited."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0/2 (1971): 124-137.

King, Greg A.. "The Documentary Hypothesis." In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2/1 (2001): 22-30.

Knight, George R.. *A Search for Identity: The Development of Seventh-day Adventist Beliefs*.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2000.

_____. *Millennial Fever and the End of the World*. Boise,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3.

_____. *Organizing for Mission and Growth: The Development of Adventist Church Structure*.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2006.

_____. *William Miller and the Rise of Adventism*.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0.

Knox, Zoe. *Jehovah's Witnesses and the Secular World: From the 1870s to the Present*.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8.

Kraemer, David, *Jewish Eating and Identity Through the Ages*. New York & London: Routledge, 2007.

Lawson, Ronald. "Broadening the Boundaries of Church-Sect Theory: Insights from the Evolution of the Nonschismatic Mission Churches of Seventh-Day Adventism."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1998): 652-672.

_____. "When Immigrants Take over: The Impact of Immigrant Growth on American Seventh-Day Adventism's Trajectory from Sect to Denomination."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8/1 (1999): 83-102.

Lawson, Ronald, and G. Kenneth Xydias. "Reassessing the Size of Mormons, Adventists and Witnesses: using census data to test

the reliability of membership data and accounting for the disparate patterns found." I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62/3 (2020): 413-437.

Lehmann, David. "Rational Choice and the Sociology of Religion." In Bryan S. Turner (ed.). *The New Blackwell Compan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Blackwell Publishing, 2010.

Levterov, Theodore. "Ellen White and Vegetarianism." In Merlin D. Burt (ed.). *Understanding Ellen White: The life and work of the most influential voice in Adventist history*.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5.

Lincoln, Bruce. *Apples and Oranges: Explorations in, on, and with comparis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8.

Martin, Walter R. et al..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59.

McBride, Duane C. et al.. "Health Beliefs, Behavior, Spiritual Growth, and Salvation in a Global Population of Seventh-day Adventists." In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63 (2021): 535-557.

Milgrom, Jacob. *Leviticus 1-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Doubleday, 1991.

_____.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Moon, Jerry & Tim Standish. "Ellen White and Science." In Merlin D. Burt (ed.), *Understanding Ellen White*. Namp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2015.

Moskala, Jiří. "The Laws of Clean and Unclean Animals of Leviticus 11: their Nature, Theology, and Rationale." Ph.D. diss., Andrews University, 1998.

Mumuni, Alhassan G. et al.. "Religious identity, community and

religious minorities' search efforts for religiously sanctioned food: The case of halal food in non-Muslim majority market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018): 586-598.

Mutch, Patricia B.. "Caffeine: A Drug of Educational Concern." In *The Journal of Adventist Education* 48/2 (1985-1986): 19-36.

Nath, Jemál. "'God is a vegetarian': The food, health and bio-spirituality of Hare Krishna, Buddhist and Seventh-Day Adventist devotees." In *Health Sociology Review* 19/3 (2010): 356-368.

Niebuhr, H. Richard. *The Social Sources of Denominationalism*. New York: Henry Holt, 1987 (1929).

Numbers, Roland L. & Jonathan M. Butler (eds.). *The Disappointed: Millerism and Millenarian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Numbers, Ronald L.. *Prophetess of Health: A Study of Ellen G. White*. Grand Rapids, MI: Wm.B.Eerdmans, 2008 (1976).

_____. *The Creationists: From Scientific Creationism to Intelligent Desig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1992).

Olson, Carl. *Indian Asceticism: Power, Violence, and Pla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Ott, Madeleine F.. "Impure Blood: The Menstrual Taboo in the Christian Church During the Thirteenth Century." https://pdxscholar.library.pdx.edu

Parcell, Lisa Mullikin et al.. "Not "merely an advertisement": Purity, trust, and flour, 1880–1930." In *American Journalism* 29/4 (2012): 94-127.

Pearson, Michael. *Millennial Dream and Moral Dilemmas: Seventh-day*

Adventism and contemporary eth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990).

Penton, M. James. *Apocalypse Delayed: The Story of Jehovah's Witness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5 (1985).

Peters, Shawn Francis. "How the Persecution of Jehovah's Witnesses Changed American Law and Religion." In Chris Beneke (eds.), *The Lively Experiment: Religious Toleration in American from Roger Williams to the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5.

Peterson, Paul H.. "An Historical Analysis of the Word of Wisdom." M.A. diss., Brigham Young University, 1972.

Rapport, Jeremy. ""Join Us! Come, Eat!" Vegetarianism in the formative period of the Seventh-day Adventists and the Unity School of Christianity." In Benjamin E. Zeller (eds), *Religion, Food, and Eating in North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4.

Reid, George W.. *A Sound of Trumpets: Americans, Adventists, and Health Reform*.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2.

Robinson, Sara Libby. "Blood Will Tell: Anti-Semitism and Vampires in British Popular Culture, 1875-1914." In *GOLEM: Journal of Religion and Monsters* 3/1 (2009): 16-27.

Rosenblum, Jordan D., *Food and Identity in Early Rabbinic Juda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Rowe, David L.. *God's Strange Work: William Miller and the End of the World*. Grand Rapids, MI: Wm.B.Eerdmans Publishing Co., 2008.

Sábaté, Ruben Sánchez et al.. "Feeding Holy Bodies: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s of a vegetarian diet to Seventh-day Adventist church pioneers." In *HTS Theological Studies* 72/3 (2016): 1-8.

Salesa, Damon Ieremia. *Racial Crossings: Race, Intermarriage, and the Victorian British Empi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Sathyamala, C.. "Meat-eating in India: Whose food, whose politics, and whose rights." In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7/7 (2019): 878–891.

Schoepflin, Rennie B.. "Health and Health Care." In Gary Land (ed.). *The World of Ellen G. White*.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7.

Shprintzen, Adam D.. *The Vegetarian Crusade: the Rise of an American Reform Movement, 1817-1921*.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3.

Singelenberg, Richard. "The Blood Transfusion Taboo of Jehovah's Witnesses: Origin, Development and Function of a Controversial Doctrine." I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1/4 (1990): 515-523.

Smith, Jonathan Z.. *Drudgery Divine: On the Comparison of Early Christianities and the Religions of Late Antiqu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

Spencer, John R.. "A Point of Contention: The Scriptural Basis for the Jehovah's Witnesse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s." In *Christian Bioethics* 8/1 (2002): 63-90.

st. John, H. A.. *Our Banquet: To Nourish Pure Thought Life*. San Francisco: published by the author, 1894.

Stuart, Tristram. *The Bloodless Revolution: A Cultural History of Vegetarianism from 1600 to Modern Times*.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and Company, 2006.

Sumerau, J. Edward et al.. "'Don't push your immorals on me': Encouraging anti-porn advocacy 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Sexualities* 18/1 (2015): 57-79.

Thompson, Brent G.. "Standing between Two Fires: Mormons and Prohibition, 1908-1917." In *Journal of Mormon History* 10 (1983): 35-52.

Tinaz, Nuri. "A social Analysis of Religious Organizations: The Cases of Church, Sect, Denomination, Cult and New Religious Movements (NRMs) and Their Typologies." In *ISAM* (2005): 63-108.

Turner, Bryan S.. *Body and Society: Explorations in Social Theory*.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2008 (1984).

Turner, Victor W..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1974).

Twigg, Julia. "Food for Thought: Purity and Vegetarianism." In *Religion* 9 (1979): 13-35.

VanGemeren, Willem A. (ed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4.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2012.

Vrijhof, Pieter Hendrik et al. (eds.). *Official and Popular Religion: Analysis of a Theme for Religious Studies*. Berlin: De Gruyter, 2019 (1979).

Waite, Albert A. C.. "From Seventh-day Adventism to David Koresh: the British Connection." In *Andrews University Studies* 38/1 (2000): 107-126.

Watts, James W. & Yohan Yoo, "Feeling realms: Cosmology and bodily experiences of purity and pollution." In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

Wearner, Alonzo J.. *Fundamentals of Bible Doctrine*. Takoma Park: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5 (1931).

White, Ellen G., *A Solemn Appeal*.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870.

_____. "Temperance and the License Law." *Review and Herald*. November 8, 1881.

_____. *An Appeal to Mothers*.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864.

_____. *Christian Temperance and Bible Hygiene*. Battle Creek, MI: Good Health, 1890.

_____. *Counsels for the Church*. Nampa,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1 (1957).

_____. *Counsels on Diet and Food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6 (1938).

_____. *Counsels on Health*.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7 (1923).

_____. *Early Writing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45 (1882).

_____. *Education*.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52 (1903).

_____. *Evangelism*.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0 (1946).

_____. *Healthful Living*. Battle Creek, MI: Medical Missionary Board, 1897.

_____. *Last Day Events*. Boise, ID: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92.

_____. *Life Sketches of Ellen G. White*.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5 (1915).

_____. *Medical Ministry*.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63 (1932).

_____. *Patriarchs and Prophet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8 (1890).

_____. *Selected Messages*, vol.3.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80 (1958).

_____. *Sermons and Talks*, vol.1. Silver Spring, MD: Ellen G. White Estate, 1990.

_____. *Spiritual Gifts*, vol.4.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945 (1864).

_____. *Temperance*.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9.

_____.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1.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848.

_____.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2.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868.

_____. *Testimonies for the Church*, vol.5. Battle Creek, MI: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882.

_____. *Testimony Studies on Diet and Foods*. Loma Linda, CA: College of Medical Evangelists, 1926.

_____. *Testimony Treasures*, vol.2.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9.

_____. *The Acts of the Apostle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11.

_____. *The Desire of Age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0 (1898).

_____. *The Ministry of Healing*.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42 (1905).

White, James. "Swine's Flesh, Forbidden in the Word of God." In *Health Reformer* 7/1 (1872): 1-32.

White, Jr., O. Kendall & Daryl White. "Polygamy and Mormon Identity." In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8/2 (2005): 65-77

Wilcox, Milton C.. *Questions and Answers*. Mountain View, CA: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11.

Williams, Rhys. "There's power in the dirt: Impurity, utopianism and radical politics." In Robbie Duschinsky et al. (eds.), *Purity and Danger Now: New Perspectiv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6.

Wilson, Bryan R.. *The Social Dimensions of Sectarianism: Sect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90.

Wonderley, Anthony. *Oneida Utopia: A Community Searching for Human Happiness and Prosper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7.

Yilmaz, Gaye Gökalp. "From a Commodity to an Instrument of Social Interaction: The Sociology of Coffee in the United States." In Carl Boon et al. (eds.), *Food in American Culture and Literature: Places at the Table*.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20.

Yinger, J. Milton. *Religion, society and the individual: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7.

Yoo, Yohan & James W. Watts. *Cosmologies of Pure Realms and the Rhetoric of Pollution*. New York: Routledge, 2021.

Young, Richard A.. *Is God a vegetarian?: Christianity, vegetarianism, and animal rights*. Illinois: Carus Publishing Company, 1999.

Abstract

A Study on Dietary Regulations and Formation of Various Religious Identities in Seventh-day Adventism

—focused on its understanding of body and practice modes based on Purity concept—

Baek, Soongky
Dept. of Religiou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SDA), a new Christian religion that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has a unique dietary regulations based on Purity and Impurity. In other words, while SDA has both the strict dietary laws in Leviticus 11 and the unique food regulation of vegetarianism in Genesis 1. These different conflicting dietary regulations produced different religious identities within the SDA members and at the same time generated hierarchies and religious practices of different groups. This paper requests three theoretical backgrounds to explain this.

The first is the concept of Purity/Clean and Impurity/Unclean

oft-cited in the sociology of religion. In her famous book *Purity and Danger*, Mary Douglas interpreted the notoriously inscrutable dietary laws in Leviticus 11 within Émile Durkheim's sociological scheme, defining Impurity as "matter out of place" and calling it 'risk' for the community. Society secures community order in defining what is clean and what is unclean, and cases that do not fit this definition (classification system) are defined as 'Impurity.' This impurity must be purified or eliminated for the sake of community order and stability.

However, Durkheim and Douglas committed errors of overlooking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forming a religious group at the cost of their excessive emphasis on social order. Yo-han Yoo successfully showed through the indigenous religions on Jeju Island that any different concepts of Purity and Impurity exist and can be changed historically even within a single religious group. He argued that the boundaries of Purity and Impurity are shifted by different cosmologies or myths that serve the various main deities, and that even the concept of Purity and Impurity, which was sometimes likely to be absolute, is compromised or reject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fferent concepts of Purity and Impurity within some SDA religious groups resulted in vegan groups, levitical groups, and flexitarian groups.

The second theoretical background is Manuel Castells' concept of Identity. In his book *The Power of Identity*, Castells suggests three categories of identity: legitimizing identity, resistance identity, and project identity. He reveals that there exists a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ree of them. Among them, the resistance identity, which appears as a counterpart of the legitimizing identity that supports the existing social order(status quo), often progresses to the project

identity. From the viewpoint of SDA Health Theology, the human body is 'the temple of God,' and vegetarianism claimed by its prophetess Ellen White is defined as the task of creating 'a pure body' on earth. As soon as it becomes 'the abode of the Holy Spirit,' the pure body is reborn as 'a holy body.' The holy body is the religious identity of Adventists, by means of which they can cultivate 'the heavenly character' suitable for their salvation. This identity can be summed up as White's eschatological proclamation: "Among those who are waiting for the coming of the Lord, meat eating will eventually be done away; flesh will cease to form a part of their diet." This viewpoint shows resistance identity of religious groups that deny social order and seek desecularization through the nineteenth-century millenarian movement, and the resistance identity shows pious nostalgia toward the heavenly table.

However, in the 20th century, this resistance identity faces a serious crisis. The long-awaited Christ did not come, and the pressure of time accumulated in 'the imminent apocalypse' called for erasing the apocalyptic ethos of vegetarianism and converting it into project identity. In this process, the task of believers who overcome the disobedience of appetite and have a holy body is reduced to a project of health and longevity that has just a pure body, that is, a healthy body, in this world, not in the world to come. From this time on, vegetarianism armed with scientific reductionism is a sign of the excellence of the health theology that SDA has touted, and the New Start sanitariums scattered across the country have become experimental sites to prove this. Instead, the levitical dietary laws have become its new religious identity. This paper historically examined the process of blurring the boundaries of non-meat diet between 1915 and 1957 and pork taboo taking its place through

literature in SDA. Since 1957, swinophobia has become a new boundary for Adventists to secure their religious identity.

The third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 Church-Sect theory. This paper judged that it is easy to understand how the identity of the holy body has undergone changes only by looking at the causes and historical processes of different concepts of Purity and Impurity in the Adventist Church. So, from the diachronic perspective, this paper first looks at the history of the food regulations and follows the process of decolorizing the apocalyptic ethos of vegetarianism. Next, from the synchronic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ed Sect by comparing the concept of Purity and Impurity held by the Latter-day Saints Church(LDS) and Jehovah's Witnesses(JW) with that of SDA. The reason why this paper compares LDS and JW with SDA is that they are all classified as new Christian religions originating from the religious backgrounds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th century, making them appropriate counterparts for SDA in terms of growth curve and group size. This paper considers that LDS abolished the bigamy, which was the core of their religious identity, and replaced it with the Word of Wisdom, and JW attributed the use of blood fraction products, blood components and autotransfusion to personal conscientious decision.

Spirit of Prophecy, a collection of White's presumptive revelations, was a key textbook relied on by the health theology in the past and an immaculate standard recognized by most of the believers. However, after her death in 1915, the levitical dietary laws began to be spotlighted, and it was established as a new doctrine around 1957, when the Adventist Church, which had been a Christian sect, explicitly revealed its attempts to incorporate into mainstream Protestantism. This paper interprets this inflection point, where

vegetarianism is replaced by the levitical dietary law, as a time when SDA is moving from a small sect to a large deno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ypology in sociology of religion. In addition, this shows that food regulations properly function as a valid identity within a particular religious group and are the result of a very reasonable choice from an investment perspective, through Rodney Stark and Lawrence Iannaccone's High-cost Religion theory. The food regulations of the Adventist Church have the function of sacrifice and stigma to define and crack down on church members. Here, the problem of free-riders is a common problem faced by the Adventist Church as well as LDS and JW, and the food regulations of Purity and Impurity can be a valid solution.

In conclusion, the different food regulations have resulted in three religious identities within the Adventist Church. Vegan groups, composed of religious elites, including pastors and leaders, practice "demarcation of piety" by making intact vegetarianism a "holy body" religious identity. They choose the New Start movement and nursing home culture as their ritual and use vegetarian restaurants as pilgrimage sites. On the other hand, the levitical groups,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ordinary laymen in the denomination, are pig-hating people who use pork as the standard for Purity and Impurity. They seek the "healthy diseaseless body" rather than a "holy body," and make levitical clean food their standard of religious identity rather than vegetarianism. On the other hand, the flexitarian groups do not secure their religious identity with food regulations. They are free-riders who suffer from a crisis of identity and discourage fellow believers around them. On the other hand, they define the vegan groups as "perfectionists" and the levitical groups as "legalists" and carry out so-called "politics of body." This paper

places academic significance on the fact that these different religious identities within the SDA Church have a concentric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the Jewish religion claimed by Jacob Milgrom, but not just a fixed bifurcation, but a dynamic conflict.

keywords: Seventh-day Adventists(SDA), Purity and Impurity, identity, dietary regulation, vegetarianism, Leviticu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LDS), Jehovah's Witnesses(JW)

student number: 2004-20047